

한국 전통 사상 총서 · 불교편

정선
詩選
精選詩選集

09



대한불교조계종 韓國傳統思想書 刊行委員會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09

精選詩選集 정선시선집 · 譯註역주

Seon Poetry

Collected Works of Korean Buddhism, vol. 9

역주 ■ 이진오

엮은곳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전화 · 팩스 ■ 02)725-0364 · 02)725-0365

펴낸이 ■ 대한불교조계종

펴낸곳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출판부

등록번호 제 300-2009-5호(2009.1.22)

인쇄일 2009년 10월 15일

발행일 2009년 10월 25일

편집 · 디자인 ■ 아르떼203

인쇄 · 제책 ■ 동화인쇄공사 · (주)가원

ISBN 978-89-962509-9-9 94220

ISBN 978-89-962509-0-6 (세트)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 홈페이지(<http://www.nl.go.kr/cip.php>)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09003065

© 2009 by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Buddhist Thought,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이 “한국전통사상총서” 간행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精選

정선
시선집

09

역주... 이진오 · 노팝돔
김준호 · 원양희



刊行辭 간행사

2000년이 시작되던 몇 년 전, 인류는 21세기를 새 천년 즉 밀레니엄이라 부르며 희망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육이 자행되는 분쟁지역의 비극과 경제위기 등 지구촌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미 세계는 늘 불안정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엄연한 고통의 바다라고 확인시키고 있으니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의 가르침입니다.

이 불안정한 생명의 바다에, 탐욕과 분노와 사건 즉 삼독이 파도치면, 무한으로 연결된 중생계의 고통은 더없이 가중될 것이며, 이에 반하여 탐욕을 치유하는 인내와 절제의 계학(戒學), 분노를 진정시키는 정학(定學), 사건을 정화하는 혜학(慧學) 등 삼학의 활동이 점차 증장될 수 있다면, 인류는 온 생명계를 요익케 하는 제일류(第一流)의 유정(有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5세기 이후 이미 불교공동체인 승가전통과 대승교학의 수승한 요체를 토착화한 이후 선문(禪門)의 정화를 거쳐 현재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수행승가를 통해 정법유산(正法遺産)을 단절 없이 전승하고 있는 귀중한 불연토(佛緣土)입니다.

자원과 영토 그리고 탐욕의 자본과 사건으로 얼룩진 종교분쟁 등, 삼독의





화염이 치연한 지구촌 그 한가운데서, 무명(無明)의 파도를 진정시킬 정
법유산을 전승하고 또 널리 유통하는 일은 실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중을 애호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광대무변한 불법의 교설을 활약한
‘중요’로서 남긴 원효스님의 대자대비행으로부터, 대승의 광장설과 그 실
천규범 등을 널리 유통키 위해 주석 등의 유산을 남긴 동아시아에 빛나는
지성 원측스님과 대각국사 그 외 수많은 선지식들의 활동, 그리고 선문
(禪門)을 중흥시켜, 경계 없는 마음의 영토를 계발시켜준 선사들의 어록
과 행장 등, 우리불교의 전통으로 전승된 귀중한 유산들은 실로 우리 국
민 나아가 인류공익의 위대한 유산들입니다.

이미 수집 출간된 『한국불교전서』 총14책에는 현재 한국고승 등 150여
인에 의해 찬술된 320여 종의 문집이 고전 한문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습
니다. 금번 문집간행불사의 1차 사업은 그 중 대표적인 고승문집 90여 종
을 선별, 국역과 영역을 거쳐 각각 13책씩 총26책으로 출간하여 널리 유통
하는 대작불사입니다.

근대 이후 우리사회는 서세동점에 급속히 포획되어, 전통의 단절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과 대중





들에게 전통의 위대한 유산들은 열리지 않는 보물창고로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은 어떤 생명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모든 생명은 오래된 과거의 기억들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며, 누적된 성찰과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로 이어지는 무한한 연속성을 감득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 기억의 상실은 세계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독해하기 어려운 고전한문의 높은 담 안에 갇혀 있는 정법의 유산들을 대중에게 회향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 빛을 감추어 머금고 있는 한국불교의 전통유산은 한국사회에서만 아니라, 세계인류에게 있어서도 생명계의 의내명주(衣內明珠)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구슬을 꺼내 갖고 닦아 빛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번역간행물사업입니다. 위대한 유산의 전승은 그 인과(因果)를 아울러 수행할 때 원만히 성취될 수 있습니다. 체용(體用)이 상응하고 성상(性相)이 불유(不謬)해야 명실상부할 수 있으니, 모양은 그 쓰임의 결과로 빛나고 쓰임은 모양을 빌어 비로소 충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금번 번역사업은 불교문헌번역의 오래된 전범인 다자번역전통(多者翻譯傳統)을 원칙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삼장전승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삼장은 처음부터 합송(合誦)으로 결집(結集)되고 역장설치(譯場設置)를 통해 번역되는 등 다자가 참여하는 공동작업에 의해 전승되었습니다. 범어삼장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역장에는 범어를 이해하는 자와 한문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외의 역할을 달리하여 협력한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9인의 역관(譯官)으로 구성된





역장에는 범본삼장을 읽고 풀이하는 역주(譯主), 역주의 좌측에서 역주와 함께 그 뜻을 꼼꼼히 살피는 증의(證義), 역주의 우측에 자리하여 문장의 정밀함을 살피는 증문(證文), 출발어인 범문을 자세히 살피는 범학승(梵學僧), 현지어로 받아쓰는 필수(筆受), 번역된 글을 한자문법에 맞게 구문을 구성하는 철문(綴文), 범문과 한문을 대조하여 오류가 없도록 참교(參校)하는 참역(參譯), 산만한 문장을 다듬고 정리하는 간정(刊定), 역주와 마주하여 번역된 문장을 다듬어 아름답게 하는 윤문(潤文) 등이 협력하여 번역하였습니다. 다자들의 합송에 의한 결집으로 전승된 삼장은 다시 이렇듯 다자에 의한 협동으로 번역되어 전승되었고, 한국승가의 강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논강(論講) 또한 이러한 전통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독해와 전통이해 그리고 다양한 불교술어를 번역할 수 있는 연구자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고, 국고지원이 갖는 시간적 한계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한 불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전통의 다자번역 전통이라는 의미 있는 작업까지 아우르는 고난도 작업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간행위 여러분들과 국내외 번역자들 그리고 간행위 사무처 관계자 등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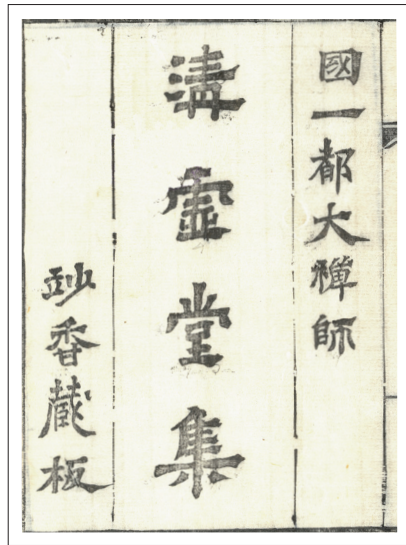
이 불사의 원만회향을 부처님께 기원드리며 간행사에 대신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0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위원장

가산지관 적음





(위쪽)『청허당집』 속표지

(아래 왼쪽)『청허당집』에 실린 청허당 초상

(아래 오른쪽)『청허당집』에 실린 청허당 친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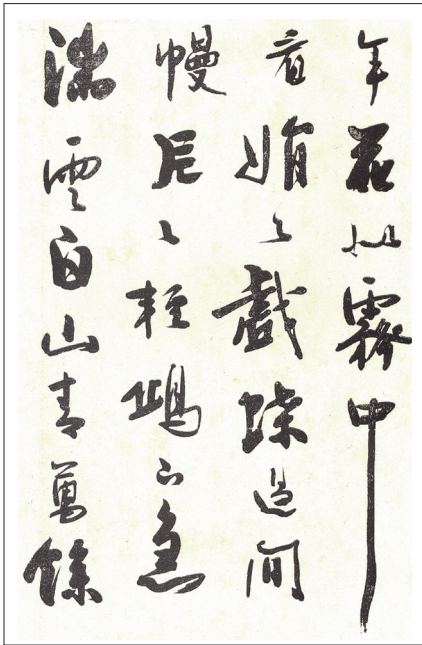




<p>清江雜錄卷之一 三</p>	<p>朝休檀僧</p>	<p>歸山二十載不食一菜衣自說身輕健今年穀夢飛</p>	<p>送支師</p>	<p>今朝相別後消息幾時聞明日秋雲隔斷君不見君</p>	<p>曲池</p>	<p>清潭一面虛山影生明鏡現鳥又現魚飛潛亦不難</p>	<p>送茲庵主出山</p>	<p>一身直道旅萬事皆停雲如見鷗鷺高飛慎勿羣</p>	<p>與朴學士宿漢寺梅花堂 野色連山色天光接水光陶潛興惠遠共八梅花堂</p>	<p>清澗亭</p>	<p>清澗有鍾玉拜拜沈客心秋天不覺暮山月照楓林</p>	<p>玉師第</p>	<p>簾黃風雨老枝亂雪霜集千古傷心事殘花不忍看</p>	<p>紅流洞</p>	<p>東風一吹過花落滿溪紅山出白雲外僧歸夕照中</p>	<p>顧影有感</p>	<p>一別蒼苔後消消歲月潑老見如父面潭底忽驚心</p>	<p>三夢詞</p>	<p>主人夢說客夢說主人今說二夢客亦矣夢中人</p>
----------------------	-------------	-----------------------------	------------	-----------------------------	-----------	-----------------------------	---------------	----------------------------	--	------------	-----------------------------	------------	-----------------------------	------------	-----------------------------	-------------	-----------------------------	------------	----------------------------

<p>一念踏蓮花誰道八千里切成待命終大聖來迎爾</p>	<p>贈行脚禪子</p>	<p>一生行脚漢雙鬢白如絲節短龍還泣舟沉劍亦悲</p>	<p>玄珠遺赤水至寶晦春池何處是慈嶺哀哀碧眼師</p>	<p>贈惟政大師</p>	<p>一隻汝門眼光明照八坡卓如玉秉鉤塵若鏡當臺</p>	<p>雲外擎龍去空中打鳳來通方能救活天地亦塵埃</p>	<p>賽志微求頌</p>	<p>繩蛇初起惑机木又生情若非善醫手誰能刮眼睛</p>	<p>旬箇昇沉路纏綿取捨心適逢秋月下高枕聽寒砧</p>	<p>次李方伯韻別</p>	<p>早脫紅塵網招提獨閉門今逢千里客來破萬雲</p>	<p>出野麟無俟歸巖鶴失群悲菩提此別對月更思君</p>	<p>立春附坡求頌</p>	<p>臘已過三十知非返本真一身無利害千計孰踈親</p>	<p>雲鐵猶歸路困塵未脫人悠悠方入夢鐘鼓報新春</p>	<p>呂洞賓過洞庭圖</p>	<p>卸却人間世青蛇活袖中千峯吹玉笛萬壑噴長風</p>	<p>鐘裏山川小壺中日月空茫茫洞庭遠歸去氣如虹</p>	<p>贈敬禪子</p>
-----------------------------	--------------	-----------------------------	-----------------------------	--------------	-----------------------------	-----------------------------	--------------	-----------------------------	-----------------------------	---------------	----------------------------	-----------------------------	---------------	-----------------------------	-----------------------------	----------------	-----------------------------	-----------------------------	-------------





(위쪽)『경허집』 표지

(왼쪽)『경허집』에 실린 친필시

(아래쪽)『경허집』에 실린 경허당 초상





목차

• 간행사.....	004
• 화보.....	009
• 일러두기.....	014
• 해제.....	015

01. 【大覺國師文集 대각국사문집】	067
02. 【無衣子詩集 무의자시집】	071
03. 【萬德山白蓮社第四代眞靜國師湖山錄 만덕산 백련사제4대 진정국사 호산록】	111
04. 【圓鑑國師歌頌 원감국사가송】	117
05. 【白雲和尚語錄 백운화상어록】	151
06. 【太古和尚語錄 태고화상어록】	165
07. 【懶翁和尚歌頌 나옹화상가송】	189
08. 【涵虛堂得通和尚語錄 함허당득통화상어록】	217
09. 【虛應堂集 허응당집】	227
10. 【淸虛堂集 청허당집】	243
11. 【靜觀集 정관집】	361
12. 【浮休堂大師集 부휴당대사집】	371
13. 【四溟堂大師集 사명당대사집】	389





14. 【青梅集 청매집】	399
15. 【逍遙堂集 소요당집】	407
16. 【鞭羊堂集 편양당집】	419
17. 【翠微大師詩集 취미대사시집】	429
18. 【虛白堂詩集 허백당시집】	435
19. 【白谷集 백곡집】	443
20. 【枕肱集 침굉집】	449
21. 【月峯集 월봉집】	455
22. 【栢庵集 백암집】	461
23. 【月渚堂大師集 월저당대사집】	469
24. 【雪巖亂藁 설암난고】	475
25. 【艸衣詩藁 초의시고】	485
26. 【鏡虛集 경허집】	493

● 찾아보기	499
● 역주자	515
●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517
● 한국전통사상총서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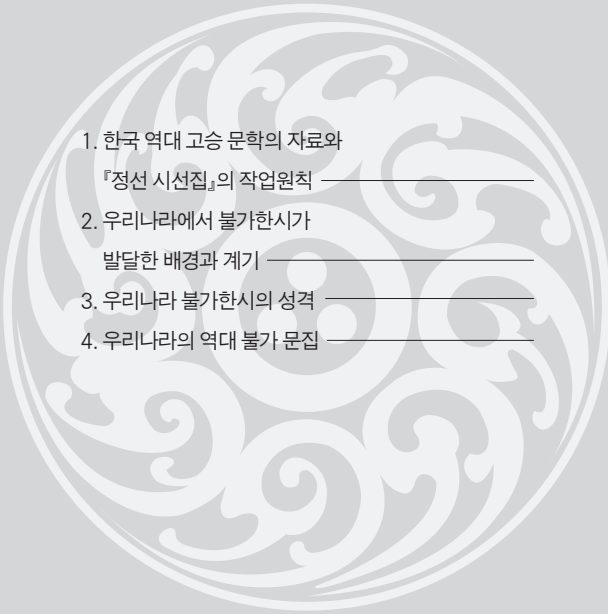
凡例 일러두기

1. 이 책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한국불교 전통사상의 선양·유통을 위하여 기획한 한국전통사상총서 제9권 [시선집편]이다.
2. 이 책의 번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의 번역 지침에 따랐다.
3. 번역의 저본은 『한국불교전서』로 하였으며, 독립된 문집에 실린 작품을 대상으로 선취하였다. 선취의 기준은 수행의 삶과 경지를 잘 담았으면서도 문학적성이 뛰어난 작품을 위주로 하였다. 시기별로는 삼국시대에는 독립된 문집 형태의 출간이 없어 고려시대로부터 조선말기에 이르기까지의 문집이 포함되었다. 불교시가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에 집중적으로 발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시기 작품을 중점적으로 선취하였다. 다만, 조선 후기의 전개 양상도 소개할 필요가 있어 이 시기의 중요한 문집을 골라 선취하였다.
4. 작품의 번역은 최대한 친밀한 일상어를 살리되 영역 작업을 염두에 두어 가능하면 평이하면서 직역에 가깝게 하였다.
5. 원문의 표점은 쉼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큰 따옴표(“ ”) 작은따옴표(‘ ’) 홑낫표(「 」) 등을 사용하였다. 경전이나 저술은 『 』, 품이나 소재목 등은 「 」를 사용하였다.
6. 한자음을 그대로 살릴 경우에는 (), 한자를 번역할 경우에는 []를 사용하였다.





解題 해제

- 
1. 한국 역대 고승 문학의 자료와
『정선 시선집』의 작업원칙 —————
 2. 우리나라에서 불가한시가
발달한 배경과 계기 —————
 3. 우리나라 불가한시의 성격 —————
 4. 우리나라의 역대 불가 문집 —————



1. 한국 역대 고승 문학의 자료와 『정선 시선집』의 작업 원칙

삼국시대에 불교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시가가 창작되어 왔다. 고구려와 백제의 상황은 자료가 전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신라의 경우에는 한시와 향가가 가장 중요한 시가 형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시 창작이 아직 일반화되기 이전이라 한시 작품은 숫자가 많지 않다. 향가의 경우에도 불교의 사유가 깊이 배어든 매우 수준 높은 작품들이 있지만, 현전하는 작품의 숫자가 많지 않다.

고려시대에는 초기에는 향가가 계속 지어졌고, 후기로 오면 선불교가 흥성하면서 수행의 경지와 체험을 한시로 표현하는 방식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태고보우와 나옹혜근은 매우 수준 높은 선시를 풍부하게 창작하였다. 우리말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가사도 이 시기에 나타났다. 가사는 현존하는 자료로 볼 때, 나옹혜근이 최초로 창작한 장르이며, 조선조의 가장 중요한 문학 장르 중의 하나가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기존의 한시 이외에도 경기체가라는 양식이 초기에 잠시 유행하였고, 중기 이후로는 가사 문학이 매우 흥성하였다. 가사문학은 한자를 모르는 대중들을 포교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회심가」와 같은 작품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지금도 불리고 있다. 조선조의 중요한 시가 장르인 시조의 경우, 의외로 불교와의 관련은 매우 약하다. 짧고 간명한 정형성이 불교와 친연성을 가질 만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무관하게 발달하였다.

조선조에는 고려 후기 못지 않게 불가한시(佛家漢詩)가 번성하였다. 웬만한 승려는 문집을 하나쯤 남기는 것이 관례가 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고려조와는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 고려후기의 불가 한시가 선수행의 경지를 나타내는 데 충실했다면, 조선조의 불가한시는 다양한 생활 감정을 토로하는 내용도 많이 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감정의 발로는 조선조의 사회상과 불교계의 위상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불가 한시의 작품은 대부분 문집의 형태로 남아 있다. 현전하는 불가문집은 모두 101종이다. 이것은 조선조가 일제에 병합되는 1910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한 것이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한시집이 나왔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문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었던 조선조까지만으로 시기를 한정하고자 한다.

신라·고려·조선 전 시기를 두고 보았을 때, 고려후기에는 선시문학이 가장 발달하였던 시기라 할 수 있고, 조선조에는 문학적 측면이 더 강화되면서 다양한 생활과 감정이 표출되었다. 특히, 유교가 득세하고 불교를 폄박하면서 불가의 지성들이 유가의 지성들과 약자의 처지에서 교류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다 보니, 불가 고유의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의미가 깊은 표현의 전통을 벗어나서 유가의 현학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으로 경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으로는 문학성이 증대되고, 한편으로는 불가 고유의 색채를 벗어나는 두 경향이 병존했던 셈이다. 이 가운데서 산대사 휴정은 수행의 경지와 문학적 표현을 동시에 잘 살려내었던 승려였다.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는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선승과 조선 전기의 휴정의 작품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작품을 선취하였다. 특히 휴정의 작품은 수행과 문학성이 잘 조화된 작품들이 많아 특별히 비중을 많이 두었다. 하지만, 한국 불가 한시의 전체적인 양상을 알 수 있도록 조선 말기의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승려인 경허성우의 작품까지 두루 포함하여 번역하였다.

번역문을 작성할 때 주석은 가능한 적게 하였다. 주석이 너무 번쇄하면

개념적, 논리적 이해는 자세하고 정확하게 될 수는 있으나 시의 맛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주석을 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간명하고 쉽게 하였다.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영역 작업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난해한 표현을 줄이고 쉬운 일상어를 살리면서 뜻이 분명하도록 번역하였다. 시적 언어에서는 약간의 애매성이 시적 상상력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작용이 있지만, 여기서는 뜻의 명료성에 좀더 중점을 두었다. 그러다 보니 표현이 다소 설명적인 부분도 있다. 몹시 아쉬운 대목이지만 불가피하다.

2. 우리나라에서 불가한시가 발달한 배경과 계기

13세기 초에 혜심(慧諱)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에 선시의 세계가 열렸다. 그 이후 고려말기에 선문학의 꽃을 활짝 피우고 그 여세는 조선조 전 시기를 두고 계속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선시전통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을까?

중국에서는 당나라 이전 6세기 초에 선불교가 발달하였고, 이와 함께 선시도 왕성한 발달을 보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8세기 초에 선불교가 들어온 반면, 선시는 13세기가 되어서야 시작하였다. 중국에서 선시가 왕성하게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를 8세기 정도로 본다면, 선사상이 들어온 것은 중국과 2세기의 차이가 나는 반면 선시는 5세기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중국의 선시가 나타나기 시작한 구체적인 근거는 육조(六祖) 혜능(慧能, 638~713)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혜능이 오조(五祖) 홍인(弘忍)에게서 배울 때 자신의 깨달은 체험을 시로 써서 벽에 붙임으로써 인가를 받은 일이 있다. 그에 앞서서 홍인의 수제자라 일컬어지던 신수(神秀)도 시를 써서 붙였으나 잣 입문한 혜능보다 경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의발(衣鉢)이 혜능에게로 갔다고 한다. 이로 볼 때 이 당시만 해도 수행의 체험을 시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상당히 일반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의 선시문학은 영가대사(永嘉大師)의 「증도가(證道歌)」나 동산(洞山)의 「보경삼매가(寶鏡三昧歌)」 등으로 발달해 갔다. 「증도가」와 같은 글은 모두 1,858자 267구로 되어 있어서 한 구가 대개 7언이고 간혹 6언도 섞여 있다. 이들 구는 용운(用韻)이 매우 정교하고 대구(對句)도 아주 절묘하게 살려서 선의 이치를 잘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대단히 가치 있는 작품이다.

그 외에도 당나라에 최고조로 발달하고 가문별로 다양한 선풍(禪風)을 형성하였던 선의 대가들은 그들의 독특한 가풍을 언어로 자유분방하게 표현하여 술한 선문학을 쏟아놓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백미가 『벽암록(碧巖錄)』이다. 『벽암록』은 처음 설두중현(雪竇重顯)이 1,700공안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00가지를 뽑아 거기에 송고(頌古)를 붙이고 다시 원오극근(圓悟克勤)이 수시(垂示), 착어(着語), 평창(評唱) 등을 덧붙여 만든 책이다. 이 책은 선의 고전일 뿐만 아니라 선문학의 보고이기도 하다.

당나라나 송나라 때는 일반 문인 가운데 불교에 깊은 조예를 가져서 높은 수준의 선문학을 다양하게 개척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뚝한 이가 당(唐)나라의 왕유(王維)와 송(宋)나라의 소식(蘇軾)이다. 특히 당나라 때는 거의 모든 지식인이 다 불교적 소양을 가졌다고 할 만큼 불교 내지는 선이 일세를 풍미하였고, 따라서 일반 문인의 작품에도 선의 세계가 깊이 배

어 있는 경우가 많다.

승속(僧俗) 할 것 없이 불교가 크게 유행하고 시가도 최고조로 발달하던 시기이다 보니 승려 가운데도 시짓기에 아주 능한, 거의 시인이 주업이다시피 한 인물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대표적인 승려작가는 교연(皎然), 관휴(貫休), 영철(靈澈), 제기(齊己) 등이다. 이 중에서도 교연이 가장 출중하였다. 교연은 시도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시식(詩式)』, 『시의(詩議)』, 『시평(詩評)』 등 시비평서까지 내었으며, 『시식』은 후대에 시비평서의 가장 중요한 고전이 될 만큼 많은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사상은 8세기 초에 이미 유입되었으나 선사라고 할 만한 작품은 상당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는다. 모두 교학과 관련되어 있으며, 형식도 문학적으로 세련되지 못하였다. 그 예를 살펴보면, 원효의 「미타증성가(彌陀證性歌)」와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말미의 계송(偈頌), 사복(蛇福)이 모친 장례 때 지은 계송, 의상(義湘)의 「법성계(法性偈)」 정도가 있다. 이들은 교리를 위주로 나타내는 글이어서 문학성이 부족하고, 사복의 모친 장례 때 원효가 지은 작품은 서정적이긴 하나 단 두 구로 이루어져 시로서의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초사(楚辭)나 고시(古詩)의 풍을 지니고 있어서 한시의 원시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한시로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아직 익숙하지 않던 시기였다. 한시보다는 향가에서 불교사상을 더욱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하였으나, 전하는 작품 수가 아주 적다.

고려조에 들어와서 주목할 인물은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이다. 의천은 시와 산문을 합쳐서 상당한 분량의 문집까지 남길 정도로 왕성한 창작을 하였다. 천태종을 크게 일으킨 의천은 한문에도 능통했음을 알 수 있다. 문장가이면서 시인이기도 했던 의천은 불교의 사상과 수행을 시로 표현하기를 즐긴 최초의 승려문학가라고 할 만하다. 그러

나 시에 그다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아닌 듯하며, 작품내용은 선적인 것은 별로 없고 대개 교학적이거나 서정적인 것이다. 의천의 제자에 탄연(坦然)이나 혜소(惠素)와 같은 승려시인이 있어서 세간에 이름이 높았다고 하나 작품이 많이 전하지 않고, 또 선의 세계를 시에 깊이 개입시킨 흔적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선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는 지눌(知訥, 1158~1210)의 제자인 혜심(慧諷, 1178~1234)으로부터이다. 지눌도 선시를 많이 지었을 법하지만 자료적 근거가 없어서 무어라 말을 할 수가 없다. 혜심 이후에는 천인·천책·충지·경한·보우(普愚) 등 일련의 대작가들이 속출하여 선시문학의 황금기를 연출하게 되었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선시를 짓는 풍습이 계속되었다.

고려조에 일반 지식인으로서 선시를 지었다고 할 만한 사람은 이자현(李資玄)과 이규보(李奎報)가 있다. 여말에 이색(李穡)과 같은 인물도 불교에 조예가 깊고 승려와 교유도 많았다고 하나 불교에 아첨한다는 비방에 끊임없이 시달렸고, 전반적으로 당나라와는 달리 일반지식인들이 그렇게 심하게 불교에 경도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배불론이 등장하면서 당대(唐代)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상황을 형성하였다.

그러면, 각각의 나라에서 선시가 일정한 시기에 발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위승사(魏承思)는 당(唐)나라때 선시(禪詩)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¹⁾

첫째, 불경 중의 계송(偈頌)을 선시(禪詩)의 직접적인 연원으로 볼 수 있다. 불경 중의 계송은 원래 일정한 운율과 격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한역되면서 시적 요소가 온전히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중국의 선종이 일어나면서 선사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에

1) 魏承思, 『中國佛教文化論稿』,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1, pp.221~4.

게 그 경지를 전달하고자 시개(詩偈)를 많이 짓게 되는데, 이것이 선시의 맹아가 되었다. 예컨대, 혜능(惠能)의 유명한 ‘시법개(示法偈)’를 들 수 있다.

둘째, 중국에는 『시경(詩經)』과 『초사(楚辭)』, 한위(漢魏) 시대의 고시(古詩) 이래로 시가(詩歌) 전통을 가졌던 것이 선시(禪詩)의 중요한 연원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진(魏晉) 시기의 ‘현언시(玄言詩)’와 선시의 관계는 더욱 밀접하다. 현언시는 현학사상을 기초로 한 것이지만 불교와의 유사성이 있는데다, 차차 불교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선시로 전환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 사영운(謝靈運)의 산수시와 같은 데는 이미 선적인 요소가 상당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왕유(王維)와 같은 전문적인 시인뿐만 아니라, 한산자(寒山子)와 같은 시승(詩僧)들도 그 이전의 시가전통을 충분히 습득한 바탕 위에서 선시를 지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당대(唐代)는 중국시가의 황금기이면서 동시에 중국불교의 전성시대였던 점이 왕성한 선시 창작을 촉진시켰다. 당대는 말할 것도 없이 이백(李白), 두보(杜甫), 왕유 등 기라성같은 대가들이 별같이 많이 나와서 중국 시가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아울러 중국불교가 선·교 할 것 없이 최고조로 발달하였다. 그 중에서도 선종은 눈부실 정도로 발달하여 선종의 틀이 이 시기에 거의 이루어지고, 후대에 거둬 일컬어지는 대선사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 출현하였다. 따라서 세속의 지식인들도 불교, 특히 선불교를 깊이 공부하였고, 승려들도 세속의 시인들과 덩달아 시를 즐겨 지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첫째 불경에 송을 붙이는 전통이 있었다는 점과, 둘째 중국에 오랜 시가의 전통이 있었다는 점과, 셋째 당대에 선불교와 시가가 동시에 최전성기를 맞이하였다는 점이다. 두 가지는 전통적인 요소로, 나머지 한 가지는 당대의 요소로 본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완벽하지는 않겠으나 중국선시 발달의 계기를 상당한 정도 밝혀 준다고 보고, 이를 우리나라에 대입시켜 대비해 보자.

첫째, 불경에 송을 붙이는 전통은 일찍부터 들어온 불교를 통해 익숙한 방식이었다. 창작은 많지 않았으나 불경을 보면서 이러한 방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본 원효의 「미타증성가(彌陀證性歌)」나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말미의 계송(偈頌), 의상(義湘)의 「법성계(法性偈)」, 그리고 균여(均如)가 대중포교를 위해 지었다는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같은 작품도 이러한 유형의 일종으로 보아야겠다. 따라서 경전의 끝에 송을 붙이거나 경전의 내용을 요약하여 시가로 표현하는 방식은 많이 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창작의 경험도 축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시가의 전통은 어떠한가? 우리말 시가는 긴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나, 한시의 전통은 중국에 비해 매우 빈약하였다. 선시가 한시라는 양식을 주로 취하는 점을 고려하면 질적·양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신라시대에는 최치원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나와서 무리를 이루고 맥을 형성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것은 고려 초에도 상황이 비슷하였으며, 고려중기에 가까워지면서 차차 한시 인구가 확산되어 나갔다.

신라시대에는 한시창작이 일반화되지 못한 이유를 과거제도에서 찾을 수도 있다. 과거는 곧 관리등용절차이고, 지식인의 형성은 관리양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라시대의 과거제라고 할 만한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에서 공부한 것은 『좌전(左傳)』, 『예기(禮記)』 등 유가경전이 대부분이고 『시경(詩經)』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문학서로서는 다만 『문선(文選)』이 있었으나 창작이 아니고 해석 위주의 공부였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시를 공부하는 영역이 아주 적었을 뿐만 아니라 창작에는 더

욱 힘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고려 광종 때부터 실시한 과거에서는 시(詩), 부(賦), 책(策), 론(論) 등을 짓는 제술업(製述業)이 경전해석을 시험하는 명경업(明經業)과 독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중시됨으로써 지식인들에게 시를 짓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자 일상적인 일로 바뀌어 갔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서 작시(作詩)를 시험 본 이후에도 한시의 향유층이 광범하게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으므로 한시문학의 활성화는 좀더 기다려야 했다. 그 전에도 훌륭한 승려들이 많았으나 11세기 말경에 와서야 의천과 같이 시를 즐겨 쓰는 승려가 나타난 것도 이러한 맥락과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한시의 형태만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에 한문 자체는 일찍부터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시 향유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은 훨씬 후대의 일로서, 선사상이 들어왔을 때 아직 우리나라에는 자신의 생각과 체험을 한시로 표현하는 방식에 아직 익숙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선시의 발달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중국에 선종이 생겨났을 당시에 이미 뿌리 깊고 다양하고 풍부한 한시작시의 전통을 갖추고 있었던 중국의 상황과는 차이가 많다.

셋째, 선사상과 시가활동의 정도는 어떠하였는가? 선사상은 신라 말에 이미 들어왔으나 일세를 풍미할 만큼 세도가 크지는 못하였다. 선이 크게 일어나 주류를 이룰 정도가 된 것은 고려 지눌 이후의 일이다. 지눌 이후에야 선종이 왕성하게 성장해 나갔다는 점 이외에, 또 한 가지 선시문학이 발달된 계기를 지눌 이후 선종의 사상적 성향과도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다. 지눌과 그의 제자 혜심은 간화선(看話禪)을 정립하였다. 선에서 언어를 ‘불립문자(不立文字)’라 하여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또 동시에 ‘불리문자(不離文字)’라 하여 언어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간화선에서는 언어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언어를 통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의사를 언어로 표현하여 남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언어를 탐구하여 언어를 넘어선 세계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다. 이것이 언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선시를 통해 언어의 적극적인 활용을 꾀했던 사상적·역사적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

한편 시가활동은 우리나라 한문학의 비조라고 하는 최치원 이후 꾸준한 전통이 있어 왔으나 많은 작가가 나타나 백가쟁명식으로 활발하게 발달하였던 것은 고려중기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한시 향유인구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다. 한시문화가 활성화된 시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복잡한 사항이지만, 비평의 출현이 그 활성화를 판단하는 중요한 한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비평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인로(李仁老)의 『파한집(破閑集)』이 나오면서부터 우리나라 한시문학이 본궤도에 올라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조건들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선시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눌 이후 간화선을 위주로 한 선종이 사상계를 주도하고 한시문화도 활성화된 지눌 이후에야 선시가 제대로 나올 수 있었다.

3. 우리나라 불가한시의 성격

1) 선시와 생활시

불가한시는 다른 한시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제재의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불교적 진리를 담는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면 불가한시는 진리만을 표현하는가? 아니다. 진리 외에도 삶을 표현한다. 그 삶은 진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불가한시는 진리와 삶이라는 두 가지 제재를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정리할 수 있다. 진리와 삶이라는 제재가 나타나는 양상은 다음 세 가지의 경우이다.

- ① 진리만 나타나는 경우
- ② 삶만 나타나는 경우
- ③ 진리와 삶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제재의 영역을 가진 불가한시에서 우리가 찾을 가치는 무엇인가? 그 가치를 찾는 데 결정적인 어려움은 진리 자체가 ‘불립문자’, ‘언어도 단’의 세계라는 데 있다. 특히 선(禪)의 진리를 말한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시적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말해 놓은 것을 풀고 설명해 버리면 진리와 이미 멀어지기 때문에 ‘지해(知解)’로써 접근하는 분석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불교, 특히 선의 진리를 표현한 시는 깨달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범부는 선시를 아예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으로 방기해 놓을 것인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범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시를 즐겨 읽고 감상하며, 찬탄을 금치 못한다. 범부에게도 선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인가?

범부는 선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론은 선불교의 독특한 언어관에 기인한다. 시란 것이 언어로 이루어진 것인데, 선은 언어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이심전심(以心傳心)이 선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러면 왜 불립문자라는 말을 쓰는가? 그것은

선의 세계를 지칭할 수 있는 정확한 언어적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기의에 정확히 일치하는 기표가 없다는 뜻이다. 불교 내지 선에서는 기표와 기의의 일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며, 심지어는 기표를 적대시하기까지 한다.

세속의 일반범부는 기의의 세계는 영원히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며, 자신이 아는 것은 기표의 세계일 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이미지만으로 이 세상을 인식할 뿐, 이 세상 그 자체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음흉한 욕망과 편협한 고집에 의해 이 세상을 왜곡시켜 자기 마음대로 이미지를 구성하여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상(相)’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면서 상(相)이 곧 이 세상과 동일하다고 하는 오해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불교수행은 시작되고, 그 상(相)과는 일치하지 않는 존재계의 실상을 체득하는 것으로 수행이 완성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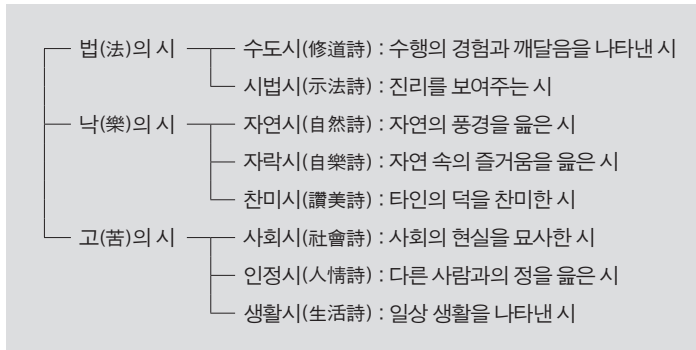
따라서 기표의 불완전성 자체는 해소할 수 없으나 기표와 기의의 괴리는 극복될 수 있다. 존재의 실상을 안다는 것이 곧 기의를 터득한다는 말이고, 이를 달리 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된다.

고민은 기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표를 전연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데에 있다. 뭘 전달하기는 해야겠는데 말로 하자니 틀려지고, 말을 안 하자니 아무런 전달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선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그 방법을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선문답식 초논리적 표현
- ② 고도의 상징 또는 비유적 표현
- ③ 평정(平靜)한 심경(心境)으로 바라보는 대상의 묘사

불가한시는 선시가 전부인가? 의외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선과 시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불가한시의 가장 특징적이고 중심적인 것이 선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불가한시에는 선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이 있다. 진리와 삶이 결합된 형태뿐만 아니라 진리와는 관계 없는, 삶만을 나타낸 시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한 인물의 실례를 통해 승려의 작품세계가 어떤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겠다. 고려후기의 승려 충지(冲止)의 시세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²⁾



위의 분류는 충지라는 한 개인의 시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분류체계이다. 여기서 선시 내지는 진리의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도시, 시법시, 자연시, 자락시에 주로 포함되어 있다.

자연시나 자락시의 경우, 그 성격의 파악에 상당한 애로가 수반된다. 그것이 자연을 빌려 수행의 경지나 도의 오묘한 경지를 나타낸 것인지, 그저 자연을 묘사한 것인지 불분명한 수가 많다. 작가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

2) 다음 글에 상론되어 있다. 졸고, 「원감국사 충지의 시세계」, 『한국불교문학의 연구』, 민족사, 1997, pp.368~408.

움을 묘사했을 뿐인데, 해석자가 온갖 철학적·종교적 의미를 다 갖다붙여서 심오한 작품으로 둔갑시킬 우려가 있다. 진리와 삶이 결합한 형태인지, 진리와는 무관한 삶의 영역일 뿐인 형태인지 모호한 것이 난점이다.³⁾

불가한시에는 수행체험이나 사상 그 자체를 표현한 시도 많지만,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 적용시킨 작품들도 많다. 충지 시의 경우 인정시나 사회시와 같은 부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깊은 인간애라든가, 대중의 삶에 대한 걱정을 나타낸 시들은 사상과 수행이 원숙되어 삶 속에 우리나라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선시라고 하는 작품군과는 성격을 매우 달리한다.

다음 시를 보자. 이것은 청허당이 산을 유람하다 가을의 정경을 보고서 그 감회를 읊은 작품이다.

千山木落後	산마다 나뭇잎 떨어져 버리고
四海月明時	온 세상에 달 밝은 때
蒼蒼天一色	푸르고 푸르러 하늘은 한 색이니
安得辨華夷 ⁴⁾	어찌 중화니 오랑캐니 구분할 수 있으리

이 시는 언뜻 보아서는 전형적인 자연시처럼 보인다. 산이 나오고 나무와 낙엽이 나오고 달이 나오고 하늘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여느 자연시와는 천양지차이다. 제1, 2구는 그냥 자연을 읊은 듯하다. 불교에서 달은 진여(眞如) 내지는 자성(自性)을 상징하는 수가 많으므로 그냥 달이 아니라 진리의 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제3구로 가면 전환이 일어난다. 달이 워낙 밝으니 밤이라도 하늘이 푸르게 보인다. 그런데 그 하늘은 푸르기만 할 뿐

3) 이런 유의 작품은 그 이중성·애매성·모호성(ambiguity)으로 인하여 문학성이 증대한다고도 볼 수 있다.

4) 休靜, 『探密峯』, 『淸虛堂集』 권2.

아니라 온 하늘이 차별 없이 한 빛이다. 불교에서 모든 차별현상을 극복하고 만유의 평등성을 말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속한다. 그런데 이것이 보편원리로서만 제시되지 않고 당시의 구체적인 현실 문제로 적용되고 있는 데에 이 시의 특출함이 있다.

이 시의 마지막 구는 중국의 하늘이나 우리의 하늘이나 푸르기는 한가지인데 어찌해서 화이(華夷)의 차별이 있는가 하고 묻고 있다. 이러한 물음은 단순히 화이의 차별만을 문제삼았다고 할 수는 없다. 화이의 차별이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어져서 그것이 곧 귀천과 그에 따른 온갖 차별을 낳고 있는 현실과 주자학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특히, 불교를 배격하고 승려를 천시하는 차별 구조에 대한 거부감을 포함한다.

불가한시는 항상 수행이 완성된 경지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수행 과정에서 겪는 번민과 고뇌, 의욕 등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불교적 가치관을 현실 속에 펴지 못할 때 얻는 고뇌를 말할 수도 있다.

다음 시는 사명대사(四溟大師)가 죽도(竹島)에 머물 때 한 늙은 유생에게 피력한 자신의 심경이다.

西州受命任家裔	서주(西州)에 명을 받은 임씨(任氏) 가문의 후예로
庭戶堆零苟不容	집안이 영락하여 잠시 몸 둘 곳도 없었네.
無賴生成逃聖世	의지해 살 데가 없어서 세상을 피하여
有懷愚拙臥雲松	어리석음과 못남을 품고서 구름과 소나무에 누웠네.
山河去住七斤納	산과 강을 오가는 데는 일곱 근(斤) 장삼이요
宇宙安危三尺筭	우주의 안위(安危)에는 세 척의 지팡이라.
是我空門本分事	이것이 우리 불가의 본분인데
有何魔障走西東 ⁵⁾	무슨 마귀의 장애가 있어서 동서로 달리는가.

제4행까지에서는 출가한 과정을 말하였다. 이에 의하면 사명대사는 집안이 영락하여 의지해 살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출가한 모양이다. 수행하는 승려는 다만 일곱 근 장삼과 세 척 지팡이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도를 닦아 우주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본분으로 하는데, 수행은 하지 않고 전투하느라, 성을 쌓느라, 외교를 하느라 동으로 서로 내달리니 이것은 틀림없이 마귀가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즉, 유정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불가 승려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스스로 절감하고 있음을 이 시에서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불가한시는 단지 선의 경지만을 나타낸 것이 모두가 아니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며, 현실의 삶 속에서 수행자로서 느끼는 여러 문제의식과 번민도 함께 나타나서 불가한시가 초현실적·초시대적인 이상의 세계만을 표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현실과 시대에 대한 심도 깊은 의식의 표현을 함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교리나 수행의 경지 그 자체를 시로 형상화하는 일도 소중하겠지만, 그 수행의 경지를 일상의 구체성 속에서 시적으로 형상화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선시라고 하는 범주보다 불가한시의 범주는 훨씬 넓고 크다. 그리고 불가한시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여지는 오히려 후자에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수행과 실천이라는 구조가 갖는 성격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가한시를 불교 내적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사 전개에서의 위상과 구실을 파악하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在竹島有一儒老譏山僧不得停息以拙謝之」, 『四溟堂大師集』, 권7.

2) 우리나라 불가한시의 전개 양상

(1)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신라를 제외하고는 별로 남아 있는 자료가 없다. 신라에서는 불가한시가 양적으로 많이 지어지지 않았으며, 사상적인 경향성도 뚜렷하지 않다. 선사상보다는 교학사상이 문학과 관련을 맺고 있다. 앞에서 본 의상, 원효, 태현, 사복의 계승류가 있으며, 삼국시대의 특기할 만한 서정적 불가한시는 혜초(慧超)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의 삽입시이다.

『왕오천축국전』은 여행기의 성격을 띠지만 천축 각국의 인문지리학적인 개관을 위주로 서술이 되어 여행기치고는 문학성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중간 삽입된 시에서 저자의 문학적 감수성이 고도로 발휘되어 나타나며, 5수의 삽입시 자체로써 여행의 전체 노정과 그 심정의 변화를 예민한 감도로 반영하고 있어 『왕오천축국전』은 이 5수의 삽입시에 힘입어 기행문학으로서의 향기와 가치를 획득하고 있다.

신라시대의 계승류는 대체로 진리를 나타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혜초에 의해 그런 단조로움이 크게 탈피될 수 있었다. 원효나 사복에 의해 지어진 작품 같은 경우는 참으로 진솔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향기가 깊이 배어 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양이 많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다.

(2) 고려시대

나말 여초에 선종이 성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선시가 지어졌다는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같은 시기 중국의 당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선시의 전성시대를 한창 구가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 점에 대한 고찰이 앞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문학적 수준으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고려조 불가한시는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활짝 열렸다. 의천은 『대각국사문집』을 통해 수많은 시와 산문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의천은 선과 교를 절충했다는 천태사상의 대가로서 많은 시를 남기고 있으나, 연구가 미진하여 그 시세계가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의천 이후에도 계응(戒應), 혜소(惠素), 탄연(坦然) 등의 승려시인이 이름을 떨쳤으나 작품이 많이 남아 전하지를 않으며, 우리나라의 불가한시는 고려 후기 선종의 흥성과 함께 그 절정을 이루었다. 고려 후기 선종은 보조국사 지눌에 의하여 정립되어 고려가 망할 때까지 위세를 떨쳤다. 지눌의 작품이 상당수 있었다고 예측되나 전하지 않고, 그의 제자인 혜심 이후 충지, 경한, 보우, 혜근 등이 선사문화를 활짝 꽃피웠다. 이들은 선사상과 수행에 지극히 충실한 모습을 보이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선시의 최고 경지를 활달히 전개하였다. 이 중 다소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작가가 충지이다. 충지는 충실한 선승으로서뿐만 아니라, 주위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정을 보이는 모습이나, 원 지배하의 백성의 고통을 절절히 읊는 등의 인간에 내지는 사회의식의 일단을 보여 주기도 하고, 국사(國師)까지 지낸 덕망 높은 승려답지 않게 추위나 더위, 가난 등에 고통스러워하는 진솔한 인간의 모습까지도 거침없이 시화(詩化)하는 독특한 시세계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고려 후기에는 선종 이외에 천태종도 함께 흥성했다. 천태종 승려로서 천인(天因)과 천책(天頌)이 유명하며, 무기(無寄)는 『석가여래행적송(釋迦如來行蹟頌)』이라는 대장편 서사시를 남겨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서사시는 석가여래의 일대기를 서술한 내용으로 스스로 상세한 주까지 덧붙인 점이 특색이며, 당시 수행 풍토에 대한 비판의 내용까지 담고 있어서 흥미롭다.

고려조의 불가한시는 선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면서 최고도의 불교 문학을 꽃피웠으며, 불교라는 요소를 빼고서도 한시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여 일반 문인들의 주목을 받을 정도의 수준을 이루었다. 이들 작품은 진리의 세계를 중점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진리와 삶이 어우러진 조화의 세계를 나타낸 것도 많다. 삶 그 자체만을 그린 작품은 상대적으로 열세이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정치권에 의한 인위적인 선교 양종으로의 통합을 겪으면서 내외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내적으로는 이 통합정책에 의해 자율적이고 다양한 종파별 발전이 봉쇄되어 선 또는 교라는 구도로 단순화되어버린 데다가, 외적으로는 주자학의 강력한 이념적 독재에 의해 교세가 크게 위축될 위기에 처하여 전 불교계가 생존 자체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내실 있는 발전을 기하기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나타낸 이가 함허득통(涵虛得通) 화상이다. 득통은 배불론에 대한 이론적 반론을 제시하면서 문학을 통해서도 자신의 이념과 고민을 두루두루 표출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선과 정토사상을 적절히 융합시키면서 새로운 시대여건 속의 생존전략을 위해 무척 고심하였고, 그러한 고심을 문학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경기체가라는 새로운 형식의 문학을 과감히 동원한 것도 그러한 고민의 깊이를 반영해 주는 부분이다.

그 이후 보우(普雨)에 의해 불교부흥이 도모되고, 보우의 노력에 힘입어 휴정이나 유정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나와 불교와 시대를 함께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것이 불가한시의 새로운 면모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보우(普雨) - 휴정 - 유정에 걸치는 불교부흥의 노력은 성공했다기보다

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휴정·유정당과는 다른 노선을 택한 부휴선수(浮休善修)나 소요태능(逍遙太能) 등은 대외적으로 불교의 위상이나 세력을 개선시키려 하기보다는 내적으로 충실한 수행을 통해 불교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여 그러한 기풍을 통해 조선조 불교는 배불의 역풍 속에서도 착실히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갔다. 서산이나 사명당 역시 탁월한 수행의 경지를 겸비하고 있었기에 그에 힘입어 임란 이후의 조선불교는 배불정책과 축성동원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는 가풍을 소리없이 키워나갔다.

문학의 측면으로 볼 때 조선초기의 배불론에 대한 저항과 고뇌, 또 한편으로는 수행의 경지를 확보하려는 이종의 노력이 시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중기 이후로는 수행의 경지를 지키려는 노력과 득세한 유가와 교섭 속에서 유가의 인정을 받고 유가풍의 한시에 경도되는 부류가 확대되어 나가는 경향이 맞물리면서 불가의 한시도 복잡한 양태를 나타낸다. 조선 전 시기를 통하여 사상적인 저술보다는 문학적인 저술이 우세한 경향을 보여 조선조 불교문학은 고려후기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풍부한 전성시기를 맞이하였다. 교단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생생한 생명력이 문학으로 승화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그래서 조선조에는 80여 종에 이르는 문집이 남아 전한다. 이러한 왕성한 문학활동은 조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되어 지금까지도 불가한시는 계속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전통을 형성하였다.

조선조의 불교는 사상적 저술이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문학을 통한 표현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높은 경지에 이른 승려는 누구나 문집을 하나쯤 남기는 것이 통례가 될 정도가 되었다. 조선조의 불가한문학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단의 주된 표현수단이 문집의 형태이며, 문집에서도 시가 중시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조 불교의 사상적 표현은 시가 그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말이 된다. 거꾸로 말하면, 한시는 조선조 불교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심적인 자료가 된다는 말이다.

한시를 통해 그들의 사상을 표현하고, 그들의 생활을 반영하고, 그들의 고민을 토로해 내었던 것이다. 사상 내지는 수행의 경지에 있어서는 고려 후기와 비교해서 뒤떨어지는 점이 많지만, 반드시 문학에 내포된 수행의 경지가 높을수록 문학성도 높다고만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수행의 경지와는 별도로 삶의 진실이 깊어 있게 배어 있는 작품이 문학성과의 연관성이 더 긴밀하다고 본다면, 조선조 불가한문학은 고려조의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4. 우리나라의 역대 불가문집

1) 한국 불가문집 일람

번호	문집이름	법명	생몰연대	현전여부
1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의천(義天)	1055~1101	○
2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혜심(慧諶)	1178~1234	○
3	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	혜심(慧諶)	1178~1234	○
4	만덕산백련사제2대정명국사후집 (萬德山白蓮社第二代靜明國師後集)	천인(天因)	1205~1248	○
5	만덕산백련사제4대진정국사호산록 (萬德山白蓮社第四代眞靜國師湖山錄)	천책(天頤)	13세기 초	○

6	해동조계제6세원감국사가송 (海東曹溪第六世圓鑑國師歌頌)	충지(冲止)	1226~1292	○
7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尚語錄)	경한(景閑)	1299~1375	○
8	태고화상어록(太古和尚語錄)	보우(普愚)	1301~1382	○
9	나옹화상어록(懶翁和尚語錄)	혜근(惠勤)	1320~1376	○
10	나옹화상가송(懶翁和尚歌頌)	혜근(惠勤)	1320~1376	○
11	함허당득통화상어록(涵虛堂得通和尚語錄)	기화(己和)	1376~1433	○
12	벽송당야로송(碧松堂堊老頌)	지엄(智儼)	1464~1534	○
13	허응당집(虛應堂集)	보우(普雨)	1515~1565	○
14	나암잡저(懶庵雜著)	보우(普雨)	1515~1565	○
15	청허당집(淸虛堂集)	휴정(休靜)	1520~1604	○
16	정관집(靜觀集)	일선(一禪)	1533~1608	○
17	영허집(映虛集)	해일(海日)	1541~1609	○
18	부휴당대사집(浮休堂大師集)	선수(善修)	1543~1615	○
19	사명당대사집(四溟堂大師集)	유정(惟政)	1544~1610	○
20	제월당대사집(霽月堂大師集)	경헌(敬軒)	1544~1633	○
21	청매집(靑梅集)	인오(印悟)	1548~1623	○
22	기암집(奇岩集)	법건(法堅)	선조대(宣祖代)	○
23	운곡집(雲谷集)	충휘(冲徽)	? ~1613	○
24	소요당집(逍遙堂集)	태능(太能)	1562~1649	○
25	중관대사유고(中觀大師遺稿)	해안(海眼)	1567~?	○
26	영월대사문집(詠月大師文集)	청학(淸學)	1570~1654	○
27	편양당집(鞭羊堂集)	언기(彦機)	1581~1644	○
28	취미대사시집(翠微大師詩集)	수초(守初)	1590~1668	○
29	허백당시집(虛白堂詩集)	명조(明照)	1593~1661	○
30	백곡집(白谷集)	처능(處能)	? ~1680	○
31	침필집(枕肱集)	현변(懸辯)	1616~1684	○
32	월봉집(月峰集)	책헌(策憲)	1624~?	○

33	한계집(寒溪集)	현일(玄一)	1630~1716	○
34	백암집(柏庵集)	성충(性聰)	1631~1700	○
35	동계집(東溪集)	경일(敬一)	1636~1695	○
36	애련집(愛蓮集)	신현(信玄)	17C 말(?)	×
37	월저당대사집(月渚堂大師集)	도안(道安)	1638~1715	○
38	풍계집(楓溪集)	명찰(明察)	1640~1708	○
39	백우수필(百愚隨筆)	명안(明眼)	1646~1710	○
40	설암잡저(雪岩雜著)	추봉(秋鵬)	1651~1706	○
41	설암난고(雪岩亂藁)	추봉(秋鵬)	1651~1706	○
42	무용집(無用集)	수연(秀演)	1651~1719	○
43	환성시집(喚醒詩集)	지안(志安)	1664~1729	○
44	무경집(無竟集)	자수(子秀)	1664~1737	○
45	무경실중어록(無竟室中語錄)	자수(子秀)	1664~1737	○
46	회동집(會同集)	?	18C 초(?)	×
47	영해대사시집초(影海大師詩集抄)	약탄(若坦)	1668~1754	○
48	두륜당집(頭輪堂集)	청성(淸性)	18C 초	×
49	허정집(虛靜集)	법종(法宗)	1670~1733	○
50	남악집(南岳集)	태우(泰宇)	? ~1732	○
51	송계대선사문집(松桂大禪師文集)	나식(懶湜)	1684~1765	○
52	상월대사시집(霜月大師詩集)	새봉(璽封)	1687~1767	○
53	천경집(天鏡集)	해원(海源)	1691~1770	○
54	월파집(月波集)	태율(兌律)	1695~?	○
55	용담집(龍潭集)	조관(槀冠)	1700~1762	○
56	풍악당집(楓岳堂集)	보인(普印)	1701~1769	×
57	호은집(好隱集)	유기(有璣)	1707~1785	○
58	무하선사시고(無瑕禪師詩稿)	?	18C(?)	×
59	설담집(雪潭集)	자우(自優)	1709~1770	○
60	야운대선사문집(野雲大禪師文集)	시성(時聖)	1710~1776	○

61	오암집(鰲岩集)	의민(毅旻)	1710~1792	○
62	용암당유고(龍岩堂遺稿)	체조(體照)	1713~1779	○
63	대원대사문집(大圓大師文集)	?	1714~?	○
64	묵암집(默庵集)	최눌(最訥)	1717~1774	○
65	추파집(秋波集)	홍유(泓有)	1718~1774	○
66	월성집(月城集)	비은(費隱)	?~1778	○
67	괄허집(括虛集)	취여(取如)	1720~1789	○
68	진허집(振虛集)	팔관(捌關)	?~1782	○
69	연담대사임하록(蓮潭大師林下錄)	유일(有一)	1720~1799	○
70	몽암대사문집(蒙庵大師文集)	?	18C 말(?)	○
71	충허대사유집(沖虛大師遺集)	지책(旨冊)	1721~1785	○
72	운담임간록(雲潭林間錄)	정일(鼎駟)	1741~1804	×
73	경암집(鏡岩集)	응윤(應允)	1743~1804	○
74	인악집(仁岳集)	의침(義沾)	1746~1796	○
75	삼봉집(三峰集)	지탁(知濯)	1750~1839	○
76	징월대사시집(澄月大師詩集)	정훈(正訓)	1751~1823	○
77	백파집(白坡集)	궁선(巨璇)	1767~1852	×
78	아암집(兒庵集)	혜장(惠藏)	1772~1811	○
79	해봉집(海鵬集)	전령(展翎)	?~1826	○
80	남명시집(南溟詩集)	전령(展翎)	?~1826	×
81	응운공여유망록(應雲空如遺忘錄)	공여(空如)	19C 초	○
82	가산고(伽山藁)	계오(戒悟)	1773~1849	○
83	화곡집(花谷集)	계천(誠天)	19C 초	×
84	초엄유고(草廣遺稿)	복초(復初)	현종·철종 연간	○
85	일지암시고(一枝庵詩稿)	의순(意恂)	1786~1866	○
86	일지암문집(一枝庵文集)	의순(意恂)	1786~1866	○
87	철선소초(鐵船小艸)	혜즙(惠楫)	1791~1858	○
88	역산집(櫟山集)	선영(善影)	1792~1880	○

89	함홍당집(涵弘堂集)	치능(致能)	1805~1878	○
90	범해선사시집(梵海禪師詩集)	각안(覺岸)	1820~1896	○
91	범해선사문집(梵海禪師文集)	각안(覺岸)	1820~1896	○
92	우담임하록(優曇林下錄)	홍기(洪基)	1822~1881	○
93	설두시집(雪竇詩集)	유경(有炯)	1824~1889	×
94	산지록(山志錄)	심여(心如)	1828~1875	○
95	용악당사고집(龍岳堂私藁集)	혜견(慧堅)	1830~1908	○
96	극암집(克庵集)	사성(師誠)	1836~1910	○
97	농묵집(聾默集)	법린(法璘)	1843~1902	○
98	경허집(鏡虛集)	성우(惺牛)	1849~1912	○
99	혼원집(混元集)	세환(世煥)	1853~1889	○
100	의룡집(義龍集)	?	19C 말	○
101	초당집(草堂集)	?	?	○

2) 한국 불가문집 간명 해제

위의 목록에 따라 간단한 해제를 붙인다. 이번 선집에 포함된 작가의 경우 작가에 대한 생애를 좀더 자세하게 다룬다.

1.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은 의천(義天, 1055~1101)의 문집이다. 의천은 고려 11대 왕 문종의 아들로, 11살 때 왕사(王師) 난원(爛圓) 밑에서 승려가 되어 구족계를 받았다.

1084년 중국 송(宋)나라로 들어가 계성사(啓聖寺)에서 유성법사(有誠法師)로부터 화엄·천태 양종의 깊은 뜻을 깨우친 뒤 여러 절을 찾아다니며 불법을 공부하였다. 1086년 귀국하여 교장도감(敎藏都監)을 두고 송·요·일본 등에서 수집해 온 불경·유서(儒書) 등 4,700여 권을 교정·간행했다.

고려의 불교가 교종(敎宗)과 선종(禪宗)으로 갈라져 대립하던 당시에 교선 일치(敎禪一致)를 역설하면서 천태종(天台宗)을 개창하였다. ‘대각국사(大覺國師)’는 시호이다.

『대각국사문집』은 2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대각국사외집(大覺國師外集)』 13권이 있으나 크게는 『대각국사문집』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 둘은 모두 빠진 부분이 많아 전모를 다 알 수 없다. 『대각국사문집』 권1부터 권16까지는 문(文)으로, 여러 양식의 글이 있다. 그리고 권17부터 끝까지는 시(詩)이다. 『대각국사외집』의 권1부터 권9까지는 문이고, 권10·11은 시이며, 권12와 권13은 대각국사의 비명이다.

2.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은 혜심(慧諶, 1178~1234)의 어록이다. 설법류(說法類)가 위주이다. 혜심의 시호가 진각국사(眞覺國師)이다. 혜심은 원래 1201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유학자였으나 출가를 하여 지눌(知訥)의 제자가 되어 선불교를 크게 일으켰다. 특히, 공안을 집대성한 『선문염송(禪門拈頌)』을 편찬하여 간화선의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3. 『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도 혜심의 문집이다. 무의자(無衣子)는 혜심의 호이다. 『무의자시집』은 이름에는 시집이라고 했지만 문도 함께 들어 있다.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이 법어 중심으로 되었다면, 이 책은 시문을 엮은 것이다.

4. 『만덕산백련사제2대정명국사후집(萬德山白蓮社第二代靜明國師後集)』은 천인(天因, 1205~1248)의 문집이다. 제목으로 보아 전집(前集)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집(後集)은 「미타찬게(彌陀贊偈)」와 「법화수품찬게(法華隨品贊偈)」 두 작품만으로 되어 있다.

5. 『만덕산백련사제4대진정국사호산록(萬德山白蓮社第四代眞靜國師湖山錄)』은 천책(天頤, 13세기 초)의 문집이다. 상하 2권으로 되었으며, 상권에는 시(詩), 하권에는 문(文)이 있다.

천책은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인생 무상을 느끼고 만덕산(萬德山) 백련사(白蓮寺)로 출가하여 스승 원묘국사(圓妙國師)의 가르침을 이어 천태종을 크게 일으켰고, 세속의 당대 명사들이 그의 문하에서 대거 배출되었다. 시호는 진정국사(眞靜國師)이다.

6. 『해동조계제6세원감국사가송(海東曹溪第六世圓鑑國師歌頌)』은 충지(沖止, 1226~1292)의 문집이다. 충지는 처음에는 유학을 공부하여 17세에 과거에 합격하여 28세까지 관직 생활을 하다가 원오국사(圓悟國師) 천영(天英) 아래로 출가하였다. 선수행을 주로 하고 지위를 갖기를 극도로 꺼렸으나, 1266년 김해 감로사(甘露寺)의 주지가 되었고, 1286년에는 고려 후기 선종의 중심적인 조직이었던 수선사(修禪社) 제6세를 맡게 되었다.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교계를 이끌었으며, 고난에 찬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었다. 시호는 원감국사(圓鑑國師)이다.

7.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尚語錄)』은 경한(景閑, 1299~1375)의 문집이다.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으며, 상권에는 법어(法語)가, 하권에는 법어(法語)·시(詩)·문(文) 등이 혼재해 있다.

경한은 어려서 출가하여 스승 없이 수행하다가 중국 원나라로 들어가 임제종의 석옥(石屋) 화상으로부터 심법(心法)을 전해 받고 귀국하였다. 간화선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간화선을 넘어서고자 하였으며, 선과 교를 아우르고자 하였다. 호를 백운(白雲)이라 하였으며,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

자책인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8. 『태고화상어록(太古和尚語錄)』은 보우(普愚, 1301~1382)의 문집이다.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으며, 법어와 계송, 문 등이 실려 있다.

보우는 13세에 회암사(檜巖寺) 광지(廣智)에게 출가하였으며, 46세 때에 중국 원나라에 가서 임제종(臨濟宗)의 제18세 석옥(石屋) 화상의 법을 받아 귀국했다. 왕사(王師)로 있으면서 불교계를 이끌었으며, 고려 말기 선종을 일으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고, 그 가르침은 현재 한국의 조계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는 태고(太古)이다.

9. 『나옹화상어록(懶翁和尚語錄)』은 혜근(惠勤, 1320~1376)의 어록이다. 시문(詩文)은 없고 전부 법어류(法語類)만으로 되어 있다.

혜근은 20세에 친구의 죽음을 보고 인생의 무상을 느껴 공덕산 묘적암(妙寂庵)에 있는 요연(了然) 선사를 찾아가 출가하였다. 1348년 중국 원나라 연경(燕京)의 법원사(法源寺)에서 인도 승려 지공(指空)의 가르침을 받았다. 다시 중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수행을 하다가 10년 만에 귀국하여 주로 회암사(檜巖寺)를 중심으로 법을 펼쳤다. 호는 나옹(懶翁)이며, 고려 말기 선종을 일으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10. 『나옹화상가송(懶翁和尚歌頌)』은 혜근(惠勤)의 문집이다. 가(歌)와 송(頌)으로 구분되어 있다.

11. 『함허당득통화상어록(涵虛堂得通和尚語錄)』은 기화(己和, 1376~1433)의 문집이다. 문(文) 29편, 가찬류(歌讚類) 11편, 시(詩) 8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文)'이라고 한 것은 기(記)나 서(書) 등의 산문이 아니고 대

부분 법어류(法語類)이다.

기회는 호(號)를 득통(得通)이라 하였으며, 당호(堂號)⁶⁾를 함허당(涵虛堂)이라 하였다. 성균관(成均館)의 유생으로 활동하다가 21세에 친구의 죽음을 보고 출가하였다. 회암사(檜巖寺) 무학(無學) 대사에게서 법을 배웠다. 여말선초의 왕조교체기를 살면서 조선의 유교 이념에 바탕한 불교배척론에 대한 이론적 반론을 활발하게 제창하였다.

12. 『벽송당야로송(碧松堂埜老頌)』은 지엄(智儼, 1464~1534)의 문집이다. 서발문(序跋文) 등도 없이 단지 18편의 계송(偈頌)만 실린 극히 짤막한 문집이다.

13. 『허응당집(虛應堂集)』은 보우(普雨, 1515~1565)의 문집이다. 상하권 모두 시(詩)로만 되어 있다.

보우는 1530년에 금강산 마하연암(摩訶衍庵)으로 출가하여 그 인근 사찰 등에서 6년간 수행을 하고 하산을 하니 사찰이 파괴되고 승려가 투옥되는 등 불교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여 일단 다시 입산하였다. 그 뒤 1548년,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신임을 얻어 불교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300여 개의 사찰을 나라의 공인(公認) 정찰(淨刹)로 만들었으며, 2년 동안 승려 4,000여 명을 선발하여 승려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를 정립하고, 과거에 승과(僧科)를 두어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 불교의 교세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호는 나암(懶庵)이며, 당호는 허응당(虛應堂)이다.

6) 당호(堂號) : 거처의 건물에 붙이는 이름. 그 건물의 이름으로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14. 『나암잡저(懶庵雜著)』역시 보우(普雨)의 문집이다. 『허응당집(虛應堂集)』이 시(詩)만 모은 데 비해 이것은 문(文)만 모았다.

15. 『청허당집(淸虛堂集)』은 휴정(休靜, 1520~1604)의 문집이다. 휴정의 호는 청허(淸虛), 별호는 서산대사(西山大師)이다. 『청허당집』은 최초에는 1612년 상좌(上佐) 중봉(鍾峰)에 의해 편집·간행되었으며, 후대에 여러 곳에서 여러 번에 걸쳐 재간행되었다. 체제가 비교적 정연한 묘향사본(4권2책)의 경우, 시와 문(文) 그리고 불교이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詩)는 600수 정도 된다.

휴정은 고향이 평안남도 안주(安州)였는데, 8세에 모친을 잃고 10세에는 부친마저 잃은 후 안주 목사(牧使) 이사증의 양자가 되어 서울로 올라가 15세에 과거 시험을 보았으나 낙방하였다. 낙방의 아픔을 안고 남쪽으로 지리산까지 내려와 영관대사(靈觀大師)의 설법을 듣고 불법(佛法)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송인장로(崇仁長老)를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하였다. 그 뒤 도솔산·금강산 등의 여러 사찰을 다니며 수행을 하다가 1549년에 승과에 급제하였고, 대선을 거쳐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가 되었다. 1556년 선교양종판사직이 승려의 본분이 아니라 하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 금강산·두류산·태백산·오대산·묘향산 등을 두루 행각하며 수행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가 도움을 요청하므로 전국의 승려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으나, 본인은 나이가 들어 주로 묘향산에 머물러 있었다. 전쟁이 끝난 몇 년 후 묘향산에서 열반에 들었다.

휴정은 선(禪)의 심법(心法)이라고 하는 초월적 세계의 진리에 바탕해 있으면서도 신비주의나 염세주의로 흐르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당사에서 소외되었던 도가사상이나 우리의 민간신앙과 깊은 관련을 가진 풍수지리

사상 등에도 상당한 조예를 가졌으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신비적인 예언같은 것에 의존하는 것을 비판하고, 경륜과 식견에 의한 통찰과 분석을 중시하는 지성적 면모를 보였다. 성리학에 기반한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평등한 세계를 지향하는 선구적 세계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해양세력의 무자비한 침략행위에 대해 민생의 안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몸소 나서 활약하였다.

휴정은 선과 교를 두루 공부하였고, 그 둘을 회통하려 하였으나 중심은 선에 두었다. 그리하여 선을 중심으로 하면서 교를 아우르는 조선 불교의 전통을 확립하였고, 제자가 천 명에 달하여 조선 불교의 큰 바탕이 되었다. 그의 제자는 1,000여 명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제자는 사명유정(四溟惟政), 편양언기(鞭羊彦機), 소요태능(逍遙太能), 정관일선(靜觀一禪), 현빈인영(玄賓印英), 완당원준(阮堂圓俊), 중관해안(中觀海眼), 청매인오(靑梅印悟), 기암법건(寄巖法堅), 제월경헌(霽月敬軒), 기허영규(騎虛靈圭), 뇌묵처영(雷默處英) 등이다. 이 가운데서 특히 유정, 언기, 태능, 일선은 가장 대표적인 제자로서 휴정 문하의 4대파를 이루었다.

16. 『정관집(靜觀集)』은 일선(一禪, 1533~1608)의 문집이다. 일선의 호가 정관(靜觀)이며, 휴정의 심법(心法)을 이어받았다. 문집의 체제는 시편(詩篇)과 잡저편(雜著篇)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책이다.

일선은 처음에는 법화사상에 심취하여 『법화경』을 수없이 독송하고 책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일에 힘썼으나, 나중에 휴정을 만나면서 선사상을 터득하여 휴정의 4대 문파의 하나를 이루었다. 임진왜란에 승려가 출전하는 모습을 보며 승려로서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깊이 고민하였다.

17. 『영허집(映虛集)』은 해일(海日, 1541~1609)의 문집이다. 해일의 호는

영허(映虛), 당호(堂號)는 보응당(普應堂)으로, 휴정의 법을 이었다. 『영허집』은 1635년에 간행되었으나, 간행처는 알 수 없다.

18. 『부휴당대사집(浮休堂大師集)』은 선수(善修, 1543~1615)의 문집이다. 선수의 호는 부휴(浮休)이며, 휴정과 마찬가지로 부용영관(芙蓉靈觀)의 법을 이었다. 『부휴당대사집』은 5권1책으로, 권1부터 권4까지는 모두 시이고 권5는 문이다.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나 20세에 부모의 허락을 얻어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신명(信明)의 제자가 되었고, 그뒤 부용(芙蓉)의 밑에서 수도하여 마음의 요체를 얻었다. 그 뒤 덕유산, 가야산, 속리산, 금강산 등의 이름있는 사찰에서 더욱 수행정진하다가 서울로 가서 노수신(盧守愼)의 장서를 7년 동안 읽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출전하지 않고 덕유산의 작은 암자에 은신하고 있던 중 왜적을 만났으나 왜적이 감히 해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 뒤 가야산·덕유산·조계산 등으로 다니다가 지리산 칠불암에서 열반에 들었다. 문하에는 700여명의 제자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벽암(碧巖), 뇌정(雷靜), 대가(待價), 송계(松溪), 환적(幻寂), 포허(抱虛), 고한(孤閑) 등이 조선 중기의 불교계 11과 중 7파를 형성하였다. 선수는 당대 최고의 고승이었던 서산대사와 쌍벽을 이루면서 전통적인 격외선(格外禪)을 계승하였다.

19. 『사명당대사집(四溟堂大師集)』은 유정(惟政, 1544~1610)의 문집이다. 『사명당대사집』은 7권1책으로, 1612년 초간본(初刊本)이 나왔으나 인멸되고, 연대가 불확실한 중간본(重刊本)이 현전한다. 본문의 체제는 매우 정연하게 짜여 있다. 권1은 사(辭)와 고시(古詩), 권2는 5언율시, 권3은 7언율시, 권4는 5언절구와 7언절구, 권5는 선계(禪偈), 권6은 잡문(雜文), 권7은 일본에 사신 갔을 때 쓴 잡체시(雜體詩)이다.

유정은 호가 사명당(四溟堂) 또는 송운(松雲), 별호는 종봉(鍾峯)이었으며, 경상남도 밀양 출신이다. 7세를 전후하여 『사략(史略)』을 배우고 13세 때 『맹자(孟子)』를 배웠다. 1558년에 어머니가 죽고, 1559년에 아버지가 죽자 김천 직지사(直指寺)로 출가하여 신묵(信默)의 제자가 되었다. 3년 뒤 승과(僧科)에 합격하자 많은 유생들과 교유하였는데, 당시의 재상인 노수신(盧守愼)으로부터 『노자(老子)』, 『장자(莊子)』, 『열자(列子)』와 시를 배웠다. 그 뒤 직지사의 주지를 지냈으며, 1575년 봉은사(奉恩寺)의 주지로 천거되었으나 사양하고, 묘향산 보현사(普賢寺)의 휴정(休靜)을 찾아가서 선(禪) 공부를 하였다. 이듬해 해인사에 잠시 머물렀고, 다시 휴정의 곁에서 도를 닦았다. 1578년부터 팔공산, 금강산, 청량산, 태백산 등을 다니면서 선을 닦아, 1586년 옥천산 상동암(上東庵)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1590년에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수도하던 중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의 요청과 휴정의 권유에 의하여 왜병의 퇴치에 나서게 되어 수많은 공을 세웠다. 특히 왜병과의 강화 회담에 대표로 나서서 외교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일본에 외교 사절로 파견되어 3천 명의 포로를 데리고 돌아오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 뒤로는 병을 얻어 가야산 해인사에서 요양하다가 1610년, 걸가부좌를 한 채로 입적하였다.

유정은 승려로서 출전하는 데 대한 회한이 많았으며, 늘 수행자의 위치로 돌아가고픈 소망을 시를 통해 토로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의 상소를 통해 국가의 경제정책, 국방정책 등 국력을 기르고 백성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는 등 사회적 지성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승려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안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말았다.

20. 『제월당대사집(霽月堂大師集)』은 경헌(敬軒, 1544~1633)의 문집이다. 경헌의 호는 제월(霽月), 자호(自號)는 허한거사(虛閑居士)로, 원철(圓哲), 현운(玄雲)에게서 경전을 배우고 휴정에게서 심법(心法)을 얻었다. 『제월당대사집』은 2권1책으로, 고려 후기 선어록(禪語錄)의 형태를 비교적 많이 유지하고 있다.

21. 『청매집(青梅集)』은 인오(印悟, 1548~1623)의 문집이다 인오는 호가 청매(青梅)이며, 휴정의 법을 이어받았다. 『청매집』은 2권1책으로, 권상(卷上)에는 옛날 조사(祖師)들의 고사(故事)에 대한 송(頌)이 실렸고, 권하(卷下)에는 시와 문이 있다.

22. 『기암집(奇岩集)』은 법견(法堅)(선조대, 정확한 생몰연도는 미상)의 문집이다. 법견의 호는 기암(奇岩)이며, 휴정의 제자이다. 『기암집』은 3권1책으로, 권1은 시, 권2와 권3은 문이다.

23. 『운곡집(雲谷集)』은 충휘(冲徽, ?~1613)의 문집이다. 충휘의 호는 운곡(雲谷)이며, 정관일선(靜觀一禪)의 법을 이었다. 본문 모두가 시이다.

24. 『소요당집(逍遙堂集)』은 태능(太能, 1562~1649)의 문집이다. 태능의 호는 소요(逍遙)이며, 부휴선수(浮休善修)로부터 경(經)을 배우고 휴정에게서 선(禪)을 배웠다. 『소요당집』은 1권1책으로, 본문은 모두 시이고, 끝에 단1편의 기(記)가 있다.

뛰어난 제자로는 현변(懸辯), 계우(繼愚), 경열(敬悅), 학눌(學訥), 처우(處愚), 천해(天海), 극린(克隣), 광해(廣海)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소요파(逍遙派)로 불리는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25. 『중관대사유고(中觀大師遺稿)』는 해안(海眼, 1567~?)의 문집이다. 해안의 호는 중관(中觀)이며, 휴정의 법을 이어 일파(一派)를 이루었고, 뇌묵당(雷默堂) 처영(處英)에게서도 배운 적이 있다. 『중관대사유고』는 전반부에는 다양한 형식의 시를 두루 갖추었고, 후반부에는 문이 실렸다.

26. 『영월대사문집(詠月大師文集)』은 청학(淸學, 1570~1654)의 문집이다. 청학의 호는 영월(詠月)이며, 휴정의 법을 이었다. 『영월대사문집』은 1권1책으로, 권의 구분이 없고 구성도 정연하지 않다. 첫 부분에는 시가, 중간에는 문이, 끝에 가서는 다시 부(賦), 시(詩) 등이 실렸다.

27. 『편양당집(鞭羊堂集)』은 언기(彦機, 1581~1644)의 문집이다. 언기의 호는 편양(鞭羊)이며, 휴정의 법을 마지막으로 전수받았으면서도 이후 최대의 문벌을 형성하였다. 『편양당집』은 3권1책으로, 1647년 간본(刊本)이 전한다. 권1에는 5언절구, 5언율시, 7언절구, 7언율시 등의 시가, 권2와 권3에는 문이 실렸다.

언기는 11세에 출가하여 휴정(休靜)의 제자인 현빈(玄賓)에게 계(戒)를 받고 금강산에 머물면서 교학(敎學)을 익히는 한편, 참선을 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 묘향산 서산대사의 밑에서 선 공부를 하여 서산대사의 법(法)을 이어 받았다. 그 뒤 어느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남쪽으로 편력하면서 고승들을 찾아 깨달음을 점점받았다. 금강산 천덕사(天德寺), 구룡산 대승사(大乘寺), 묘향산 천수암(天授庵) 등에 머무를 때에는 선과 교를 함께 가르쳐 그 명성을 떨쳤다.

언기는 호를 ‘양을 기르다’는 뜻으로 한 것처럼 중생의 교화를 위해 산속에 머무르지 않고 시정으로 자주 나왔다. 물장수나 숫장수를 하면서 수행을 하고 한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였기 때문에 술한 일화를 남겼다. 묘향산

내원암(內院庵)에서 입적할 때까지 제자가 수백명에 달하였는데, 의심(義謹), 석민(釋敏), 홍변(弘辯), 계진(契眞), 의천(義天), 혜상(惠常), 천신(天信) 등의 제자가 두드러졌다.

28. 『취미대사시집(翠微大師詩集)』은 수초(守初, 1590~1668)의 문집이다. 수초의 호는 취미(翠微)이며, 부휴의 제자 벽암각성(碧岩覺性)에게서 법을 받았다. 서울에서 이름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출가를 하고자 하였으나 형이 허락하지 않자 몰래 설악산으로 들어가 머리를 깎았다. 1606년 지리산에서 당대 최고의 고승인 부휴(浮休)로부터 계(戒)를 받았는데, 부휴는 그가 큰 인물이 될 것을 알고 제자 각성(覺性)에게 특별히 지도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 뒤 여러 고승들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고 서울로 올라가 이름있는 유학자들과 교유하면서 유학에 관한 지식을 넓혔다. 1629년 각성의 법(法)을 이어받고 옥천(玉川) 영축사(靈鷲寺)에 주석하면서 많은 제자를 지도하였다. 대표적 제자로는 성충(性聰), 해활(海闊), 민기(敏機) 등이 있다.

29. 『허백당시집(虛白堂詩集)』은 명조(明照, 1593~1661)의 문집이다. 명조의 호는 허백(虛白)이며, 유정(惟政), 현빈(玄賓), 완허(玩虛) 등에게서 배우고, 유정의 제자인 송월응상(松月應祥)의 법맥을 이었다.

30. 『백곡집(白谷集)』은 처능(處能, ?~1680)의 문집이다. 『백곡집』은 1683년 간본(刊本) 등 여러 이본(異本)이 있고, 제목도 『대각등계백곡집(大覺登階白谷集)』, 『대각등계집(大覺登階集)』 등 일정치 않다.

처능은 호가 백곡(白谷)이며, 12세에 의현(義賢)에게 글을 배우다가 불경을 읽고 그 깊은 이치에 감동하여 출가를 결심하였고, 15세에 승려가 된

뒤 다시 신익성(申翊聖)으로부터 유가 경전과 역사서, 제자백가서, 시문집 등을 공부하였다. 그 뒤 지리산 쌍계사(雙溪寺)의 각성(覺性)을 찾아가 23년 동안 불경과 참선을 익혀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속리산, 청룡산(靑龍山), 성주산(聖住山), 계룡산(鷄龍山) 등지에서 법회(法會)를 열어 후학들을 지도하였으며, 가장 오래 머물렀던 사찰은 대둔사(大菴寺)의 안심암(安心庵)이었다. 현종의 척불정책(斥佛政策)에 대하여 전국 승려를 대표하여 「간폐석교소(諫廢釋教疏)」를 올려 불교의 가치를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다.

31. 『침굉집(枕肱集)』은 현변(懸辯, 1616~1684)의 문집이다. 현변의 호는 침굉(枕肱)이며, 소요태능(逍遙太能)의 법을 이었다. 『침굉집』은 2권1책으로, 끝부분에는 「귀산곡(歸山曲)」, 「태평곡(太平曲)」, 「청학동가(靑鶴洞歌)」 등의 한글 가사(歌辭)가 있어서, 흔히 한문학으로만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문집에 비하여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32. 『월봉집(月峰集)』은 책헌(策憲, 1624~?)의 문집이다. 책헌의 호가 월봉(月峰) 혹은 소연자(昭然子)이며, 취암(翠岩), 각성(覺性), 의심(義謹) 등에게서 배웠다. 『월봉집』은 3권1책으로, 권1은 문, 권2는 시이다.

33. 『한계집(寒溪集)』은 현일(玄一, 1630~1716)의 문집이다. 벽암(碧岩)의 법을 이었으며, 서문에서는 벽암의 문하에 삼교(三敎)에 능통한 이는 백곡(白谷)과 한계(寒溪)뿐이라고 하였다. 『한계집』은 1권1책으로 문은 전혀 없다.

34. 『백암집(栢庵集)』은 성충(性聰, 1631~1700)의 문집이다. 성충의 호는 백암(栢庵)이며, 취미수초(翠微守初)의 법을 이었다. 『백암집』은 2권1책으

로, 권상에는 시가, 권하에는 문이 있는데, 시는 종류의 구분이 없이 편집되었다.

35. 『동계집(東溪集)』은 경일(敬一, 1636~1695)의 문집이다. 경일의 호는 동계(東溪)이다. 벽암(碧岩)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며, 사대부들과의 교유가 많았다.

36. 『애련집(愛蓮集)』은 신현(信玄, 생몰년대 미상)의 문집으로 지금 전하지는 않는다. 「애련집서(愛蓮集序)」가 『백암집(柏庵集)』에 실려 있어서 저자가 성충(性聰)과 비슷한 시대의 인물이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서문에 의하면 이 문집에는 5·7언 58수가 수록되었다고 한다.

37. 『월저당대사집(月渚堂大師集)』은 도안(道安, 1638~1715)의 문집이다. 도안의 호는 월저(月渚)이며, 화엄학(華嚴學)에 밝았고, 편양언기(鞭羊彦機)의 법을 이었다.

38. 『풍계집(楓溪集)』은 명찰(明察, 1640~1708)의 문집이다. 명찰의 호는 풍계(楓溪)이며, 풍담의심(楓潭義謹)의 법을 이었다.

39. 『백우수필(百愚隨筆)』은 명안(明眼, 1646~1710)의 문집이다. 명안은 자(字)가 백우(百愚), 호는 석실(石室) 또는 설암(雪嶺)이며, 청매인오(青梅印梧)의 법손(法孫)인 무영단헌(無影亶憲)의 법을 이었다. 『백우수필』에는 ‘수필(隨筆)’이란 독특한 명칭이 쓰였는데, 이것은 지금 쓰이는 ‘수필’이란 용어와는 성격이 다르다. 여기에는 「발원사(發願詞)」, 「염불가(念佛歌)」, 「사교행위도(四教行位圖)」와 시(詩) 6편, 기(記) 4편, 제문(祭文) 4편의 아

주 적은 양의 글이 실렸다.

40·41. 『설암잡저(雪岩雜著)』와 『설암난고(雪岩亂藁)』는 추봉(秋鵬, 1651~1706)의 문집이다. 추봉은 호가 설암(雪岩)이며, 월저도안(月渚道安)의 법을 받았다. 『설암잡저』는 3권3책으로, 체제의 특징은 시와 문의 구분이 없이 섞여 있다는 점이다. 『설암난고』는 2권1책으로, 권1·2가 다 시이다.

42. 『무용집(無用集)』은 수연(秀演, 1651~1719)의 문집이다. 수연의 호는 무용(無用)이며, 백암성충(栢庵性聰)의 제자이다.

43. 『환성시집(喚醒詩集)』은 지안(志安, 1664~1729)의 문집이다. 지안은 호가 환성(喚醒)이며, 월담설재(月潭雪霽)의 법을 받았다. 『환성시집』은 1권1책으로, 내용은 제목 그대로 모두가 시이다.

44·45. 『무경집(無竟集)』과 『무경실중어록(無竟室中語錄)』은 자수(子秀, 1664~1737)의 문집이다. 자수는 호가 무경(無竟)이며, 추계유문(秋溪有文)한테 법을 얻었다.

46. 『회동집(會同集)』은 1권1책으로, 회동(會同)스님이 썼다고 하나 전하지 않고, 저자가 다만 자수(子秀)와 비슷한 시기의 인물이라는 정도 밖에 알 수가 없다. 『무경집(無竟集)』에 「회동집서(會同集序)」가 있다.

47. 『영해대사시집초(影海大師詩集抄)』는 약탄(若坦, 1668~1754)의 문집이다. 약탄의 호는 영해(影海)이며, 무용수연(無用秀演)에게서 배웠다. 『영해대사시집초』는 1권1책인데, 발문(跋文)에 의하면, 원래 약탄의 문집이 3

권이었으나 시집 1권만 전하는 것을 다시 뽑아서 간행한다고 했다.

48. 『두륜당집(頭輪堂集)』은 청성(淸性, 18세기 초)의 문집이다. 청성은 무용수연(無用秀演)의 제자로, 영해약탄(影海若坦)과 동문(同門)이다. 『동사열전(東師列傳)』에 『두륜당집』 1권이 있다고 하였고, 『범해선사문집(梵海禪師文集)』에는 「두륜당시집서(頭輪堂詩集序)」가 실려 있으나 문집 자체는 전하지 않는다.

49. 『허정집(虛靜集)』은 법종(法宗, 1670~1733)의 문집이다. 법종의 호는 허정(虛靜)이며, 설암추봉(雪岩秋鵬)의 법을 이었다.

50. 『남악집(南岳集)』은 태우(泰宇, ?~1732)의 문집이다. 태우의 호는 남악(南岳)이며, 설암추부(雪岩秋鵬)의 법을 이었다. 『남악집』은 1권1책으로, 내용은 대부분 시이며 약간의 문이 있다.

51. 『송계대선사문집(松桂大禪師文集)』은 나식(懶湜, 1684~1765)의 문집이다. 나식의 호는 송계(松桂) 또는 회암(檜岩)이며, 환성(喚醒)의 적손(嫡孫)인 대암(大庵) 화상(和尚)의 법을 받았다.

52. 『상월대사시집(霜月大師詩集)』은 새봉(璽封, 1687~1767)의 문집이다. 새봉의 호는 상월(霜月)이며, 설암추봉(雪岩秋鵬)의 법을 이었다. 『상월대사시집』은 1권1책으로, 1780년경 간행되었으리라 추정된다. 문집 명칭처럼 모두가 시이다.

53. 『천경집(天鏡集)』은 해원(海源, 1691~1770)의 문집이다. 해원의 자(字)

는 천경(天鏡), 호는 함월(涵月)이며, 환성지안(喚醒志安)의 법을 이었다.

54. 『월파집(月波集)』은 태율(兌律, 1695~?)의 문집이다. 태율의 호는 월파(月波)이다. 자신이 쓴 「월파평생행적(月波平生行蹟)」에서는 환몽굉활(幻夢宏濶)·호암금하(虎岩錦霞) 등 여러 스승에게서 배웠다고 했다. 『월파집』은 1권1책으로, 내용은 거의 다가 시이다.

55. 『용담집(龍潭集)』은 조관(槀冠, 1700~1762)의 문집이다. 조관은 호가 용담(龍潭)이다. 상월새봉(霜月璽封)의 제자이다.

56. 『풍악당집(楓岳堂集)』은 보인(普印, 1701~1769)의 문집이다. 보인의 호가 풍악(楓岳)이며, 호암체정(虎岩體靜)의 법을 이었다. 『풍악당집』은 『고선책보(古鮮冊譜)』에 서명이 들어 있으나, 현전 여부는 불명이다.

57. 『호은집(好隱集)』은 유기(有璣, 1707~1785)의 문집이다. 유기는 호가 호은(好隱) 또는 해봉(海峰)이며 낙암(洛岩)의 법을 이었다.

58. 『무하선사시고(無瑕禪師詩稿)』는 무하(無瑕)의 문집이다. 무하는 부용영관(芙蓉靈觀)의 5세 법손(法孫)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다. 현재 이 문집은 전하지 않고, 다만 그 서문만이 『호은집(好隱集)』에 실려 있다.

59. 『설담집(雪潭集)』은 자우(自優, 1709~1770)의 문집이다. 자우는 호가 설담(雪潭)이며, 모은지훈(暮隱智薰)의 법을 이었다.

60. 『야운대선사문집(野雲大禪師文集)』은 시성(時聖, 1710~1776)의 문집이다. 시성은 호가 야운(野雲)이며, 영월응진(影月應眞)의 법을 이었다.

61. 『오암집(鰲岩集)』은 의민(毅旻, 1710~1792)의 문집이다. 의민의 호가 오암(鰲岩)이며, 계영(桂影)의 법을 이었다.

62. 『용암당유고(龍岩堂遺稿)』는 체조(體照, 1713~1779)의 문집이다. 체조는 호가 용암(龍岩)이며, 일암(日菴)의 법을 이었다. 『용암당유고』는 1권 1책으로, 내용은 대부분이 시이다.

63. 『대원대사문집(大圓大師文集)』은 대원(大圓, 1714~?)의 문집이다. 대원은 호이며, 법명은 미상이다. 일암(日菴)의 제자로 추정된다. 『대원대사문집』은 1권1책으로, 105수의 시와 10편의 문이 있다.

64. 『묵암집(默庵集)』은 최눌(最訥, 1717~1774)의 문집이다. 최눌의 호가 묵암(默庵)이며, 풍암세찰(楓岩世察)의 법을 이었다.

65. 『추파집(秋波集)』은 홍유(泓宥, 1718~1774)의 문집이다. 홍유는 한암성안(寒岩性眼)의 법을 이었다.

66. 『월성집(月城集)』은 비은(費隱, ?~1778)의 문집이다. 비은의 호는 월성(月城)이며, 누구의 법을 이었는지는 미상이다.

67. 『괄허집(括虛集)』은 취여(取如, 1720~1789)의 문집이다. 취여는 호가 괄허(括虛)이며, 환응담숙(喚應曇淑)의 법을 이었다.

68. 『진허집(振虛集)』은 팔관(捌關, ?~1782)의 문집이다. 팔관의 호는 진허(振虛)이며, 자세한 전기는 알 수 없다.

69. 『연담대사임하록(蓮潭大師林下錄)』은 유일(有一, 1720~1799)의 문집이다. 유일은 호가 연담(蓮潭)이며, 호암체정(虎岩體淨) 등 여러 스승에게서 배웠다.

70. 『몽암대사문집(蒙庵大師文集)』은 호를 몽암(蒙庵)이라 하고 법명은 알 수 없는 스님의 문집이다. 문집의 내용으로 보아 유기(有璣)나 유일(有一)과 비슷한 시대의 인물로 추정된다.

71. 『충허대사유집(沖虛大師遺集)』은 지책(旨冊, 1721~1785)의 문집이다. 지책은 호가 충허(沖虛)이며, 쌍운금화(雙運錦華)의 법을 이었다.

72. 『운담임간록(雲潭林間錄)』은 정일(鼎鬲, 1741~1804)의 문집이다. 정일은 호가 운담(雲潭)이며, 설담자우(雪潭自優)의 법을 이었다. 『운담임간록』은 현전 여부가 불확실하다.

73. 『경암집(鏡岩集)』은 응윤(應允, 1743~1804)의 문집이다. 응윤은 처음엔 법명을 관식(慣拭)이라 했고, 호는 경암(鏡岩)이며, 추파홍유(秋波泓宥)와 환암(喚菴) 화상(和尚)에게서 배웠다.

74. 『인악집(仁岳集)』은 의침(義沾, 1746~1796)의 문집이다. 의침은 호가 인악(仁岳)으로, 서악(西岳)·벽봉(碧峰) 등 여러 스승에게서 배웠고, 설파상언(雪坡尙彦)의 법맥을 이었다.

75. 『삼봉집(三峰集)』은 지탁(知濯, 1750~1839)의 문집이다. 지탁은 호가 화악(華嶽) 또는 삼봉(三峰)이며, 한암(漢岩)의 법을 이었다. 내용은 처음에는 여러 명승지와 사찰을 유력하며 보고 느낀 점을 산문과 시로 엮은 글이 있고, 다음에는 시, 후반부에는 문이 있다.

76. 『정월대사시집(澄月大師詩集)』은 정훈(正訓, 1751~1823)의 문집이다. 정훈은 호가 정월(澄月)이며, 설파농암(雪坡叢岩)의 법을 이었다.

77. 『백파집(白坡集)』은 긍선(瓦璇, 1767~1852)의 문집이다. 긍선은 호가 백파(白坡)이며, 설봉선사(雪峰禪師)의 법맥을 이었다. 문집 4권을 남겼다는 기록이 있으나 전하지 않는다.

78. 『아암집(兒庵集)』은 혜장(惠藏, 1772~1811)의 문집이다. 혜장은 자호(自號)가 아암(兒庵)이며, 정암즉원(晶嶽卽圓)의 법을 이었다.

79. 『해봉집(海鵬集)』은 전령(展翎, ?~1826)의 문집이다. 전령은 호는 해봉(海鵬)이며, 묵암최눌(默庵最訥)의 법을 이었다.

80. 『남명시집(南溟詩集)』은 전령(展翎)의 문집이다. 문집 자체는 전해지지 않고, 다만 「남명시집서(南溟詩集序)」만이 나식(懶湜)의 『송계대선사문집(松溪大禪師文集)』에 실려 있다.

81. 『응운공여유망록(應雲空如遺忘錄)』은 공여(空如)의 문집이다. 공여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1842년에 쓴 글이 있고, 김조순(金祖淳, 1765~1831)과 교유하였던 점으로 보아 19세기 전기에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응운공여유망록』은 1권1책의 필사본으로 문 89편이 실려 있다.

82. 『가산고(伽山藁)』는 계오(戒悟, 1773~1849)의 문집이다. 계오는 호가 월하(月荷)이며, 지봉(智峰) 화상(和尚)의 법을 이었다. 『가산고』는 『월하집(月荷集)』이라고도 하며, 4권1책이다.

83. 『화곡집(花谷集)』은 계천(誠天)의 문집이다. 계천은 계오(戒悟)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으며, 호를 화곡(花谷)이라 한 듯하다. 문집은 전하지 않고, 『가산고(伽山藁)』에 「화곡집서(花谷集序)」가 있다.

84. 『초엄유고(草廣遺稿)』는 복초(復初, 현종·철종조)의 문집이다. 복초의 호가 초엄(草廣)이며, 생몰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문집의 서문에 ‘현종과 철종조의 인물’임을 밝혀놓았을 뿐이다.

85·86. 의순(意恂, 1786~1866)의 문집으로 필사본(筆寫本)인 『일지암시고(一枝庵詩稿)』, 『일지암문집(一枝庵文集)』, 그리고 목판본(木板本)인 『초의시고(艸衣詩稿)』가 있다. 그런데 『초의시고』는 『일지암시고』의 전부와 『일지암문집』의 일부를 싣고 있다. 『일지암시고』에는 창작 연대별로 시가 들어 있다.

의순은 1786년 4월 5일 전라북도 무안(務安)에서 태어났다. 16세에 남평(南平) 운흥사(雲興寺)에 있는 벽봉화상(碧峰和尚) 민성(敏性)에게서 머리를 깎았다. 출가하기까지 어떤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어떤 계기로 출가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19세 때 떠오르는 달을 보다가 홀연히 마음 속이 뚫렸다. 그 이후 두루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면서 삼장(三藏)에 달통하였다. 완호윤우(玩虎倫佑)의 법맥을 잇고, 금담(金潭)에게서 선을 전

수받았다.

불가에서 불법을 충실히 익힌 의순은 20대 중반에 들면서 유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유학의 학습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의순은 위대한 시인이자 학자였던 다산과 만나면서 인생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다. 의순은 다산을 만나면서 유학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시도 배웠다. 훗날 의순이 유불을 함께 통달한 대가로서, 그리고 시의 달인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는 데에는 다산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다산에게서 유학과 시를 익힌 의순은 유불을 겸한 지식인으로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는 30세 때 이루어진 여러 유학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순은 30세에 멀리 금강산에 유람하고 서울로 들어가 권돈인(權敦仁), 홍현주(洪顯周), 김정희(金正喜), 신위(申緯), 윤치영(尹致英) 등을 만났다.

40세 이후로는 매우 조용하고 안정적인 과정으로 들어갔다. 대둔사(大菴寺, 지금의 대흥사) 근처에 일지암(一枝庵)을 지어 홀로 지관(止觀)에 힘쓰며 나머지 40년간을 이곳에서만 보냈다. 그 동안 『다신전(茶神傳)』이나 『동다송(東茶頌)』과 같은 차 관련 저술을 하기도 하고,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와 같은 선이론서(禪理論書)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의순은 19세기 초반의 조선 사회에 유교와 불교의 이념적 소통을 주도하였으며, 선과 예술의 소통에도 함께 주력하였다. 이러한 문화소통행위는 이념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이념과 이념 사이의 대립과 분리를 극복하여 종합성과 다양성을 함께 확보하여 문화적 힘과 활력을 얻고자 하는 새로운 문화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문화소통운동에 앞장선 일군의 지성으로 대표적인 인물은 정약용, 김정희, 신위 등이었으며, 이들과 두루 깊이 교류하여 그 소통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의순이었다. 의순은 유교와 불교를

소통시키고 선과 예술을 소통시킴으로써 문화적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심오한 철학과 수행의 세계를 널리 펴고 유교와 불교, 기타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회통시키고 종합시켜 경직된 문화적 현실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87. 『철선소초(鐵船小艸)』는 혜즙(惠楫, 1791~1858)의 문집이다. 혜즙은 호가 철선(鐵船)이며, 수룡(袖龍)의 법을 받았다. 『철선소초』는 1권1책으로, 1875년에 서문이 쓰여진 필사본이 전한다.

88. 『역산집(櫟山集)』은 선영(善影, 1792~1880)의 문집이다. 선영은 호가 영허(映虛) 또는 역산(櫟山)이며, 인봉덕준(仁峰德俊)의 심법(心法)을 이었다.

89. 『함홍당집(涵弘堂集)』은 치능(致能, 1805~1878)의 문집이다. 치능은 당호(堂號)가 함홍당(涵弘堂)이며, 송암의탄(松庵義坦)의 법을 이었다.

90·91. 『범해선사유고(梵海禪師遺稿)』는 각안(覺岸, 1820~1896)의 문집이다. 각안은 호가 범해(梵海)이며, 호의여오(縞衣如悟)의 법을 이었다. 『범해선사유고』는 『문집(文集)』과 『시집(詩集)』 각 1책으로 분리되어 있다.

92. 『우담임하록(優曇林下錄)』은 홍기(洪基, 1822~1881)의 문집이다. 홍기는 호가 우담(優曇)이며, 연월(蓮月) 선사(禪師)의 법을 이었다. 내용은 모두 문이다.

93. 『설두시집(雪竇詩集)』은 유경(有炯, 1824~1889)의 문집이다. 유경은 호가 설두(雪竇)이며, 백암도원(白岩道圓)의 법을 이었다. 『설두시집』은

『동사열전(東師列傳)』의 「설두강백전(雪竇講伯傳)」에 언급되어 있으나, 전하지 않는다.

94. 『산지록(山志錄)』은 심여(心如, 1828~1875)의 문집이다. 1권1책이며, 시 6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95. 『용악당사고집(龍岳堂私藁集)』은 혜견(慧堅, 1830~1908)의 문집이다. 혜견은 호가 용악(龍岳)이다. 『용악당사고집』은 1권1책으로, 시 224편과 문 15편이 실려 있다.

96. 『극암집(克庵集)』은 사성(師誠, 1836~1910)의 문집이다. 사성은 호가 극암(克庵)이며, 하은(霞隱)의 법을 이었다. 『극암집』은 3권1책으로, 간기는 없으나 1911년 이후에 목판으로 간행되었고, 편집은 저자의 생존시에 이루어졌다.

97. 『농묵집(壘默集)』은 법린(法璘, 1843~1902)의 문집이다. 법린은 호가 화담(華曇)이며, 당호(堂號)가 농묵(壘默)이다. 『농묵집』은 1권1책으로, 시 55편과 문 4편이 있다.

98. 『경허집(鏡虛集)』은 성우(惺牛, 1849~1912)의 문집이다. 성우의 호는 경허(鏡虛)이며, 용암(龍岩)의 법을 이었다.

성우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해에 아버지가 죽었으며, 9세 때 과천의 청계사(淸溪寺)로 출가하였다. 계허(桂虛)의 밑에서 물 길고 나무하는 일로 5년을 보냈다. 1862년 여름부터 마을의 선비에게서 한학(漢學)을 배우기 시작하여 사서삼경과 기초적인 불교경론(佛敎經論)을 익혔

다. 그 뒤 계룡산 동학사의 만화(萬化) 강백(講伯) 밑에서 불교경론을 배웠으며, 9년 동안 그는 여러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유교 경전과 제자백가서를 모두 섭렵하였다. 1871년 동학사의 강사로 추대되었다. 그러다가 돌림병이 유행하고 있던 마을을 지나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에 용맹정진을 하여 석 달 만에 깨우침을 얻었다. 이후 술도 마시고 여자도 가까이 하는 등 기행을 서슴치 않으면서도 만공(滿空), 혜월(慧月), 수월(水月)과 같은 탁월한 제자를 길러 근대 한국 불교가 크게 일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말년에는 환속을 하여 서당의 훈장이 되어 글을 가르치다가 입적하는 등 특이한 면모를 보였다.

99. 『혼원집(混元集)』은 세환(世煥, 1853~1889)의 문집이다. 세환은 호가 혼원(混元)이며, 극암사성(克庵師誠)의 법을 이었다. 『혼원집』은 2권1책으로, 시는 없고 17편의 문만 있다.

100. 『의룡집(義龍集)』은 저자를 알 수 없다. 1895년에 쓴 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말의 인물로 추정되며, 범어사와 관련된 글이 많다.

101. 『초당집(草堂集)』의 저자에 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이 문집에는 저자에 관한 사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으며, 시는 없고 문만 16편 있다.



義天 의천

【大覺國師文集 대각국사문집】



偶書自省

스스로 반성하는 글

亡羊只爲路多岐
喪道從來語有枝
精義入神方領會
悠悠爭得析群疑

길이 많아 양을 잃고
말이 많아 길을 잃은 것.
입신의 경지에 들어야만 알지니
어떻게 해야 술한 의문 풀 수 있을지.

揔明院

총명원

揔明深院無塵處
重疊山川一樣清
中有高僧眉半雪
尋常忘却世間情

티끌 없는 깊은 곳의 총명원
겹겹의 산과 물 한결같이 맑구나.
반은 희어진 고승의 눈썹
세간의 정일랑 아예 잊고 사시네.

和國原公秋日宿山寺

국원공(國原公)¹⁾의 「가을날 산사에서 자며」에 답함

群動岑然夜轉清
愛閑高枕適頤生
松窓冷淡孤燈影
風砌蕭疎落葉聲
繞檻林泉供雅趣

모든 움직임 그치니 밤 더욱 맑은데
한가로이 베개 베고 삶을 즐기네.
서늘한 소나무 창문 아래 외로운 등불
바람 부는 섬돌에 스산한 낙엽 소리.
난간 곁 숲과 샘의 아름다운 모습

1) 국원공(國原公): 고려 13대 왕 선종(宣宗, 1049~1094)이 왕위에 즉위하기 전에 받은 칭호. 그는 대각국사가 중국에서 공부하고 여러 경전과 문헌을 갖고 돌아왔을 때 대대적으로 환영하였고, 대각국사의 활동을 열렬히 도와주는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

狎門猿鳥伴幽情
遊來已入紅蓮社
世上榮華一芥輕

문 앞에 새는 정답게 날아다니네.
이리 저리 다니다 보니 어느 덧 홍련사(紅蓮社)
세상의 영화란 지푸라기 하나처럼 가벼울 뿐이라.

留題洪法院

홍법원(洪法院)에서

古院無塵枕碧山
雙扉開閉白雲間
一瓶一錫爲生計
年去年來也等閒

티끌조차 없는 옛 절이 푸른 산을 베고 누워
흰 구름 사이에서 두 사립문 여닫히네.
물병 하나 지팡이 하나면 살기에 족하거니
한 해가 가든 오든 무슨 상관하리오?

自誠

스스로 경계함

悠悠無定志
不肯惜陰光
雖曰攻經論
寧知目面牆

정한 뜻도 없이 유유자적하며
시간을 아낄 줄도 모르니
경론을 공부한다고 말은 하지만
눈이 담장을 마주하고 있음을 어찌 알리오?



慧湛 혜심

【無衣子詩集 무의자시집】



爲鎭兵作偈告衆

적병을 물리치기 위해 계송을 지어 대중에게 알림¹⁾

各曾初發菩提心	각자가 처음에 발하였던 보리심
不爲一身求獨脫	일신만의 해탈을 위해서는 아니되네.
方今千戈日競起	이제 전쟁이 날로 드세어지니
四海人民苦相殺	세상의 인민들이 서로 죽이느라 애쓰네.
藏頭穩坐愛自便	머리를 움츠리고 편안히 앉아 자신을 보존한다면
有智無悲豈菩薩	지혜만 있고 자비는 없는 것이니 어찌 보살이리오.
敢請菴誠力鎭兵	감히 청하노니 작은 정성으로나마 적병을 물리쳐서
愛君憂國心如渴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기를 목마른 듯 하소서.

贈仙巖訓長老

선암사(仙巖寺)²⁾의 훈(訓)장로에게

十餘年在比隣住	십여 년 동안이나 이웃으로 있으면서
聞有仙巖未暫尋	선암사 말만 듣고 찾아보질 못했네.
今與杖俱初入洞	이제 지팡이 짚고서 처음으로 골짜기에 들어서보니
境兼人好可開心	땅도 사람도 좋아 마음이 열리네.

-
- 1) 혜심이 입적하기 3년 전인 1231년부터 몽골의 침입이 시작되었다. 이 작품은 이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거의 말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2) 선암사(仙巖寺) : 542년(신라 진평왕 3)에 아도(阿度) 화상이 비로암이란 이름으로 처음 창건했으며, 875년(현강왕 1)에 도선(道詵) 국사가 선암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창건했다고 한다. 1092년(고려 선종 9)에 대각국사 의천(義天)이 크게 중창하였고, 현재 대각국사 진영이 여기에 남아 있다.

天涯列岫排屏簇

하늘 끝에 늘어선 봉우리 촘촘하여 병풍을 이루었고

門外清溪鼓瑟琴

문 밖에 맑은 시냇물은 거문고를 타는 듯.

靈塔一雙成對偶

신령스런 한 쌍의 탑은 짝을 이루었고

眞僧五百作叢林

참된 스님 오백 분은 작은 숲을 이루었네.

示栖白上座

서백(栖白) 상좌(上座)³⁾에게 보임

眞源一了便心休

참된 근원을 깨치면 마음이 쉬어나니

不得還依有佛求

부처님에 의지하여 구하지 않아도 되지.

純一始爲無學道

순일한 마음이 곧 더 배울 것 없는 경지이니

亂心麤過莫悠悠

어지러운 마음으로 마구 내달려서는 아니되네.

聞辨禪師訃

변(辨) 선사(禪師)의 부음을 듣고

來時先我來

올 때도 나보다 먼저 오시더니

去時先我去

갈 때도 나보다 먼저 가시네.

珍重辨師兄

소중한 사형이시여,

冥冥獨遐舉

아득히 먼 곳으로 가시었구료.

而我豈久存

난들 어찌 오래 머무리오?

浮生如逆旅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뜬구름같은 인생인데.

返觀去住蹤

머물렀던 자취를 살펴보니

不得絲毫許

털끝만큼도 찾을 수가 없구료.

3) 상좌(上座) : 절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주지나 수행의 덕이 높은 스님이 앉는 상석의 자리. 곧 지위나 수행이 높은 스님을 일컫는 말이다.

芭蕉

파초

心抽綠蠟燭無烟

가운데서 솟아나온 푸른 밀랍은 연기 없는
촛불이요

葉展藍衫袖欲舞

잎은 푸른 장삼처럼 펼치니 소매는 춤이라도
추려는 듯.

此是詩人醉眼看

이것은 시인의 취한 눈으로 보는 것이니

不如還我芭蕉樹

나에게 파초 그대로를 돌려줄만 못하리.

次錦城慶司祿從一至十韻

금성(錦城)⁴⁾ 경(慶) 사록(司祿)⁵⁾이 지은 시의 운에 맞추어

人

사람들아

人

사람들아

隨業

업에 따라

受身

몸을 받네.

苦樂果

고통과 즐거움의 결과는

善惡因

선과 악의 원인에 의한 것이니

不循邪妄

사악하고 망녕된 것을 따르지 말고

常行正眞

늘 바르고 참된 것을 행하시오.

糝糠兮富貴

부귀는 쪽정리와 같고

甲冑兮義仁

인의를 갑옷과 같나니

沉須參玄得旨

모름지기 깊은 진리 터득하면

自然換骨清神

저절로 뼈대가 바뀌고 마음이 맑아지리라.

4) 금성(錦城) : 전라남도 나주의 옛 지명.

5) 사록(司祿) : 관리의 녹봉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직.

體不是火風地水	몸뚱이란 지수화풍과 같은 물질이 아니요
心亦非緣慮客塵	마음 또한 대상따라 일어나는 번뇌가 아니로다.
沒縫塔中燈燃不夜	다듬은 흔적 없는 사리탑엔 등불 밝혀 밤이 없고
無根樹上花發恒春	뿌리 없는 나무엔 꽃이 피어 항상 봄이리라.
風磨月白兮誰病誰藥	바람이 스치어 희어진 달빛은 누구에게 병을 주고 누구에게 약을 주며
雲合青山也何舊何新	구름이 청산과 만나니 어느 것이 옛것이고 어느 것이 새것인가?
一道通方爲聖賢之所履	두루 통하는 하나의 길은 성현이 밟았던 길이며
千車共轍故古今而同道	수많은 수레가 함께 다녔던 까닭에 예나 지금이나 같은 길이라.

盆池

조그만 연못

盆池陷在竹邊	조그만 연못이 대숲에 둘러싸여 있어
鏡匣常開目前	작은 거울이 눈 앞에 늘 열려 있네.
倒卓千竿碧玉	천 줄기 푸른 옥이 거꾸로 솟아 있어
圓涵萬里青天	저 멀리 푸른 하늘을 두루 머금었네.

謝文先輩移竹

문(文) 선배가 대나무를 옮겨준 것에 감사하며

多謝文夫子	문선생께 무척 감사하노니
移來竹數莖	대나무 몇 줄기를 옮겨오셨네.

眼前消暑氣
窓外助風聲
薄暮和烟碧
清霄漏月明
更憐寒雨裡
葉葉泣珠成

눈 앞에선 더운 열기 사라지고
창 너머론 바람 소리 북돋우네.
저녁 무렵엔 안개에 젖어 푸르고
맑은 밤엔 달빛 스미어 밝도다.
더욱 어여쁜 것은 차가운 비 내릴 적에
있마다 눈물 같은 구슬이 맺히는 모습.

送僧

스님을 전송하며

出家須自在
幾個透重關
獨步遊方外
高懷傲世間
片雲身快活
霽月性清閑
一鉢一殘衲
鳥飛千萬山

출가하면 자유자재해야 하나니
몇 개의 관문을 통과하셨나.
홀로 방외의 세계에 노닐며
고결한 생각 세속을 벗어났네.
조각 구름처럼 몸은 쾌활하고
구름 걷힌 달처럼 성품은 맑고 한가로와라.
발우 하나에 남은 누더기 하나
수많은 산으로 새 한 마리 날아가누나.

碁詞腦歌

기사뇌가⁶⁾

君看憂喜鳥
高在碧山嶠

그대는 우희조⁷⁾를 보았는가?
푸른 산 높은 곳에 산다오.

6) 기사뇌가(碁詞腦歌) : ‘사뇌가’는 향가의 원래 명칭, 혹은 10구체 향가를 특별히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인다. 이 제목에서 쓰인 ‘사뇌가’도 이 시가 원래 향가였던 것을 한역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聞世可笑事
放聲時一笑
偶隨貪肉鷗
聚落遠遊嬉
忽爾入羅網
出身無可期
心生須托境
窮谷宜棲遲

세상에 우스운 일 들으면
한바탕 크게 웃어버리지.
우연히 고기를 탐하는 술개를 따라서
마을까지 멀리 나들이 왔다가
문득 그물에 걸리어서
빠져나갈 기약이 없게 되었지.
마음이 생기는 것은 경계에 이끌린 탓
깊은 계곡에 그냥 편안히 지내는 것이 좋았을 것을.

天照上座因雨請頌

천조(天照) 상좌(上座)가 비소리를 듣고 송을 청하기에

簷頭雨滴滴相續
門外溪聲聲轉急
不在多聞苦修習
只求一處成休復

처마 끝에서는 빗방울소리 계속 이어지고
문 밖에선 시냇물소리 갈수록 빨라지네.
많이 배우고 힘들게 수행하기보다는
오직 한 곳에서 찾아 본래 자기로 돌아감이 나으리.

知足樂

만족을 아는 즐거움

浮雲富貴奈吾何
隨分生涯亦自佳
但不愁來何必酒
得安心處便爲家

뜬구름 같은 부귀가 나를 어찌하리오
분수에 따른 생애를 또한 스스로 아름답게 여기네.
근심이 오지도 않는데 술이 무슨 필요 있을까?
마음을 편히 하는 그곳이 바로 내 집이로세.

7) 우희조(憂喜鳥) : ‘근심과 기쁨의 새’라는 뜻으로, 실재하는 새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 설정한 새인 듯함.

更漏子

秋風急
 秋霜苦
 歲月看
 看向暮
 群木落
 四山黃葉
 松筠獨蒼蒼
 人間世能幾歲
 忽忽光陰電逝
 須猛省細思量
 無來一夢場

물시계

가을 바람 드세지니
 가을 서리 매섭구나.
 세월을 살펴보니
 점차 저물어감이 보이네.
 못 나무들은 낙엽지고
 사방의 산은 누런 잎으로 뒤덮혔네.
 소나무 대나무는 홀로 푸르건만
 인간은 능히 얼마를 살겠는가?
 홀연히 시간은 번개처럼 흘러가네.
 모름지기 맹렬히 살피고 자세히 생각해야만
 한 바탕 꿈을 다시는 꾸지 않으리.

息心偈

行年忽忽急如流
 老色看看日上頭
 只此一身非我有
 休休身外更何求

마음을 쉬는 계송

가는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빠르기만 한데
 늙은 빛은 나날이 머리 위로 올라오네.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거늘
 그만 두자, 몸 밖에서 또 무엇을 구하리.

池上偶吟

微風引松籟
 肅肅清且哀
 皎月落心波

연못 위에서 우연히

솔잎에 미풍 불어 소리가 나니
 쓸쓸하여 맑으면서 구슬프네.
 밝은 달빛이 마음의 물결에 떨어지니

澄澄淨無埃
見聞殊爽快
嘯咏獨徘徊
興盡却靜坐
心寒如死灰

맑고 맑아 티끌 하나 없구나.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자못 상쾌하기만 하여
시구 읊으며 홀로 배회하네.
흥취가 다하여 문득 고요히 앉으니
마음은 식은 재처럼 싸늘해지네.

信宿慈悲寺逸庵

이틀 동안 자비사(慈悲寺) 일암(逸庵)에 자면서

夜樓窓外掛孤輪
睡罷欣欣得舊隣
賴有早鷄報聲曉
免教胡蝶夢酣春
竹君飽月冷相對
松叟吟風淡以親
只此見聞殊不俗
淒然爽氣一通身

밤 누각 창 밖에 외로운 달 걸리니
잠에서 깨어 옛 이웃을 만난 듯 반가웁네.
부지런한 닭이 새벽을 알려주는 소리 덕분에
나비되어 봄을 즐기던 꿈에서 깨어났네.⁸⁾
대나무는 달을 안은 채 차갑게 마주 서 있고
소나무는 바람에 소리 내어 친구처럼 맑구나.
다만 이처럼 보고 듣는 것이 세속과는 워낙 다르니
상쾌한 기운이 싸늘하게 온 몸을 감싸네.

福城道中

복성(福城)⁹⁾으로 가는 도중에

漫漫客路傍長川
乘興高吟思豁然

아득한 나그네 길 곁으로는 긴 시냇물
흥이 나서 높이 읊조리니 활달한 마음

8) 『장자』에 꿈 속에 나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깊은 꿈 속에 빠져들어 꿈을 현실로 착각함을 의미한다.

9) 복성(福城) : 전라남도 보성지역의 옛 지명.

落葉泛流飄彩舫
浮萍點水撒青錢
山沈寒碧倒疊嶂
鳴戲淺清窺小鮮
忽有蕭蕭微雨過
洗新秋色入林泉

물결에 떠내려가는 낙엽은 채색한 배 같고
물에 닿은 부평초는 푸른 동전을 흩어 놓은 듯.
차고 푸른 물 속으로 겹겹의 산봉우리 잠기었고
오리는 알고 맑은 물에 놀며 작은 물고기 엿보네.
문득 쓸쓸히 가랑비 스쳐 지나가니
숲 속의 샘물에 신선한 가을빛이 어리네.

竹尊者

我愛竹尊者
不容寒暑侵
經霜彌勵節
終日自虛心
月下分清影
風前送梵音
皓然頭載雪
標致生叢林

대나무

나는 대나무를 사랑하노니
추위와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지.
서리가 내려도 더욱 꾀꾀하고
하루 종일 스스로 마음을 비우지.
달 아래선 맑은 그림자 드리우고
바람 앞에선 우주의 소리를 들려주지.
머리에 허연 눈을 뒤집어 쓴 모습
빼어난 기품 절간에 생겨나네.

雨後松巒

雨霽冷出浴
嵐凝翠欲滴
熟澄發情吟
渾身化寒碧

비 개인 후 소나무 언덕

비 개이니 목욕을 하고 난 듯 시원하고
산 기운 어리어 푸른 빛은 방울 맺힐 듯.
한동안 바라보다 기분이 나 시를 읊으니
상쾌하고 푸른 기운이 온 몸에 가득하네.

得度時辭家詩

志慕空門法
灰心學坐禪
功名一墮甌
事業恨忘筌
富貴徒爲爾
貧窮亦自然
吾將捨閭里
松下寄安眠

출가할 때 집을 떠나며 지은 시

뜻이 불가의 법을 흠모하여
재같이 식은 마음으로 좌선을 익히네.
공명이란 하나의 깨어진 시루이고
사람의 일이란 별것이 아니라네.
부귀는 헛될 따름이요
빈궁함도 또한 자연이라.
내 장차 마을을 버리고 가서
소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잠자리라.

眞一上人來言曰, “某乙賦性散亂 未能調攝. 或於靜處捺伏 則便落昏沈. 惟此二病是患 請得法偈 爲對治方”

진일(眞一) 상인(上人)¹⁰⁾이 와서 하는 말이 “저는 타고난 성품이 산만하고 어지러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고요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의식이 멎해지고 맙니다. 이 두 가지 병이 근심이니 계송을 지어 다스리는 처방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實際本來湛寂
神機自爾靈明
任運忘懷虛浪
何關沈掉兩楹
惺惺無忘曰眞
寂寂不分是一

실제의 본래는 맑고 고요한 것이니
정신의 기틀이 절로 신령스럽게 밝도다.
운에 맡겨 허랑한 생각들을 다 잊으면
멍하거나 들뜨거나 무슨 상관이라.
마음이 생생하게 깨어있는 것을 ‘참’이라 하고
고요하고 고요하여 분산되지 않는 것을 하나라고 하네.

10) 상인(上人) : 지혜와 덕을 겸비한 스님네를 존칭하는 말.

但能不負汝名
何用別他術

다만 능히 그대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기술이야 무슨 소용 있으리.

孤憤歌

人生天地間
百骸九竅都相似
或貧或富或貴賤
或妍或醜緣何事
曾聞造物本無私
乃今知其虛語耳
虎有爪兮不得翅
牛有角兮不得齒
蚊虻有何功
旣翅而又觜
鶴脰長兮鳬脰短
鳥足二兮獸足四
魚巧於水拙於陸
獼能於陸又能水
龍蛇龜鶴數千年
蜉蝣朝生暮當死
俱生一世中
胡奈千般萬般異
不知然而然
夫誰使之使
上以問於天

외로움과 울분의 노래

인생 천지 사이에
백개의 뼈와 아홉 구멍이 있는 것은 한가지인데
가난함과 부유함과 귀천이 서로 다르며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추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조물주는 원래 사심이 없다 하거늘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헛말임을 알겠도다.
호랑이는 억센 발톱이 있지만 날개는 없고
소는 뿔이 있지만 날카로운 이빨은 없는데
모기와 등에는 무슨 공로가 있어
날개도 있고 뽀족한 주둥이까지 가졌나?
학의 다리는 길지만 오리 다리는 짧으며
새의 다리는 둘이지만 짐승 다리는 넷이지.
물고기가 물에서는 숨씨가 좋지만 물에서는 서툴고
수달은 물에서도 능하고 물에서도 능하지.
용과 뱀과 거북과 학은 수천년을 살지만
하루살이는 아침에 태어나면 저녁에는 죽어야 하지.
모두가 한 세상에 태어났건만
어찌하여 천 가지 만 가지로 서로 다른가?
왜 그런지 모르면서 그러하니
대저 누가 그렇게 시켰단 말인가?
위로는 하늘에 물어보고

下以難於地
 天地默不言
 與誰論此理
 胸中積孤憤
 日長月長銷骨髓
 長夜漫漫何時曉
 頻向書牕啼不已

아래로는 땅에게 꾸짖어도 보지만
 하늘과 땅은 묵묵히 말이 없으니
 누구에게 이 이치를 따져 볼까?
 가슴 속에 외로움과 울분이 쌓여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골수가 녹아나네.
 길고 긴 밤 어느 때나 날이 썰까?
 수시로 서창을 향하여 울음 그치지 못하네.

代天地答

萬別千差事
 皆從妄想生
 若離此分別
 何物不齊平

하늘과 땅을 대신하여 답한다

천차만별로 다른 일은
 모두가 망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
 만약에 이러한 분별에서 떠난다면
 어떤 사물인들 평등하지 않으리오?

題金山

賴我金山是石山
 不然何以得空閑
 看他遠近膏腴地
 燒玄耕來無歇間

금산(金山)에서

다행히도 나의 금산(金山)은 돌로 된 산이니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한가한 시간을 얻으리오?
 저 멀고 가까운 각지의 기름진 땅들을 보면
 검게 태워 경작하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지 않은가?

題金剛庵招隱臺

松覆岩隈僻更幽

금강암(金剛庵) 초은대(招隱臺)에서

소나무 거꾸로 자라는 바위 낭떠러지의 궁벽한 곳

石床苔座穩藏頭	돌 침상의 이끼 낀 자리에 편안히 숨어 사네.
時人愛走芳菲地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곳으로 내달리건만
能信山中淡閑不	산중의 맑고 한가한 삶을 알아나 줄까?

答田祿事

전(田) 녹사(錄事)¹¹⁾에게 답함

君去城市我青山	그대는 도시로 나는 청산으로 떠났지만
相見無虧頃刻間	잠시라도 틈이 없이 서로를 만나지요.
夜暗日明空色界	밤이면 어두워지고 낮이면 밝아지는 이 세상
誰非居士老僧顏	어느 것이 거사나 노승의 얼굴이 아니리오?

路畔見無面目石人 傍立沒字碑 因感古人之意 有作
 길가에 얼굴 없는 돌사람을 보았는데 곁에는 글자 없는 비석¹²⁾을 세
 워 두었다. 옛사람의 뜻이 느껴져서 지었다.

石人無面目	돌 사람이 얼굴도 눈도 없으니
功德巨思議	공덕을 헤아리기 어려웁구나.
海墨書難盡	바다를 먹물로 하여 써도 다 쓰기 어려워
惟標沒字碑	글자 없는 비석만 세워 두었네.

11) 녹사(錄事) : 고려시대 관직 이름.

12) 글자 없는 비석 : 위낙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인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무런 글
 자도 적지 않고 비석을 세웠다.

中秋翫月

明珠白壁在人間
 勢奪權爭不放閑
 若使水輪爲世寶
 豈容垂照到窮山

한가위에 달을 보며

밝고 흰 보배가 인간세상에 있었다면
 권세로 다투어 내버려 두질 않았겠지.
 물에 비친 저 달이 인간세상 보배였다면
 어찌 위에서 비추어 궁벽진 산에까지 이르게 했
 으리.

妙高臺上作

嶺雲閑不徹
 澗水走何忙
 松下摘松子
 烹茶茶愈香

묘고대(妙高臺) 위에서

고개에 걸친 구름은 느긋하여 떠날 생각을 앓는데
 시냇물은 어디로 그리 바쁘게 달리는고?
 소나무 아래서 솔방울 주워
 차를 끓이니 차 더욱 향기롭구나.

春日遊山

春日正暄妍
 出遊心自適
 陽崖採薺薇
 陰谷尋泉石
 巖溜冷飛清
 溪花紅蘸碧
 高吟快活歌
 散步愛幽僻

봄날 산 나들이

봄날이 정말 따스하고 아름다와
 나들이 나서보니 마음 절로 쾌적하네.
 양지바른 언덕에선 고사리 캐고
 그늘진 계곡에선 샘물 찾노라.
 바위엔 맑고 시원한 물방울 날아 떨어지고
 시냇가 꽃은 붉은 빛이 푸른 물에 잠기었네.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 부르고
 산보하며 깊은 산 속 풍경 즐기네.

冷翠臺

疎松宜月白
幽峽足風清
笑傲縱遊戲
高低隨處平

냉취대(冷翠臺)

성근 소나무에 달빛이 희고
깊은 협곡엔 바람이 맑구나.
마음껏 웃고 즐기노라니
높고 낮은 곳곳마다 평안한 마음.

瀑布

迅瀑落危層
冷聲聞還壑
纖纖一點塵
無處可栖泊

폭포

높다란 절벽 위에서 빨리도 떨어지는 폭포
차가운 소리가 골짜기를 울리네.
가늘고 가는 한 점 먼지조차
깃들거나 머물 곳이 없구나.

清潭

寒於未釋水
瑩若新磨鏡
只將一味清
善應千差影

맑은 연못

녹지 않은 얼음보다 차가웁고
새로 간 거울처럼 밝네.
오로지 맑음 하나만으로도
천 가지 다른 그림자에 잘도 응하네.

遊山

臨溪濯我足
看山清我目

산에 노닐며

계곡으로 가서는 내 발을 씻고
산을 바라보며 내 눈을 맑히네.

不夢閑榮辱
此外更無求

영욕 따위는 꿈꾸지를 앓으니
이 밖에 다시 구할 것이 없구나.

過古鄉

고향을 지나다가

一別家鄉十五年
此來懷古一潸然
逢人半是不相識
嘿思悠悠嘆逝川

한번 고향을 떠난 지 십오 년인데
이렇게 와서 회고하며 눈물 흘리네.
사람을 만나도 반은 알지를 못해
묵묵히 생각하며 흘러가는 시냇물을 한탄하네.

和遊上人苦熱

더위가 힘들다는 유(遊) 상인(上人)의 시에 화답하여

時當六七月
晝熱夜亦熱
與爾清涼方
紅爐一點雪

때가 육칠 월이 되니
낮에도 덥고 밤에도 역시 덥구나.
그대를 시원하게 할 처방을 드릴 터이니
붉은 화로에 한 점 눈이라.

送亮上人

양(亮) 상인(上人)을 전송하며

經霜知勁草
入水見長人
試汝塵中路
埋頭莫沒塵

서리를 겪어봐야 굳센 풀을 알 수 있고
물에 들어가 보아야 키 큰 사람을 알 수 있지.
티끌 속의 길에서 그대를 시험하노니
드러내지 않고 전념하여 티끌에 묻히지 말기를.

對影

그림자를 보고

池邊獨自坐
池低偶逢僧
嘿嘿笑相視
知君語不應

연못가에 홀로 앉았더니
연못 아래 있는 스님을 만났네.
말 없이 웃으며 서로 바라보는데
말을 걸어도 응하지 않는 그대로다.

小池

작은 연못

無風湛不波
有像森於目
何必待多言
相看意已足

바람이 불지 않아 파도 없이 맑으니
빹빹한 영상들이 눈에 가득 비치네.
많은 말이 무슨 필요 있으리?
서로 바라만 보아도 마음 이미 충족한걸.

識技能

기능을 경계함

大德無爲絕技能
不須工巧學多能
有能常被無能使
須信無能勝有能

큰 덕을 가진 이는 기능을 끊어 자연에 내맡기니
좋은 솜씨로 여러 기능을 익힐 필요가 없네.
유능하면 무능한 자의 부림을 받으니
무능함이 유능함보다 나음을 믿어야 하리.

留題清庵寺

청암사(淸庵寺)에 머물며

春遊選勝到精藍
物外家風得飽參

좋은 곳 골라 봄나들이 하다가 깔끔한 가람에 이르니
세속을 벗어난 가풍을 충분히 알겠구나.

境靜人閑無俗界
命名眞箇是清庵

주변이 조용하고 사람도 한가로와 속됨이 없는 곳
이름 그대로 정말 맑은 암자로다.

隣月臺

巖叢屹屹知幾尋
上有高臺接天際
斗酌星河煮夜茶
茶煙冷鎖月中桂

인월대(隣月臺)

바위산 우뚝 높아 얼마나 되는지
그 위에 대가 있어 하늘 끝에 닿아 있네.
북두칠성으로 은하수 길어다가 차를 끓이는 밤
차 끓이는 연기가 달 속의 계수나무 싹늘히 둘러
싸네.

避暑臺

巖頭月白無時照
石眼風清盡日吹
願與世人分爽快
此心能有幾人知

피서대(避暑臺)

바위 곁에 뜬 달은 언제나 밝게 비치고
석간수에 맑은 바람 온 종일 불어오네.
세상 사람들과 상쾌함 나누고 싶으나
이 마음 몇 사람이나 알아줄까?

示信士裴允亮

今之視昔如昨夢
後復思今亦應爾
顧此生分能幾時
悲夫逝者如流水
悠悠奚暇涉他緣

신도 배윤량(裴允亮)에게 보임

어제 일을 오늘 되돌아보면 마치 꿈인 듯하니
뒷날 다시 오늘을 생각해도 마찬가지리.
생각컨대 이 생이 얼마나 될까?
슬프구나, 가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아.
유유히 어느 여가에 다른 인연을 따르리?

急急要須明自己
已事了然明得來
死生榮辱何憂喜

서둘러 자기 밝히는 일이 중요하지.
이미 사물을 환히 밝히고 나면야
생사와 영육이 무슨 근심이리?

晚晴

點開山色看無厭
洗出鶯聲聽更新
多謝晚霖特一霽
着些滋味慰閑人

저녁 무렵 날이 개어

점점이 산빛이 열리어 보아도 싫증 나지 않고
씻은 듯한 앵무새소리 들을수록 더욱 새로워.
고맙게도 장마가 저녁 무렵 잠시 개이니
이런 재미가 한가로운 사람을 위로해 주네.

次黃中使韻

使星影落曹溪水
光芒燦燦照天地
威迫寒僧不奈何
始知禪者無巴鼻
— 宣喚不應故云

황(黃) 중사(中使)¹³⁾ 시의 운자에 맞추어

임금의 사신 그림자 조계산의 물¹⁴⁾에 비치어
번쩍번쩍 빛이 천지를 비추누나.
그 위엄도 한미한 중을 어찌할 수 없을지니
비로소 알리라 선 수행자의 코는 잡을 수가 없음.
— 임금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이 시를 썼다.

儉園頭求頌

聞古禪和擊土塊

검(儉) 원두(園頭)¹⁵⁾가 계송을 원하기에

들었는가, 예전에 선 수행자가 흙덩이를 부수어

13) 중사(中使) : 임금이 보낸 사신.

14) 조계산 : 작가인 혜심이 주석하던 수선사(修禪社, 지금의 송광사)가 있던 산 이름.

15) 원두(園頭) : 절에서 채소밭을 관리하는 스님.

忽然打破三千界
 鑊頭分付汝提持
 受用從君得自在

홀연히 삼천대천세계를 깨부숴버렸다는 말을.
 팽이 자루 잡아 그대가 지니기를 분부하노니
 늘 그대 몸에 지닌다면 자유자재함을 얻으리라.

栽松栢

소나무 잣나무를 심으며

栽松種栢示叢林
 非但炎天愛翠陰
 直待千秋黃落盡
 看渠獨有歲寒心

소나무와 잣나무를 절간에 심는 것은
 더운 날의 푸른 그늘을 좋아해서만이 아니라네.
 가을이 되어 누런 낙엽 다 지고 닳을 때
 홀로 추위를 이기는 마음을 보려 함이네.

次膺律師求法韻

응(膺) 율사(律師)가 계송을 청하는 시의 운에 맞추어

廓落無依無相身
 禪家喚作本來人
 但能自照虛明地
 何更從他苦問津

텅 비어 의지할 곳 없고 모습도 없는 그 몸을
 선가에서는 본래의 참사람이라고 하지요.
 스스로 텅 비면서도 밝은 그곳을 비출 수 있을 때
 다시는 힘들여 남에게 나루터¹⁶⁾를 물을 필요가
 없게 되지요.

予夢見大悲菩薩，爲予曰，“子能正印否？”予應曰，“將印來。”菩薩舉手作提勢，通身放光 遍照天地。遂步虛而往，予

16) 나루터 : 피안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나루터. 진리로 들어가는 길, 올바른 수행의 방법을 의미한다.

亦從之. 及覺乃作贊曰,

내가 꿈에 대비보살을 만났는데, 나를 위해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바르게 도장¹⁷⁾ 찍을 수 있는가?” 하시었다. 내가 응답하기를, “도장을 주십시오.” 라 하였다. 그러자, 보살은 손을 들어 건네줄 자세를 취하는데, 온 몸에서 빛을 발하여 천지를 비추었다. 마침내 허공을 걸어서 가시었는데, 나도 뒤를 따라 갔다. 이어 잠을 깨어 찬시를 짓는다.

稽首觀世音	관세음보살께 머리 조아리노니
大悲老婆心	대자대비하신 마음으로
手提無文印	손수 무늬 없는 도장 ¹⁸⁾ 을 주시어
印我鼻孔深	내 콧구멍 깊다고 인가하시었네.
豈唯印無文	어찌 오직 무늬 없는 도장뿐이리오
身亦無處尋	몸 또한 찾을 곳이 없어라.
而常不離此	그러면서도 항상 이곳을 떠나지 않으니
清風散竹林	맑은 바람이 대숲에 흩어지네.

小字『金剛經』贊 并序

작은 글씨로 쓴 『금강경』을 기리는 시

道者炁然 於少環中 寫『金剛經』, 心着眼 字字畫如蚊睫 行布巧以螺文,
非唯用筆之工 亦乃設機之妙. 苟非心精智巧 何以臻此哉! 爲之贊曰,
수행자 경연(炁然)이 조그만 고리짝 속에 『금강경』을 베껴 두었는데, 눈에 마
음을 모아 글자마다 획이 모기 속눈썹과 같고 배열하기를 소라 무늬처럼 하

17) 도장: 도장은 깨달음을 상징한다.

18) 무늬 없는 도장[無文印]: 도장은 깨달음을 상징하며, 무늬가 없다는 것은 깨달
음이 어떠한 문자나 무늬, 즉 개념이나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였으니, 붓을 다루는 솜씨만이 아니라 마음을 쓴 것이 절묘하다. 마음이 정밀하고 지혜가 뛰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을 위하여 찬시를 짓는다.

實相無相
體自圓虛
虛不失照
照無遺餘
隨緣萬別
不廢一如
大悲大智
於焉起予
洗足敷坐
空生覩破
因而請益
乃爾注下
雖度四生
亦本無我
今此小輪
具三般若
於文字中
着得箇眠
乘筏超流
便登彼岸

진실한 모습은 아무런 모습이 없으니
본체는 절로 원만하면서¹⁹⁾ 텅 비도다.
텅 비었어도 비춤을 잃지 않고
비춤은 조금도 빠트림이 없어라.
만 가지 다른 인연을 따르지만
내버림 없이 한결같네.
크게 자비롭고 크게 지혜로와
나를 일깨워주네.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시니
수보리가 보고 깨쳤네.
가르침을 더 청하니
물을 따르듯이 설법하시었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시었다고 하지만
본래는 무아(無我)라네.
지금 이 작은 수레바퀴가
세 가지 반야를 갖추었으니
이 문자 가운데서
눈을 틔우소서.
뗏목을 타고 물결을 넘어가면
곧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으리.

19) 원만하면서 : 원만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두루 포괄한다는 의미이다.

寓居轉物庵

전물암(轉物庵)에 살면서

五峰山前古巖窟
中有一菴名轉物
我栖此庵作活計
只可呵呵難吐出
缺唇垠絕脚鐺
煎粥煎茶聊遣日
疎慵不掃復不芟
庭草如雲深沒膝

오봉산 앞 움푹 파인 곳
그 가운데 ‘전물’이란 암자 하나.
내 여기 갇들어 살아보고자 하니
결결 웃기만 할 뿐 아무 말 없네.
이빨 빠진 발우와 다리 부러진 솔으로
죽을 끓이고 차를 끓이며 날을 보내지.
게을러서 쓸지도 않고 풀도 베지 않아
마당에 풀이 구름처럼 깊어 무릎까지 묻히네.

晚起不知平旦寅
早眠不待黃昏戌
不剃頭不看經
不持律不燒香
不坐禪不禮祖
不禮佛

몇시나 되었는지도 모른 채 일어나며
황혼을 기다리지도 않고 일찌감치 잠들지.
머리를 깎지도 않고 경전도 보지 않으며
계율도 지키지 않고 향도 피우지 않지.
좌선도 하지 않고 조사와 부처님께 예를 올리지도 않네.

人來怪問解何宗
一二三四五六七
莫莫莫密密密
家醜不得外揚
摩訶般若波羅密

사람들이 와서 이상히 여겨 무슨 종파냐고 묻건만
일이삼사오륙칠
아무 말 안하고 그냥 있으면
집안의 추한 모습 밖으로 알려지지 않으리.
마하반야바라밀.

五峰山色昏彌翠
一帶溪聲曉更高
暮去朝來聲色裡
清歌誰得似吾曹

오봉산 산빛이 저녁이 되면 더욱 푸르고
일대의 계곡물 소리 새벽이면 더욱 높아라.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는 소리와 빗줄에서
누가 우리처럼 맑은 노래 얻을까?

五更山月窗前白	새벽녘 산에 뜬 달은 창 앞에 밝고
數里松聲枕上清	멀리 소나무 소리는 베개 위에 맑도다.
富貴多勞貧賤苦	부귀는 수고롭고 빈천은 고되지만
隱居滋味與誰評	숨어 사는 이 재미를 누구와 말해볼꼬?

湛靈上人求六箴

담령(湛靈) 상인(上人)이 여섯 가지 잠언을 구하기에

眼	눈
塵中有大經	티끌 가운데 큰 경전이 있는데
如何看不了	어찌하여 다 보지 않나?
速撥律陀眼	속히 아누루타의 눈 ²⁰⁾ 을 뜨고
早開迦葉笑	일찌감치 가섭의 미소 ²¹⁾ 를 지으라.
鬱鬱渭邊松	울창한 강가의 소나무여!
青青原上草	푸르고 푸른 들판 위의 풀이여!
咄咄	쫓! 쫓! 쫓!
漏逗也不少	번뇌가 적지 않구나.
耳	귀
莫逐五音去	현란한 소리들을 좇지 말지니
五音令汝聾	현란한 소리들은 너를 귀먹게 하리라.
觀世音安在	관세음보살은 어디에 계신지

20) 아누루타의 눈 : 부처님의 제자로, 부처님 앞에서 자다가 꾸중을 들은 후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하다가 눈이 멀었으나, 천안이 트여 천안제일로 인정받는다.

21) 가섭의 웃음 : 부처님이 설법을 하지 않고 말없이 연꽃을 들었을 때 가섭이 그 의미를 알아채고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흔히 염화미소(拈花微笑)라고 한다.

圓通門不封
磬搖明月響
砧隔白雲春
噫噫噫
好與三十棒

鼻
香處勿妄開
臭中休強塞
不作香天佛
沉爲屍注國
鑊中煎綠茗
爐上燒安息
呵呵呵
其處求知識

舌
不貪法喜羞
沉嗜無明酒
莫說野狐禪

원통문²²⁾은 단혀 있지 않다네.
풍경은 밝은 달빛 흔들며 울려 오고
다듬이 두드리는 소리 흰 구름 너머서 들려오네.
악! 악! 악!
몽둥이²³⁾ 서른 대를 쳐야겠군!

코
향기로운 곳에 함부로 코를 열지 말고
냄새 나는 곳에 억지로 코를 막지 말지니
향기로운 하늘의 부처도 되지 않거늘
하물며 시주국²⁴⁾이 되리오?
술에는 녹차를 끓이고
화로에는 안식향을 태우노니
꼴! 꼴! 꼴!
그 곳에서 선지식을 구할지라.

혀
진리의 즐거움이란 안주도 탐하지 않는데
하물며 무명(無明)의 술을 즐기랴?
야호선²⁵⁾을 말하지 말라

22) 원통문(圓通門) : ‘두루 통하는 문’이라는 의미이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원을 살피고 들어주는 일을 하는데, 그 능력이 어디든지 다 통한다고 하여 관세음보살의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다.

23) 몽둥이 : 선가에서는 수행자의 생각을 띄워 주기 위하여 고향을 지르거나 몽둥이질을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24) 시주국(屍注國) : 시체와 똥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지옥.

25) 야호선(野狐禪) : 들어우의 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깨달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진리를 설하는 선.

終日虛開口
嘿入獅子窟
語出獅子吼
誰知語嘿外
更有那一句

하루 종일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기다린다.
침묵할 때에는 사자굴에 들어가듯이 하고
말을 할 때에는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하라.
누가 알랴, 말과 침묵 이외에
다시 한 구절이 있음을.

身
莫咬一粒米
莫掛一條絲
恐失家常飯
須染孃生衣
壺中一天地
劫外四威儀
汝若不如是
何名出家兒

몸
한 톨의 쌀도 씹지를 말고
한 올의 실도 걸치지 마라.
늘 먹던 밥 잃을까
타고 난 몸 물들일까 두렵도다.
병 속에 또 하나의 천지²⁶⁾가 있고
겁²⁷⁾ 밖에 사위의²⁸⁾가 있다네.
그대 만약 이와같이 못한다면
어찌 출가한 사람이라 하리오?

意
忘懷墮鬼窟
着意縱猿情
更擬除二病
未免野狐情

생각
생각을 잊으면 귀신굴로 떨어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원숭이의 마음²⁹⁾이 된다네.
이 두 가지 병을 제거하려 한다면
또한 들여우의 마음을 면치 못하리.

26) 병 속에 또 하나의 천지 : 중국 전설에 약을 팔던 어떤 노인이 가지고 있던 병 속으로 들어가 보니 그 곳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었다고 한다.

27) 겁(劫) : 연월일로 헤아릴 수 없는 아득히 긴 세월.

28) 사위의(四威儀) : 움직이고 머물고 앉고 눕는 등의 일상 생활 중에 승려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위엄 있는 모습.

29) 원숭이 마음 : 경박한 마음을 말한다.

水任方圓器
鏡隨胡漢形
直饒伊麼去
猶較患聾盲

물은 그릇의 생김새에 내맡기고
거울은 못된 놈의 꼴이라도 그대로 따르지.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귀머거리 봉사 될까 걱정되네.

和柳秀才

유수재³⁰⁾에게

先儒通地又通天
後學云何却不然
鸚鵡狂才邀妄譽
蜘蛛少巧逞虛傳
形羸可似喪家狗
心淨須如出水蓮
聞者書紳常佩帶
捨邪歸正勝因緣

옛 유학자들은 지리에 통달하고 천문에도 통달하
였건만
후학은 어찌하여 그러하지 못하는가?
앵무새같은 경솔한 재주로 엉터리 칭찬을 받고
거미같은 조그만 솜씨로 헛된 이름 전하려 하네.
물골이 파리하면 집 잃은 개와 같아지지만
마음이 맑으면 물 위로 솟은 연꽃과 같아지지.
들은 자는 허리띠에 적어서 늘 차고 있을지니
삿됨을 버리고 바름으로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인
연이라네.

以詩呈悟處依韻答之

깨달은 바를 시로 써서 보내왔기에 답함

魚龍在水不知水
任運隨波逐浪遊

물고기와 용은 물 속에 있으면서도 물을 알지 못
하고
마음대로 물결 따라 노닌다네.

30) 수재(秀才) : 수재는 과거 공부하는 사람, 혹은 공부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本自不離誰得失
無迷說悟是何由

본래부터 떠나 있는 것이 아닌데 누가 얻고 잃겠나
본래부터 미혹함이 없거늘 깨달음이라 말하니 이
무슨 까닭인가.

惠茶兼呈解答之

차에 감사하고 질문에 답하다

久坐成勞永夜中
煮茶偏感惠無窮
一盃卷却昏雲盡
徹骨清寒萬慮空

긴 밤 좌선하느라 고단한데
차를 끓이니 감사한 마음 끝이 없네.
한 잔 차에 어두운 구름 모조리 흩어져서
맑고 시원한 기운이 뼈에 사무치고 만 가지 생각
도 비워지네.

過生臺有作

과생대(過生臺)에서

飢鳥忽遇飯
貪畏兩難收
一啄百回顧
悲成不自由

배고픈 새가 문득 음식을 만났으나
먹고 싶은 마음 두려운 마음 둘 다 버리지 못하네.
한 번 쪼고 백 번을 휘돌러보니
자유롭지 못한 모습에 마음이 슬퍼지네.

向白雲庵次辭衆

대중과 이별하여 백운암(白雲庵)³¹⁾으로 향하면서

暫向雲庵養病身

잠시 백운암으로 가 병든 몸을 요양하려 하니

31) 백운암(白雲庵) : 고려명종 11년(1181)에 혜심(海心)의 스승인 지눌(智訥)이 창건한 암자로,
전남 백운산에 있다.

禪流切勿往來頻	스님들은 일절 자주 왕래 마소서.
曹溪無物不常住	수행하는 공간에는 본래 아무 물건 없으니
莫道堂中無主人	집 안에 주인이 없다 말하지 마소서.

崔搏求法寫此送之 최부(崔搏)가 법어를 구하기에 적어 보내다

鏡裡見誰形	거울 속에 보이는 것이 누구의 모습인가
谷中聞自聲	골짜기에 들리는 소리는 자신의 목소리라.
見聞而不惑	보고 듣는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면
何處匪通程	어느 곳인들 길이 통하지 않으리오.

祖月庵聞笛 조월암(祖月庵)³²⁾에서 피리 소리 들으며

巖屏萬疊雪威重	겹겹의 병풍 같은 바위에 눈까지 엄청난데
村笛一聲春意濃	마을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봄 기운이 물씬 하네.
遙想萬家桃李樹	짐짐마다 복숭아 오얏나무에
幾枝花白幾枝紅	흰 꽃 붉은 꽃 얼마나 피었을까?

32) 조월암(祖月庵) : 전남 백운산에 있는 암자로, 혜심의 스승인 지눌이 창건하였다.

求法舉瑞巖主人公話作偈

법을 구하기에 서암(瑞巖) 스님의 주인공 이야기³³⁾를 들어 계송을 짓다.

主人公諾聽我箴 “주인공이여!” “네!” “나의 잠언을 들으라.”
最好堅除殺盜淫 살생과 도둑질과 음란함을 없앴이 가장 요긴하지.
火聚刀山誰做得 불지옥과 칼지옥은 누가 만들었나?
都緣是汝錯行心 모두가 너의 잘못된 행실과 마음 때문이야.

主人公諾聽我諭 “주인공이여!” “네!” “나의 깨우침을 들으라.”
到處逢人須慎口 어디를 가든 사람을 만나면 입을 조심하라.
口是禍門尤可防 입이란 재앙의 문이어서 더욱이 막아야 하니
維摩默味參取 유마거사가 침묵한 그 의미³⁴⁾를 잘 새기라.

主人公諾聽我辭 “주인공이여!” “네!” “나의 말을 들으라.”
十惡冤家速遠離 십악(十惡)³⁵⁾으로 인한 맺힌 집을 속히 멀리 떠나라.
惡自心生還自賊 악이란 자기 마음에서 생겨나 스스로를 해치나니
樹繁花菓返傷枝 나무에 꽃이나 열매가 번성하면 도리어 가지를
해치도다.

主人公諾聽我語 “주인공이여!” “네!” “나의 얘기를 들으라.”

33) 중국 당(唐)나라의 서암(瑞巖) 사언(師彦) 선사는 수행할 때 바위처럼 명청하게 앉아서 자기에게 “주인공아!”라고 부른 다음 스스로 “네!” 하고 대답하고, 다시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정신을 깨어 있게 해서 다른 사람의 속임을 당해서는 안 돼!”라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五燈會元』)

34) 유마거사에게 문수보살이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대해 물으니 유마거사가 침묵으로 답했다. (『五燈會元』)

35) 십악(十惡): 열 가지 악.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입으로 짓는 네 가지, 몸으로 짓는 세 가지의 악.

日暮浮生能幾許
昨日虛消今日然
生來死去知何處

主人公諾惺惺着
十二時中常自覺
從來身世太無端
夢幻空花休把捉

主人公諾心耶佛
非佛非心亦非物

畢竟安名喚作誰
喚作主人早埋沒
咄

木蓮

見葉初疑柿
看花又是蓮
可憐無定相
不落兩頭邊

날 저물면 뜬 인생이 능히 얼마를 살랴.
어제도 헛되이 소비하고 오늘도 그러하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나 하겠는가?

“주인공이여!” “네!” “정신 차리고 들으라.”
하루 24시간 항상 깨어 있어야 하지.
지금까지 받은 몸과 세상 전혀 까닭이 없으니
꿈이나 환상같은 것을 잡아서는 안되네.

“주인공이여!” “네!” “마음인가 부처인가?”
부처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또한 아니
라네.

그렇다면 끝내 누구라고 불러야 할까?
주인공이라 부른다면 일찌감치 틀려먹은 것.
에잇!³⁶⁾

목련

잎을 보면 감나무인 듯하다가
꽃을 보면 연꽃과 같아라.
어여쁘구나, 고정된 모습 없이
한 쪽에만 머물지 않도다.

36) 정신을 차리도록 소리쳐 부르는 소리.

感興

春秋草色靑黃
 旦暮雲谷白黑
 誰憐偃蹇寒松
 萬古靑靑色一

감흥

봄 가을 풀빛은 푸르다가 누래지고
 아침 저녁 구름 낀 계곡은 희다가 검어지네.
 구부정한 차가운 소나무 누가 어여뻐 여기리오마는
 만고에 한결같이 청청하도다.

左右銘

菩薩子菩薩子
 常自摩頭深有以
 摩頭因得審思量
 出處本意圖何事
 僧其相貌俗其心
 可不慚天而愧地
 麤行狂言任爲汝
 鑊湯爐炭何回避

좌우명

보살이여, 보살이여!
 항상 자기 머리 쓰다듬을지니, 여기에 깊은 이유
 있도다.
 머리를 쓰다듬으면 자세히 생각하게 되나니
 어떤 일을 할 때 그 본래의 뜻은 무엇인가?
 모습은 중이면서 마음은 속인이라면
 하늘에도 부끄럽고 땅에도 부끄러워라.
 거칠고 미친 언행을 마음대로 한다면
 확탕지옥³⁷⁾ 노탄지옥³⁸⁾ 어찌 피하리.

侍者四人求頌

(1) 示希祖
 通心達大道

시자(侍者)³⁹⁾ 4인이 계송을 구하기에

희조(希祖)에게 보임
 마음을 알아야 큰 도에 이르나니

37) 확탕지옥(鑊湯地獄) : 끓는 물에 삶기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지옥.

38) 노탄지옥(爐炭地獄) : 숯불에 달궈지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지옥.

凡聖不同纏
希則可爲祖
還如學海川

범인과 성인을 같이 묶을 수는 없도다.
원하면 조사가 될 수는 있겠으나
쉬지 않고 바다를 향하는 시냇물과 같아야만 하리.

(2) 示玄湛
迷風動覺海
覺海生空漚
空漚着三有
三有暫停留

현담(玄湛)에게 보임
미혹의 바람이 깨달음의 바다를 요동시키니
깨달음의 바다에 물거품이 생겨나네.
물거품에 삼유⁴⁰⁾가 붙어서
삼유가 잠시 머무네.

風恬浪自靜
漚滅無從由
湛湛絕涯涘
顧之浪悠悠

바람이 고요하면 파도도 절로 가라앉고
물거품도 사라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네.
끝 없이 맑고 맑아
돌아보면 잔잔한 물결.

(3) 示了嘿
心常了了口常嘿
且作伴癡方始得
師帑藏雖不露尖

是名好手眞消息

요묵(了嘿)에게 보임
마음은 언제나 지혜롭고 입은 항상 침묵하나니
바보처럼 멍청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네.
주머니 속에 송곳을 감추어도 끝이 드러나지 않
아야⁴¹⁾
참된 소식⁴²⁾ 얻어내는 재능이라 할 수 있으리.

39) 시자(侍者) : 경륜이 깊은 스님 곁에서 보좌하는 승려.

40) 삼유(三有) : 생겨나는 찰나와 존재해 있는 동안과 사라져 없어지는 찰나를 합쳐서 삼유라 한다.

41) 송곳이 주머니 속에 있으면 절로 그 끝이 드러나듯이 재능이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의미이다.

42) 참된 소식 : 깨달음.

(4) 示自閑

終日青山在白雲
 白雲終日在青山
 山不顧雲雲戀山
 山與白雲俱自閑

자한(自閑)에게 보임

푸른 산은 하루 종일 흰 구름에 싸여 있고
 흰 구름은 하루 종일 푸른 산을 감싸고 있네.
 산은 구름을 돌아보지 않아도 구름이 산을 연모
 하여
 산과 흰구름 모두가 절로 한가롭도다.

山中四威儀

산중의 사위의(四威儀)⁴³⁾

山中行

無限清風步步生
 蹋盡千峰萬峰去
 一條榔栗任縱橫

산 속으로 다니니

무한히 맑은 바람 걸음마다 생기네.
 천 봉우리 만 봉우리 다 밟으며
 한 자루 지팡이로 종횡무진 다녔네.

山中住

只麼騰騰過朝暮
 瘦鶴翹松類不齊
 洒然自得幽居趣

산 속에 머물며

이렇게 느긋하게 아침 저녁 보내네.
 비쩍 마른 학과 우뚝한 소나무는 종류가 다르지만
 시원스레 저절로 숨어 사는 멋을 아는구나.

山中坐

侍側唯餘木上座
 慙慙終日嘿無言
 始悔從前閑說話

산 속에 앉으니

곁에서 모시는 것은 오직 나무 상좌들뿐.⁴⁴⁾
 멍청하게 하루 종일 말 없이 지내니
 비로소 후회하네 종전의 한가로운 이야기들.

43) 사위의(四威儀) :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하는 일상생활의 움직임이고 머물고 앉고 눕는 네 가지 행동.

44) 곁에 다른 사람은 없고, 오직 나무들만이 상좌들처럼 곁에 서 있다는 말.

山中臥

頗覺從來得閑暇

和衣打睡到天明

無須迷頭狂演若

산 속에 누웠더니

그 동안 한가로웠음을 자못 알겠네.

옷 입은 채 날 밝도록 잠을 자더라도

미친 연야달다처럼 미혹해서는 아니되리.⁴⁵⁾

冬日寄石上庵

石頭路峻足難措

竿木隨身猶蹉倒

沉須天寒氷雪多

故應石上無人到

겨울날 바위 위의 암자에서 지내며

바위 끝으로는 길이 험해 발을 딛기도 어려워

지팡이를 짚더라도 넘어지기 일쑤라네.

하물며 날씨 차고 얼음 눈 많을 적엔

바위 위에까지 오는 사람 응당 없으리.

宿聊自寺

無端離古寺

枉作遠遊子

今日指君看

幾人知所自

요자사(聊自寺)에서 묵으며

웬스레 오래 있던 절을 떠났다가

엉뚱하게 멀리 나다니는 사람 되어버렸네.

오늘날 남을 가리키며 탓하는 사람들

그것이 자기 탓임을 몇 사람이나 알까.

45) 연야달다(演若達多)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 모습을 보고 무척 좋아하였으나
정작 자기에게는 머리가 없다고 하며 머리를 찾아 미친듯이 달렸다는 이야기가
『능엄경』에 있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밖에서 찾
는 어리석음을 비유한다.

臨水

偶爾來臨止水清
滿頭霜雪使人驚
不憂世事兼身事
誰得栽培白髮生

물가에서

우연히 맑게 고인 물가로 갔더니
머리 가득 눈이 내려 사람을 놀라게 하네.
세상 일도 나의 일도 근심하지 않았건만
누가 흰 머리를 길러서 자라게 했나?

奉和地藏一僧統

世間文字與聲名
任是情通也屬情
解絕見止心顯現
風靜波息海清平

鑑師燒了金剛疏
信老吹消紙燭明
路遠夜長休把火
不如吹殺暗中行
— 常看藏經故云

지장(地藏) 일(一)승통(僧統)⁴⁶⁾에게 드림

세간의 문자와 명성이란
세속적인 욕심일 뿐.
알음알이 버리면 마음이 드러나네,
바람 고요하면 파도가 그쳐 바다가 맑고 고요하
듯이.
덕산 스님은 금강경을 태워버렸고⁴⁷⁾
승신 스님은 촛불을 꺼버렸다지.⁴⁸⁾
길은 멀고 밤이 길더라도 불을 켜지 마소서.
불을 끄고 어둠 속에 가는 것만 못하리.
— 항상 경전만 보고 있기에 이렇게 썼다.

46) 승통(僧統) : 고려시대에 교종(敎宗)을 총괄하는 직위.

47) 덕산(德山) 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금강경을 불태웠다고 한다.

48) 승신(崇信) 스님은 덕산스님이 왔을 때 촛불을 주었다가 바로 꺼버림으로써 깨
우치게 하였다 한다.

次前韻示淵深上座 연심(淵深) 상좌(上座) 스님에게

從來無相亦無名	애당초 모습도 없고 이름도 없거늘
何用安排强起情	무엇하러 억지로 맞추려고 애를 쓰리오.
截鶴續鳬非自適	학의 다리 잘라서 오리 다리에 잇는 것은 편안하 질 않고
實淵夷岳未眞平	연못을 메우고 산을 깎는 것은 진정으로 평평한 것 아니라.
任長任短甘吾分	길든 짧든 내 분수를 달게 여기고
隨下隨高着眼明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눈을 밝게 보 소서.
纔入思惟成剩法	생각을 하는 순간 쓸데 없는 일이 되니
狸奴白牯擇修行	신중히 잘 택하여 수행하소서.

幽居

은거 생활

分得樂山仁	산을 좋아하다 보니
看山眞轉新	산을 볼수록 새롭기만 하네.
眼綠當在淨	눈 가득 푸르니 마음 맑아지고
胸次不生塵	가슴에 아무 번뇌 생기지 않네.
靜吟雲多事	분주한 구름을 보며 조용히 웃음 짓고
閑邀月作隣	이웃이 된 달을 한가로이 맞이하네.
區區利名路	구질구질한 명리의 길을
馳逐彼何人	내달려 가는 저 사람 누구인가?
天幕地爲席	하늘을 휘장으로 땅을 자리로 삼으며
山屏石爲壁	산을 병풍으로 돌을 벽으로 삼네.

事簡身自適
境幽心亦寂
髮將雲鬢白
眼共山爭碧

일이 별로 없으니 몸도 쾌적하고
있는 곳이 궁벽하니 마음 또한 고요하네.
머리카락은 구름과 더불어 흰빛을 다투고
눈동자는 산과 함께 푸르름을 다투네.

憫世

服食驕奢德不修
農公蠶母見幽囚
從茲舉世受寒餓
爲報時人信也不
田蠶不熟已多年
飢饉相仍疾疫連
禍本無門人所召
不知自作怨諸天

세상을 근심함

먹고 입는 데 사치하며 덕은 닦지 않으니
농사짓는 남정네와 누에 치는 아낙은 감옥살이라.
이제 온 세상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릴텐데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믿을지 말지.
밭과 누에는 흉년이 든 지 이미 수년이요
기근과 질병이 해마다 이어지네.
화의 근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람이 불러들인 것
스스로 지은 것인 줄 모르고 하늘을 원망하네.



天頭 辰 策

萬德山白蓮社第四代眞靜國師湖山錄

【만덕산 백련사 제4대 진정국사 호산록】



次韻答林秘書桂一

비서(秘書)¹⁾ 임계일(林桂一)²⁾이 보내준 시의 운에 맞춰 답함

遊戲曾拋夢幻中	일찍이 꿈과 환상 속의 장난질 그만두고
年來屏跡一庵空	근자에는 텅빈 암자 하나에 자취를 숨기었네.
捲簾依舊天台月	발을 걷으니 변함없이 천태산 ³⁾ 의 달이 보이고
揮塵惟揚鷺嶺風	영취산 바람은 먼지를 불어가네.
不顧殘生多怯弱	겁 많고 나약한 남은 인생 고려하지 않고
唯思妙法廣流通	오직 묘법이 널리 유통되기만을 생각하였네.
願君着力添光彩	원컨대 그대는 힘써 광채를 더할지니
幸是蓮華結社同	다행히도 연화결사에 함께하였네.

次韻答閑禪老

한(閑) 노스님이 보내준 시의 운에 따라 답함

一衲支寒膏發風	누더기 한 벌로 추운 바람 건디는데
齒衰無復昔時容	이빨이 다 상하여 다시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니
已陳祭地慙菟狗	제사를 끝낸 후의 추구(菟狗) ⁴⁾ 에게 부끄럽고
未起涔雲婉草龍	비구름이 일지 않는 풀 속의 지렁이에게 무안하네.
殘篆碧煙慵不續	푸른 연기같이 힘없는 글씨는 게을러 이어지지

-
- 1) 비서(秘書) : 고려시대 경적(經籍)의 관리를 맡았던 비서성(秘書省)을 총괄하던 관리.
 - 2) 임계일(林桂一) : 당시 좌승유(左拾遺)·비서(秘書) 등의 벼슬을 하였던 관리로, 천인(天因)의 시집에 서문을 쓰는 등 불교계와 깊은 교류를 하였던 인물로 추정된다.
 - 3) 천태산(天台山) : 지의(智顗, 538~597) 스님이 천태산에서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4) 추구(菟狗) : 짚으로 만든 개. 중국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던 것으로, 제사가 끝나고 나면 버리므로 아무 쓸모가 없게 된 사물을 의미함.

못하고

滿窓紅日睡猶濃
崑阿寂寞無來往
却喜清詩慰老蒙

창에 붉은 해가 가득하여도 잠은 여전히 깊도다.
깊은 산 속 적막하여 오가는 사람도 없건만
기쁘게도 맑은 시가 어리석은 늙은이를 위안해주네.

次韻示同伴

老色須臾顛抹霜
華封微懇祝陶唐
一心冥契三觀妙
萬行熏修四德香
晚歲慙癡忘日課
早年聲價愧冰涼
風清月白通千界
水綠山青占別鄉
訪道人頻扣寂
興悲處處便和光
馳名畢竟成何事
濁惡浮生最可傷

도반에게 보임

늙으니 잠깐 사이에 머리가 다 희어지는데
화봉인의 작은 정성은 요임금을 축복했었지.⁵⁾
한 마음은 삼관(三觀)⁶⁾의 묘함과 일치하고
만 가지 행은 사덕(四德)⁷⁾의 향기로움을 머금었네.
늙은 나이의 어리석음은 일과를 잊었으니
이른 나이의 명성이 다 식어버렸음이 부끄러워라.
맑은 바람과 맑은 달빛이 온 세상으로 통하니
푸른 물 푸른 산은 별천지 같구나.
도를 찾아드는 사람들 적막함을 자주 깨트리고
슬픔 일으키는 곳곳에선 세상사람들과 함께하네.
명성을 떨친들 필경 무엇을 이루리오?
탁하고 악한 뜬 인생이 가장 마음 아프네.

5) 화봉인(華封人)이라는 사람이 요(堯)임금을 만났을 때 요임금의 장수와 부와 아들 많기를 빌어주었다.

6) 삼관(三觀) : 천태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 관법.

7) 사덕(四德) : 대승불교에서 대열반이 갖는 상(常)·락(樂)·아(我)·정(靜)의 네 가지 덕.

又寄柳平章并序

평장사⁸⁾ 유경(柳璥)⁹⁾에게 드림 -서문과 함께

近來歲月甚促 才饒季冬 依然孟春猶寒 暗催老相 復吹前韻 寄呈一首
既已. 同我願海 印成蓮經一千部, 更欲成千部 普勸流通也.

근래 세월이 심히 빨라서 겨울을 보내고 곧바로 의연한 봄이 되었지만 추위는 여전하여 은근히 늙음을 재촉하기에 전에 쓴 시의 운에 따라 지은 시 한 수 드립니다. 제가 바라는 바와 같이 법화경 천 부를 인쇄하고, 다시 천 부를 만들어서 널리 유통시키고자 합니다.

我昔在纏時
蓮經偏信受
意欲居堀胸
常誦期可久
結伴遠尋師
紅塵謝械杻
因領自家珍
免向他鄉走
扶立大法幢
同勤左右手
自此引玄賓
雜還成淵藪
流通一佛乘

내가 예전에 번뇌에 싸여 있을 때
오직 법화경만 공부하였으니,
토굴에 틀어박혀서
항상 외면서 가구¹⁰⁾처럼 되기를 기약하였네.
도반들과 함께 멀리 스승을 찾아다니며
세속의 얽매임을 벗어났었고,
이로 인해 자기 속의 보배를 깨달아
타향으로 내달리지 않게 되었네.
큰 진리의 깃발을 세우는데
왼 손 오른 손 함께 부지런히 하였으니
이로부터 진리를 찾는 손님들을 이끌어
수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네.
부처님 이를 진리 유통시키니

8) 평장사(平章事) : 고려시대 정2품 벼슬.

9) 유경(柳璥) : 1211(희종 7)~1289(충렬왕 15). 1258년에 최의를 죽여 4대에 걸친 무신정권을 종식시켰다. 많은 요직을 거쳤으며, 1262년에 평장사가 되었고, 문학에도 능하였다.

10) 가구(可久) : 송나라 고승으로, 늘 『법화경』을 외우면서 서방 왕생하고자 하였다.

字字金毛吼
目前卽寶渚
庶導羣盲蹂
幸今同願海
感歎不容口
努力更加功
吾衰已皓首
須知寂滅相
聲色露眞趣
春事到江南
鵠鵠啼碧柳

글자마다 금사자¹¹⁾의 울부짖음이요,
눈 앞이 곧 보배의 연못¹²⁾이니
수많은 맹인들을 인도하였네.
다행히 이제 큰 소원을 함께하니
감탄을 입에 담을 수 없도다.
더욱 노력을 더할지니
나는 쇠약하여 이미 머리가 허영네.
반드시 적멸의 모습을 알지니
소리와 빛 가운데 참된 의미가 드러나도다.
봄이 강남에 이르니
자고새가 푸른 버들가지에서 울어댄다.

禪堂偈

半軒猶落日
一室自清風
坐久境逾寂
莫言空假中

선당(禪堂)의 계송

떨어지는 해는 처마에 걸리었는데
방 가득히 절로 맑은 바람 불어오네.
좌선을 오래하니 경계가 더욱 고요하거늘
공·가·중¹³⁾ 따윈 일컫지도 마소서.

11) 금사자(金獅子) : 문수보살이 금사자를 타고다녔다고 한다.

12) 보배의 연못 : 서방 극락에 가면 보배 연못이 있다고 한다. 곧 극락을 의미한다.

13) 공(空)·가(假)·중(中) : 천태학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개념. 만물은 실재하지 않으므로 공(空)이며, 실재하지는 않으나 현상으로는 나타나므로 가(假)이며, 공이면서 가이고 가이면서 공이므로 중(中)이라 한다.



冲止 충지

【圓鑑國師歌頌 원감국사가송】



幽居

棲息紛華外
 優游紫翠間
 松廊春更靜
 竹戶晝猶關
 檐短先邀月
 牆低不礙山
 雨餘溪水急
 風定嶺雲閑
 谷密鹿攸伏
 林稠禽自還
 翛然度晨暝
 聊以養疎頑

은거

번잡하고 화려함을 벗어난 곳에 살며
 자연의 빛 가운데서 즐겁게 노니네.
 소나무 행랑은 봄이라 더욱 고요하고
 대나무 사립문은 낮인데도 잠겨 있네.
 처마가 짧다 보니 달을 먼저 맞이하고
 담장이 낮아 산을 가리지 않네.
 비 온 뒤 계곡물은 빠르게 흐르고
 바람이 잔잔해지니 고개 위 구름 한가하구나.
 골짜기가 뻥뻥하여 사슴이 깃들고
 숲이 울창하여 새들이 절로 모여드네.
 아침 저녁 금방 지나가는 속에
 그저 허술하고 완고한 성품을 기르노라.

至元九年壬申三月初入定惠作偈示同梵

1272년 3월 초 처음 정혜사(定惠寺)¹⁾에 들어가 계송을 지어 스님들에게 보임

鷄足峰前古道場
 今來山翠別生光

계족봉²⁾ 앞의 옛 도랑
 이제 오니 산이 푸르러 유난히 빛이 나네.

-
- 1) 정혜사(定惠寺) :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절. 충지의 스승 혜소(慧昭) 국사가 처음 절을 짓다가 완성하지 못한 것을 제자들이 완성시켰다가 전쟁으로 황폐해진 것을 충지가 다시 복원시켰다.
- 2) 계족봉(鷄足峰) : 충지스님이 주석하던 정혜사가 있던 산. 지금은 계족산이라 하며, 전남 순천에 있다.

廣長自有清溪舌
何必喃喃更舉揚

맑은 시냇물이 절로 수많은 설법을 하고 있는데
다시 새삼 재잘재잘 떠들 필요 있을까?

率衆採蕨廻示同梵

대중을 이끌고 고사리를 캐고 와서 스님들에게 보임

提籃曉出碧崔嵬

바구니 들고 새벽같이 나섰더니 우뚝한 푸른 봉우리

林下閑挑野菜來

숲 아래 한가로이 들나물 캐어 왔네.

欲識箇中無限意

그 속의 무한한 의미 알고 싶은가?

白雲時與暮禽廻

흰구름이 때때로 저녁 새와 함께 돌아오누나.

閑中偶書

한가로운 시간에 우연히 쓰다

寺在千峰裏

절이 천 봉우리 속에 있으니

幽深未易名

그윽하고 깊어 쉽게 이름지을 수 없네.

開窓便山色

창을 열면 바로 산빛이요

閉戶亦溪聲

문을 닫으면 계곡물 소리라.

谷密晴猶暗

골짜기가 깊다 보니 맑은 날씨에도 어둡하고

樓高夜自明

누각이 높으니 밤이라도 절로 밝다.

竹風生几席

자리에는 대숲의 바람이 절로 일고

松露滴檐楹

소나무 이슬은 처마를 적시네.

境靜棲遲穩

주위가 고요하니 살기에 편안하고

身閑舉止輕

몸이 한가로우니 움직이기 가뿐하네.

困來時偃息

고단하면 때때로 누워서 휴식하고

睡足或經行
累盡無欣感
賓稀少送迎
飢餘林蔌軟
渴有石泉清
祇是安衰疾
元非養道情
箇中何限意
切忌與人評

충분히 자고 나면 거닐기도 해보네.
번뇌가 다하여 기쁨 슬픔 없어지고
손님이 드물어 맞고 보냄 적다네.
배고프면 숲속의 산나물이 부드럽고
갈증이 나면 돌가의 샘물이 맑지.
다만 병에 찌든 몸을 안정시킬 뿐
수도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아니로다.
그 중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지
사람들과 따지고 싶진 않다네.

閑中遣

野性便幽獨
棲遲寄翠微
光陰雙雪鬢
活計一霞衣
帶雨移松栽
和雲掩竹扉
山華輕綉幕
庭栢當羅幃
靜對爐煙細
閑看磴蘚肥

人來休問我
早與世相違

심심해서

타고난 성품이 모르는 곳에 홀로 있기 좋아하여
푸른 산빛에 깃들여 느긋하게 살아가네.
세월이 흘러 두 귀밑머리엔 눈이 내렸고
살아갈 계책은 한 벌 장삼뿐이로다.
비 맞으며 소나무를 옮겨 심고
구름 따라 대나무 사립문을 닫는다.
산꽃은 가벼워 수놓은 장막과 같고
뜰 앞의 잣나무는 휘장을 펼친 듯.
가느다랗게 피어오르는 화로의 연기 고요히 대하고
돌다리에 도톰하게 자라나는 이끼를 한가로이 보
기도 하네.

사람들은 내게 와서 묻지 말게나
일찌감치 나는 세상사람들과 어긋나도다.

山居暮春卽事

節屬三春暮
 風和物色齊
 早鶯初出谷
 新燕已銜泥
 雲羃山屏暗
 煙籠樹幄低
 巖華紅馥馥
 庭草碧萋萋
 雨歇鳩呼婦
 林深鹿養麕
 睡餘聊散步
 日在小窓西

산에 살면서 늦은 봄날에

석 달 봄이 끝나갈 무렵
 바람도 온화하고 만물도 모두 푸르네.
 때 이른 앵무새 처음으로 골짜기에 나오고
 새로 온 제비는 이미 진흙을 입에 물었네.
 구름 덮이자 병풍같은 산 어두워지고
 안개 둘러싸니 나무들이 휘장처럼 늘어졌구나.
 바위틈에 핀 붉은 꽃은 향기 더욱 짙고
 마당에 난 푸른 풀은 무성하고 무성하구나.
 비 그치자 비둘기는 짝을 부르고
 깊은 숲엔 사슴이 새끼를 기르는 모습.
 한잠 자고 나서 산보를 하였던니
 해는 벌써 작은 창문 서쪽에 있네.

自戲

予曾少多病
 今又到衰年
 佛尚慵瞻禮
 經奚要諷宣
 逢餐輒飽送
 值晚卽橫眠
 休問祖師意
 從來不會禪

스스로를 희롱함

내 어릴 때부터 병이 많았는데
 이제는 나이까지 많아졌구나.
 예불하는 일조차 게으른데
 경전을 어찌 외우겠는가?
 음식을 만나면 곧바로 배가 부르도록 먹고
 저녁이 되면 그대로 드러누워 자버리네.
 조사의 뜻을 묻지 말아라
 애당초 선같은 건 알지 못한다네.

法兄默公 聞予門庭單丁枯淡 以書見慰 戲作短歌以答之
 법형(法兄) 묵공(默公)이 내가 혼자 궁핍하게 산다는 것을 듣고 편지
 를 보내 위로하기에 재미로 짧은 노래를 지어 답하노라

鷄峯寂寞兮 계족봉(鷄足峰)이 적막하다는 말
 傳者之訛 전한 사람의 잘못이라.
 活計現威兮 살아갈 계책이 당당하니
 不同小小 소소한 무리와는 같지 않다.

象骨峯前兮 상아같이 생긴 산봉우리 앞에는
 粥飯無虧 죽과 밥이 모자람이 없고
 馬駒堂下兮 집 아래엔 망아지 노닐고
 鹽醬不少 소금과 장이 적지 않다네.

清溪兮盤迴 맑은 계곡물이 빙 돌아 흐르고
 碧嶂兮繚繞 푸른 봉우리가 빙 둘러 있네.
 風櫺兮虛涼 바람 부는 난간은 텅 비어 시원하고
 水閣兮窈窕 물가의 누각은 고요하기만 하네.

或坐或臥兮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며
 神遊物初 정신은 만물의 근원에서 노닐고
 獨唱獨和兮 홀로 노래하고 홀로 화답하며
 趣逸天表 흥취가 하늘 너머로까지 내달리네.

湛然無營兮 억지로 애쓰지 않고 조용히 지내면서
 一味自娛 한 맛을 스스로 즐기고
 閒爾忘懷兮 고요히 생각을 잊으니
 萬緣都了 만 가지 인연이 다 끝나버렸도다.

興亡兮莫我干
榮辱兮莫我擾
鳬鶴一貫兮
孰短孰長

흥하고 망함에 나는 관여하지 않나니
영예와 치욕이 나를 흔들지 못하리라.
오리와 학이 한가지이니
어느 것이 더 길고 어느 것이 더 짧으리?³⁾

彭殤同壽兮
誰壽誰夭
一帔兮閱寒暑
一鉢兮度昏曉

팽조와 상자가 똑같이 살았으니
누가 오래 살고 누가 일찍 죽었던 말인가?⁴⁾
옷 한 벌로 추위 더위 다 겪으며
발우 하나로 아침 저녁 다 지나네.

憨癡癡兮
百醜千拙
予誰之似兮
棲芦倦鳥

어리석고 바보스럽구나!
백 가지로 추하고 천 가지로 서투네.
나는 누구와 비슷한가?
갈대에 깃든 지친 새로다.

閑中偶書

한가로울 때 우연히 쓰다

寺藏深谷裏
樓壓小溪西
灌木和烟暗

깊은 골짜기 속에 절이 감춰져 있고
누각은 작은 계곡 서쪽에 버티고 있네.
관목들은 안개에 서려 어둑하고

3) 오리의 다리는 짧고 학의 다리는 길지만, 각각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므로 각각에게 가장 알맞은 길이다. 따라서 오리의 다리와 학의 다리는 같은 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의 다리가 길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니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4) 팽조(彭祖)라는 사람은 장수를 하고 상자(殤子)라는 아이는 요절을 하였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오래 살았다고 할 수가 없다. 만물은 평등하다고 하는 사상으로, 역시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叢篁冒雨低
簷頭蛛作網
牆下燕銜泥
晝睡晚初覺
林鷗爭返棲

춤춤하게 난 대나무는 비에 젖어 축 처졌네.
처마 끝에 거미는 그물을 치고
담장 아래 제비는 진흙을 물었구나.
낮에 든 잠 저녁에야 깨어나니
숲에는 까마귀가 다투어 돌아와 깃드네.

平生嗜幽獨
窮谷寄衰羸
地僻花開晚
山高日出遲
蕉心抽不盡
溪舌吼無時
此樂少人會
嗒然空自怡

평생을 외딴 곳에 홀로 있길 좋아하다 보니
깊은 골짜기에 쇠약하고 여윈 몸을 맡기었네.
땅이 궁벽지니 꽃도 늦게 피고
산이 높으니 해가 더디게 떠오르네.
파초 심지는 아직 덜 빠져나왔는데
계곡물은 끝없이 소리를 낸다.
이 즐거움 아는 이 적으리니
멍하니 나 홀로 즐거워하네.

惜花吟

臘月念六初入郭
轉頭春已七十
有三日
去年今年同逝川
昨日今日甚奔馳
昨日看花花始開
今日看花花衍落
花開花落不容惜
春至春歸誰把捉

꽃을 아끼는 노래

선달 스무 엿새에 처음 성안으로 들어왔었는데
고개 둘러보니 그 사이에 봄이 73일이나 지났구나.
지난 해에도 올해도 똑같이 시냇물은 흘러가고
어제도 오늘도 역마(驛馬)는 내달리네.
어제 꽃을 보니 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오늘 꽃을 보니 꽃이 주룩룩 떨어지네.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걸 아까와 할 것 없는데
봄이 오건 봄이 가건 누가 붙잡을 것인가?

世人但見花開落
不知身與花相若
君不見
朝臨明鏡誇紅顏
暮向北邙催緋鬢
須信花開花落時
分明說箇無常法

세상 사람들은 다만 꽃이 피고 지는 것만 볼 뿐
자기 자신이 꽃과 비슷하다는 건 알지 못하지.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아침에 거울 보며 젊은 얼굴 뽐내다가
저녁에는 공동묘지 향하여 상여를 재촉하는 것을.
반드시 믿을지니, 꽃이 피고 꽃이 지는 때가
무상(無常)의 법을 분명하게 설하고 있는 것임을.

偶閱晉人郭文傳 愛其能外身世 放情於山水間 因敍鄙懷 成
二十八韻

진(晉)나라 사람 곽문(郭文)⁵⁾의 전기를 읽다가 그가 세속을 벗어나
산수 사이에 정을 펼쳤던 것을 사랑하여 나의 감회를 적어본다

吾聞昔郭文
少小愛山水
遊歷華山陰
深入窮谷裏

내 듣기를 옛날에 곽문이란 사람은
어려서부터 산수를 사랑하여
화산(華山) 북쪽 지방으로 다니면서
궁벽진 골짜기로 깊이 들어갔다네.

斬木倚於樹
覆苫作居止
不虞飢與寒
但喜山水美

목재를 잘라 나무에 걸치고
거적을 덮어 살 곳을 만들었네.
굶주림과 추위를 걱정하지 않고
다만 산수의 아름다움을 좋아하였네.

予爾處其中

홀로 그 속에 있으면서

5) 곽문(郭文) : 중국 진(晉)나라 사람으로, 7년간 벼슬을 하다가 자연이 그리워 사
직하고 남은 평생을 산수에 은거하여 자연을 즐기면서 살았다.

坐閱十餘祀
于時虎入室
害人頗多矣
而文樂不徹
安然傲生死

文也是俗士
逸想尚如彼
嗟哉浮圖人
宜爾反不爾

圖飽復圖煖
遊獵意不已
營營度一生
竟不知愧恥

顧予本書生
稚齒遊闕里
名題金榜魁
迹廁玉堂士

當時青紫意
豈止拾芥耳
一朝慕獨住
棄官如弊屣

앉아서 십여 년을 지냈네.
당시에는 호랑이가 집으로 들어와
사람을 해친 적도 많았다지만
그런데도 그는 즐기기를 그만두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사를 업신여겼네.

그는 세속의 선비인데도
세속을 벗어나려는 생각이 그와 같았거늘
아아 불교인들은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데도 그러하질 못하네.

배 부르고 따뜻하길 꾀하여
내달리는 생각 그치지 않고
兢兢业业 일생을 지내면서도
끝내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생각해 보면 나는 본래 글공부 하던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유학을 공부했었지.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를 하여
옥당(玉堂)⁶⁾의 학사들과 함께했었지.

당시에 크게 현달하려던 뜻이
어찌 지푸라기 줍는 정도에 그쳤겠는가?
하루 아침에 홀로 있는 것을 그리워하여
헌신짝처럼 벼슬을 버렸었지.

6) 옥당(玉堂) : 학술적인 일을 맡아보던 기관으로, 홍문관(弘文館)이라 하기도 하였다.

便欲山水間
翱翔一終始
爭奈障根深
難逃業力使

累爲叢席主
日與衆人比
聞其不堪聞
視所不欲視

低頭長隱忍
如聾瞽相似
居然喪初心
念此輒顚沛

既往雖難追
來者猶可企
近聞好山中
有地平如砥

土肥泉又甘
窮僻遠塵累
逝將結茅茨
於焉寄衰齒

棲息共林壑
飲啄同澤雉
生兮樂於斯
死兮埋於此

곧 산수 사이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높이 날고자 하였지.
그러나 장애의 뿌리가 깊음을 어찌하리오?
업장의 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네.

거듭 총림의 우두머리가 되어
날마다 대중들과 함께 하다 보니
차마 듣기 힘든 것을 듣게 되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네.

고개 숙여 오래토록 드러내지 않고 참다 보니
귀머거리나 소경같이 되어 버렸네.
끝내는 처음 마음 잃어버렸으니
이를 생각하면 곧 이마에 땀이 나네.

이미 지난 일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올 일은 노력할 수 있는 것.
근자에 듣자니 좋은 산 속에
땅이 솟돌처럼 평평한 곳이 있다고 하였네.

땅은 비옥하고 샘물도 맛있다고 하며
궁벽한 곳이라 세속의 번뇌도 멀리할 수 있다 하네.
가서 장차 띠집을 지어
이에 늙어 쇠약해진 몸을 맡기고자 하였네.

숲 속의 노루와 함께 살고
못 가의 꿩과 함께 마시고 쪼면서
살아서 이렇게 즐기며
죽어서 여기에 묻히리라.

此言如有飾
天遙耳卽邇

이 말에 어떤 꾸밈이 있다면
하늘은 멀어도 그 귀는 가까우리라.

雨中獨坐

寂寞山堂雨更幽
獨吟誰會我心悠

林疎未敢容群羽
海淺那能納衆流
逸翮投籠徒受困

飛蹄繫皂不勝愁

何當卜得安身地
一繭茆庵杖屨留

비 속에 홀로 앉아

적막한 산 속 집에 차분히 내리는 비
홀로 시를 읊는 나의 은근하고 깊은 마음 누가 알
리오?

숲이 성글면 많은 새를 품을 수 없고
바다가 얕으면 여러 물길을 받아들일 수 없네.
날아다니는 새를 새장에 넣으면 괴로움만 받을
뿐이요

내달리는 말을 마굿간에 묶어두면 슬픔을 이길
수 없지.

어떻게 하면 몸을 편안히 둘 땅을 보아서
누에고치같은 초가집 마련하여 머물러볼까.

卽事

半晴半雨天陰陰
似暖似寒春寂寂
閉門愁臥到黃昏
隱隱疎鐘撼窻壁

즉흥시

반쯤 개이고 반쯤 비가 와 날씨는 흐린데
따뜻한 듯 추운 듯 봄날이 고요하기만 하네.
문을 닫고 게으르게 누워 저녁까지 있었더니
간간히 들려오는 은은한 종소리가 창과 벽을 흔
드네.

作偈示諸德

千峰突兀攬白雲
一水潺湲瀉蒼石
自然聞見甚分明
爲報諸人休外覓

계송을 지어 여러 스님들께 보임

천 봉우리 뽕족하여 흰 구름을 찌르고
한 줄기 물은 푸른 돌 사이로 흐르네.
자연히 듣고 보는 것이 매우 분명해지니
모두들 바깥에서 찾지 마시길.

偶書一絕

雨餘庭院靜如掃
風過軒窓涼似秋
山色溪聲又松籟
有何塵事到心頭

우연히 적은 짧은 시 한 편

비 그친 후 뜨락은 쓸은 듯이 고요하고
바람 지나가는 처마와 창은 가을처럼 서늘하네.
산색과 계곡물 소리 그리고 솔바람소리
무슨 번뇌가 마음에 이르리오?

齋餘偶作戲語一篇 寄示印禪伯

공양이 끝나고 우연히 재미로 지은 시 한 편을 인(印) 선백(禪伯)에
게 드림

鷄峯一鉢飯
麤細何辨白
人以麥爲草
我以草和麥

계족봉의 한 그릇 밥
무엇 하려 좋고 나쁨을 가려 말하리오?
사람들은 보리를 풀이라고 하지만
나는 풀을 보리에 섞었다 하네.

鷄峰一盂羹
滋味休擬議
人以豉和鹽

계족봉의 한 사발 국
맛이 어떤지 논하지 마시오.
사람들은 된장을 소금에 넣었다고 하지만

我以鹽爲鼓	나는 소금을 된장이라 생각한다네.
何殊神鼎羹	신정(神鼎) ⁷⁾ 선사와 무엇이 다르랴?
十年無醬食	십년 동안 된장 없이 먹었지.
亦如大愚芝	또한 대우(大愚) ⁸⁾ 선사와 같아서
粥飯繼不得	죽이나 밥을 제대로 잇지 못했네.
單丁與枯淡	홀로 외롭게 그리고 메마르고 맑게 사니
舉世倫比絕	은 세상에 나같은 사람 없네.
主人處其中	주인이 그 속에 있으면서
怡然樂不徹	흐뭇한 마음으로 그 즐거움 그만두지 않네.
賓來問其然	손님이 와서 그 까닭을 물으나
主人笑不答	주인은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으며
賓却笑主人	손님이 주인을 도로 비웃으니
趣尚寡所合	취향과 숭상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야.
虬哉烏覩龍	도롱뇽이 어찌 용의 경지를 바라보며
燕雀焉知鵠	제비와 참새가 어찌 고니의 뜻을 알리오?
賓乎爾且去	손님이여 그만 가 보시오.
與爾不同欲	그대와 함께 하고 싶지 않나니.
爾愛飫珍羞	그대는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겠지만
我愛蔬與糲	나는 나물과 매조미 ⁹⁾ 를 좋아하고
爾愛服輕裘	그대는 가벼운 가죽옷을 좋아하겠지만

7) 신정(神鼎) : 중국 송(宋)나라 때의 스님인 홍인(洪諲) 선사의 법호.
 8) 대우(大愚) : 중국 송(宋)나라 때의 스님인 수지(守芝) 선사의 법호.
 9) 매조미 : 껍질을 대충 벗긴 쌀.

我愛布與葛

나는 베옷과 갈포를 좋아한다네.

爾喜事紛華

그대는 화려한 일을 기뻐하겠지만

我喜處窮僻

나는 궁벽한 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爾喜人所趨

그대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을 기뻐하겠지만

我喜人所斥

나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네.

水樂遶我軒

물의 음악이 나의 처마를 감싸고

山屏圍我屋

산의 병풍이 나의 집을 둘러싸며

我有萬株松

나에게는 만 그루의 소나무가 있고

我有千竿竹

나에게는 천 그루의 대나무가 있다네.

貴不羨王侯

왕이나 제후같은 귀함도 부러워하지 않고

富不羨金谷

금곡(金谷)¹⁰⁾과 같은 부도 부러워하지 않나니

偃仰適我適

즐거이 내게 맞는 것을 좋아하고

於焉樂幽獨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즐기노라.

曾不識張三

일찍이 장삼(張三)도 알지 못하는데

安知有李四

어찌 이사(李四)를 알리오?¹¹⁾

凡我所自養

내가 스스로 기르는 것을

何以爾所嗜

네가 어찌 좋아하겠는가?

賓聞輶而退

손님은 듣고서 얼굴을 붉히고 물러나

索筆書大略

붓을 찾아 대략을 적어서

寄示同心友

마음을 같이하는 벗에게 보여

10) 금곡(金谷) : 중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일컬어지는 석송(石崇)이 금곡원(金谷園)이란 거대한 정원과 저택을 지었다. 이에 따라 금곡은 부의 상징이 되었다.

11) 장삼(張三)과 이사(李四)는 세 명의 장씨와 네 명의 이씨라는 말이며, 장씨와 이씨는 가장 흔한 성으로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을 일컫는다.

庶以資一噓

크게 한번 옷을 거리로 삼기를 바라노라.

睡起

자다가 깨어나

秋杪淒涼日色薄
山容索寞霜華清
閉門坐睡便成夢
驚起林鴉三兩聲

가을의 나뭇가지 처량하고 햇빛도 옅은데
산의 자태 삭막하고 서리꽃 맑구나.
문을 닫고 앉아 졸다 꿈까지 꾸게 되었는데
깜짝 놀라 깨어나니 숲 속의 까마귀 지저귀는 소리.

書情

정을 쓰다

野禽終歲困籠囚
歸意寧容寸刻留
奮翼一飛當有日
何山雲月不堪遊

들새가 한 해가 다하도록 새장에 갇혀 고생하니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어찌 잠시라도 더 머물고
싶으리?
날개를 펼쳐 한번 날 때가 반드시 있으리니
어느 산 구름과 달인들 노닐 수 없으리오?

作野牛頌示同人

들소노래를 지어 동료들에게 보임

野牛天性本難馴
草細平田自在身
何意鼻端終有索
牽來牽去總由人

들소의 천성이란 본래 길들이기 어려워
풀이 가녀린 들판을 마음대로 다녔네.
어찌 코 끝에 고삐 묶일 줄 알았겠나?
끌려 오고 끌려 감이 모두가 사람에 달렸도다.

臘月十八日微雪中作

선달 18일 가는 눈이 내릴 때

風勁天陰糝玉塵
山居寥落似無人
地爐幸有柴頭在
煨蕪能廻一室春

바람이 드세고 날씨는 음침한데 옥가루 뒤섞이니
산 속의 삶터가 쓸쓸하여 아무도 없는 듯하네.
화로에 다행히 장작이 남아 있어
그것을 태워 방 하나의 봄을 되돌릴 순 있겠군.

偶書

우연히 쓰다

飄然一葉泛風濤
萬抆千搖浪轉高
本自舟中無一物
陽侯惱殺也徒勞

나뭇잎 하나 풍랑 속에 떠다니는데
천 번 만 번 흔들리고 물결은 갈수록 높아가네.
본래 배 안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파도가 부질없이 애를 쓰누나.

臂短歌

팔 짧은 노래

世人之臂長復長
東推西推無歇辰
山僧之臂短復短
平生不解推向人
大凡世上臂短者
人皆白首長如新
而況今昨始相識
肯顧林下窮且貧

세상 사람들의 팔은 길고도 길어
동쪽으로 뻗고 서쪽으로 뻗어 쉬는 때가 없네.
산승의 팔은 짧고도 짧아
평생토록 남을 향해 뻗을 줄 모르지.
대개 세상의 팔 짧은 자들은
사람들이 흰 머리가 되어도 늘 낮설기만 하지.
하물며 어제 오늘 처음 서로 알게 된데다
숲 속에서 빈궁하게 사는 사람을 돌아보려 하리
오?

我臂既短未推人	내 팔은 이미 짧아 남에게 뺨을 수 없고
人臂推我誠無因	남의 팔은 나에게 뺨을 이유가 없도다.
嗚呼安得吾臂化爲 千尺與萬尺	오호라! 어찌하면 내 팔이 천 척 만 척이 되어서
坐使四海之內皆 吾親	앉은 채로 세상 사람들을 다 친한 이로 만들꼬.

拙語布懷示表兄之禪老

서툰 말로 회포를 적어 표(表)형(兄) 노스님께 보임

歲月如逝水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
剎那不少止	찰나도 멈추지 않네.
若以無常觀	만약 무상(無常)함으로 본다면
朝夕保亦難	아침 저녁조차 보전하기 어려우리라.
縱復免殤夭	비록 요절을 면한다 하더라도
古來七十少	예부터 일흔까지 사는 자 적었지.
況我早衰羸	하물며 나는 일찍부터 쇠약하였으니
七十安可期	일흔을 어찌 기약할 수 있으리.
儻或登七旬	혹시 일흔까지 산다 해도
前去纔十春	앞에 남은 것이 겨우 십 년인데
餘齡能幾時	남은 세월 얼마나 될 수 있으리?
不卜亦自知	점쳐보지 않아도 스스로 알겠도다.
何苦徇時俗	세상 사람 하는 대로 따라하기 얼마나 힘든가?
營營不知足	빡빡거리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네.
默坐細思惟	말 없이 앉아 자세히 생각해보면
掩泣難勝悲	얼굴을 가리고 울어보지만 슬픔을 이기기 어려워라.

安得好山谷
 深棲伴麋鹿
 耳畔絕是非
 目前無順違
 脩然常獨行
 放曠終吾生
 尋常抱此志
 寤寐曾不二
 天明心下燭
 寧不從我欲
 憂來書寸情
 持以示吾兄

어찌하면 좋은 산골짜기를 얻어
 사슴과 짝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귀에는 시비 따지는 소리 끊어지고
 눈 앞에는 잘되고 못되는 일 없으리라.
 나 홀로 마음대로 하고 지내면서
 후딱 내 생을 마치리라.
 평소에 이 뜻을 안고서
 자나 깨나 마음 바뀐 적 없네.
 하늘이 내 마음의 촛불을 밝혀주리니
 어찌 나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리오?
 걱정이 되어 조그만 생각을 적어
 우리 형(兄)께 보여드리오.

戲書

諸君手裏有錢神
 到處能回滿面春
 自笑山僧與時左
 唯將冷語屢氷人

장난스레 쓰다

그대들은 손 안에 돈의 신이 들어 있어
 가는 곳마다 능히 온 얼굴에 봄을 돌려올 수 있지.
 스스로 가소롭구나, 나는 시대와 맞지 않아
 오로지 썰렁한 말로 자주 사람들을 얼려버리니.

閒中偶書

飢來喫飯飯尤美
 睡起啜茶茶更甘
 地僻從無人扣戶

한가로운 때 우연히 쓰다

배 고파서 밥을 먹으면 밥이 더욱 맛있고
 자고 일어나 차를 마시면 차가 더욱 감미로와.
 땅이 궁벽하여 문 두드리는 사람 없으니

庵空喜有佛同龕 암자가 텅 비어 부처님과 한 방에 있는 것 기뻐라.

曾有擬古之作追而錄之

옛사람의 시를 본받아 지은 시

大湖萬頃餘	큰 호수에 만 이랑의 물결이 일다가
風息波亦息	바람이 잦아드니 파도 역시 쉬는구나.
人心方寸間	사방 한 치의 사람 마음에서
浪起常千尺	천 자의 물결이 항상 일어나네.

山中樂

산중의 즐거움

-初出家住白蓮庵時作 -처음 출가하여 백련암(白蓮庵)에 있을 때 지음

山中樂	산중의 즐거움이여!
適自適兮養天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타고난 온전함을 기르리라.

林深洞密石逕細	숲이 깊고 골짜기는 뾰뾰하고 돌길은 좁은데
松下溪兮岩下泉	소나무 아래에는 시냇물이요 바위 아래에는 샘물 이로다.

春來秋去人跡絕	봄이 오고 가을이 가도 인적이 없으니
紅塵一點無緣	세속의 번뇌와는 조금도 연관이 없네.

飯一盂蔬一盤	밥 한 그릇 나물 한 접시
飢則食兮困則眠	배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네.
水一甌茶一銚	물 한 병 차 한 통
渴則提來手自煎	목 마르면 가져와서 손수 끓이네.

一竹杖一蒲團
行亦禪兮坐亦禪
山中此樂眞有味
是非哀樂盡忘筌

대지팡이 하나 방석 하나
다닐 때도 참선 앉아서도 참선이라.
산중의 이 즐거움 참으로 재미있으니
옳고 그름과 슬프고 즐거움 모두 다 잊네.

山中此樂諒無價
不願駕鶴又腰錢

산중의 이 즐거움 참으로 값이 없으니
학을 타고 신선이 되어 허리에 돈까지 차는 일 원
치 않네.¹²⁾

適自適無管束
但願一生放曠
終天年

구애됨이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니
일생동안 마음대로 하면서 평생을 마치고 싶을 뿐.

禪餘得句 書示同袍 참선하고 나서 얻은 구절을 동료들에게 보임

塵刹都盧在一庵
不離方丈遍詢南
善財何用勤劬甚
百十城中枉歷參

티끌같이 많은 세계 한 암자 속에 다 들었으니
방장실을 떠나지 않고 남쪽을 두루 돌았네.
선재동자는 무엇하리 고생하면서
백 개의 성을 두루 다녔던가.

偶書

우연히 쓰다

世人終日競奔忙
羶蟻灯蛾莫可方
坐穩那知船底漏

세상사람들 하루 종일 다투어 바빠 달리니
개미와 부나방도 견줄 수가 없다네.
편안히 앉아서 배 밑이 새는 줄 어찌 알랴

12)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승천하는 일과 부자가 되어 허리에 돈을 차는 것은 대개 인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며, 이 둘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최고의 바람이다.

途長猶愛樹陰涼

갈 길이 먼데도 나무 그늘의 시원함에 빠져 있네.

初春寄悅禪伯

초봄에 열(悅) 선백(禪伯)¹³⁾에게 드림

寒喧代謝是尋常
人盡奔波賀歲忙
舊去新來何所喜
鬢邊添得一莖霜

추위 더위 바뀌는 것 항상 있는 일인데
사람들은 모두 다 새해 축하 바쁘네.
한 해가 가고 옴이 무엇 그리 기쁘가
한 줄기 흰 서리만이 살쩍가에 더함을.

偶書

우연히 쓰다

邯鄲枕上事荒唐
寵辱真同夢一場
盡道吾能窮此理
逢些順境却顛忙

베갯머리 꿈속에 한단(邯鄲)의 일¹⁴⁾ 황당하니
영욕이 진실로 한바탕 꿈이로다.
모두들 말하기를 이 이치를 잘 안다지만
별 것 아닌 일에도 곧 허둥대고 마네.

有一禪德請詩

어떤 선승이 시를 청하여

春日花開桂苑中
暗香不動少林風
今朝果熟沾甘露
無限人天一味同

봄날 계수나무 동산에 꽃이 피어
소림사(少林寺)의 바람에도 향기 나지 않더니
오늘에야 과일 익어 단 이슬에 젖었으니
무한한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한맛일랑 보리라.

13) 선백(禪伯) : 경륜이 있는 중진 선 수행자.

14) 한단(邯鄲)의 일 : 꿈속에서 이상향을 경험했다고 하는 중국 고사.

示人

다른 사람에게 보임

浮生正似隙中駒

부생(浮生)은 참으로 눈 깜빡할 사이라

得喪悲歡何足數

얻음과 잃음, 슬픔과 기쁨, 어찌 다 헤아리리?

君看貴賤與賢愚

보아라 그대여, 귀하거나 천하거나 똑똑하거나 어리석거나

畢竟同成一丘土

마침내 한줌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을.

偶書問諸禪者

우연히 써서 여러 선승들에게 묻다

朝來共喫粥

아침에는 죽을 먹고

粥了洗鉢盂

죽 먹고는 발우 씻네.

且問諸禪客

문노니 선객들이여

還曾會也無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試新筆次 信手書一偈 贈侍者

새 붓을 시험하면서 손 가는 대로 계송을 한 수 써서 시자에게 주다.

擎茶日遣滋吾渴

날마다 차(茶)를 날라 나의 갈증을 풀어주고

過飯時教療我飢

때마다 밥을 주어 나의 배고픔 덜어주네.

若謂山僧無指示

만약에 내게서 가르침이 없다 하면

知君辜負老婆慈

알겠네, 노파의 자비심 그대 저버렸음을

夜大雪都不覺知 曉起望城中有作

밤에 큰 눈이 내렸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 성 안
을 바라다보고 짓다

但認更深月照來

不知庭院雪成堆

平明起向城中望

萬樹梅花一夜開

깊은 밤 달빛 비치는 것만 보았고

뜨락에 눈 쌓이는 건 알지 못했네.

새벽녘에 일어나 성 안을 바라보니

밤 사이 만 그루 매화꽃이 피었네.

偶用雪堂韻示印默二禪人

인(印)·묵(默) 두 선인(禪人)에게 보임

曹溪不獨龍象窟

春晚園林最奇絕

數枝山茶紅似火

千樹梨花白於雪

竹外紅桃開最晚

正似卯酒初上顚

朝來山雨洒如飛

但見綠葉相低垂

良辰美景古難得

我今行樂嗟暮遲

憑君急呼二三子

論詩煮茗供遊嬉

조계산은 스님들 사는 절만이 아니라

늦은 봄 뜰과 숲도 참으로 좋다네.

몇 가지 야생차는 불길처럼 발갛고

천 그루 배꽃은 눈보다도 희구나.

대숲가의 홍도화 뒤늦게 피어서

두 볼에 새벽술이 오른 듯만 하더니

아침의 산비가 날리듯이 쏟아지자

축 처진 푸른 잎만 남았네.

좋은 때와 아름다운 경치는 예부터 함께 얻기 어
려우니

나 지금 놀아보려 하나 아쉽게도 이미 늦구나.

그대들이 두세 사람 급히 불러서

시를 논하고 차를 끓이며 함께 한번 놀아보세나.

暮春卽事

春深日永人事絕
 風打梨花滿庭雪
 依檐佳木影加交
 散步行吟自怡悅

봄날 저녁에 문득

봄 깊어 날은 길고 찾는 이도 없는데
 바람이 배꽃 때려 마당 가득 눈 쌓였네.
 처마에 기댄 예쁜 나무들 그림자를 포갠는데
 산책하고 시 읊으며 스스로 즐거워하네.

閑中自慶

日日看山看不足
 時時聽水聽無厭
 自然耳目皆清快
 聲色中間好養恬

한가한 가운데 절로 좋아서

날마다 산을 보아도 다함이 없고
 언제나 물소리 들어도 싫증 나지 않네.
 귀와 눈이 절로 맑고 시원해지니
 소리와 빛 가운데서 편안한 마음 기르기 좋네.

雪中作苦寒詩 寄韓平陽謝奇

눈 속에 추위로 고생하는 시

雪壓山堂冷似冰
 坐來寒涕輒垂膺
 何時造化迴春暖
 空歎天工不我矜

눈 덮인 암자는 얼음같이 찬데
 앉아 있자니 갑자기 차가운 눈물이 가슴에 떨어
 지네.
 언제나 봄 돌아와 따뜻하게 되려나
 하늘이 무심하다고 공연히 탄식하네.

鷄峯苦

鷄峯之苦今無譬
欲說一二先酸鼻
經營歲久屋甚老
檐甑牆壁皆傾地

每遇淋漓下雨時
屋漏如篩無處庇
四時執爨唯數髭
衣裳縑縷顏色悴

齋時蔬藕晨淡粥
陟嶮搬柴日三四

何曾揀擇寒與暑
雖復雨雪不敢避

園頭老僧只一個
薤草倒地折一臂
山椒菜圃小如掌
草深沒膝無人理

深村丁力四五戶
茅茨不完蓬滿地
男出耕耘女踏碓

계족봉(鷄足峯)의 괴로움

계족봉(鷄足峯)의 괴로움은 비할 데가 없어라
한두 가지 말하려니 코가 먼저 시큰해지네.
산 지가 오래 되어 가옥은 심히 낡고
처마와 담장이 땅에까지 기울었네.

매번 장마가 되어 비가 내릴 때면
집이 체처럼 비가 새서 감쌀 수가 없네.
사시사철 부뚜막에 넣을 것은 장작 몇 조각뿐
의상은 남루하고 안색은 초췌하네.

낮에는 채소와 연뿌리요 아침에는 묶은 죽이며,
힘준한 곳 오르며 땀나물을 해봐야 하루에 서너
짐이라.

추위와 더위를 가릴 여유도 없으니
비록 비와 눈이 내려도 피하지 못하네.

늙은 원두¹⁵⁾ 스님은 한 사람뿐이어서
풀을 베다 넘어져 팔 한 쪽이 부러졌네.
산초나무 채마밭은 작아서 손바닥만하고
풀이 무성하여 무릎이 빠져도 손보는 사람이 없네.

궁벽진 마을에 힘쓰는 사람 있는 너댓 집
초가 지붕 허술하고 땅에는 썩이 가득.
남자는 나가서 밭을 갈고 여자는 방아질하는 것
이건만

15) 원두: 절에서 채마밭을 관리하는 스님.

長年力役到童稚	어른의 노역이 아이들에게까지 미치네.
十日驅使一日休	열흘 부림을 당하고 하루를 쉬니
奚暇仕家營自利	어느 여가에 자기 집일에 신경을 쓰랴?
秋至蕭然無所穫	가을이 되어도 뭘 거둘 게 없어
但向人田拾遺穗	다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주울 뿐.
每說明年必不堪	늘상 내년에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 말하며
遠邇不復見茲寺	멀든 가깝든 다시는 이 절을 보지도 못하는구나.
獨眼院主頻來言	외눈박이 원주는 자주 와서 하는 말이
糧罄將無數月備	양식이 다 떨어져 몇 달 것밖에 없다 하네.
欲令齋鉢不全空	밥그릇을 완전히 비울 수는 없으니
急須將貨糶於肆	급히 물건을 가져가서 시장에서 쌀을 사 와야지.
不然晨夕省其費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식으로 쓰는 것을 줄여야 하니
草加於飯鹽加豉	밥에다 풀을 섞고 된장에는 소금을 집어넣네.
鷄峯之苦苦復苦	계봉의 고통이 괴롭고도 괴로우니
具說豈止唯此事	갖추어 말하자면 어찌 이런 것에 그치리오?
旣不是北洲鬱單越	이미 북주의 울단월 ¹⁶⁾ 처럼
衣食隨心而自至	입고 먹는 물품이 생각만 하면 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又不能毗耶老居士	또한 비야의 늙은 유마거사처럼
上方取飯而分施	위쪽 세계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나눠줄 수도 없

16) 북주의 울단월 : 수비산 북방에 있다고 하는 땅 이름. 이 곳의 사람은 천 년을 살며, 중간에 일찍 죽는 일이 없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품이나 시설이 극히 풍부하다고 한다.

는 일.¹⁷⁾

不如將此千般萬
般苦

차라리 이런 천 가지 만 가지 고통을 모조리

都付風軒一場睡

바람 부는 집의 한 바탕 잠에 부치는 것이 나으리.

西原道俗 出城泣送 感而有作

서원(西原)의 스님과 신도들이 성밖까지 나와 눈물로 배웅하기에 느
낌이 있어 짓다

大都餞客意難平
爲有從前纏綫情
底事滿城縞與白
一時揮涕送吾行

큰 고을에서 손님 전송에 마음 편치 못함은
예전부터의 곡진한 정다움 때문이네.
어찌타 온 성의 스님과 신도들이
일시에 눈물 뿌리며 날 보내나?

重九日對花有感

중양절¹⁸⁾에 꽃을 보고 느낌이 있어

干戈市地起
四海皆煙塵
烝民困煎熬
觸目吁可哀
悵悵度晨暝
那知佳節來

온 땅엔 창과 방패
바다엔 연기와 먼지.
백성이 괴로워하니
보이는 것 다 슬픔.
아침 저녁 근심걱정
좋은 계절 오는 줄도 몰랐네.

17) 유마거사는 향적세계(香積世界)라는 곳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18) 중양절(重陽節) : 음력 9월 9일. 이때 국화가 한창 피는 철이다.

珍重東籬菊
 殷勤及時開
 金葩競媚嫵
 似欲慰我懷
 強起到花下
 遶叢久徘徊
 龍山落帽客
 白骨成塵埃
 彭澤嗜酒翁
 一往不復廻
 無人肯見賞
 花開亦悠哉
 弔古復傷今
 幽懷難自裁

소중타 동쪽 울 국화
 때가 되니 꽃 피었네.
 금빛 꽃이 다투어 아리따와
 나의 회포를 위안해 주는 듯.
 억지로 일어나 꽃 아래에 이르러
 꽃떨기를 둘러싸고 한참 동안 배회하네.
 국화를 보며 잔치를 벌이던 맹가(孟嘉)¹⁹⁾는
 백골이 티끌이 되었을 것이며
 국화주를 좋아했던 도연명(陶淵明)²⁰⁾도
 한번 가고는 돌아오지 않네.
 보고 즐길 사람 없어
 꽃이 피어도 수심이네.
 예나 지금이나 슬픈 일 연속이니
 깊은 걱정 어떻게 하기 어렵구나.

嶺南艱苦狀二十四韻

고생하는 영남지방의 모습

-庚辰年造東征戰艦時作

-1280년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전함을 만들 때 지었다.

嶺南艱苦狀
 欲說涕將先
 兩道供軍料

영남의 고생하는 모습
 말하려니 눈물부터 앞서네.
 두 도(道)에선 군량미를

19) 맹가(孟嘉) : 중국 진(晉)나라 때 사람.

20) 도연명(陶淵明) : 중국 진(晉)나라 때 사람. 국화를 사랑하고 국화주를 즐겨 마셨다.

三山造戰船
征徭曾百倍
力役亘三年
星火徵求急
雷霆號令傳

使臣恒絡繹
京將又聯翩
有臂皆遭縛
無腴不受鞭

尋常迎送慣
日夜轉輸連
牛馬無完脊
人民鮮息肩

凌晨採葛去
踏月刈茅還
水手驅農畝
梢工卷海堧

抽丁擐甲胄
選壯荷戈鋌
但促尋時去
寧容寸刻延

妻孥啼壁地
父母哭號天
自分幽明隔

세 산(山)에선 전선(戰船) 제조.
부세는 백 배 더하고
요역은 삼 년이나 계속되네.
성화같이 급한 세금 징수
벼락같이 호령 내리네.

사신이 항상 이어지고
서울 장군 줄 지었네.
있는 대로 팔 묶이고
온 등줄기에 채찍질.

늘 맞이하고 보내며
밤낮으로 수송이 이어지네.
소나 말은 온전한 등이 없고
백성 어깨 쉴 새 없어.

이른 새벽 칩을 캐고
달빛 밟으며 떠돌 베네.
어부들은 논두렁으로 내몰리고
목수는 바닷가를 뒤덮었네.

머슴을 뽑아서 갑옷을 두르게 하고
장정을 뽑아서 창을 둘러메게 하였네.
다만 한시 바빠 가길 재촉만 하니
어찌 촌각인들 지체함을 용납하라!

처자는 땅을 치며 울부짖고
부모는 하늘을 부르짖으며 통곡을 하네.
삶과 죽음이 서로 갈라져 있는데

那期性命全

予遺唯老幼

强活尙焦煎

邑邑半逃户

村村皆廢田

誰家非索爾

何處不騷然

官稅竟難免

軍租安可蠲

瘡痍唯日甚

疲瘵曷由痊

觸事悉堪慟

爲生誠可憐

雖知勢難保

爭奈訴無緣

帝德青天覆

皇明白日懸

愚民姑且待

聖澤必當宣

行見三韓內

家家奠枕眠

목숨 부지하길 어찌 기약하리.

남은 자는 늙은이와 어린이뿐

억지로 살려하나 속을 태우네.

고을마다 반은 도망간 집이요

마을마다 모두가 농사 그만두었네.

어느 집인들 삭막하지 않으며

어느 곳인들 썰렁하지 않을까!

관청의 세금은 끝내 면하기 어려우니

군대의 부역인들 어찌 덜 수 있으리?

상처는 날로 심해져 가는데

피로에 지친 몸 어찌 치유되리?

일마다 통곡 참으니

산다는 것 참 가련타.

형세의 어려움이여

호소할 데도 없구나.

황제의 덕이 하늘을 덮고

황제의 지혜가 밝은 해와 같아

백성들이 잠시만 기다리면

거룩한 은택이 널리 퍼지리니

그때는 온 나라 안

베개 높여 자리라.

憫農黑羊四月旦日雨中作

농부들이 가련하여 4월 초하루에 비 속에서 짓다

農事須及時
失時無復爲
農時苦無幾
春夏交爲期
春盡夏已生
農事不可遲
上天解時節
膏澤方屢施
征東事甚急
農事誰復思
使者恒絡繹
東馳復西馳
巷民空巷閭
長驅向江湄
日夜伐山木
造艦力已疲
尺地不墾闢
民命何以資
民戶無宿糧
太半早啼飢
況復失農業

농사는 때에 맞게 해야 하는데
때를 잃으면 다시 할 수 없다오.
농사 시기는 짧은 것이 힘드니
봄 여름이 바뀔 즈음이 때가 된다네.
봄이 다하면 여름이 이미 시작되고
농사는 더 지체할 수 없나니
하늘에서 시절을 알고
비를 자주 내려 주시지.
일본을 치는 일²¹⁾이 급하다 보니
농사를 누가 다시 생각하랴?
사신이 늘 이어져서
동쪽으로 내닫고 서쪽으로 내달리네.
마을을 비울 정도로 백성을 모아
늘 강가 쪽으로 내모네.
밤낮으로 산의 나무를 베어서
전함을 만드느라 힘이 이미 지쳤네.
한 자의 땅도 개간하지 못하는데
백성의 목숨 어떻게 부지하랴?
백성의 집에는 저장한 양식이 없어
태반은 일찌감치 배고프다 울어대네.
하물며 농업까지 잃었으니

21) 원(元)나라가 고려를 지배하면서 백성들을 동원하여 전함을 만들어 일본을 정벌하고자 하였다.

當觀死無遺
嗟予亦何者
有淚空漣漣
哀哉東土民
上天能不悲
安得長風來
吹我泣血詞
一吹到天上
披向白玉墀
詞中所未盡
盡使上帝知

남김 없이 다 죽는 꼴 보겠구나.
아, 나는 또한 무엇하는 사람인가?
부질없이 눈물만 줄줄 흘러네.
슬프다 이 땅의 백성
하늘도 슬퍼하질 못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긴 바람 불어와
나의 피울음으로 짓는 시를 불어갈꼬?
하늘까지 한번 불어
하늘 궁전 들어가서
시 속에서 못다 한 말을
하느님께 알게 할꼬?

臨終偈

閱過行年六十七
及到今朝萬事畢
故鄉歸路坦然平
路頭分明未曾失
手中纔有一枝筇
且喜途中腳不倦

임종계

지나온 인생항로 어언 육십 칠 년
오늘 아침에 이르러 만사는 끝나는가 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평탄하니
길이 분명하여 잃을 염려 없으리라.
손에는 때마침 지팡이가 있으니
기쁘도다, 길 가는 중에 피로하지 않으리.



景閑 경한

◀ 白雲和尚語錄 백운화상어록 ▶



居山

夢幻年光過耳順
孤山村塢也相宜
飢來喫食困來睡
李四張三都不知

一念不生全體現
此體如何得喻齊
透水月華虛可見
無心鑑象照常空

洞中流水如藍染
門外青山畫不成
山色水聲全體露
箇中誰是悟無生
舉杖云 認着依前
還不是

山青青水綠綠
鳥喃喃花簇簇
盡是無絃琴上曲
碧眼胡僧看不足

黃花翠竹非他物
明月清風不是塵

산에 살며

몽환 같은 세월 60년을 지났으니
고산암(孤山菴)¹⁾ 시골 마을이 적당하리라.
배 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니
누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네.

한 생각 생겨나지 않으니 전체가 드러나는데
이 본체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물에 비치는 달빛은 비어도 볼 수가 있지만
무심(無心)의 거울에 비치는 상은 항상 공(空)이라.

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쪽빛에 물든 것같고
문 밖의 청산은 그림으로도 그릴 수 없는 것.
산색과 물소리 전체가 드러나니
그 가운데 누가 무생(無生)²⁾을 깨달을까?
주장자를 들고 이른다. “이와 같이 알면 틀린다.”

산은 청색이요 물은 녹색이며
새는 재잘거리고 꽃은 모여 피었네.
이 모두가 줄 없는 거문고의 연주이니
달마스님도 보고 또 보고 했었지.

누런 꽃 푸른 대가 남의 것이 아니며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은 번뇌가 아니라네.

1) 경한이 김포에 있는 고산암에 주석한 것은 71세 때인 1369년이다.

2) 무생(無生) : 모든 법의 실상은 생멸이 없다는 이치.

頭頭盡是吾家物
信手拈來用得親

세상 만물 모두가 내 집의 것이니
손 가는 대로 집어서 편하게 쓰면 된다고.

孤山山下好養身
米賤柴多足四隣

고산(孤山) 산 아래가 몸을 기르기 좋으니
쌀값도 싸고 땔나무도 많고 사방의 이웃도 넉넉
하도다.

無心野老機關少
家火從他乞與人

무심한 시골 늙은이 순박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것 도로 남에게 주네.

黃面瞿曇不良久
室中維摩亦不默
恰似吹毛新發硃
外道天魔覷不得

석가모니도 오랫동안 말 없이 계시지 않았고
유마거사 역시 침묵하지 않았지.
흡사 새로 단련한 취모검(吹毛劍)³⁾과 같아서
외도나 마귀따위는 넘보지도 못한다네.

結茅於孤山山下
飢來喫食困來臥
冬夜夜寒覺夜長
煨取柴頭三兩箇

고산 산 아래에 띠집을 지어
배 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누워자네.
겨울밤 날이 차가우니 밤도 길게 느껴져
장작 두 세 개를 더 태워보네.

橫擔櫛櫟入山庵
行脚多年事罷參
欲識山僧親切處
前三三與後三三

주장자 비스듬히 메고 암자로 들어가
행각 생활 수년에 배움 마쳤네.
산승의 깊은 경지 알고 싶은가?
앞도 삼삼(三三)이요 뒤도 삼삼(三三)이로다.

風吼松窓雪滿山
入夜青燈照寂寥
衲衣蒙頭休萬事

바람 부는 소나무 창에는 산 가득 눈이요
밤이 되자 푸른 등불이 고요히 비추는구나.
만사를 쉬고 누더기를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있으니

3) 취모검(吹毛劍) : 털을 깎다대고 불기만 해도 잘려버리는 예리한 칼. 번뇌를 단
숨에 잘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선승의 뛰어난 능력을 비유한다.

此是僧山得力時

이것이 바로 산승이 힘을 얻는 때로다.

飢來喫食因來眠
一種平懷萬境閑
莫把是非來辨我
浮生人事不相干

굶주리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니
평온한 생각에 만 가지 경계 한가해지네.
옳고 그르다는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길
뜬 구름같은 인생의 일에 서로 관여해서 무엇하리.

向上機關何足道
困來閑臥渴卽茶
臨濟德山特地迷
枉用功夫施棒喝

깨달음의 방법을 어떻게 말할 수 있으리
피곤하면 한가롭게 드러눕고 목 마르면 차 마시지.
임제와 덕산은 단단히 미혹되었으니
영똥하게 방할 따위의 공부를 베풀었도다.

白日江山麗
青春花草榮
何須重話會
萬物本圓成

대낮의 강산은 아름답고
청춘의 화초는 번성하였네.
거듭 말할 것 무엇 있겠나
만물은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三界上下法
我說識所變
念體本來空
所變何有實

삼계(三界)의 모든 법은
모두가 식(識)이 변한 것이니
생각의 본체는 본래 공한데
변해서 된 것이 무슨 실체 있으랴.

若欲忘前境
先當忘汝心
心若不強名
境物從何起

눈 앞의 경계를 잊으려 하면
먼저 네 마음을 잊어야 하리.
마음이 만약 억지로 이름붙이지 않는다면
경계의 사물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리오?

推眞眞無體
窮妄妄無蹤

진(眞)을 찾아도 진은 본체가 없고
망(妄)을 찾아도 망은 자취가 없으니

眞妄了無殊
平等同一體

白日不照夜
明鏡不照後
焉得如我心
圓明常寂照

釋迦不出世
達磨不西來
佛法遍天下
春風花滿開

孤山山下寺
冷落似村居
隔林聞犬吠
慙愧道人居

孤山山下寺
居僧亦是常
土砌隨高下
茅茨任短長

一物先天生
無名亦無相
應緣能屈伸
方便號爲智

本色住山人

진과 망은 전혀 다르지 않고
평등한 하나의 본체이니라.

환한 해도 밤을 비추지는 못하고
밝은 거울도 뒤를 비춰주지는 못하네.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같을 수 있을까?
두루 밝고 항상 고요히 비추네.

석가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고
달마는 서쪽에서 오지 않았더라도
불법은 천하에 두루 퍼져 있으니
봄바람에 꽃이 활짝 피었네.

고산의 산 아래 절
쇠락하여 시골집같네.
숲 너머로 개 짖는 소리 들리니
도인이 사는 집으로서 부끄럽구나.

고산의 산 아래 절은
중이 살아도 또한 별다른 게 없어라.
섬돌은 제멋대로 높고 낮게 닦여 있고
띠 지붕은 마음대로 길기도 짧기도 하네.

한 물건이 하늘보다 먼저 생겼으니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도다.
인연따라 곱혔다 폈다 하니
방편으로 지혜라 부를 뿐이네.

본래 모습은 산에 사는 사람인데

貌古語亦少
相逢不苟顏
論心秋月皎

모습은 예스럽고 말 또한 적도다.
서로 만나도 체면치레 하지 않고
마음을 논하니 가을 달이 밝구나.

了知諸法空
無一法當情
是諸佛用心
汝等勤修習

모든 법이 다 공함을 확실히 아니
하나의 법도 집착으로 대하지 않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마음씀씀이니
너희들은 부지런히 수행하게나.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佛語雖真實
錯會觀者多

일체의 유위법(有爲法)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은 것.
부처님의 말씀이 비록 진실하지만
영터리로 보는 자가 많다.

天生石師子
背上松風聲
好箇西來意
諸禪子細聽

하늘이 돌사자를 낳았는데
등 위에는 소나무 바람 소리가 들려오네.
이것이 바로 훌륭한 법문이니
여러 수행자들은 잘 들어보게나.

- 右一頌 在成佛菴作 南山有大石 形如師子背生大松 故作此偈書其石

- 위 마지막 편의 시는 성불암(成佛菴)에 있을 때 지은 것인데, 남쪽 산에 큰 돌이 있어 모양이 사자와 같고, 등에 큰 소나무가 있었던 까닭에 이 계승을 지어 그 돌에 썼다.

謝道號白雲

백운(白雲)이란 호에 감사하며

元來卓卓青山父
下笑白雲隨處飄
跡雖隨處飄然去

원래 우뚝 솟은 청산이
이리 저리 떠도는 흰 구름을 굽어보고 웃는도다.
자취는 비록 여기 저기 떠돌아 다니지만

心與青山常寂寥 마음은 청산과 더불어 항상 고요하도다.

寄懶翁和尚入金剛山

금강산(金剛山)⁴⁾에 들어가는 나옹(懶翁)화상께 드림

奉別尊顏又一年	존안을 받들어 이별한지 또 한 해가 되었는데
喜聞山裏且安禪	산 속으로 들어가 참선하신다는 소식 기쁘게 들었나이다.
三家村漢疎慵甚	궁벽한 시골 사람은 허술하고 게으름이 심하여
飢卽加飧困卽眠	배 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이나 자지요.

思大和尚

사대(思大) 화상

可笑思大老古錫	가소롭구나, 늙은 사대(思大) 화상이시여
三世諸佛一口吞	삼세의 여러 부처를 한 입에 삼켜 버리네.
若有可吞之諸佛	만약에 삼킬 여러 부처가 있다면
豈無可度之衆生	어찌 제도할 중생이 없으리오?

出州廻山

다른 지방에 갔다가 산으로 돌아오며

去時一溪流水送	갈 때에는 계곡의 흐르는 물이 전송을 하더니
來時滿谷白雲迎	올 때에는 골짜기 가득 흰구름이 맞아주네.

4) 금강산(金剛山) : 우리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도 유명하지만, 유점사·장안사 등 유서 깊은 사찰들이 많아 수행처로서도 유명하였다.

一身去來本無意
二物無情却有情
流水出山無戀志

白雲歸洞亦無心

一身去來如雲水
身是重行眼是初

한 몸이 가고 옴에 본래 뜻이 없었더니
두 사물은 정이 없는 듯하면서도 정이 있구나.
흐르는 물은 내가 산을 나가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흰 구름은 내가 골짜기로 돌아와도 또한 무심하
구나.

한 몸이 가고 옴이 구름이나 물과 같으니
몸은 거듭 다녀도 눈은 처음 보는 것같네.

悼亡人

漚生漚滅一何速
法燈已滅法梁傾
因思扣請當年事
哭不成兮笑不成

돌아가신 분을 애도함

물거품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 얼마나 빠른지
법의 등불이 이미 사라지고 법의 들보도 기울었네.
찾아가 묻던 그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곡을 할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구나.

答鄭僕宰臣詩韻

無爲大化門大開
意在金鱗透網來

莫道水寒魚不食
如今釣得滿船廻

古也逼塞虛空
今也逼塞虛空

재상 정설(鄭僕)의 시에 답함

무위(無爲)의 큰 교화문을 크게 연 것은
그 뜻이 금빛 물고기가 그물을 뚫고 오는 것에 있
었네.

물이 차가와 물고기가 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지금같이 잡으면 배 가득히 채워 돌아오리라.

옛날에도 허공을 꽉 채웠고
지금도 허공을 꽉 채웠네.

縱然逼塞滿虛空
看時不見如虛空

비록 허공을 가득 채워 있건만
바라보면 허공처럼 보이질 않네.

復答請法以五言示之 법을 청하기에 다시 오언시로 답함

本來真面目
髣髴若虛空
又如一點雪
落在烘爐中

본래의 진면목은
허공과 방불하지.
또한 한 점 눈이
불타는 화로 속으로 떨어지는 것과도 같지.

離念真如性
如日處虛空
六根才一動
如日入雲中

생각을 떠난 진여의 성품이란
해가 허공에 있는 것과 같고
육근(六根)이 한번 움직였다 하면
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아.

本來清淨道
其量等虛空
乾坤在其內
日月處其中

본래부터 청정한 도는
그 양이 허공과 똑같아서
하늘과 땅이 그 속에 있고
해와 달이 그 가운데 있지.

靈光色非色
神用空不空
徧現周沙界
收攝一塵中

신령스런 빛은 색(色)이면서 색이 아니요
신비로운 쓰임은 공(空)이면서 공이 아니니
무한히 넓은 이 세계에 두루 나타나면서
티끌 하나 속으로도 들어가네.

靈知一段空
寂照含虛空
萬相影現中

신령스런 앎이란 하나의 공이니
허공을 머금고서 고요히 비추네.
그 속에서 만 가지 모습 나타나고

獨露萬相中	만 가지 모습 속에 홀로 드러나네.
無生亦無滅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면서
一物鎮長空	하나의 물건이 머나먼 허공을 누르고 있네.
施爲渾大有	배풀면 대우주와 뒤섞여 하나가 되어
迥脫根塵中	육근과 육진(六塵)을 훌쩍 벗어나 버리네.
無始塞大虛	시작 없는 때로부터 큰 허공을 채우고
無終塞大空	끝이 없는 때까지 큰 허공을 채우네.
縱然塞大空	비록 큰 허공을 채운다 해도
如鳥跡空中	새가 허공에 남긴 자취와 같네.

四威儀頌 사위의(四威儀)⁵⁾송

閑寂安居餞殘生	조용히 안거하며 남은 인생 보내나니
興來時隨意上山行	흥이 일면 기분 따라 산 위로 올라가네.
衲衣蒙頭休萬務	누더기로 머리 뒤집어쓴 채 만사를 잊으니
正得力不依有無住	바로 힘을 얻어 유무(有無)에 의존하지 않고 머무르네.
一切善惡都放過	일체의 선악일량 모두 내팽개치고
須彌山兀然無事坐	수미산처럼 꼳꼳한 모습으로 일 없이 앉았네.
靑山綠水藤蘿下	청산 녹수 넝쿨 아래로
放四大飢食困來臥	사대(四大) ⁶⁾ 를 내버려두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누울 뿐이라.

5) 사위의(四威儀) :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는 등의 행동에서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법도.

無心歌

무심가

白雲澹泞	깨끗한 흰구름이
出沒於大虛之中	큰 허공 가운데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네.
流水潺湲	잔잔하게 흐르는 물
東注於大海之心	동쪽 큰 바다 속으로 흘러들어가네.
水也遇曲遇直	물이란 굽이진 곳도 만나고 곧은 곳도 만나지만
無彼無此	이것 저것 가리지 않네.
雲也自卷自舒	구름은 스스로 뭉쳤다 퍼졌다 하니
何親何疎	누구를 가까이하고 누구를 멀리하겠는가?
萬物本閑	만물은 본래 한가로워서
不言我青我黃	나는 파랗다 나는 노랗다 말하지 않네.
惟人自鬧	오직 사람만이 스스로 시끄러워서
強生是好是醜	억지로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는 생각을 낳네.
觸境心如雲水意	경계를 만나 마음이 구름이나 물의 뜻과 같다면
在世縱橫有何事	세상에 살면서도 종횡으로 자재하니 무슨 어려운 일 있으리오?
若人心不強名	만약에 사람 마음이 억지로 이름 붙이지 않는다면
好醜從何而起	좋고 나쁨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리오?
愚人忘境不忘心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는 잊어도 마음은 잊지 않으며
智者忘心不忘境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은 잊어도 경계는 잊지 않나니
忘心境自寂	마음을 잊으면 경계는 절로 고요해지고
境寂心自如	경계가 고요해지면 마음도 절로 그렇게 되니
夫是之謂無心	대저 이것을 일러 무심(無心)의 참된 종지(宗旨)
眞宗	라 하네.

6) 사대(四大) : 불교에서는 모든 물질이 지(地)·수(水)·화(火)·풍(風)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師臨行 示二三兄弟曰, “古人云, ‘常了一切空 無一法當情.’ 是諸佛用心處 汝等勤而行之 我今漚滅 不可興悲.”

스님이 돌아가실 즈음에 두세 명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였다. “옛사람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공(空)임을 알면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 하시었다. 이것이 여러 부처님의 마음 씬씀이니 너희들은 부지런히 행하여라. 나는 지금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니 슬픔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人生七十歲	인생 칠십까지 사는 것은
古來亦希有	옛부터 드문 일인데
七十七年來	칠십칠 년 동안 살아오다
七十七年去	칠십칠 년 만에 떠나가노라.
處處皆歸路	곳곳이 모두 돌아갈 길이며
頭頭是古鄉	물물마다 고향이니
何須理舟楫	무엇하러 배와 노를 장만하여
特地欲歸鄉	특별히 고향으로 가려 하겠나?
我身本不有	내 몸이란 본래는 있는 것이 아니요
心亦無所住	마음 역시 머무는 곳이 없어라.
作灰散四方	재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질 뿐이니
勿占檀那地	시주들의 땅을 차지해서는 아니 되리라.



普愚 보우

【太古和尚語錄 태고화상어록】



太古庵歌

태고암(太古庵)¹⁾ 노래

吾住此庵吾莫識
深深密密無壅塞
函蓋乾坤沒向背
不住東西與南北

내 이 암자에 살아도 내가 알지를 못하니
깊고 뻥뻥하여도 웅색함이 없도다.
하늘과 땅 다 덮어 방향이 없고
동·서·남·북 어디에도 머물지 않네.

珠樓玉殿未爲對
少室風規亦不式
燦破八萬四千門
那邊雲外青山碧

주옥같은 전당 누각과 견줄 수 없고
소림사²⁾의 법규 따위도 만들지 않네.
팔만사천법문을 다 녹이고 깨트리니
저쪽 구름 바깥에 청산이 푸르구나.

山上白雲白又白
山中流泉滴又滴
誰人解看白雲容
晴雨有時如電擊

산 위의 희고 흰 구름
방울방울 산 속의 흐르는 샘물.
누가 흰구름의 자태를 알아보리오?
개었다가 비 왔다가 때로는 번개도 치네.

誰人解聽此泉聲
千回萬轉流不息
念未生時早是訛
更擬開口成狼藉

누가 이 샘물의 소리를 알아들으리오?
천 번 돌고 만 번 굽이쳐도 흐름을 쉬지 않네.
생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일찌감치 틀려먹었고
입을 열려고 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

經霜經雨幾春秋
有甚閑事知今日
麤也飡細也飡

서리를 겪고 비를 지나 몇 번의 봄가을을 지냈던고?
몹시도 한심한 일이었음을 오늘에야 알겠도다.
거칠어도 음식이요 섬세해도 음식이니

1) 태고암(太古庵) :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에 있던 절. 태고 보우가 처음 세웠으나
6·25 전쟁 때 불타 없어졌다. 보우는 1341년에 이 절을 짓고 5년 동안 주석하면
서 이 시를 지었다.

2) 소림사(少林寺) : 달마대사가 수행하던 곳이다.

任僮人人取次喫

사람들에게 맡겨 마음대로 먹게 하리.

雲門糊餅趙州茶

운문선사의 떡과 조주선사의 차³⁾

何似庵中無味食

어찌 암자 중에 맛 없는 음식과 같으리?

本來如此舊家風

본래 이와같은 옛날의 가풍

誰敢與君論奇特

누가 감히 그대와 기특하다 논하리?

一毫端上太古庵

터럭 하나 끝에 있는 태고암

寬非寬兮窄非窄

넓어도 넓지 않고 좁아도 좁지 않네.

重重刹土箇中藏

겹겹의 세계 그 속에 들어있고

過量機路衝天直

뛰어난 안목은 하늘까지 치솟았네.

三世如來都不會

삼세의 여래도 알지 못하고

歷代祖師出不得

역대의 조사도 나오지 못하네.

愚愚訥訥主人公

우둔하고 어눌한 주인공이여

倒行逆施無軌則

뒤죽박죽 행실로 아무 법도가 없네.

着卻青州破布衫

청주(靑州)의 헤진 베적삼⁴⁾ 입고

藤蘿影裏倚絕壁

넝쿨 그림자 속 절벽에 의지했네.

眼前無法亦無人

눈 앞에 진리도 없고 사람도 없이

旦暮空對靑山色

아침 저녁으로 부질없이 청산의 빛만 마주하네.

兀然無事謫此曲

일없이 꼴꼴이 앓아 이 노래 부르니

西來音韻愈端的

서쪽에서 온 음운이 더욱 또렷해.

徧界有誰同唱和

은 세계에 누가 함께 노래부르리?

靈山少室謾相拍

영취산⁵⁾과 소림사에선 박수나 치고 있군.

3) 모두 화두에 나오는 말이다.

4) 청주의 헤진 베적삼: 화두의 하나이다.

誰將太古沒絃琴
應此今時無孔笛

君不見
太古庵中太古事
只這如今明歷歷
百千三昧在其中
利物應緣常寂寂

此菴非但老僧居
塵沙佛祖同風格
決定說君莫疑
智亦難知識莫測

回光返照尚茫茫
直下承當猶滯跡
進問如何還大錯
如如不動如頑石
放下着莫妄想
卽是如來大圓覺

歷劫何曾出門戶
暫時落泊今時路
此菴本非太古名
乃因今日云太古

누가 장차 태고의 줄 없는 거문고로
지금의 이 구멍 없는 피리에 응할 것인가?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태고암 속 태고의 일을
다만 지금같이 명명백백할 따름이라.
백 가지 천 가지 삼매가 그 가운데 있으니
만물을 이롭게 하고 인연에 응하면서도 항상 고
요하여라.

이 암자엔 노승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과 조사가 풍격을 함께 하네.
결정코 설하리니 그대는 의심치 마시오,
지혜로도 알기 어려우니 알음알이로 헤아리지 마소.

회광반조(回光返照)하여도 오히려 아득하기만 하고
그대로 알아챌다 하더라도 자취를 남기며
어떤 것인가 물어보면 도리어 크게 틀리니
단단한 돌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리.
다 놓아버리고 허망한 생각 하지 말지니
이것이 여래의 큰 깨달음이라.

역겁의 세월 어느 때에 문을 나섰다가
잠시나마 지금의 이 길에서 해매고 있는가?
이 암자는 본래 태고라는 이름이 아니었던만
오늘이 있음으로 해서 ‘태고(太古)’라고 하게 되
었네.

5) 영취산 : 영취산에서 설법한 석가모니를 가리킨다.

一中一切多中一
一不得中常了了

能其方亦其圓
隨流轉處悉幽玄
君若問我山中境
松風蕭瑟月滿川

道不修禪不叅
水沈燒盡爐無煙

但伊騰騰恁麼過
何用區區求其然

徹骨清兮徹骨貧
活計自有威音前

閑來浩唱太古歌
倒騎鐵牛遊人天

兒童觸目盡伎倆
曳轉不得徒勞眼
皮穿

菴中醜拙只如許
可知何必更重宣
舞罷三臺歸去後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지만
하나라 하는 것도 맞지 않고 항상 뚜렷할 뿐이라.

반듯하게 각지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며
흐름 따라 곳에 따라 깊고 신비스럽기만 하네.
그대 만약 나에게 산중의 경계를 말하라 하면
솔바람 소슬한데 냇물엔 달빛 가득하다 하리라.

도도 닦지 않고 참선도 하지 않나니
침수향⁶⁾도 다 타버려 향로에는 연기조차 나지
않네.

다만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지내니
무엇하러 구구히 그리 하려 애쓰겠는가?

뼈에 사무치도록 맑고 뼈에 사무치도록 가난하니
살아갈 계책은 위음왕불(威音王佛)⁷⁾ 이전부터
있었지.

한가할 때면 태고가를 크게 부르며
무쇠소를 거꾸로 타고 온 세상을 다니노라.

아이들에게야 보이는 것마다 다 신기하겠지만
끌고 다닐 수 없어 쓸데 없이 눈꺼풀만 뜯어지네.

암자 속의 더럽고 서툰 것이 이와 같으니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음을 알겠도다.
음악에 맞춰 춤추기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6) 침수향(沈水香) : 물에 가라앉는 나무로 만든 향. 침향이라고도 한다.

7) 위음왕불(威音王佛) : 아주 아주 오랜 옛적에 최초로 성불한 부처님.

靑山依舊對林泉

청산은 예전처럼 숲과 샘을 마주하고 있구나.

山中自樂歌

산중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는 노래

不剪鬚不剪髮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아

好箇鬼頭羅刹

귀신 머리를 한 나찰과 같은 모습

憨憨癡癡也似石頭

어리석기가 돌덩어리같고

愚愚魯魯也如木樛

우둔하기가 나무등결같도다.

踏盡草鞋參祖師

짚신이 다 헤지도록 조사를 찾아뵈고

惡聲虛說如機發

나쁜 소리 헛된 말들 마구 쏟아내었네.

囉囉哩哩囉囉

라~라~리~리~라~라~

獨唱此曲來休歌

홀로 이 노래 부르며 돌아와 쉬노라.

大元天子聖中聖

원(元)나라 천자는 성인 중의 성인이라

賜居岩谷消日月

깊은 골짜기 속에 살면서 지내게 해 주시었네.

無人共我山中樂

산중의 즐거움을 함께할 이 없어

吾獨憐吾疎轉拙

나 홀로 어설프고 서툰 나 자신을 어여뻐 여기네.

寧同水石長自樂

차라리 물이나 돌과 함께 길이 스스로 즐거워할
지언정

不與世人知此樂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즐거움 누리지는 못하리라.

但願聖壽萬萬歲

다만 황제의 목숨이 만만년 이어지기를!

萬歲長爲萬歲樂

만년의 목숨이 만년의 즐거움이 되리라.

然後可以吾無憂

그런 후에야 나의 근심 없어지리니

岳阿澗曲甘蕭索

바위 언덕과 물 굽이의 쓸쓸함을 달게 여기리.

岳隈小庵足庇身

바위 모퉁이 암자라도 몸 감싸기에는 충분하니

也任白雲相依托

흰 구름에 맡기어 서로 의탁하네.

君不見太古老僧
歌一曲

曲中還有無窮樂
自樂自歌何所爲

樂天知命無爲樂

그대 듣지 못하였는가, 태고 노승이 부르는 노래
한 곡을?

곡 가운데 무궁한 즐거움이 있다네.

스스로 즐거워하며 스스로 노래하니 무엇을 위함
인가?

운명에 따라 억지를 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즐
거움일세.

胡爲自歌還自樂
吾亦不知何樂

樂中有意君知否
人雖日用難摸着

어찌하여 스스로 노래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하는가?

나 또한 무슨 즐거움인지 알지를 못해.

즐거움 가운데 있는 뜻을 그대는 아시는지?

사람들이 날마다 쓰면서도 잡지를 못하네.

淵明中酒弄無絃
普化入市搖鈴鐸
布帛閑僧大無事
紅塵酒肆熏糟粕

도연명⁸⁾은 술에 취하면 줄 없는 거문고를 탔으며

보화⁹⁾는 저자로 들어가 요령을 흔들었고,

포대¹⁰⁾는 하도 할 일이 없어

세속의 술집에서 술찌꺼기에 취했었네.

古來聖賢之樂
只如此

空留虛名聲韻
何寂寞

知之好者尙難得
況其樂之行之作

옛부터 성현들의 즐거움은 이와같았을 뿐이니

공연히 헛된 이름 남긴들 얼마나 적막한가?

알고 좋아하는 이도 얻기 힘든데

하물며 즐기면서 행하는 자랴!

8) 도연명(陶淵明, 365~427) : 중국 진(晉)나라의 시인으로 은둔하면서 지냈다.

9) 보화(普化, ?~860) : 중국 당(唐)나라의 스님으로, 늘 요령을 흔들고 다니면서 교
화하였다.

10) 포대(布岱, ?~916) : 중국 당(唐)나라의 스님으로, 늘 큰 포대를 가지고 구걸하러
다니면서 교화하였다.

君看太古此中樂
頭陀醉舞狂風生
萬壑
自樂不知時序遷
但看岳花開又落

그대 보라, 태고의 이러한 즐거움을!
중이 취하여 춤을 추니 수많은 골짜기에 미친
바람이 인다.
스스로 즐거워하다 보니 세월의 흐름도 잊고
다만 바위틈에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것만 보이네.

白雲菴歌

백운암(白雲菴)¹¹⁾ 노래

逍遙山上多白雲
長伴逍遙山上月
有時清風多好事
來報他山更奇絕

소요산 위에 흰구름 많아
소요산 위의 달과 늘 함께하네.
때때로 맑은 바람 불면 좋은 일 많으니
다른 산은 더욱 빼어나다고 알려주네.

白雲無心徧大虛
其如烘爐一點雪
行雨四方無彼此
是處是物皆欣悅

흰 구름은 무심하게 허공에 이리저리 다니니
마치 화로에 한 점 눈과 같건만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사방에 비를 뿌리니
곳곳의 사물들이 기뻐하네.

剎那歸來此山裏
山光着色水鳴咽
古菴依倚非霧間
連雲畏道蒼苔滑

순식간에 이 산으로 돌아와
산빛은 색에 물들고 물은 소리내어 흐르네.
오래된 암자는 안개 속이 아닌데도 어렴풋하고
연이은 구름에 길은 위태롭고 이끼는 미끄럽네.

左傾右傾住復行
誰其侍者唯柳栗

좌로 우로 뒹뒹거리며 오가는데
의지하는 것은 오직 지팡이뿐.

11) 백운암(白雲菴) : 보우는 1339년 경기도에 있는 소요산의 백운암에 있으면서 이
시를 지었다.

路窮菴門向東開	길이 다한 곳에 암자 문이 동쪽으로 향해 열려 있는데
主賓同會無言說	주인과 손님은 만나서 말 없이 대화하네.
山默默水潺潺	산은 잠잠하고 물도 잔잔한데
石女喧嘩木人咄	돌여자는 수다를 떨고 나무사람은 꾸짖는다.
汲汲西來碧眼胡	분주히 서쪽에서 온 푸른 눈의 달마대사
漏洩此意埋佛日	이 뜻을 누설하여 부처님의 해를 묻어버렸네.
傳至曹溪盧老手	조계산의 혜능에게로 전하여
又道本來無一物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하였네.
可笑古今天下人	가소롭구나 고금 천하의 사람들이여
不惜眉毛行棒喝	눈썹도 아끼지 않고 ¹²⁾ 방·할을 행하네.
我今將何爲今人	내 장차 어떻게 지금 사람을 위할까?
春秋冬夏好時節	춘하추동 좋은 시절
熱向溪邊寒向火	더우면 시냇가로 향하고 추우면 불가로 향하나니
閑截白雲夜半結	한가로울 때 흰구름을 자르고 ¹³⁾ 한밤중엔 참선하네.
困來閑臥白雲樓	피곤하여 백운루에 한가로이 누우니
松風蕭蕭聲浙浙	솔바람 소리 적막하구나.
請君來此保餘年	청컨대 그대 여기 와서 여생을 보내시오
飢有蔬兮渴有泉	배고프면 나물이 있고 목마르면 샘물이 있다네.

12) 함부로 설법을 하면 눈썹이 빠진다고 하였다.

13) 흰구름을 자르고 : 자유자재한 능력을 말한다.

雲山吟

山上白雲白
 山中流水流
 此間我欲住
 白雲爲我開山區

白雲話盡心中事
 有時行雨難久留
 又被清風便
 行盡三千歷四洲

我亦隨君馭清風
 江山處處相追遊
 追遊爲何事
 堪與白鷗戲波頭

卻來共坐松下月
 松聲動啾啾
 此心共誰話
 恒沙佛祖盡悠悠

懶臥白雲裏
 青山笑我大無憂
 我即笑而答
 汝山不識吾來由
 平生睡不足
 愛此水石爲衿裯

구름긴 산의 노래

산 위의 흰구름은 희고
 산 속의 흐르는 물 흐르네.
 이 사이에 나 머물고자 하니
 흰구름이 나를 위해 산의 한 자락을 열어주었네.

흰구름에게 마음 속의 일을 다 말하지만
 때로는 비를 뿌리느라 오래 머물지 못하네.
 어떤 때에는 맑은 바람에 불리어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지.

나 또한 그대 따라 맑은 바람 타고서
 강으로 산으로 어디든지 쫓아다니지.
 쫓아다니며 무엇을 하였느냐 하면
 흰 갈매기와 더불어 물결을 희롱하였지.

문득 돌아와 소나무 아래 달빛 속에 함께 앉으니
 솔바람 소리 쇄아쇄아 들려오네.
 이 마음 누구와 더불어 이야기할까?
 수많은 부처와 조사들 모두가 아득히 멀기만 하네.

흰 구름 속에 게으르게 누우니
 푸른 산은 웃으며 아무 근심 마라 하네.
 내가 웃으며 답하기를,
 너 산은 내가 여기 온 연유를 모르리라.
 평생에 수면이 부족하여
 이 물과 돌을 좋아하여 옷과 이불로 삼았노라.

青山爲笑我	청산이 나에게 웃으며 말하기를
何不早歸來吾儔	일찌감치 우리들 있는 곳으로 올지니
君若愛青山	그대 만약 푸른 산을 좋아한다면
藤蘿影裏大休休	넝쿨 우거진 그늘 속에 크게 쉬고 또 쉴지어다.

我從青山語	나 푸른 산의 말대로
放身大臥青山樓	청산을 누각 삼아 몸을 뻗어 크게 누웠네.
有時夢有時覺	어떤 때는 꿈을 꾸고 어떤 때는 잠을 깨니
夢覺元無拘	꿈을 꿈과 잠을 깬에 구애됨이 없었네.

夢裏卻尋來時路	꿈 속에 문득 왔던 길을 찾아
長安酒肆騎木牛	서울의 술집거리를 나무말을 타고 다녔더니
木牛化作春風意	나무말은 봄바람의 마음으로 변하여
綻花開柳如琳球	보석같은 꽃망울 틔우고 버들 싹을 자라게 하네.

桃花紅似火	복사꽃은 불길처럼 붉고
柳絮白如毳	버들솜은 동글동글 희구나.
中有李花白又白	그 가운데 하얗고 하얀 오얏꽃
無言引得幽言求	말 없이 끌어들이고 은밀한 말로 찾아드네.

珍禽啼破剎那夢	진귀한 새가 울어 찰나의 꿈을 깨우건만
睡味猶甘身不動	여전히 달콤한 잠의 맛에 몸은 아직 움직이지 않네.

鐵牛

무쇠소

癸卯春 宗西堂 訪余于迦智山 結夏觀其動靜 微密安詳 宛有受道之資
至秋告別 仍求號 以鐵牛稱之 所以然者 先解制 問衆日用工夫 西堂云
昔日以佛聲佛色爲解 自到會中 得蒙本分示誨 如上伎倆都盡 但冷地上

參看趙州無字 如蚊子上鐵牛相似故 用其語而爲號 因作偈以贈之 茲於鐵牛上 痛鞭出汗 則便與趙州相見了也 勉旃

1363년 봄에 종서당(宗西堂) 스님이 가지산으로 나를 찾아와 하안거를 하었는데, 그 태도를 보니 치밀하면서도 안정되어 완전히 도를 닦을 자질이 있었다. 가을이 되어 떠난다고 하면서 호를 지어달라고 하므로 ‘철우(鐵牛)’라고 하였다. 그 까닭은 앞서 해제 법문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묻기를, “매일 하는 공부가 어떤 것인가”라 하니 서당이 말하기를, “전에는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모습에서 이해하려고 하였으나, 여기 와서 진정한 가르침을 받고 전에처럼 하던 공부는 그만두고 다만 찬 곳에서 조주(趙州) 무(無) 자 화두만 참구하고 있으니 마치 모기가 무쇠소 위에 올라탄 듯합니다.”라 하였다. 그래서 그 말에서 따와 호로 삼았다. 이로 인해 계송을 지어 주니 이 무쇠소¹⁴⁾ 위에서 아프도록 채찍질하여 땀이 뻘뻘 나게 한다면 곧 조주와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다. 힘쓰기 바란다.

只麼癡頑不顧後
無知豈怕獅子吼

이렇게 어리석고 완고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으며
아는 것도 없으니 사자의 울음인들 어찌 두려워하랴?

不眠而眠長臥天
地間

자지 않으면서 잠을 자 천지간에 길게 누워

大千沙界無去住

넓고 넓은 세계에 오고 감도 없네.

幾度春風幾度秋

몇 번의 봄바람을 지내고 몇 번의 가을을 지냈던고?

一如如體無今古

한결같은 몸으로 고금의 시간도 없네.

劫火洞然不燒伊

겁화(劫火)¹⁵⁾도 저것을 태우지 못하리니

頭角依稀芳草雨

아름다운 초원에 내리는 비 속에 두 뿔의 모습 흐릿하구나.

君不見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14) 무쇠소 : 아무런 감정이나 생각이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15) 겁화(劫火) : 세상이 멸망할 때 일어난다는 큰 불길.

癡癡兀兀此牛行
 舉世無人拘牽去
 可憐牧牛子放卻
 繩頭兮
 末如之何已久
 吾今勸進牧牛子
 進步驀騎鞭徹髓
 痛徹髓出汗血
 嘉州大像來乞救
 救不得沒奈何
 寒山拊掌笑呵呵
 於斯須訪見宗師
 決了巴鼻兮
 閑唱大平歌

어리석고 무딘 이 소의 걸음을.
 온 세상 그 누구도 끌고 갈 수가 없도다.
 가련하구나, 소 치는 사람은 고삐를
 놓아버렸네.
 어떻게 하지도 못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구나.
 나 이제 소 치는 사람에게 권하노니
 쏜살같이 올라와야 골수에 사무치도록 채찍질하라.
 고통이 골수에까지 사무쳐서 피땀이 흘러내리면
 미륵불이 와서 구원해 주길 빌 것이라.
 구원해 주지 못하더라도 어찌하지 못하리니
 한산(寒山)¹⁶⁾이 박수를 치며 꺄꺄꺄 웃으리라.
 여기에서 반드시 큰 스승을 찾아갈지니¹⁷⁾
 결정코 코를 잡아
 한가로이 태평가를 부르리라.

中菴

중암

日本允禪人 以其號求頌. 余時年七十六 目暗放筆久矣 其請勤勤 強下老筆云.

일본의 수윤(壽允) 스님이 자신의 호에 대한 계송을 지어달라 하였다. 당시에 내 나이 일흔 여섯이어서 눈도 어두워 붓을 놓은 지가 오래 되었으나 그 청이 워낙 간곡하여 억지로 적는다.

16) 한산(寒山) : 중국 당나라 초기에 거지의 행색으로 지냈지만 경지가 높았던 스님.

17) 선가(禪家)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큰 스승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千重碧山裏
萬丈蒼崖邊
回溪流泉細鳴咽
深林雜樹空芊綿
中有小菴若無有
朝晡但見祝君煙

花落花開鳥不到
白雲時復訪門前
誰識主人日用事
長年不夢塵間緣
寂滅境中伴寂滅
綠蘿松上清風月

천 겹의 푸른 산 속
만 길의 푸른 언덕 가
굽이진 계곡물이 가늘게 울며 흐르고
깊은 숲 잡다한 나무들이 무성한 곳.
그 가운데 작은 암자 없는 듯 있으니
아침 저녁으로 임금의 복을 기원하는 연기만 보
이네.

꽃 지고 다시 피어도 새는 오지 않고
흰구름만 때때로 다시 문 앞에 찾아드네.
누가 주인의 일과를 알리오?
긴 세월 동안 세속의 인연 꿈조차 꾸지 않네.
적멸의 땅에서 적멸과 함께 하니
푸른 겨우살이와 소나무 위로 바람과 달이 맑구나.

息牧叟

去年牧牛坡上坐
溪邊芳草雨霏霏
今年放牛坡上臥
綠楊陰下暑氣微
牛老不知東西牧
放下繩頭閑唱
無生歌一曲

回首遠山夕陽紅
春盡山中處處落
花風

소치기를 그만둔 늙은이

지난 해엔 소를 치며 언덕 위에 앉았을 때
시냇가 싱그러운 풀밭에 보슬보슬 비 내렸었지.
올해엔 소를 풀어 놓고선 언덕 위에 드러누우니
푸른 버들 그늘 아래 더위도 별로 없네.
소 치는 늙은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고삐를 놓은 채 무생가(無生歌)¹⁸⁾ 한 곡 한가로이
부르네.

머리를 돌려 보니 먼 산엔 석양빛이 붉고
봄이 다한 산 중엔 여기 저기 바람에 꽃 떨어지네.

雪梅軒

臘雪滿空來
寒梅花正開
片片片片片
散入梅花眞不辨
倚欄終日看不足
命使畫工親筆硯
移數枝於屏風上
六月火雲間
令人神氣爽

설매헌(雪梅軒)

선달 눈이 허공 가득히 내리는데
차가운 매화가 당당히 피었구나.
송이 송이 송이 송이 송이 송이
매화 꽃 속으로 흠어져 들어가니 분간이 아니 되네.
난간에 기대어 종일을 보아도 모자라서
화공에게 붓으로 그리게 하여
몇 가지를 병풍 위로 옮겨 놓았더니
유월의 더위 속에서도
정신과 기운을 상쾌하게 해 주네.

雪崖

雪山中有雪崖
上有白雪堆成峰
下有青青香草嫩
名肥膩分經三冬
叢叢葉葉美如玉
色味異中還有同
中有白牛白
細毛如雪白
白牛之白非白白
非白白中別有白

눈 언덕

눈 내린 산에 눈 덮인 언덕
그 위에 흰 눈이 쌓여 봉우리를 이루었네.
그 아래 향기로운 어린 풀 푸르고 푸르네
비니(肥膩)¹⁹⁾라는 이름의 풀 석 달 겨울을 났구나.
떨기마다 잎마다 옥처럼 아름답고
색과 맛이 다르면서 같구나.
그 가운데 하얀 소가 하얀니
가는 털이 눈처럼 하얗네.
하얀 소의 하얀 색은 하얗지 않은 하얗.
하얗지 않은 하얗 가운데 따로 하얗이 있다네.

18) 무생가(無生歌) : 무생의 노래. 무생은 생멸이 없는 진리의 세계.

19) 비니(肥膩) : 소가 먹으면 우유 중의 최고인 제호가 나온다는 풀의 이름.

勸君騎此牛	권하노니, 그대는 이 소를 타고서
一笛任情吹	기분대로 피리 하나 불어보소서.
草有香水有味	풀은 향기롭고 물은 맛이 있으니
優遊雪山裏	눈 덮인 산을 느긋이 돌아다니세.
此山中樂非樂樂	이 산 속의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닌 즐거움이니
好與知音同其樂	잘 아는 벗과 함께 그 즐거움 함께 함이 좋으리.
勸君且莫虛送青春遊	권하노니, 그대는 젊음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切須親近宗師分	큰 스승을 반드시 가까이 하여서
時時扣問經鉗鎚	그 때 그 때 가르침을 받으소서.
宗師與汝本分草	큰 스승이 그대에게 본분 ²⁰⁾ 의 풀을 줄 터이니
然後可以隨緣任去留	그런 다음에야 인연 따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리.

對松

대송(對松)²¹⁾-소나무를 마주 함

松者 草木之君子也. 愛此者 人之君子也, 內侍李搏 奉命來此小雪山中求號, 以對松稱之. 仍說偈證之云.

소나무란 것은 초목의 군자이다. 이것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 중의 군자이니, 내시(內侍) 이부(李搏)는 이 작은 설산 가운데로 명을 받고 왔다가 호를 부탁하므로 '대송(對松)'이라 하였다. 이에 계송을 지어 증명한다.

重重山水	겹겹이 산과 물
落落雲松	구름 속의 낙낙장송.

20) 본분 : 근본의 진리

21) 여기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지어준 호에 대한 송이 여러 수 나온다.

於斯相對有君子
 姓李名搏隴西公
 幽聲帶月耳邊響
 徹骨清寒破昏蒙
 有時白雲來相報
 時清可以乘蒼龍

이를 마주하여 보는 군자가 있었으니
 성은 이씨요 이름은 부라.
 달빛 속에 들려오는 그윽한 소리 귓가에 울리고
 뼈에 사무치는 맑은 추위는 흐릿한 정신을 깨워
 주네.
 때로는 흰구름이 와서 알려주길,
 시절이 맑아지면 푸른 용을 탈 수 있다고 하네.

無顯

靈明一物蓋天地
 內外推尋沒巴鼻
 思盡意窮不奈何
 知君不肯拈花示
 啊呵呵是什麼
 火急參詳白日母
 虛棄

무현-드러내지 않음
 신령스럽고 밝은 한 물건이 천지를 덮고 있으니
 안팎으로 찾아봐도 잡을 곳 없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어찌할 수 없으니
 그대는 꽃을 들어 보이려 하지 않음을 알겠네.
 꺾꺾꺾 이것이 무엇이나?
 밝은 낮을 헛되이 버리지 말고 불같이 급하게
 참구하시라.

雲石

五陰浮雲間
 兀兀癡頑靜且安
 幾經花月好時節
 心死久矣無心看

운석-구름과 돌
 오온(五蘊)의 뜬 구름 사이에서
 꿈쩍 않고 멍청히 있으니 고요하고 평안하구나.
 꽃 피고 달 뜨는 좋은 시절 수없이 지났건만
 마음이 죽은 지 오래라 마음 없이 보노라.

無着

무착-집착 없음

恁麼行也本無求
不恁麼行亦自由
東西南北圓通路
日日騰騰任去留

이렇게 하는 것을 본래 바라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또한 자유라.
동서남북 어디로든 다 길이 통하니
떠나건 머물건 하루 하루 마음껏 행동하네.

雲澗

운간-구름 낀 계곡

白日雲爲伴
清宵水作隣
無窮世外樂
共樂有誰人

밝은 대낮에는 구름이 벗이 되고
맑은 밤에는 물이 이웃이 되네.
무궁무진한 세속 밖의 즐거움
함께 즐길 이 누가 있으리.

無定

무정-고정됨이 없음

二邊俱不住
三際絕因緣
若信這箇物
胸襟蓋碧天

양 극단 어느 쪽에도 머물지 않고
과거·현재·미래의 인연도 끊어버렸네.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마음이 푸른 하늘을 다 덮으리라.

證庵

증암-깨달음의 집

十方無壁落
四面亦無門

사방팔방 상하에 벽도 없고
사면에 문 또한 없건만

佛祖行不到
閑眠臥白雲

부처님과 조사도 오지 못하는 곳.
한가로이 졸면서 흰 구름 속에 누웠네.

石溪

석계-돌 계곡

轉石聲嗚咽
無偏廣長舌
雖然平等化
不爲聾者說

돌 구르는 소리 울어대며
빠트림 없이 다 일러주네.
차별 없이 가르쳐주지만
귀 먹은 자는 들을 줄 모르네.

連海

연해-연이어진 바다

浩浩洪波上
舟子笛聲長
一聽情塵破
白鷗舞飛揚

넓고 넓은 큰 파도 위에
배사공의 피리 소리 멀리 퍼지네.
한번 듣고 번뇌가 다 깨트려지니
흰 갈매기가 춤추며 날아오르네.

楚山

초산-초나라 산²²⁾

山中有美玉
作意求難覓
尋到路窮處
方知天下壁

산 속에 아름다운 옥이 있으나
애를 써서 찾아도 찾기 어려워.
길이 다한 곳에 이르러서야
온 세상이 다 보배인 줄을 알게 되리라.

22) 초산(楚山) : 초나라의 산. 여기서 아주 유명한 보배구슬이 발견된 적이 있다.

清澗

出自青山谷
流朝碧海
潺溪聲最切
近聽人誰解

청간-맑은 산골 물

푸른 산 계곡에서 나와
흘러 흘러 푸른 바다로 나아가네.
흐르는 계곡물소리 간절하건만
가까이서 들은들 누가 알아차리리.

非寶

金壁雖滿堂
元非救吾珍
生生隨我寶
參禪一念眞

비보-보배가 아님

금은보배가 집에 가득하여도
원래는 나를 구원해줄 보배는 아니라.
살며 살며 나를 따르는 보배는
참선이라는 일념의 참됨이라.

古林

無枝無葉樹
春風動其根
非青非白色
花發又無痕

고림-오래된 숲

가지도 잎도 없는 나무
봄바람이 그 뿌리를 흔드네.
푸르지도 희지도 않은 색
꽃이 피어도 또한 흔적이 없네.

子庭栢禪人求頌

衲僧禪十分明
千古森森栢在庭

자정백(子庭栢) 스님이 계송을 구하기에

납승의 선은 십분 분명하니
천고의 잣나무 뜰에 뻗뻗하네.

可笑當時福城子
南遊巡問百餘城

가소롭구나, 당시의 선재동자²³⁾여
남쪽으로 백 여 성이나 물으러 다니다니.

寄日本石翁長老

일본의 석옹(石翁)장로에게 드림

吾以慙麼寄
師亦慙麼通
吾誠無得失
師豈有無功
海東山嶽秀
扶桑一點紅
可憐立雪子
幾乎喪家風

내가 이렇게 드리면
스님은 또한 이렇게 통하소서.
내가 참으로 득실이 없으니
스님이 어찌 공이 있고 없고 하시겠소?
우리나라의 산악은 빼어나고
동쪽 나라는 한 점으로 붉도다.
가련토다, 눈 위에 서 있던 사람
자칫하면 가풍을 잃을 뻔했네.²⁴⁾

送寧宏二禪師歸山

산으로 돌아가는 녕(寧)과 굉(宏) 두 선사를 보내며

君不見
悉達多之碧山行
警汝呼吸棄人生
勸君深心參妙話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싯다르타가 푸른 산으로 간 것을.
한 순간 허무한 인생을 버리라고 알려준 것이라.
권하노니, 그대 깊은 마음으로 화두를 참구하여

23) 선재동자(善財童子) : 『화엄경』에 나오는 인물로, 남쪽의 110개의 성을 다니면서 53명의 선지식을 만나 지혜를 구하였다.

24) 달마선사의 제자 혜가(慧可)의 일을 말한다. 혜가는 달마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밤새 눈 위에 서 있다가 팔을 잘라 그 의지를 나타내었다.

難得良晨可虛過

얻기 힘든 좋은 새벽²⁵⁾을 헛되이 지나치지 말아야지.

無量劫來無此日
丈夫心志只恁麼

무량한 시간이 오더라도 바로 이 날은 오지 않으니
대장부 마음이 다만 이와 같아야지.

南遊偶吟

남쪽 지방을 다니다가 우연히 읊다

爲法行天下
經冬復歷秋
暮雨青燈寺
涼風白鷺洲
孤身三歲客
萬里一扁舟
誰識海東僧
來作江南遊

진리를 위하여 천하를 다니다가
겨울도 지나고 또다시 가을도 지났구나.
푸른 등불 켜진 절에 저녁비 내리고
백로가 있는 모래톱에는 시원한 바람이 부네.
외로운 이 몸은 삼 년이나 나그네 신세
만 리 길에 한 조각 배로 다니네.
누가 알리오, 해동의 승려가
중국 강남(江南)²⁶⁾까지 와서 다니는 것을.

辭王師

왕사(王師)를 그만두면서

出家何所爲
永斷世緣務
我今辭王師
且問何處去
我本山中人

무엇하러 출가를 하였는가?
영원히 세속의 일을 끊기 위해서였지.
나 지금 왕사를 그만두고서
어디로 갈려고 하는 것인가?
나 본래 산 속의 사람이니

25) 깃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 새벽이었다.

26) 강남(江南) : 중국 양자강(楊子江) 남쪽 지역을 일컫는다.

宜入山中住
 不愛碧山行
 不厭紅塵走
 但爲適性情
 修德報明主
 世間榮辱事
 看來如沫聚
 我若久留連
 聲名多錯誤
 不如忘是非
 林壑藏毛羽
 誰憐吾拙直
 林泉有幽趣
 聖君如護我
 賜放青山老
 山中何所有
 蒼蒼但烟霧
 於斯修道業
 於國垂法雨
 專心祝聖壽
 朝暮香一炷

마땅히 산 속에 있어야지.
 푸른 산으로 가는 것을 좋아해서도 아니며
 속세로 달려가는 걸 싫어해서도 아니야.
 다만 성정에 맞으면 그 뿐
 덕을 닦아 현명한 군주에게 보답해야지.
 세간에서 겪는 영욕의 일들
 살펴보면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것.
 내 만약 오래 머물게 된다면
 명성에 많은 착오 생기기.
 차라리 시비를 잊고
 숲과 골짜기에 몸을 숨기는 게 낫겠지.
 누가 나의 우직함을 어여삐 여기겠나?
 숲과 샘물에 깊은 뜻이 있을 뿐.
 거룩한 임금께서 나를 지켜 주시겠다면
 청산에서 늙어가도록 놓아 주셨으면.
 산 중에 가진 것이 무엇인가?
 푸르고 푸르려 다만 안개만 있을 뿐.
 이런 곳에서 도를 닦아
 나라에 진리의 비를 내리게 하리.
 마음을 오롯이 하여 임금님의 장수를 기원하며
 아침 저녁으로 한 줄기 향을 피우리.



惠勤 혜근

◀ 懶翁和尚歌頌 나옹화상가송 ▶



翫珠歌

這靈珠極玲瓏
體徧河沙内外空
人人帑裏堂堂有
弄去弄來弄莫窮

或摩尼或靈珠
名相雖多體不殊
剎剎塵塵明了了
還如朗月滿江秋

飢也他渴也他
知渴知饑不較多
晨朝喫粥齋時飯
困則打眠也不差

差也他正也它
不勞開口念彌陀
若能着着無能着
在世縱橫卽薩埵

此心珠難把捉
宛轉玲瓏難可得
無相無形現相形
往返無蹤非可測

보배구슬 가지고 노는 노래

이 신령한 구슬은 지극히도 영롱하니
몸은 갠지즈 강의 모래알만큼 되면서도 안팎이
비었고
사람들의 몸뚱이 속에 당당히 있으면서
이리 저리 가지고 놀며 끝이 없어라.

마니주라 하기도 하고 신령스런 구슬이라 하기도
하니
이름과 모양은 달라도 몸은 다르지 않네.
무수한 세계 어디서나 밝고 뚜렷하니
밝은 달이 가을 강에 가득 비치는 것과도 같네.

끓주리는 것도 그것이고 목마른 것도 그것이니
목마름을 아는 것과 배고픔을 아는 것이 대단하
지 않도다.

아침에는 죽을 먹고 낮에는 밥을 먹으며
피곤하면 자는 것에 조금도 어긋남 없네.

어긋나는 것도 그것이고 바른 것도 그것이니
수고롭게 입을 열어 아미타불 외우지 않아도 되지.
만약 집착하고 집착하더라도 집착할 수 없으니
세상에서 종횡으로 자유자재한 보살이라.

이 마음의 구슬은 잡기가 어려우니
빙빙 돌면서 영롱하여 얻기가 어려워라.
모습도 형태도 없으면서 모습과 형태를 드러내어
자취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헤아리기 어려워라.

追不及忽自來	쫓아가도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듯 문득 절로 와 있고
暫到西天瞬目廻	잠깐 사이에 서쪽 하늘에 있다가 눈깜짝할 사이에 되돌아오네.
放則虛空爲袍內 收則微塵難析開	내놓으면 허공을 다 둘러싸지만 거두어들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티끌이 되지.
不思議體堅剛 牟尼喚作自心王 運用無窮又無盡 時人妄作本自忘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는 그 견고한 것을 석가모니는 내 마음의 왕이라고 불렀네. 무궁무진하게 움직여 쓸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존재를 잊어버렸네.
正令行孰當頭 斬盡佛魔不小留	올바른 명령이 행해지면 누가 감당하리오?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부처든 마귀든 다 목을 베 어라.
從茲徧界無餘物 血滿江河急急流	이 온 세계에 남은 물건 없어지리니 핏물이 강에 가득하여 세차게 흐르리라.
眼不見耳不聞 不見不聞眞見聞 箇中一箇明珠在 吐去吞來新又新	눈은 보지 않고 귀도 듣지 않으니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참된 보고 들음이라. 그 가운데 하나의 밝은 구슬이 있어 토하고 삼키니 끝없이 새로워지네.
或名心或名性 心性元來是緣影 若人於此卽無疑 自己靈光常罔罔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성품이라 하기도 하니 마음과 성품이 원래가 인연의 그림자라. 만약에 사람이 여기에서 의심할 바가 없게 되면 자기의 신령한 빛이 항상 환하리라.

或爲道或爲禪
禪道由來是強宣
實知師姑女人做
不勞擡步到那邊

也無佛也無魔
魔佛無根眼裏花
常常日用了無事
喚作靈珠也被訶

也無死也無生
常踏毗盧頂上行
收來放去隨時節
倒用橫拈骨格清

也無頭也無尾
起坐明明常不離
盡力趕他他不去
要尋知處不能知

阿呵呵是何物
一二三四五六七
數去翻來無有窮
摩訶般若波羅蜜

도라 하기도 하고 선(禪)이라 하기도 하나
선이니 도니 하는 것은 억지로 그렇게 말한 것이라.
여인이 비구니가 된다는 것을 진실로 안다면
수고로이 발을 들어서 저쪽으로 갈 필요가 없네.

부처도 없고 마귀도 없으니
마귀든 부처든 근거가 없는 눈 속의 꽃¹⁾이라.
늘 사용하면서도 아무 일 없으니
신령스런 구슬이라 부른다면 야단을 맞을 것이라.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으니
항상 비로자나 정수리 위를 밟고 다니네.
거두어들이고 내놓는 것을 시기에 따라 하면
뒤집어서 사용하든 가로질러 내놓든 빠대는 맑도다.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면서
일어나든 앉아 있든 환하게 밝아 떠나는 일이 없네.
힘을 다해 쫓아내어도 떠나가지 않고
있는 곳을 찾아보려 해도 알 수가 없네.

겉겉겉, 이 무슨 물건인가?
일이삼사오륙칠
숫자로도 세어보고 뒤집어서 보아도 다함이 없네.
마하반야바라밀.

1) 눈 속의 꽃 : 실재하는 꽃이 아니라 눈병이 나서 헛것으로 보이는 꽃.

百衲歌

這百衲最當然
冬夏長被任自便
裨裨縫來千萬結
重重補處不後先

或爲席或爲衣
隨節隨時用不違
從此上行知己足
飲光遺跡在今時

一椀茶七斤衫
趙老徒勞舉再三
縱有千般玄妙說
爭似吾家百衲衫

此衲衣甚多宜
披去披來事事宜
醉眼看花誰敢着
深居道者自能持

知此衲幾春秋
一半風飛一半留
獨坐茅菴霜月夜

백번 기운 누더기의 노래

이 백번 기운 누더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늘 편하게 입어 왔으니까.
옷깃마다 천 번 만 번 꿰매다 보니
겹겹이 기운 곳이 어디가 먼저인지 알 수가 없네.

어떤 때는 방석이 되고 어떤 때는 옷이 되니
시간과 때에 따라 어긋남이 없이 쓰이네.
이렇게 살다 보니 모든 것에 만족함을 알겠으니
가섭의 남긴 자취²⁾ 지금에 있구나.

한 잔의 차, 일곱 근의 적삼³⁾
조주 늙은이는 쓸데없이 두 번 세 번 하였구나.
비단 천 가지 현묘한 이야기가 있다 한들
어찌 우리 가문의 백번 기운 누더기 장삼만하리.

이 누더기 옷은 정말 매우 적합하니
옷을 입고 벗음에 일마다 알맞구나.
취한 눈으로 꽃을 보니 누가 감히 집착을 하라
깊이 도에 들어 사는 이는 스스로 능히 지닐 수 있네.

이 누더기를 입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던가?
반은 바람 따라 날아가고 반만 남아 있구나.
서리 내리는 달밤 암자에 홀로 앉았으니

2) 가섭의 남긴 자취 : 선불교의 연원이 가섭으로부터 시작한다.

3) 화두의 종류.

莫分内外混蒙頭

안팎을 분간할 수 없이 뒤섞였구나.

卽身貧道不窮

몸은 가난해도 도는 궁하지 아니하여

妙用千般也不窮

천 가지로 사용해도 다함이 없었지.

莫笑縊絛癡呆漢

웃이 헤진 바보같은 사람이라 비웃지 마소,

曾參知識續眞風

일찍이 선지식을 찾아 뵈고 참된 기풍을 이었네.

一鶉衣一瘦筇

한 벌 메추라기같은 옷에 가녀린 지팡이 하나로

天下橫行無不通

천하를 횡행하여 가지 못한 곳이 없어라.

歷徧江湖何所得

강과 호수를 두루 다녀 무엇을 얻었는가?

元來只是學貧窮

원래는 다만 빈궁을 배웠을 뿐이네.

不求利不求名

이익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아

百衲懷空豈有情

백번 기운 누더기에 생각을 비웠으니 무슨 짐착
있으리오?

一鉢生涯隨處足

발우 하나로 살아가는 인생 가는 곳마다 만족하니

只將一味過殘生

이 하나의 맛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리.

生涯足更何求

살아가는 것이 충족한데 다시 무엇을 구하리오?

可笑癡人分外求

어리석은 사람이 분수를 넘어 구하니 가소롭구나.

不會福從前世作

복이란 전생에 지은 업에 따르는 것을 알지 못하고

怨天怨地妄區區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며 망령된 짓 일삼네.

不記月不記年

달이 가는지 해가 가는지 알지 못한 채

不誦經文不坐禪

경전도 읽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네.

土面灰頭癡呆呆

얼굴에 흙을 바르고 머리에 재를 발라 바보가 되어

唯將一衲度殘年

누더기 하나로 남은 인생 살아가리라.

山居

一鉢一瓶一瘦藤
深山獨隱任騰騰
携籃採蕨和根炙
衲被蒙頭我不能

我有眞空無事禪
巖間倚石打閑眠
有人忽問向奇特
一領鶉衣過百年

松窓盡日無塵鬧
石槽常平野水清
折脚鐺中滋味足
豈求名利豈求榮

白雲堆裏屋三間
坐臥經行得自閑
礪水冷冷談般若
清風和月遍身寒

幽巖靜坐絕虛名
倚石屏風沒世情
花葉滿庭人不到
時聞衆鳥指南聲

산에서 살며

발우 하나 물병 하나 가느다란 지팡이 하나
깊은 산 홀로 숨어 마음대로 하며 사네.
바구니 들고 고사리 캐어 뿌리채 삶기도 하지만
누더기를 머리까지 둘러쓰는 일 할 수가 없네.

나에게 진공(眞空) 무사(無事)의 선이 있으니
바위 사이 돌에 기대어 한가로이 잠을 자지.
어떤 사람이 특별한 무엇이 없는가 묻건만
메추라기 꿩지처럼 헤진 옷 한 벌로 백 년을 보낸
다오.

소나무 보이는 창문엔 하루 종일 아무 번잡한 일
이 없고
돌 물통은 항상 평온하고 고인 물도 맑아라.
다리 부러진 술엔 맛있는 음식이 풍족한데
어찌 명리를 찾고 영화를 구하리오?

흰 구름 쌓인 곳에 세 칸 집
앉든 눕든 거닐든 절로 한가로와라.
차가운 석간수는 반야를 이야기하며 흐르고
맑은 바람은 달과 함께 온 몸을 시원하게 하네.

깊은 바위 속에 고요히 앉아 헛된 명성 끊고
돌 병풍에 기대 앉으니 세속의 정이 사라지네.
꽃과 잎이 사람 오지 않는 뜰에 가득하고
때때로 들려오는 뭇 새소리는 나를 깨우치는 소
리라.

深山竟日無人到
獨坐茅菴萬事休
三尺柴扉推半掩
困眠飢食任逍遙

깊은 산 종일토록 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암자에 홀로 앉으니 아무 일도 없구나.
조그만 사립문은 반쯤 닫혀 있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배고프면 밥을 먹으며 자유
롭게 지내노라.

我自居山不厭山
柴門茅屋異人間
清風和月簷前拂
礧水穿胸洗膽寒

나 스스로 산에 살면서 산을 싫어하지 않으니
사립문과 띠집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맑은 바람과 달은 처마 앞을 스치고
석간수는 차가와 가슴을 뚫고 쓸개를 씻어 주네.

無端逐步到磯邊
流水冷冷自說禪
遇物遇緣眞體現

그저 발 가는 대로 시냇가에 이르니
흘러가는 차가운 물 절로 선(禪)을 이야기하네.
사물을 만나거나 인연을 만나거나 참된 본체가
드러나니

何論空劫未生前

아득한 과거, 부모가 나를 낳기 전을 따져 무엇하
리오?

遊山

산에 노닐며

秋深投杖到山中
巖畔山楓已滿紅
祖道西來端的意
頭頭物物自先通

깊은 가을 지팡이 짚고 산 속에 이르니
바위 곁 단풍나무 이미 가득 붉구나.
서쪽에서 온 조사의 분명한 뜻
두두물물에 절로 먼저 통하네.

月夜遊積善池

信步來遊半夜時
 箇中眞味孰能知
 境空心寂通身爽
 風滿池塘月滿溪

달밤에 적선지(積善池)에 노닐며

한밤중에 발 가는 대로 노닐다 보니
 그 가운데 참된 맛을 누가 능히 알리오?
 세상도 고요하고 마음도 고요하니 온 몸이 상쾌
 한데
 연못엔 바람이 가득하고 시냇물엔 달빛이 가득하네.

旱雨

旱逢甘雨孰無忻
 天下蒼生洗垢塵
 百草開眉和滴舞
 千花仰口共珠新
 農夫戴笠忙忙手
 菜女披蓑急急身
 見此萬般常式事
 頭頭物物盡爲眞

가뭄에 비

가뭄에 단비를 만났으니 누가 기뻐하지 않으리오?
 천하의 푸른 생명들이 때와 먼지를 씻는구나.
 백 가지 풀이 눈썹을 열고 빗방울에 춤을 추며
 천 가지 꽃이 입을 우러러 비구슬에 싱싱해지네.
 농부는 샅갓 쓴 채 부지런히 손 놀리고
 나물 캐는 아낙네는 도롱이 쓰고 급히 몸을 피하네.
 이 만 가지 일상의 일들을 보노라면
 사물 하나하나 참된 진리로다.

閑中有懷

四十年前遊歷遍
 天台山嶽各留蹤
 如今冷坐思量看
 四海叢林兩眼空

한가한 시간에 생각이 나서

사십 년 전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천태산으로 남악으로 자취를 남겼었네.
 이제 와 차가운 자리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온 세상이 절이요 두 눈은 공(空)이로다.

蚊子

不知氣力元來少
 喫血多多不自飛
 勸汝莫貪他重物
 他年必有却還時

모기

기력이 원래 적은 줄을 모르고서
 피를 너무 많이 마셔 날지도 못하누나.
 남의 소중한 물건 탐하지 말지니
 다음에 반드시 되돌려 줄 때 있으리.

幻菴

體若空花無處覓
 六窓風月包清虛
 無中似有還非實
 四壁玲瓏暫借居

환암(幻菴)

허공 속의 꽃과 같아 그 실체를 찾을 곳이 없는데
 여섯 창문⁴⁾에 비쳐드는 바람과 달은 맑으면서 텅
 비었네.
 없는 속에 있는 듯하나 그것이 실체는 아니니
 영롱한 네 벽을 잠시 빌어 사노라.

大圓

包塞虛空絕影形
 能含萬像體常清
 目前眞景誰能量
 雲卷青天秋月明

대원(大圓)

허공을 다 둘러싸고도 그림자나 형체조차 없으니
 만물을 다 품고 있으면서 그 본체는 항상 맑구나.
 눈 앞의 진경을 누가 능히 헤아리리오?
 구름 걷힌 푸른 하늘에 가을 달이 밝구나.

4) 여섯 창문 : 사람의 감각과 의식의 여섯 가지 종류(눈·귀·코·혀·몸·생각)를 창문에 비유하였다. 보통 육근(六根)이라고 한다.

歇菴

萬緣放下便歸來
 四壁清風拂拂廻
 從此不須重撈着
 窄容寬處坐堆堆

혈암(歇菴)

만 가지 인연을 다 내려놓고 돌아와 쉬나니
 네 벽에 맑은 바람 스쳐 돌아 나가네.
 이제 다시 집착할 필요가 없으니
 좁지만 넓은 곳에 곳곳이 앉아 지내노라.

無餘

南北東西虛豁豁
 十方世界更何遺
 虛空拍手囉囉哩
 石女和聲舞不休

무여(無餘)

동서남북 사방이 다 텅 비고 넓기만 하니
 十方세계 그 무엇을 빠트리리?
 허공에 손뼉치며 라라리 노래 부르니
 석녀(石女)가 따라 부르며 쉬지 않고 춤을 추네.

幻山

列在天邊體實空
 峰巒奇妙極玲瓏
 看時似有無能得
 嶺上元來沒路通

환산(幻山)

하늘 끝에 늘어서 있으나 실체는 없는데
 봉우리가 기묘하여 지극히 영롱하구나.
 볼 때는 있는 듯하나 잡을 수는 없으니
 고개 위로는 원래 통하는 길이 없도다.

谷蘭

萬壑幽深巖石中
 馨香異草繞溪松

곡란(谷蘭)

깊고 깊은 골짜기 바위 틈
 시냇가 소나무에 둘러싸인 기이한 향초.

重重疊疊千峯裏
忽地花開遍界通

겹겹의 천 봉우리 속에
홀연히 핀 꽃 온 세계로 통하네.

信菴

신암(信菴)

的的無疑親躋着
六窓孤月再分明
從茲不妄東西走
小屋終年徹底清

명백하고 의심 없는 곳 친히 와 보니
여섯 창문에 외로운 달 더욱 분명하구나.
이제부터 쓸데없이 동서로 내달리지 않으리니
작은 집은 일년 내내 철저히 맑기만 하네.

一山

일산(一山)

萬像森羅未現前
巍巍嶮峻四時寒
須彌大海都歸合
獨鎮層尖別是關

삼라만상이 나타나기도 전
우뚝하고 험준하여 사시사철 차가왔네.
수미산과 큰바다가 모두 여기 와서 합해지니
홀로 층층의 뿔죽함을 누르고 별도의 관문이 되네.

鐵門

철문(鐵門)

徹體渾鋼誰動着
兩扉鎖定不同風

온통 쇠덩어리로 된 것을 누가 움직이거나 하랴?
두 문짝이 갇누르고 있어 바람조차 통하지 않더
니⁵⁾

5) 원문에는 '不同風'으로 되어 있으나, 의미의 맥락으로 볼 때 '不動風'의 잘못이 아닌가 한다.

還他鵲眼堅剛漢
一擱搥開驀得通

저 송골매의 눈을 가진 굳건한 사나이가
한번 박차고 열어제쳐 순식간에 통하게 하네.

虛菴

허암(虛菴)

四面元來無一物
不知何處擬安門
這間小屋空空寂
明月清風掃白雲

사면이 원래 아무 것도 없으니
문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네.
이 조그만 집이 텅 비고 고요한데
밝은 달 맑은 바람이 흰 구름을 쓸어가네.

深谷

심곡(深谷)

極遠誰能到那邊
片雲橫掛洞門前
其中勝境無人識
明月清風弄碧川

지극히 머니 누가 능히 그 곳까지 이르랴,
조각 구름만이 골짜기 입구에 걸쳐 있네.
그 가운데 뛰어난 경치 아는 사람 없는데
밝은 달 맑은 바람이 푸른 시냇물을 희롱하네.

雪嶽

설악(雪嶽)

玉屑霏霏一夜間
奇巖高聳白銀團
梅花明月何能比
疊疊重重寒更寒

하룻 밤 사이에 옥가루가 펄펄 날리어
높이 솟은 기이한 바위가 하얀 은 덩어리로 변했네.
밝은 달빛 속에 피어난 매화라 한들 여기에 비할
손가?
겹겹이 펼쳐지고 차갑고 또 차갑구나.

默雲

묵운(默雲)

沈沈寂寂絕行蹤
 豈揀東西南北風
 莫道他家無可說
 有時包納大虛空

말 없이 고요하여 행적이 끊어졌으니
 어찌 동서남북의 바람을 분간할 수 있으리.
 그 집에 말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질 마소,
 때로는 큰 허공을 다 둘러싸기도 한다오.

曉堂

효당(曉堂)

衆星殘處見前程
 一室寥寥内外明
 從此昏雲消散盡
 六窓風月自新清

못 별들이 사라져 가는 곳에 앞길이 보이기 시작
 하니
 방 하나 헛하니 비어 안팎이 환하구나.
 이제부터 어둠의 구름은 흩어져 사라지고
 여섯 창문에 바람과 달이 절로 새롭고 맑구나.

無一

무일(無一)

東西南北蕩然空
 何物於中喚作宗
 吸盡虛空翻轉處
 通天徹地足霜風

동서와 남북이 모두 다 텅 비어 버렸으니
 그 가운데 무엇을 일러 으뜸이라 할까?
 허공을 다 빨아들이고 몸 바뀌 나오는 곳
 하늘부터 땅까지 서릿바람이 가득하구나.

玉磻

옥계(玉磻)

無瑕正體極玲瓏

티 없이 바른 것이 지극히 영롱하고

兩岸清風細細通
尺壁波光誰定價
靈源深遠出無窮

양쪽 언덕에선 맑은 바람이 솔솔 불어오네.
커다란 보배구슬같은 물빛에 누가 값을 매기랴?
깊고 먼 곳에서 신령스런 샘물이 끝없이 솟아나 오네.

窄山

작산(窄山)

針錐不入細無間
突出巍巍壓衆巒
豈只微塵含法界
須彌芥納合成團

바늘조차 들어갈 틈도 없는 비좁은 곳에
우뚝하게 솟아서 수많은 봉우리를 제압하네.
어찌 다만 작은 먼지가 온 세계를 머금기만 하랴?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들어가 한 덩어리가 되었네.

月堂

월당(月堂)

玉蟾飛起海門東
一屋寥寥四壁空
光影有誰能辨的
六窓都是主人公

바다 동쪽 나라⁶⁾에 옥 두꺼비⁷⁾ 날아오르니
온 집이 텅 비고 사방의 벽도 고요하네.
빛과 그림자를 누가 능히 구분하랴?
여섯 창문 모두가 주인공이로다.

海雲

해운(海雲)

海廣無邊岸

넓은 바다 끝없는 언덕

6) 바다 동쪽 나라 : 고려를 말한다.

7) 옥 두꺼비 : 신화에 두꺼비가 달에 살고 있다고 한다. 옥은 아름답다는 의미로 붙은 수식어이다.

雲多幾際中
於斯焉得知端的
坐臥經行展古風

구름이 많아 어디가 어디인지?
여기서 문득 분명하게 깨달으면
앉든 눕든 다니든 옛 기풍을 펼치리라.

無學

무학(無學)

歷劫分明若大虛
何勞萬里問明師
自家財寶猶難覓
得髓傳衣枝上枝

수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저 허공처럼 분명하거니
무엇 하러 만리길을 가서 밝은 스승에게 묻는가?
자기 집에 있는 보배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우니
골수를 얻어 의발을 전하는 것⁸⁾은 가지 위의 가지로다.

友梅

우매(友梅)

同心妙旨孰能歡
雪裏清香透室間
唯有軒前松與竹
共他一様耐霜寒

깊은 뜻을 함께하는 마음 누가 능히 기뻐할까?
눈 속에 맑은 향기 방 안까지 풍겨오네.
집 앞에 있는 소나무와 대나무만이
그와 함께 서리와 추위 이겨내는구나.

無聞

무문(無聞)

眼耳元來自沒蹤
箇中誰得悟圓通
空非相處翻身轉

눈과 귀는 원래 자취가 없는 것인데
그 속에서 누가 깨달음을 얻어 두루 통하는가?
텅 비어 모습 없는 그 곳에서 몸 바뀌 나오면

8) 제자에게 법을 전할 때 그 신표로서 옷과 발우를 전한다.

犬吠驢鳴盡豁通

개 짖고 나귀 우는 데서 활연히 도를 통하네.

溪月軒

계월헌(溪月軒)

柳影松陰逐水流

버들 그림자 소나무 그들은 물결따라 흐르건만

團團明月不肯隨

둥글둥글 밝은 달은 따르려 하지 않네.

幽深絕壑澄波裏

깊고 깊은 계곡의 투명한 물결 속에도 있고

和與清風在檻頭

맑은 바람과 어울려 난간 끝에도 걸려 있네.

送幻菴長老謁師翁

연로한 스승을 뵈러 가는 환암(幻菴)⁹⁾ 장로를 보내며

餘疑要決謁師翁

남은 의심 풀려고 연로한 스승 찾아뵙는 모습

倒握烏藤活似龍

지팡이 거꾸로 잡고 용처럼 펄펄하구나.

徹底掀翻明白後

철저히 뒤흔들어 명백해 진 다음에는

大千沙界起清風

온 세계에 맑은 바람이 일어나리라.

9) 환암(幻菴) : 고려 말의 승려 혼수(混脩, 1320~1392)의 호. 1370년(공민왕 19)에 나옹화상이 주관하여 공부 많은 승려를 선발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혼수가 선발되었다. 왕이 요직에 앉히려 하였으나 사양하고 봉황산에 은거하였다.

送宗禪者參方

이곳 저곳 다니기 위해 떠나는 종(宗) 스님을 보내며

烏藤倒握參方去	지팡이 거꾸로 잡고 여러 지방으로 떠나가니
天下叢林自作家	세상의 절간이 다 자기 집이 되리라.
心裏深藏無價寶	마음 속에 값이 없는 보배를 간직하고
東西南北任緣過	동서남북으로 인연 따라 다니리.

送珠侍者

주(珠) 시자를 보내며

萬里參方意莫窮	만리 여정 떠나자니 끝없는 생각
切忌海外覓他宗	바다 너머 다른 종파를 찾아서는 아니 되네.
烏藤未握前提起	지팡이를 잡기 전에 생각해 보세
彼處虛空此處空	저 곳의 땅도 공(空)하고 이 곳 또한 공하나니.

送谷泉謙禪師遊方

여러 지방으로 다니기 위해 떠나는 곡천(谷泉)의 겸(謙) 선사를 보내며

本自圓成不在言	본래부터 원만히 이루어져 말에 있지 않거늘
何勞開口爲君宣	무엇하러 수고스럽게 그댈 위해 구구히 말하겠는가?
烏藤倒握翻身轉	지팡이 거꾸로 잡고 몸 바꿔 보면
爲月爲雲去又還	달이 되고 구름이 되어 가고 또 돌아오리라.

送寬侍者

관(寬) 시자를 보내며

一衲隨身冬夏過
一條烏杖辨西東
其中深志誰能識
穿耳胡僧暗自通

누더기 하나로 겨울 여름 다 지내고
한 가닥 지팡이로 서와 동을 분간했네.
그 가운데 깊은 뜻을 누가 능히 알리오?
귀를 뚫은 오랑캐 중¹⁰⁾이 가만히 알아채리라.

送心禪者參方

여기 저기 다니러 떠나는 심(心) 스님을 보내며

參方問道別無他
只要當人直到家
打碎虛空無一物
百千諸佛眼中沙

여기 저기 다니면서 도를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
니라
바로 그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함이라.
허공마저 쳐부수어 한 물건도 없게 하면
백 천의 모든 부처가 눈[眼] 속의 모래가 되리.

瓊禪者 求偈

경(瓊) 선자가 계송을 부탁하기에

不知不覺忽撈透
大地山河顛倒走
水底火發燒虛空
草木叢林師子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질곡을 벗어나면
산하 대지가 뒤집어져 내달리고
물 밑에서 불이 일어나 허공을 태우며
숲 속의 절에선 사자의 울음 소리 들리리.

10) 달마를 말한다.

修禪者 求偈

了得身心本自空
何妨隨處展家風
雖然物物明明現
更覓來由又沒蹤

참선하는 이가 계송을 구하기에

몸과 마음이 본래 공함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가는 곳마다 자신의 가풍을 펼쳐도 무방하리라.
물물마다 밝고 밝게 드러나지만
그 유래를 찾으려 들면 자취가 사라지리라.

仁禪者 求偈

應物明明見則空

塵塵剎剎用無窮
於斯不覺開雙眼
虎穴魔宮活路通

인(仁) 선자가 계송을 구하기에

사물에 응하여 밝고 밝지만 보려 하면 아무 것도 없으니

어느 곳 어디에서든 그 쓰임이 무궁무진하구나.
여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두 눈이 뜨어나니
호랑이 굴과 마귀 궁전에서 살 길이 트이리라.

唐道元 求偈

參禪只在起疑團
疑去疑來似火團
不覺全身都放下
大千沙界一毫端

중국사람 도원(道元)이 계송을 청하기에

참선이란 다만 의심 덩어리를 일으키는 것
의심하고 의심하기를 불덩어리같이 해야지.
자기도 모르게 온 몸을 놓아버릴 때
우주가 하나의 터럭 끝에 있으리라.

鈴禪者 求頌

豎起脊梁急着鞭

령(鈴) 선자가 계송을 청하기에

등뼈를 세우고 급히 채찍질하여

要明空劫未生前
忽然一拶虛空裂
無脚鐵牛走大千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의 소식을 밝혀야 하리.
문득 한번 들이쳐서 허공이 찢어지면은
다리 없는 무쇠소가 온 우주로 내달리리.

慧禪者 求頌

割愛辭親特出來
工夫逼拶直無疑
命根頓斷虛空落
六月炎天白雪飛

혜(慧) 선자가 계송을 청하여
사랑을 끊고 아버이를 떠나 출가를 하였으니
세차게 공부하여 곧바로 의심이 없게 하라.
생명의 뿌리가 문득 잘리고 허공이 떨어질 때에
한여름 뜨거운 하늘에서 흰 눈이 날리리라.

心禪者 求頌

學道無多子
當人決定心
忽然都放下
物物是知音

심(心) 선자가 계송을 구하기에
도를 공부하는 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으니
그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는 데 있네.
홀연히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
물물마다 다 나를 알아주는 벗이 되리라.

普禪者 求頌

本自天然非造作
何勞向外別求玄
但能一念心無事
渴則煎茶困則眠

보(普) 선자가 계송을 구하기에
본래부터 저절로 된 것이지 만들어 낸 것이 아닌데
어찌 힘들게 바깥에서 따로 깊은 이치 찾는가?
다만 능히 일념으로 마음에 일이 없으면 되니
목 마르면 차를 끓이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네.

示李少卿

이소경¹¹⁾에게 보임

誤聽虛名遠遠來
誠心極處免輪廻
莫分僧俗與男女
一擲翻身正眼開

헛된 명성 잘못 듣고 저 멀리서 오셨으니
성실한 마음이 지극한 곳에서 윤회를 면하리라.
승속과 남녀를 가릴 것 없이
한번 던져 몸이 바뀌면 바른 눈이 열리리라.

示辛相國廉

재상 신렴(辛廉)에게 보임

一別神光再不逢
多年相憶在心中
今朝驀面相看笑
深意誰能敢得通

신광사(神光寺)¹²⁾에서 한번 이별한 후 다시 만나
지 못하여
여러 해 동안 마음 속으로 생각만 하다가
오늘 아침 문득 만나 서로 보고 웃으니
그 깊은 뜻 누가 알 수 있으리.

門前一路透長安
何故人人自不還
忽覺眉毛橫眼上
不勞修道得心歡

문 앞에 한 가닥 길은 서울로 통하는데
무슨 까닭으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지.
문득 눈 위에 가로지른 눈썹을 깨닫는다면
힘들여 도를 닦지 않고도 기쁜 마음 얻으리라.

11) 소경(少卿) : 종4품 벼슬 이름.

12) 신광사(神光寺) : 황해도 해주에 있던 절. 나옹화상이 중국에서 돌아온 후 왕의
요청으로 이 절에 머물면서 후학을 가르쳤다.

示杏村李侍中(巖) 행촌(杏村) 이암(李巖)¹³⁾에게 보임

大地春廻剝剝融	대지에 봄이 오니 곳곳마다 온화하여
杏花村裏景無窮	살구꽃 핀 마을에 경관이 무궁하구나.
南來燕語通閑室	남쪽에서 온 제비 소리는 한적한 방에까지 들리고
北往鴻聲透靜空	북쪽으로 가는 기러기 소리는 고요한 허공을 뚫네.
雨洗桃紅宣妙理	비는 붉은 복숭아꽃을 씻으며 묘한 이치 설하고
風吹梨白振玄宗	바람은 하얀 배꽃에 불어 깊은 진리 펼치네.
塵塵齊唱西來意	온갖 사물마다 일제히 달마의 뜻을 부르짖는데
何處勞勞覓祖翁	어디로 가서 수고롭게 조사를 찾으리오?

示朴成亮判書 판서(判書)¹⁴⁾ 박성량(朴成亮)에게 보임

提起話頭末後句	궁극의 진리 담은 화두를 들어
翻來覆去起疑情	뒤집고 또 뒤집으며 의심을 일으키라.
疑來疑去無疑處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의심이 없는 곳에 이르면
掇轉虛空笑一聲	허공을 뒤흔드는 웃음 소리 들리리라.

警世外覓者 바깥에서 찾는 자를 경계함

信得家中如意寶 집 안의 여의주를 믿으면

13) 이암(李巖) : 1297년에 태어나 1364년에 서거하였다. 호가 행촌(杏村)이다. 17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하였으나 57세에 청평산에 입산 수도하였다. 이 때 나옹화상과 교류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뒤 다시 환속하여 관직 생활을 하였다.

14) 정3품 벼슬 이름.

生生世世用無窮
雖然物物明明現
覓則元來卽沒蹤

세세생생 무궁하게 사용하리라.
비록 물물마다 환하게 드러나지만
찾으려 들면 자취가 사라져 버린다네.

人人有箇大神珠
起坐分明常自隨
不信之人須着眼
如今言語是爲誰

사람마다 큰 신비로운 구슬이 있으니
일어나거나 앉거나 분명하여 항상 자기를 따른다네.
믿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착안할지니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住清平山偶題

江湖歷盡十餘年
驚得胸中自豁然
有問清平成底事
飢飧渴飲困安眠

청평산(淸平山)¹⁵⁾에 있으면서 우연히 지음

여기 저기 두루 다닌 지 십 여 년
문득 가슴 속이 절로 확 트임을 얻었네.
청평산에서 이런 일을 누가 묻는다면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
면 잔다고 하네.

臨移棲寄同袍

春至雁飛從塞北
秋來依舊向南歸
道人行客皆如此
身去身來更不疑

옮겨 살게 되면서 동료들에게 보임

봄이 되면 기러기는 북쪽으로 날아오고
가을이 되면 늘 그러듯이 남쪽으로 돌아가네.
도인의 삶도 모두 이와 같으니
몸이 가고 몸이 옴에 다시 의심이 없도다.

15) 청평산(淸平山) :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산. 1370년 무렵에 나옹화상이 청평산의 청평사(淸平寺)에 있었던 적이 있다.

寄廣州牧使

萬事憑君好細看
 夢中浮世大無端
 百年擾擾閑榮辱
 只在儂家一瞬間

광주(廣州) 목사(牧使)¹⁶⁾에게 드림

만사는 그대에게 달려 있으니 자세히 보시기를
 꿈 속의 뜬 세상 아무 까닭 없도다.
 부질 없는 영욕에 백년 동안 요란을 떨어도
 우리 집안에선 한 순간이라 여기노라.

自讚

咄這村僧
 一無可取
 細細看來
 行無毛分
 面似慈悲
 心中最毒
 謗佛謗法
 過犯漫天
 其施汝者
 不名福田
 供養汝者
 墮三惡道

자찬

쫓쫓, 이 시골 중아
 취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자세히 살펴 보면
 털끝만큼의 행실도 없구나.
 얼굴이야 자비스러운 듯 보이지만
 마음 속은 몹시 악독하도다.
 부처와 법을 비난하니
 그 잘못이 하늘까지 넘친다.
 너에게 보시하는 자는
 복전(福田)¹⁷⁾이라 부르지 않고
 너에게 공양하는 자는
 삼악도(三惡道)¹⁸⁾에 떨어지리라.

16) 목사(牧使) : 정3품에 해당하는 지방행정조직 책임자.

17) 복전(福田) : 수행의 공덕이 있는 자는 보시를 받으면 그 복을 키워서 돌려주는 능력이 있다고 하여 '복전'이라 한다.

18) 삼악도(三惡道) : 죄를 지으면 지옥에 태어나거나 아귀·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한다.

當胸措手像如人
肚裏元無一點眞
罵佛謗僧心最毒
至今不得露全身

가슴을 만져보면 사람처럼 생겼으나
배 속에는 한 점 참됨이 없도다.
부처와 수행자를 모독하니 마음이 몹시 독하며
지금까지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였도다.

咄這擔板漢
嗔恚癡不除
心意識顛倒
談禪信口開
舌頭胡亂埽
未嘗寂寂入禪定
終日波波廊下走
爲人把鼻亦好笑
更不容人謾開口
盲枷瞎棒用無時
是與不是辟脊儂

쫘쫘, 이 널빤지를 짊어진 사람¹⁹⁾이여!
성냄과 어리석음 제거하지 못했구나.
마음과 의식이 뒤집어져
입에선 나오는 대로 선에 대해 말하니
혀 끝이 소란스럽기만 하네.
일찍이 고요하게 선정에 들어본 적도 없고
종일토록 분주하게 회랑 아래로 내달리네.
남에게 코가 잡혀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남이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은 또 용납하질 않네.
맹목적으로 방망이를 아무 때나 사용하며
옳든 그르든 곱사등이를 배척하네.

打破虛空出骨
閃電光中作窟
有人問我家風
此外更無別物

허공을 때려 부수어 뼈다귀를 빼내고
번쩍하는 번갯불 속에 굴을 만드네.
누가 우리 가풍을 묻는다면
이 밖에 다른 물건이 없다고 하리라.

參見指空
喪亡自宗
咄這瞎漢
反入羅籠

지공(指空)화상을 찾아 뵈고 나서²⁰⁾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렸군.
쫘쫘, 이 눈먼이여!
도로 그물망 속으로 빠져드는구나.

19) 널빤지를 짊어진 사람 : 한쪽만 보고 다른 쪽은 보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20) 나옹화상은 원(元)나라로 들어가 지공화상을 만나 가르침을 청하였다.



己和기화

【涵虛堂得通和尚語錄 함허당득통화상어록】



般若歌

有心求處元無迹
不擬心時常歷歷
於中坐臥及經行
不須擬心要辨的

閑則閑閑忙則忙
困來伸脚飯來噉
不離日用常無事
一道寒光無處藏

長靈一物在目前
亦能同地亦同天
眼見耳聞無聲色
展去迴來常寂然

一身圓含十方空
一念能令十世融
四聖六凡都在裏
塵沙劫海不離中

甚深十二諸經律
道儒百家諸子述
世與出世諸法門

반야의 노래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면 아무런 흔적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또렷해.
그 가운데 앉고 눕고 걸어다니지만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분명해지네.

한가하면 한가하고 바쁘면 바쁘며
피곤하면 다리를 뻗고 먹을 때는 먹는다.
늘 쓰고 있으면서도 항상 일이 없으니
한 줄기 차가운 빛도 감출 곳 없어라.

신령한 한 물건이 눈 앞에 있으니
또한 능히 땅과 같고 하늘과 같도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나 소리와 빛은 없고
펼쳐지기도 하고 되돌려지기도 하지만 항상 고요하네.

하나의 몸이十方세계를 두루 포함하면서 비었고
하나의 생각에 십세(十世)¹⁾가 다 녹아들어 있나니
수많은 성인과 범인이 모두 그 속에 있고
티끌이나 모래알같이 많은 겁의 세월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네.

깊고 깊은 모든 경전과 계율
도가, 유가, 제자백가의 저술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문

1) 십세(十世) : 과거·현재·미래의 삼세를 다시 각각 과거·현재·미래로 나누고,
그 전체를 아울러 십세라 한다.

盡從這裏而演出

그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펼쳐져 나왔네.

如彼大虛無不括
亦如日月遍塵刹
莫問縑素與尊卑
總向彼中同死活

저 큰 허공과 같이 감싸지 못하는 것이 없고
또한 해와 달처럼 온 우주에 두루한다.
승려와 속인, 존귀한 이와 비천한 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그 가운데서 함께 죽고 사는 것이라.

無相無名若大虛
我師權號波羅蜜
摩訶般若波羅蜜
了了見時無一物

모습도 없고 이름도 없어 큰 허공과 같으나
우리 스승께서 임시로 바라밀이라 하였네.
마하반야바라밀
또렷하게 볼 때에 그 어떤 한 물건도 없네.

山河大地等空華
殊相劣形同水月
法法無根總歸空
獨有此空終不減

산과 강과 땅이란 허공 속의 꽃과 같고
잘났거나 못났거나 물 속의 달과 같네.
모든 존재는 뿌리가 없어 모두 공(空)으로 돌아가니
오직 이 공만이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네.

今於何處見眞機
月落雲生山有衣
眼辦自肯人何限
耳呬如聾數難知

지금은 어디에서 참된 기틀 볼 것인가?
달 지고 구름 생겨 산에다 옷을 입혔네.
보면 아는 것인데 남들이 어떻게 할 것이며
귀로 들어도 귀머거리같다면 알아차리기 어려우
리라.

得之不易守尤難
動靜須教體常安
虛空誰着一毫許
自有氷輪萬古寒

얻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려우니
움직이든 가만히 있든 몸을 항상 편안히 하라
허공에 누가 터럭 하나 붙여 놓았는가?
저절로 얼음바퀴²⁾가 있어서 만고에 서늘하리라.

2) 달을 가리키는 말이다.

祇因眼翳礙虛明
妄見空花競崢嶸
但向眼中除幻翳
空本無花廓爾清

客夢破猿啼歇
滿目清風與明月
幾人買了還自賣
無限風流從茲發

自慶吟

無私一句
聖凡皆具
體絕偏圓
相離規矩

遇物遇緣
覲面呈露
髣髴依稀
尋之罔指

曾以色身
爲我真身
今觀此身
是幻非真

다만 눈이 가려져서 텅 비고 밝은 것을 보지 못하니
망령되어 허공의 꽃이 다투어 번성함을 보네.

다만 눈 속에 가려진 것만 없애면 되나니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고 텅비어 맑기만 하네.

나그네의 꿈이 깨어지고 원숭이 울음도 그치자
눈 가득히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라.

몇 사람이나 샀다가 스스로 되팔았는가?
무한한 풍류가 여기에서 생겨나네.

스스로 기뻐하는 노래

사사로움이 없다[無私]는 한 마디는
성인이든 범인이든 다 가지고 있는 것.
그 본체는 원만함도 치우침도 아니요
그 모습은 규칙을 떠났네.

물건을 만나건 인연을 만나건
직접 대면하면 드러나네.
엇비슷하고 흐릿한 모습이라
찾아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네.

일찍이 물질의 몸이
나의 진짜 몸인줄 알았지만
지금 이 몸을 보면
환상이지 참이 아니라네.

眞身絶相
大無限量
但云空寂
寂亦非寂

曾以緣心
爲我眞心
心亦如身
是影非眞

眞心絶慮
窮元無處
但云靈知
知亦非知

曾於目前
萬狀挺然
今於目前
一切寂然

不二而二
相相有異
異而還同
同歸一致

曾謂我身
不同佛身
今觀我身
亦同佛身

참된 몸은 모습을 떠나 있고
그 양이 무한히 크나니
다만 공적(空寂)이라고 하기는 하나
공적 또한 공적이 아니로다.

일찍이 반영하는 마음이
나의 참마음인 줄 알았지만
마음 또한 몸과 같아서
그림자이지 참이 아니라네.

참마음은 생각을 떠나 있고
어떠한 곳에도 있지 않나니
다만 신령스런 앎(靈知)이라고 하기는 하나
이 또한 올바른 앎이 아니라네.

일찍이 눈 앞에
만 가지 모습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나
이제 눈 앞에는
일체가 고요할 뿐이라네.

둘이 아니면서 둘이고
모습과 모습이 서로 다르지만
다르면서도 같아서
똑같이 하나로 돌아간다네.

일찍이 나의 몸이
부처님의 몸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내 몸을 보니
또한 부처님의 몸과 똑같구나.

自身他身
同是一身
物物齊觀
中無異身

나의 몸과 남의 몸이
똑같이 하나의 몸이니
사물과 사물을 평등하게 보고
그 가운데 다른 몸은 없느니라.

曾謂佛知
待滿三祇
剎那廻機
與聖同歸

일찍이 부처님의 지혜는
무한한 세월을 기다려야 이룬다고 생각했지만
찰나의 한 순간으로 되돌아오면
성인과 똑같은 경지가 된다네.

處凡自屈
只因逐物
但不生情
卽心是佛

범속함에 처하여 스스로 비굴한 것은
다만 사물을 좇기 때문이지.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만 앓는다면
마음이 곧 부처라네.

曾謂佛地
信己卽是
八風吹倒
茫然失路

일찍이 부처님의 경지는
자기를 믿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덟 가지 바람[八風]³⁾이 불어 닥치면
아득히 길을 잃고 만다네.

路正風息
須憑觀力
我依正觀
心得漸安

길이 바르고 바람이 멎으면
보는 힘에 의지해야 하네.
내가 바르게 보는 힘에 의지하면
마음이 점차 편안해진다네.

曾謂神用

일찍이 신령한 쓰임은

3) 여덟 가지 바람[八風] :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여덟 가지 일.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괴로움과 즐거움.

悟則使用
始知初心
難呈妙用

負重致遠
非兒堪願
頗經歲月
任運自健

緬思已過
幾被佛訶
何不迴心
流浪至今

幸逢了義
以慶以噴
不因此遇
焉知正路

卓爾末由
知不可誣
爲引癡孩
強顏開懷

日午幽齋
自吟自諧
吟罷廻看
月上蒼崖

깨달으면 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비로소 알았네, 처음 마음[初心]은
묘한 쓰임[妙用]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것을.

무거운 것을 지고 멀리 가는 일은
아이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네.
상당한 세월을 지나야만
굳건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네.

생각을 하면 이미 지나쳐버리니
부처님의 꾸중을 들을 것이라.
어찌 마음을 돌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지 않는가?

다행히 뚜렷한 뜻[了義]을 만나게 되면
기뻐하고 감탄하게 될 것이라.
이러한 경우를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바른 길을 알리오?

우뚱하나 그 까닭이 없으니
노래할 수 없음을 알리라.
어리석은 아이를 끌어안기 위하여
표정 지어 가슴을 여네.

궁벽한 집에 한낮이 되어
스스로 시를 짓고 스스로 답을 하네.
시를 읊고 나서 고개를 돌려 보니
푸른 언덕에 달이 솟았네.

蘇黃去後 謂爲無人 得書知以道相契, 信知代不乏人也. 道契則霄壤共處, 趣異則覲面楚越. 某與明宰 雖未嘗承顏接論 以道相契故 一如舊交遊看待. 來棲嶺南 已逾年矣, 無有一箇以道通信者 今方始得華緘 添得禪悅法喜之樂 多矣. 謹次佳韻 以發千里一笑.

소식(蘇軾)과 황정견(黃庭堅)⁵⁾이 죽은 이후 시인이 없다고들 하지만 글을 받아보고 도가 서로 맞음을 알았고, 대대로 사람이 없지 않다는 점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가 서로 맞으면 하늘과 땅 만큼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있는 것이며, 취향이 다르면 얼굴을 보고 있어도 서로 먼 다른 나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현명한 사또와 비록 일찍이 얼굴을 뵈고 말씀을 나누는 적은 없으나 도가 서로 맞는 까닭에 한결같이 오랫동안 교유한 것처럼 대하였습니다. 영남에 와 계신지 이미 해를 넘겼습니다만, 여태까지 도로써 서로 교신한 적이 없다가, 이제 비로소 서신을 받잡고 선(禪)과 법(法)의 기쁨에 커다란 즐거움이 더해졌습니다. 삼가 아름다운 시에 화답하오니 먼 곳에서 한번 웃고 마시기 바랍니다.

一封華札落雲間	한 통의 편지가 구름 사이에서 떨어져
開坼猶如舊日顏	열어보니 옛날 얼굴 그대로군요.
時處已能知一貫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한결같음을 알겠으니
多君無事自安閑	많은 분들 일 없이 저절로 편안하고 한가하겠군요.
一念五陰會也未	한 생각이 오음 ⁶⁾ 임을 아시는지요?

4) 인동(仁同) : 경상북도 구미시와 그 인근 지역 일대를 포함한 지역 명칭. 고려 초에 현(縣)이었다가 조선 선조 때 도호부(都護府)가 되었고, 고종 때는 다시 군(郡)으로 되었다가 1914년에 칠곡군에 편입되었다.

5) 소식(蘇軾)과 황정견(黃庭堅) : 중국 송(宋)나라의 대표적인 시인들이다.

6) 오음(五陰) : 오온(五蘊)과 같은 말. 색·수·상·행·식의 다섯 가지 인식 단계이다.

甄明更與老僧看
忘機契理誠難得
一念猶存隔亂山

확실히 안 곳을 다시 노승과 함께 보시지요.
기틀을 잊고 이치에 계합하기는 참으로 어려우니
어지러운 산을 저만치 두고 한 생각은 그대로 있
지요.

遊神勒

신록사(神勒寺)⁷⁾에 노닐며

衆山迢遞一江深
殿閣崢嶸萬樹林
江月軒明江月下
始知江月昔年心

뫼산들 끝없이 이어지고 한 줄기 강은 깊은데
우뚝한 전각 수많은 나무 숲.
강월헌(江月軒)이 강 위의 달빛 속에 밝으니
비로소 알겠구나 강 위의 달이 예전의 그 마음임을.

山下長江江上軒
軒中趣味孰能傳
徘徊不覺春陽晚
雲淨波澄月滿天

산 아래 긴 강, 강 위의 정자
이 정자의 멋을 누가 능히 전할까?
배회하다 보니 봄 해가 저무는 줄도 몰랐네
깨끗한 구름 맑은 파도 하늘 가득 한 달.

7) 신록사(神勒寺) : 경기도 여주에 있는 절. 고려 말 나옹 혜근 스님이 머물면서 유명하게 되었다.



普雨 보우

【虛應堂集 허응당집】



禪心詩思 爭雄不已 선(禪)의 마음과 시(詩)의 생각이 영웅을 다툼

詩魔禪將兩爭雄

시(詩)의 마귀와 선(禪)의 장군이 서로 영웅을 다투어

愁殺天君日夜攻

밤낮으로 공격하여 마음을 근심스럽게 하네.

將必遜魔興筆陣

장군이 마귀에게 지면 붓의 기세가 일고

魔應輸將倒邪鋒

마귀가 장군에게 지면 샅된 칼날 꺾이네.

難兄難弟魔情快

마귀의 기운이 발랄하니 난형난제요

無弱無強將氣濃

장군의 기상이 왕성하니 강약이 없네.

安得二讎俱打了

어떻게 하면 두 원수를 다 물리쳐

大平家國任從容

태평한 나라에서 조용하게 지내볼꼬.

睡餘聞鍾卽事

잠을 자고 난 뒤 종소리를 듣고

睡餘閑捲箔

잠을 자고 나서 한가로이 발을 걷으니

雨後轉青山

비 온 뒤라 산 더욱 푸르구나.

何處雲邊寺

구름 곁 어디가 절인지?

齋鍾杳靄間

아득한 안개 속에 들려오는 종소리.

秋樓述懷

가을의 누각에서 회포를 적다

每向虛樓坐省躬

매양 빈 누각에 앉아 스스로를 성찰하노니

日來秋興起無窮

나날이 가을 흥취가 일어 무한하구나.

露凝黃菊花含玉

이슬 맺힌 황국은 옥을 머금었고

楓雜青松碧闌紅

단풍과 소나무는 푸름과 붉음을 서로 다투네.

風勁自隕新罇粟

드센 바람 잦아드니 밤송이 벌기 시작하고

霜寒多寂舊鳴蟲
只堪獨許伊消息
難與師資暗洩通

서리 차가와지니 울어대던 벌레 소리 조용하구나.
나만이 이 소식을 받아들이나니
스승 제자 사이에서도 통하기가 어렵도다.

霽夜秋窓坐詠

月窓細影簷前樹
靜夜寒聲霽後灘
欲喚小師同此樂
恐將情見起邪觀

비 개인 가을 밤 창문가에 앉아 읊다

달빛 비치는 창문에 처마 앞의 나무는 가는 그림
자 드리우고
고요한 밤에 비 그친 여울물은 차가운 소리 울리네.
어린 스님 불러다가 이 즐거움 함께 하고 싶건만
감정이 일렁이어 잘못된 생각 일어날까 두렵네.

山中卽事

僧房雖本靜
入夏轉清虛
愛獨朋從散
嫌喧客任疎
蟬聲山雨後
松籟曉風餘
永日東窓下
無心讀古書

산중에 살면서 어느 날

중의 방은 본래 고요한 것이지만
여름이 되니 더욱 맑고 비었네.
고독을 좋아하니 벗들도 흩어지고
시끄러움 싫어하니 나그네도 드물다.
산에 비 오고 나니 매미 소리 들리고
새벽 바람 불고 나니 솔바람 소리 들리네.
동창 아래 긴 하루 동안
무심으로 옛 서적을 읽노라.

偶吟

花發山紅面
風柔鳥亂心
多年求捉漢
今日忽生擒

우연히 읊다

꽃이 피니 산의 얼굴 붉어졌고
바람이 부드러우니 새가 마음을 어지럽게 하네.
오래토록 바라고 집착하던 놈
오늘에야 홀연히 산채로 붙잡았네.

病裏懷故山

應世慙非分
悠悠思萬般
每緣衰病睡
常夢舊青山
白髮催禪鬢
紅腰損道顏
何時肩破袖
歸去賦雲閑

병 중에 옛 산을 그리워함

세상에 맞춰 사는 것 나의 분수 아니니
유유히 만 가지로 생각해 보네.
매양 병으로 쇠약하여 잠에 빠지어
옛날 지내던 청산을 꿈꾸기만 하네.
흰 머리는 참선하는 귀밑머리 재촉하고
붉은 허리는 도 닦는 얼굴을 쇠약하게 만드네.
어느 때에 어깨에 헤진 누더기 걸치고
돌아가 한가롭게 구름을 두고 읊어 볼까?

楓嶽懷歸客
煙霞一懶僧
岩松身共瘦
江霧病俱興
愛日心方赤
哀時哭未懲
故山菴下路
奚定卜重登

풍악산에 돌아가고픈 나그네
안개와 놀 속의 한 게으른 중.
몸은 바위와 소나무와 함께 여위어 가고
병은 강안개와 함께 일어나네.
사랑하는 날에는 마음이 붉어지지만
슬퍼할 때에는 통곡이 멈추지 않네.
옛 산 암자 아래로 난 길
다시 한번 오르길 기약할 수 있을지.

遣興

宇宙逍遙孰我當
尋常隨意任彷徨
石床坐臥衣裳冷
花塢歸來杖屨香
局上自知閑日月
人間那識擾興亡
清高更有常齋後
一抹茶煙染夕陽

흥겨움

누가 나처럼 우주를 소요할 것인가?
늘 기분대로 자유롭게 배회하노라.
돌 침상에 앉고 누우니 옷이 차갑고
꽃 언덕에 돌아오니 신발이 향기롭구나.
바둑판 위에서야 세월이 한가로움을 알겠거니와
인간 세상 흥망의 요란함을 어찌 알리오?
늘 하는 공양 뒤의 맑고 높은 기운
한 줄기 차 연기가 석양을 물들이네.

有客來問 山中之樂 以偈示之

어떤 나그네가 와서 산중의 즐거움을 묻기에 계송으로 보여주다

客問山中樂幾多
山僧無地口吧吧
遊南池上行西磧
無禁無爭興可誇
青山高且大
澗水深且清
有客來問法
俯仰笑聲盲

산중의 즐거움이 어떠한지 나그네가 묻기에
시끄러운 말이 없는 곳이라 대답했지.
남쪽 연못으로 가보기도 하고 서쪽 골짜기로 다니
기도 하는데
아무도 말리거나 다투지 않으니 흥겹기만 하구나.
청산은 높고 크며
계곡물은 깊고 맑다네.
어떤 나그네가 와서 법을 묻고는
굽어보고 우리러 보며 귀머거리 맹인이라 비웃네.

淸平雜詠

청평사(淸平寺)¹⁾에서

淸平山上淸平寺
殿古僧殘情可哀
雲中孤塔沒青草
松下兩碑生綠苔

청평산 위의 청평사
집도 낡고 스님도 줄어 애처롭구나.
구름 속의 외로운 탑은 푸른 풀에 묻히었고
소나무 아래 두 비석엔 푸른 이끼 생겨났네.

當時眞樂問何在
此日淸風吹面來
獨立天壇望復望
一輪明月上崔嵬

당시의 참 즐거움 어디에 있는지?
오늘은 맑은 바람 얼굴에 불어오네.
천단(天壇)²⁾에 홀로 서서 보고 또 보니
둥그렇게 밝은 달이 우뚝한 봉우리에 솟네.

獨坐金文誦兩篇
夜深山月照床邊
蝶夢自消雙眼碧
客情非動一心圓

홀로 앉아 두 편의 경전 외우고 있으니
밤 깊은 산 달이 침상 곁을 비추네.
잠은 절로 달아나고 두 눈이 푸르니
들뜬 감정은 움직이지 않고 한 마음이 원만하네.

王喬駕鶴神猶淺
禦寇乘風道亦顛

왕교(王喬)³⁾가 학을 탔다지만 정신이 오히려 얇고
바람을 타고 적을 막았다는 것 또한 도가 전도된
것이라.

- 1) 청평사(淸平寺) : 강원도 춘천시 청평산에 있는 절. 이 시의 작자인 허응당은 과거 제도 중에 승과를 두어 불교계의 행정을 담당하는 승려를 선발하고, 승려에게 신분증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가 공인하는 승려를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등의 불교 진흥책을 펴다가 잠시 청평사 주지로 있던 다음 다시 서울의 봉은사 주지로 옮겼다.
- 2) 천단(天壇) :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단(壇). 이것은 원래 도교적 성격의 장치인데, 조선시대에 도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불교나 민속과 습합된 상태로 존재하였다.
- 3) 왕교(王喬) :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 흔히 왕자교(王子喬)라 한다. 학을 타고 다녔다 한다.

爭似懶菴無伎量
渴泉飢粟臥雲眠

어찌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만 같으랴.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구름 아래 누워 자네.

獨坐高堂萬首詩
閑吟不覺到朝曦
燈生煖萼鍾鳴曉

높은 집에 홀로 앉아 만 수의 시를 즐기나니
한가로이 읊다 보면 어느 사이 아침 햇살 비치네.
등불에는 따뜻한 꽃받침이 생기고 종은 새벽을 알리는데

雪作寒梅日上時

해가 솟으면 매화는 눈에 덮여 차갑네.

淡粥沸鑪香滿竈
凍烏移樹影翻枝
致知格物功成客
雲裏如吾更有誰

맑은 죽이 솥에 끓으니 향기가 부엌에 가득하고
추위에 언 까마귀 나무 사이로 그림자 번득인다.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여 공을 이룬 사람.
구름 속에 나와 같은 이 또 누가 있을지?

辭宗來舊隱
無事可驚神
金殿參西佛
天壇禮北辰

글 잘 쓰던 사람이 옛날 은거지로 와서
일 없이 지내니 가히 정신이 경이롭구나.
불전에선 아미타불 참배하고
천단(天壇)에선 북극성에 예배하네.

眼將溪共碧
道與日俱新
岩畔和烟臥
都緣聖德春

눈은 시냇물과 함께 푸르고
도는 해와 함께 새로워지네.
바위 곁 안개 속에 누우니
모두가 거룩한 봄 덕분이로다.

林間了無客
幽興獨恢恢
每浴龍潭水
常風盤石臺

숲 사이에는 나그네 전혀 없고
깊은 흥만 홀로 넓고 크구나.
매일 용담수(龍潭水)에 목욕하고
늘 반석대(盤石臺)에 바람 쐬노라.

吟松山雨至
香谷木蓮開
石逕歸來慣
芒鞋半綠苔

古寺無隣竝
林間獨賞春
花開仙洞霧
草軟佛峯烟

西澗聞琴盡
南池照影頻
年光眞可樂
幽興自通神

飛瀑輕雷動
寒松午日陰
臺中無限味
都付一高吟

恐踏藥苗嫌鹿下
忌渾清澗掃蝦蟆
蒼苔小逕無人到
轉覺清平與世賒

五更雲淨月色冷
一杖雙屨登天壇
禮象三三祝復祝
不知空翠沾衣冠

소나무를 읊고 있으니 산 비가 내리고
향기로운 계곡에는 목련이 피었네.
돌아가는 돌 오솔길은 이미 익숙하고
깊신에는 온통 이끼가 붙었네.

옛 절에는 이웃도 없어
숲 사이에서 홀로 봄을 완상하노라.
꽃 피니 신선같은 골짜기에 안개가 끼고
부처님 같은 봉우리에 구름 끼어 풀줄기 부드럽구나.

서쪽 골짜기에는 거문고 소리 들려오고
남쪽 못에는 그림자 자주 비치네.
계절의 빛깔이 참으로 즐거우니
그윽한 흥이 일어 절로 정신이 통하네.

날아 떨어지는 폭포는 가벼운 우뢰소리요
차가운 소나무는 한낮에도 서늘하네.
대(臺) 가운데 무한한 맛이 있으니
이 모두를 시로 지어 큰 소리로 읊어보네.

약초에 흙 묻을라 발걸음 조심하고
맑은 산골물 흐려질라 개구리를 쫓아내네.
푸른 이끼 낀 작은 오솔길에 오는 사람 없으니
청평사가 세상에서 멀다는 걸 알겠구나.

날 썰 무렵 구름 깨끗하고 달빛은 차가운데
지팡이 하나 신발 둘로 천단에 올랐네.
삼배의 예를 거듭 올려 기원하고 또 기원하니
푸른 풀에 의관이 젖는 줄도 몰랐네.

自住清平樂自多
終年無譽亦無呵
有時閑向西川畔
快脫雲衫掛碧蘿

自憐盤石白玲瓏
下有清潭如鑑空
齋餘曳杖獨遊賞
古逕落花深自紅

清平何事好
最好遠京城
嶺有雲舒卷
門無客送迎

神凝消蟻夢
心靜聽鸞笙
此是忘機處
虛堂月自盈

仙洞深深瑞日長
梨花數樹濕雲香
子規似識幽人意
叫過繁枝雪滿場

幸住希夷古道場
風泉崖谷稱吾望
藥畦忌客開深壑
花卉憐蜂種夕陽

스스로 청평사에 사니 즐거움도 저절로 많아
일년 내내 명예도 없고 꾸밈음도 없도다.
때로는 한가롭게 서쪽 시냇가로 향하다가
장삼을 훌훌 벗어 푸른 겨우살이 줄기에 걸어두네.

넓직한 바위가 희고 영롱하여 아름답고
아래로는 맑은 못이 빈 거울같구나.
점심 먹고 지팡이 끌며 홀로 다니다 보니
옛 길에 떨어진 꽃이 절로 붉디 붉구나.

청평사 무슨 일로 좋은가?
서울이 멀다는 것. 가장 좋아라.
고개에는 구름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고
문에는 오가는 손님이 없도다.

정신이 모이니 헛된 꿈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하니 난(鸞)새 소리 들려 오네.
이것이 기를 잊은 곳이니
빈 집에 달빛 절로 가득하구나.

선선 같은 골짜기 깊고 깊어 상서로운 해가 길고
몇 그루 배꽃은 구름에 젖어 향기롭구나.
자규는 숨어 사는 이 마음 알기라도 하는 듯
가지 사이로 울며 지나가니 눈이 마당에 가득하네.

다행히도 고요한 옛 도랑에 사노라니
바람과 샘과 언덕과 계곡이 내 마음에 꼭 맞네.
나그네를 꺼리는 약초밭은 깊은 골짜기에 펼쳤고
석양 속에 심겨진 꽃은 벌을 사랑하네.

蘿月照心資慧力
松風吹面動詩腸
何知造物虛靈境
巧引疎慵直洞房

달빛은 마음을 비추어 지혜의 힘을 길러주고
솔바람은 얼굴에 불어 시심(詩心)을 움직이네.
어떻게 알까, 조물주의 텅 비고 신령스런 경지가
서툴고 게으른 사람 교묘하게 깊은 방으로 인도
하는 것을.

天能教我入杉蘿
泉石榮華與世賒
深碧坐臨西澗水
淺紅行見後山花

하늘이 나를 깊은 산 속으로 들어오게 하니
샘과 돌과 번성한 꽃이 세상과 멀리 떨어졌네.
앉아서 바라보니 서쪽 산골물은 질푸른 빛이요
지나가며 보니 뒷산의 꽃은 옅은 홍색이라.

茶爐備火收松子
丹竈添羞采蕨芽
更有十分堪畫處
南峯舒卷紫烟霞

차 끓이는 화로에 솔방울로 불을 지피
캐 온 고사리 싹으로 반찬을 만드네.
정말로 그림같은 곳이 또 있으니
붉은 안개 모였다 흩어지는 남쪽 봉우리라네.

性癖耽泉石
築臺西澗涯
高閑常獨臥
幽興每自怡

자연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서쪽 계곡 물가에 대(臺)를 쌓았네.
높고 한가로운 곳에 항상 홀로 누우니
그윽한 흥이 일어 늘 절로 기쁘네.

檀樹風搖處
松梢月掛時
洞深誰識此
林下翠禽知

바람이 박달나무 흔드는 곳
소나무 가지에 달이 걸린 때.
골짜기 깊어 누가 이를 알리오?
숲 아래 푸른 새는 알고 있겠지.

眞樂文殊古院西
有臺蕭爽景難題
琴彈香桂風搖葉

참으로 즐겁구나 문수보살 옛 절의 서쪽
상쾌한 대(臺)가 있어 형용하기 어려워라.
바람이 잎을 흔드니 향기로운 계수나무 거문고를

타고

玉振清湍雨打溪

비가 시냇물에 떨어지니 옥이 맑은 여울물에 튕기는 듯.

礪石白銀誰甲乙

은처럼 하얀 계곡의 돌 어느 것이 더 좋은고?

岩花紅錦闌高低

바위 틈 붉은 비단 같은 꽃 높고 낮게 피었네.

鶴邊松月收棋局

학이 앉은 소나무에 달이 걸려 세상 풍경이 아니며

隔巖子規枝上啼

저만치 산봉우리를 두고 두견새는 가지 위에서 우네.

逍遙遣寂

고요함 속에서 거닐며

春深花織地

봄이 깊으니 땅이 꽃으로 뒤덮이는데

臺訪佛峯腰

불봉(佛峯)의 허리에 있는 대(臺)를 찾아가네.

空碧浮雲卷

푸른 허공에 떠 있는 구름 걷히고

山晴宿霧消

날 맑은 산엔 밤새 있던 안개가 사라진다.

九天遙底處

구만 리 하늘은 저 멀리 낮은 곳에 있고

三島杳難招

세 섬은 아득하여 다가가기 어렵구나.

一遺枯禪寂

메마른 선(禪)의 고요함을 한번 버리고 나니

悠悠興自饒

유유한 흥이 절로 넉넉해지네.

息菴觀靜

식암(息菴)에서 고요함을 관(觀)하다

庵在仙區奧

암자가 신선의 땅처럼 깊은 곳에 있으니

軒臨古澗圍

집이 예스런 산골물이 집을 휘감아 도네.

山花紅錦障

산에 핀 붉은 비단 같은 꽃 주위를 둘러싸고

岩桂碧羅幃
隣遠僧來少
雲深俗到稀
寥寥無事坐
觀靜露天機

푸른 비단같은 계수나무는 휘장이 되네.
이웃이 멀어 찾아오는 스님도 적고
구름이 깊어 세속 사람도 잘 오질 않네.
고요하고 고요한데 일 없이 앉아
고요함을 관(觀)하니 자연의 비밀이 드러나네.

夜聞童子洗鐺聲 有省

밤중에 동자가 주전자 씻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

清香一炷坐高堂
忽破多生夢一場
人靜古廚明月夜
汲泉童子洗茶鐺

맑은 향 피어오르는 높은 집에 앉았다가
홀연히 여러 생(生)의 한바탕 꿈을 깨트렸네.
달 밝은 밤 인기척 없는 부엌에서
동자는 샘물 길어 차 주전자를 씻는구나.

見山茶花

야생차 꽃을 보고

齋餘仙洞訪雲中
鶴老人歸菴自空
唯有山茶花萬朶
倚岩依舊笑春風

점심 공양 뒤 구름 속 신선같은 골짜기 찾아갔더니
학은 늙고 사람은 돌아가 암자 절로 텅 비었네.
오직 야생차 꽃만이 만 송이나 피어서
바위에 기대어 봄 바람에 웃고 있네.

書興

曹溪佩印愧多機
 移住清平已一期
 萬朶青松眞益友
 數床黃卷正明師
 臨深履薄當時我
 說白言玄此日誰
 八載是非皆幻夢
 都忘禪室臥支頤

흥을 적다

선가(禪家)에서 버슬한 것⁴⁾ 부끄러워라
 청평사(淸平寺)로 옮겨 지낸 지 이미 일 년이구나.
 수많은 가지 드리운 푸른 숲은 참된 벗이요
 책상 위 경전은 정녕 밝은 스승이로다.
 조심조심 살아온 당시의 나
 희다 하고 겁다 하는 오늘의 나는 누구인고?
 팔 년 동안의 시비는 모두가 헛된 꿈이니
 모두 잊고 선방에 턱을 괴고 누웠노라.

卽事

乍陰還霽霽還陰
 天意分明似我心
 安得此心能中節
 閑教造物適晴陰
 雲拖南山雨
 松傳北壑風
 欣欣物自樂
 飛燕落銜蟲

즉흥시

한때 흐렸다 다시 개이고 개었다가 다시 흐리니
 하늘의 뜻이 분명 내 마음과 비슷하구나.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적절하게 절제하여
 조물주가 때 맞추어 개었다 비를 내렸다 하게 할까?
 구름은 남산의 비를 끌어오고
 소나무는 북쪽 골짜기의 바람을 전해주네.
 만물은 흐뭇하게 스스로 즐거워하는데
 날아가는 제비는 입에 물었던 벌레를 떨어뜨리네.

4) 작자는 1551년 선종판사(禪宗判事)가 되어 불교를 부흥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臨終偈

幻人來入幻人鄉
五十餘年作戲狂
弄盡人間榮辱事
脫僧傀儡上蒼蒼

임종계

허깨비가 허깨비 마을로 들어와
오십 년이 넘도록 미친 짓 하였구나.
인간 영욕의 일을 다 희롱하고서
중이라는 꼭두각시 벗어버리고 푸른 하늘로 올라
가노라.



休靜 휴정

【清虛堂集 청허당집】



佛日庵

深院花紅雨
 長林竹翠煙
 白雲凝嶺宿
 青鶴伴僧眠

불일암(佛日庵)¹⁾

깊은 절 붉은 꽃비
 긴 숲 대나무는 푸른 안개.
 흰 구름은 고개에 엉기어 잠 자고
 푸른 학은 스님과 함께 졸고 있네.

登天王峰

仲秋一陣風
 雲散月輪孤
 登高望復望
 八表元無隅
 萬國如蟻垤
 混沌無完膚
 南柯大夢裡
 誰是大丈夫

천왕봉(天王峰)²⁾에 올라

한 바닷 부는 가을 바람에
 구름이 흩어지자 달 덩어리 하나.
 높이 올라 보고 또 보니
 사방 팔방 펼쳐져 모퉁이가 없구나.
 세상은 개미독³⁾과 같아서
 매끈한 곳 없이 뒤엉켜 있네.
 남쪽 가지의 큰 꿈 속에⁴⁾
 누가 대장부란 말인가.

1) 불일암(佛日庵)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지리산에 있는 암자. 신라 말에 진감국사(眞鑑國師)가 창건하였고, 고려시대에 보조국사(普照國師)가 중창하여 수도도량으로 삼은 뒤 불일암이라 하였다.

2) 천왕봉(天王峰) : 지리산의 최고봉. 높이 1915m.

3) 개미독 : 개미가 땅에 구멍을 파면서 그 주변에 쌓아놓은 흙더미.

4) 남쪽 가지의 큰 꿈 : 남가일몽(南柯一夢)이란 고사에서 나온 말. 순우분이란 사람이 자신의 집 남쪽에 있는 느티나무의 가지 아래서 잠시 졸았는데, 어떤 나라의 벼슬아치가 되어 부귀영화를 20년이나 누리다가 깨어보니 꿈이었다. 인간의 부귀영화가 한 편의 꿈에 불과하다는 비유이다.

遊香峰

步步又步步
 層崖幾重重
 白雲生洞壑
 忽失香爐峰
 汲澗燃秋葉
 烹茶一納胸
 夜來崑下宿
 魂也御飛龍
 明朝俯天下
 萬國列如峰

향로봉(香爐峯)⁵⁾ 나들이

걷고 걷고 또 걷고 걸으니
 층층의 벼랑이 몇 겹이나 되는지.
 흰 구름이 골짜기에서 생겨나
 문득 향로봉이 어딘지 잃어버렸네.
 산골물을 길어다가 낙엽을 태워
 차를 달여 가슴 속에 한 잔 쏟아넣는다.
 밤이 되어 바위 아래 잠자니
 영혼은 용을 타고 하늘을 나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천하를 내려다보니
 세상은 봉우리처럼 늘어섰구나.

望鄉

(1)

白雲千里
 萬里明月
 前庭後庭
 惆悵鄉關
 不去洛陽
 柳色青青

고향을 바라보며

흰 구름 천 리
 만 리 밝은 달.
 앞 뜰 뒷 뜰
 슬프구나, 고향이여.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데
 버들잎만 푸르고 푸르구나.

5) 향로봉(香爐峯) : 묘향산(妙香山)의 봉우리 이름. 높이 1600m. 휴정은 묘향산에서 수행 생활을 많이 하였으므로, 묘향산과 관련된 시가 많다.

(2)

瞻彼白雲
在天之涯
離家遊子
空望咨嗟

저 흰구름을 쳐다보니
하늘 끝에 떠 있구나.
집을 떠나 돌아다니는 사람
부질없이 바라보며 한탄만 하네.

答白雲子

我思我思
天之南兮
心之所期
難與人兮
白雲白雲
寫我心兮

흰구름에게 답하노라

나는 생각하네 나는 생각하네,
하늘의 남쪽을.
내 마음이 바라는 것,
다른 사람과는 함께하기 어려워라.
흰 구름만 흰구름만
내 마음 그대로네.

清虛歌

君抱琴兮倚長松
長松兮不改心
我長歌兮坐綠水
綠水兮清虛心
心兮心兮
我與君兮

맑고 텅빔의 노래

그대 큰 소나무에 기대어 거문고 타니
큰 소나무는 마음 변하지 않지.
나 푸른 물가에 앉아 길게 노래하니
푸른 물은 맑고 텅 빈 마음이라.
마음이여, 마음이여!
나 그대와 함께하리.

寄松竹軒主人

송죽헌(松竹軒) 주인에게

初因過客 聞主人之名 再因沙彌 知主人之行也. 吁! 主人營臺榭植松竹 如遺世節義人也. 臥江山詠風月 依稀晉唐高士也. 上察煙飛 俯觀魚躍 髣髴格物君子也 鳴琴橫笛 樂而忘生 儼然一太古人也. 吾知主人之備重德 感興而爲之歌 曰,

처음에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서 주인의 이름을 들었고, 다음에는 사미에게서 주인의 행실에 대하여 들었다. 아! 주인이 대를 쌓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으니 마치 세상을 잊고 절개와 의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과 같구나. 강과 산을 보며 바람과 달을 읊조리니 진나라나 당나라의 고결한 선비인 듯하구나. 위로는 안개가 나는 것을 보고 아래로는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것을 살펴서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군자와 같도다. 거문고를 타거나 피리를 불면서 생사를 잊고 즐기니 틀림없는 태고의 한 사람이로다. 주인이 이처럼 많은 덕을 갖춘 것을 알고 감흥이 일어나 그를 위하여 노래하노라.

移天地兮納胸中
任日月兮西復東
一杯悠悠萬萬古
無盡英雄如過風
廖廖獨立誰與伴
貫古今兮無極翁

하늘과 땅을 가슴 속으로 옮겨 넣고
해와 달이 떠가는 대로 동서로 돌아다니네.
한 잔 술에 만고의 세월이 유유하기만 하니
그 많던 영웅들도 지나가는 바람일 뿐.
드넓은 곳에 홀로 우뚝 서니 누가 짝할 수 있으리?
고금을 꿰뚫은 무극⁶⁾의 노인이로다.

上滄海

창해(滄海)⁷⁾에게 올림

蓬萊兮古寺照
空壁兮十年燈

봉래산 오래된 절을 비추네
텅 빈 벽의 십 년 등불.

6) 무극(無極) : 중국철학에서 우주 만물이 형성되기 이전의 어떠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고 시간조차 없는 근원적인 세계를 말한다.

登高兮望遠山
 疊疊兮雲層層
 噫
 秋山獨聽鐘
 雨色連滄海
 落日望堅城
 故人何處在

높이 올라 먼 산을 바라보니
 첩첩 산중에 구름도 층층이로다.
 아!
 가을 산에 홀로 종소리 들으니
 빗물 빛이 푸른 바다로 이어졌구나.
 떨어지는 해 속에 견고한 성을 바라보네
 그리운 벗 어디에 있는지?

詠懷

乾坤逆旅中
 露電身如寄
 明月三山竹
 獨坐聞翡翠
 春雨一池蛙
 出入當鼓吹
 念念轉千經
 何須讀文字
 平生沒伎倆
 早學林下睡
 睡熟漸交魂
 變作蝴蝶翅

생각을 읊다

여관과도 같은 이 세상
 먼갯볼에 몸을 맡긴 격이네.
 못 산의 대숲엔 밝은 달
 홀로 앉아 비취새 소리를 듣네.
 봄비 내리는 연못의 개구리
 드나들 때마다 울음소리 드높기만 하네.
 천 권의 경전을 외우는 소리이니
 굳이 문자를 읽어야만 할까.
 평생에 재능이 별로 없어
 일찌감치 숲 속에서 조는 것만 배웠네.
 잠이 깊어지면서 혼령도 뒤바뀌어
 나비의 날개로 변하고 말았네.⁸⁾

7) 창해(滄海) : 양사언(1517~1584)의 호. 양사언은 조선 초기에 살았던 인물인데, 시와 글씨에 뛰어났으며, 특히 초서를 잘 쓰기로 유명하였다. 도가의 신선사상에 깊은 조예가 있었고, 산수의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자청하여 베풀하였다. 양사언과 청허당은 상당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夢裏甚紛紜
覺來寂無事
呵呵開大笑
萬法眞兒戲

꿈 속에서 온갖 일 겪다가
깨어나고 보니 아무 일 없이 고요하기만 하네.
겉겉겉 큰 웃음 터트리니
만법이 참으로 아이 장난이로다.

頭流內隱寂

有僧五六輩
築室吾庵前
晨鍾卽同起
暮鼓卽同眠
共汲一澗月
煮茶分靑烟
日日論何事
念佛及參禪

두류산(頭流山) 은적암(隱寂庵)⁹⁾

스님 대여섯 분이
내 사는 곳 앞에 집을 짓더니
새벽 중 치면 다같이 일어나고
저녁 북 울리면 다같이 잠에 드네.
달빛에 젖은 샘물 함께 길어와
차를 달이니 푸른 연기 흩어지네.
하루 하루 무슨 일을 논하리오
염불이나 참선만 할 뿐이네.

8) 『장자』 「제물론」에 나오는 ‘호접지몽(胡蝶之夢)’의 비유를 표현한 것이다.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 꽃밭을 날아다니며 즐기다가 깨었는데, 장자 자신이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장자가 된 것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다. 모든 시비분별은 상대적일 뿐, 지극한 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라는 의미를 말한다.

9) 두류산은 지리산의 별칭이다. 두류산의 내은적암은 원래 신라말에 창건된 절이나 훼손되어 있었는데, 1560년 청허당이 이 곳에 와서 중수하였다. 청허당은 내은적암에서 3년간 머물렀다고 전한다.

登望海亭

客登望海亭
 大風激大水
 白浪翻長鯨
 銀山摧復起
 驚天動地聲
 萬古無終始
 回首望南中
 泰山如人砥
 雁沒楚天邊
 皓月生鏡裏
 疑坐大鵬背
 逍遙九萬里
 問客客是誰
 客是清虛子

망해정(望海亭)¹⁰⁾에 올라

나그네가 망해정에 오르니
 큰 바람이 큰 물에 부딪히네.
 흰 물결 속에 큰 고래 요동쳐서
 은산이 꺾였다가 다시 일어서는 듯하네.
 하늘과 땅을 놀라게 하는 소리
 만고에 시작도 끝도 없구나.
 머리를 돌려 남쪽을 바라보니
 태산이 솟돌 같구나.
 기러기는 남쪽 하늘 끝으로 사라지고
 거울 속에 밝은 달이 생겨나네.
 마치 큰 봉새의 등에 앉아
 구만리 장천을 소요하는 듯하구나.¹¹⁾
 나그네에게 묻노니, 그대는 누구이신가?
 나그네는 바로 청허당¹²⁾이로다.

途中有感

客在長安道

길을 가다가

나그네 장안 가던 길

-
- 10) 망해정(望海亭) : ‘바다를 조망하는 정자’라는 의미의 명칭으로, 전국 여러 곳에 망해정이 있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 11) 『장자』 「소요유」에 나오는 말. 여기서 장자는 일체의 시비를 넘어선 도의 경지를 갖가지 비유로 표현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곤(鯨)과 봉(鵬)의 비유를 따온 것이다. 북쪽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인 곤은 봉새로 변하여 남쪽바다로 가는데, 얼마나 거대한지 한번에 구만리나 날아오른다고 한다.
- 12) 작자의 당호.

長安春色早
 崔娘恨落花
 李子怨芳草
 落花自落花
 芳草自芳草
 可笑人間苦
 可笑人間苦

장안은 이른 봄빛이었네.
 최씨 낭자는 떨어지는 꽃을 보며 아쉬워하고
 이씨 낭자는 싱그러운 풀을 보며 원망하네.¹³⁾
 떨어지는 꽃은 절로 떨어지는 꽃이요
 싱그러운 풀은 절로 싱그러운 풀이건만
 가소롭구나, 인간의 괴로움이여!
 가소롭구나, 인간의 괴로움이여!

還鄉曲

死也爲誰死
 生也爲誰生
 本無去來相
 惟爲利群生
 來爲衆生來
 去爲衆生去
 去來一主人
 畢竟在何處

환향의 노래

죽기는 누구 위해 죽으며
 살기는 누구 위해 사르고,
 본래는 오고 가는 모습조차 없건만
 오직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
 올 때도 중생을 위해 오고
 갈 때도 중생을 위해 가는데,
 오고 가는 한 주인¹⁴⁾
 결국에는 어디에 있는고?

13) 한번 떠난 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꽃다운 풀은 해마다 다시 돌아나니, 풀을 보며 님을 원망한다는 의미.

14) 주인 : 선가(禪家)에서 주인이란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는 참모습을 의미한다.

楓嶽山

壯哉楓岳山
 巍然高屹屹
 幾經風與雨
 脊梁長不屈
 幾經雪與霜
 落落扶天立
 亦多老松杉
 青海通雲濕
 珍重古之人
 與山猶相揖
 天生大丈夫
 節義要先習
 我來一登臨
 天邊紅日入
 獨宿塔寺空
 如聞龍象泣

풍악산(楓嶽山)¹⁵⁾

씩씩하구나, 풍악산이여!
 깎아지른 듯 우뚝하구나
 몇 번이나 비바람 겪었을까?
 등줄기는 언제나 굽히지 않네.
 몇 번이나 눈서리 겪었을까?
 곳곳이 하늘을 받치고 섰구나.
 오래된 소나무 삼나무도 많으니
 푸른 바다와 구름의 습기 통하여서이겠지.
 보배롭고 소중한 옛사람이여!
 산과 더불어 서로 허리 굽혀 절하였네.
 하늘이 낳은 대장부는
 절의를 먼저 익혀야 하네.
 내가 와서 한번 올라보니
 하늘 끝에 붉은 해가 지는구나.
 홀로 자는 절은 고요하기만 한데
 마치 훌륭한 스님의 울음소리 들리는 듯하네.

內隱寂

頭流有一庵

내은적암

두류산에 암자 하나 있어

-
- 15) 풍악산(楓嶽山) :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금강산은 계절마다 달리 불리
 는 별칭이 있었다. 봄에는 온 산이 새싹과 꽃에 뒤덮이므로 금강(金剛)이라 하
 고, 여름에는 봉우리와 계곡에 녹음이 깔리므로 봉래(蓬萊)라 하고, 가을에는 일
 만 이천 봉이 단풍으로 곱게 물들므로 풍악이라 하고, 겨울이 되어 나뭇잎이 지
 고 나면 암석만이 앙상한 뼈처럼 드러나므로 개골(皆骨)이라고 한다.

庵名內隱寂
山深水亦深
遊客難尋迹
東西各有臺
物窄心不窄
清虛一主人
天地爲幕席
夏日愛松風
臥看雲青白

내은적이라 이름하네.
산도 깊고 물도 깊어
유람객은 찾아내기 어려우리.
동과 서에 각각 대가 있어
땅은 좁아도 마음은 좁지 않네.
맑고 텅 빈 한 주인이
천지를 집으로 삼아
여름날엔 솔바람 좋아하여
희뿌연 구름 보면서 누워 있네.

戰場行

憶曾當日水戰時
萬艇飛海如天鵲
兩兵交攻杳莫分
忍痛大聲波欲渴

霜劍如林翻日色
斬盡千頭如一髮
茫茫碧海驚魂泣
夜月寒沙照白骨
百里春林燕子飛
柳村無人鸚語滑

전쟁터¹⁶⁾

일찍이 그날 수전을 벌이던 때를 생각해보면
만 척의 배는 하늘의 송골매처럼 바다를 날았었지.
양쪽 병사 서로 쳐서 분간할 수 없었고
고통 참는 고향 소리에 물결조차 목이 마른 듯하
였지.

서릿발 같은 칼은 숲을 이루어 햇빛에 번득였으니
천 개의 머리를 베는 것을 터럭 하나같이 하였지.
망망한 푸른 바다엔 놀란 혼이 울고
밤 달은 차가운 모래밭 백골을 비추누나.
백리의 봄 숲에는 제비가 날아다니고
사람 없는 버드나무 마을엔 찢꼬리 소리만 흐르
누나.

16) 전쟁터 : 임진왜란 때의 일을 가리키나, 정확하게 어디를 두고 지은 시인지는 알 수 없다.

君不聞

太平日久人心頑
放逸懈怠天亦罰
客過秋風一枝去
古寺斷碑荒草沒

그대 듣지 못하였는가,

태평한 날이 오래면 사람 마음이 미련해져서
방일하고 게으른 자 하늘도 벌을 주심을.
가을바람에 지팡이 하나로 나그네는 떠나가는데
옛 절의 동강난 비석은 거친 풀 속에 묻혀 있네.

春日詠懷

東風昨夜至
病客來山中
林鳥已新語
野花將欲紅
人間郭郎巧
世事浮雲空
臨濟一聲喝
直開千日聲

봄날에 생각을 읊다

어제 밤 동풍 불더니
병든 나그네 산 속으로 왔도다.
숲 속의 새는 싱그럽게 지저귀고
들판의 꽃은 붉어지려 하건만,
인생이란 연극과도 같은 것이요
세상일은 뜬 구름처럼 부질없을 뿐.
임제스님 고함 한 소리에¹⁷⁾
긴 세월 먹었던 귀가 한 순간에 뚝러버리네.

詠月

月出青天面
誰當問古今
盈虛知進退

달을 노래하다

달이 푸른 하늘로 떠오르니
누가 고금의 세월을 묻겠는가.
차고 비는 것에서 진퇴를 알고

17) 중국 당나라 말기의 선사인 임제의현은 대단히 동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제자들을 지도하였다. 특히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 제자의 안목을 열어주기도 하였는데 이를 ‘할[喝]’이라 한다.

顯晦學昇沈
幾入詩人句
還傷遠客心
山僧都不管
高臥聽松琴

밝고 어두운 데서 오르내림을 배우노라.¹⁸⁾
시구를 거의 다 채워가노라니
도리어 먼 나그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건만
산승은 전혀 개의치 않고
높이 누워 소나무 악기 소리 듣노라.

秋懷

가을의 회포

- 在妙香山 想頭流師翁 故寄興如此

- 묘향산에 있으면서 두류산의 노스님이 생각나서 이와 같은 감흥을 써 보내었다.

渺渺多懷思
悠悠望不窮
鳥飛山色裏
蟬咽夕陽中
黑髮愁人白

青林病葉紅
生離同死別

何更問西東

아련히 먼 곳을 무척이나 그리워하여
한없이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새는 산빛 속에서 날아다니고
매미는 석양빛 속에서 읊니다.
머리가 검은 사람은 남의 머리 희다고 근심스러워하고

푸른 숲은 단풍 든 잎을 병들었다 여깁니다.
살아도 떨어져 있으니 죽어 이별한 거나 한가지
입니다.

동과 서를 따진들 무엇하겠습니까?¹⁹⁾

18) 진퇴와 오르내림은 나아서 세상에 기여를 하거나, 혹은 물러나서 내면의 덕을 기르는 일을 말한다. 욕심이나 집착을 부리지 않고, 때에 맞게 행동함을 의미한다.

19) 서쪽은 서방정토, 즉 극락을 가리킨다. 동과 서는 곧 생과 사를 의미한다.

次李方伯韻別

早脫紅塵網
招提獨閉門
今逢千里客
來破萬山雲
出野麟無族
歸岳鶴失群
梨亭從此別
對月更思君

이사또 시의 운에 맞춘 이별시

일찌감치 붉은 먼지²⁰⁾의 그물을 벗어나
절로 들어가 홀로 문을 닫았네.
이제 천 리에서 온 나그네를 맞아
만 산의 구름을 걷어 해쳤네.
들판을 벗어나니 가족 없는 사슴이요
돌아온 바위엔 무리 잃은 학이로다.
배꽃 핀 정자에서 이제 이별하노니
달을 보며 그대 생각하리라.

贈泉禪和子

歷歷提公案
莫浮亦莫沈
虛明如水月
緩急若調琴
病者求醫志
嬰兒憶母心
做工親切處
紅日上東岑

참선하는 천(泉)스님에게

또렷하게 공안을 들되
들떠서도 아니 되고 가라앉아서도 아니 되네.
텅비고 밝은 것이 물 속의 달과 같고
빠르고 느림은 거문고를 타는 것과 같아야 하지.
병든 자가 의원을 찾는 의지로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네.
공부가 아주 절박해질 때
붉은 해가 동쪽 봉우리에 떠오르리.

20) 붉은 먼지 : 세속의 번뇌를 의미. 공중에 떠오른 티끌이 햇빛을 받아 붉게 보인다는 뜻. 세속에서의 생활은 먼지와 티끌처럼 욕망과 번뇌로 떠다닌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不變曰眞, 觸事曰機. 或曰, “群生出於眞 沒於眞” 或曰, “出於機 入於機” 是雖達人之言, 皆未免對待立名 而令人尤增法縛者也. 我這裏本來無妄 何有眞而可得, 本來無事 何有機而可立. 欲作出世高士 請高着眼. 吁! 大丈夫一言一行 可以動天地 感鬼神, 可以呼吸春秋, 吞吐日月 不可徒然也. 姑以忘機二字 因成一律以示之.

변하지 않는 것을 ‘참됨[眞]’ 이라 하고, 일에 접촉하는 것을 ‘기(機)’²²⁾라 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모든 생명은 참됨에서 나와 참됨으로 사라진다고”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기에서 나와 기로 들어간다”고 한다. 이것이 비록 경지에 도달한 사람의 말이긴 하겠으나, 대상을 두고 명칭을 부여한 것을 면하지 못하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이론에 집착하게 한다. 내 여기에는 애당초 거짓됨이 없는데 어찌 찾을 수 있는 진이 있으며,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어찌 세울 수 있는 기가 있겠는가. 이 세상을 벗어난 뛰어난 인물이 되고자 한다면 청컨대 높은 수준으로 보기를 바란다. 아! 대장부의 한 마디 말 한 가지 동작이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을 감응시킬 수 있으며, 세월을 들이췌고 내췌며, 해와 달을 삼켰다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이 헛말이 아니로다. 그래서 잠시 ‘기를 잊는다[忘機]’는 두 글자로써 읊시 한 수를 지어 보이노라.

今我大圓鏡
本無凡與聖
忘機佛道隆
分別魔軍盛

지금 나의 크고 둥근 거울²³⁾
본래는 범인과 성인의 구분이 없네.
기를 잊으면 불교의 도가 높아지고
분별을 하면 마군이 성한다네.

21) 진기(眞機) : 휴정의 스승인 부용영관(芙蓉靈觀)에게 동문 수학했던 도반이다.

22) 기(機) : 어떤 상황에 따라 반응하여 일어나는 상호 작용.

23) 크게 둥근 거울 : 원래는 유식학(唯識學)에서 쓰는 용어. 크게 둥근 거울에는 사물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추어진다는 뜻에서 부처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欲去眼中花
先除心上病
長風忽掃雲
天月當窓映

눈 속의 꽃²⁴⁾을 없애려 한다면
먼저 마음에 있는 병부터 없애야지.
긴 바람이 문득 구름을 쓸어가니
천공의 달이 창에 나타나 비추네.

哭蓬萊禪子

我愛蓬萊客
笑中心自閑
重重水歸水
疊疊山連山
碧落在頭上
白雲生脅間
因悲乘鶴去
一去不知還

봉래선자(蓬萊禪子)²⁵⁾의 죽음을 애도하며

내 봉래의 나그네를 사랑하였나니
웃음 중에 마음 절로 한가로웠도다.
겹겹의 물은 물로 돌아가고
첩첩의 산은 산으로 이어지네.
머리 위로는 푸른 허공이 있고
겨드랑이 사이로는 흰 구름이 생겨나네.
학을 타고 떠나버림을 슬퍼하노니
한번 가고 나면 돌아오지 않으리.

登楓岳九井峯

遠客尋秋上九井
層層木落已森森

풍악산(楓岳山) 구정봉(九井峯)에 올라

멀리서 온 나그네 가을을 찾아 구정봉에 오르니
층층으로 나뭇잎 떨어져 뽕뽕하구나.

24) 눈 속의 꽃 : 눈병이 생겨 사물의 모습이 이그러지거나 겹쳐 보이는 현상을 눈 속에 꽃이 핀 것 같다는 비유로 표현한 것. 눈 속의 꽃을 없앤다는 말은 보이는 대상을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

25) 봉래선자(蓬萊禪子) : 봉래는 양사언의 호. 조선 전기의 뛰어난 서예가였던 그는 회양군수로 재직하던 시절, 금강산을 매우 아끼고 즐겨 유람하였다. 도가는 물론 불가에도 조예가 깊었다.

浮雲朝暮有翻覆
流水東西無古今
白鳥亂飛青海面
玉峯爭出碧天心
登山小魯曾如許
一望中原思不禁

뜬 구름은 시시각각 모양이 뒤바뀌고
흐르는 물은 동서로 변함이 없구나.
흰 새들 푸른 바다 수면 위로 어지러이 날고
옥같은 봉우리는 푸른 하늘로 다투어 솟았네.
태산에 올라 노나라를 작게 여겼다 하더니²⁶⁾
세상을 한번 바라보니 여러 생각 금할 수 없네.

贈昱禪子

욱(昱) 선자(禪子)²⁷⁾에게

靑年勤著唐虞典
壯歲深窮貝葉書
萬古乾坤雙幻化
百年身世一蘆盧
嶺雲起處眠猶熟
山鳥啼時耳亦虛
獨坐寥寥當白月
不知松露滴襟裾

유가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던 청년이
장년이 되어 불경 공부를 깊이 하였네.
만고의 하늘과 땅 모두가 환상이러니
백 년 사는 동안 이 세상은 하나의 여관일 뿐.
구름 일어나는 높은 고개에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산새 지저귄 때 귀 또한 텅 비었네.
홀로 고요히 앉아 밝은 달을 마주하니
소나무 이슬이 옷깃 적시는 줄도 몰랐네.

26) 『맹자』 「진심장」 상편에서, ‘공자께서는 동산(東山)에 오르니 노나라가 작게 여겨지고, 태산(泰山)에 오르니 천하가 작게 보이더라(孟子曰, “孔子登東山而小魯登太山而小天下.”)’는 내용에 근거한 말. 태산은 중국 노나라 땅(현 산둥성)에 있다.

27) 선자(禪子) : 선수행을 하는 학인을 일컫는 말.

贈別麟壽禪子

인수(麟壽) 선자와의 이별에 드림

金剛道士促裝歸

금강도사(金剛道士)²⁸⁾ 서둘러 차려 입고 돌아가는데

風滿懷中雲滿衣

가슴엔 바람 가득 옷에는 구름 가득.

啼鳥落花春寂寂

우는 새 떨어지는 꽃 쓸쓸한 봄이로다

夕陽山郭雨霏霏

석양녘의 산 성곽엔 부슬부슬 비가 내리네.

一聲長笛離情苦

한 줄기 피리 소리 이별하는 정은 괴롭고

千里孤帆海色微

천 리 떠날 외로운 돛배 바닷빛은 흐릿하구나.

今夜故人何處宿

오늘 밤 벗님은 어디에서 주무실런지?

半窓梅竹月依依

창문엔 매화와 대나무, 교묘한 달빛 보이네.

題頭流山凌波閣

두류산(頭流山) 능파각(凌波閣)에 붙여

畫閣飛雲槁臥水

구름 속의 채색 누각 물가에 누웠고

山僧每日踐長虹

산승은 매일같이 길다란 무지개를 밟는다.

幾多塵世翻新局

티끌 세상은 수없이 새로운 형국으로 뒤바뀌는데

何代閑民作老翁

어느 시대가 되어야 한가로운 백성이 늙은이같이 될까.

春暮仙間花雨亂

신선세계에 봄이 저무니 꽃은 비처럼 흩날리고

月明天上玉樓空

하늘의 달은 옥같은 누각 위로 밝구나.

澗琴松瑟無終曲

시냇물과 소나무는 악기가 되어 끝이 없는 곡을 연주하는데

萬古乾坤一笑中

만고의 천지는 한 웃음 속에 있도다.

28) 금강도사(金剛道士) : 금강은 금강석으로, 지혜를 상징한다. 금강석이 모든 다른 물질을 깨트릴 수 있듯이 지혜는 모든 잘못된 견해를 깨트림을 의미한다.

次金剛山山映樓板上韻

금강산 산영루(山映樓)에 붙은 시의 운에 맞춰

高樓如畫鬼應慄	그림같은 높은 누각 귀신도 아끼리라
壁上風騷柳與韓	벽 위에 작품들은 유종원과 한유 ²⁹⁾ 로다.
帶月癯仙千丈檜	여윈 신선 곁엔 달 걸린 천 길 회나무
隔林鳴瑟一聲灘	건너 숲에 울리는 비파는 여울물 소리.
山間樂勝人間樂	산 속의 즐거움이 인간세상보다 나오니
世道難於蜀道難	세상살이는 촉나라 가는 길 ³⁰⁾ 보다 어렵도다.
欲識金剛眞面目	금강의 진면목을 알고자 하는가
白雲堆裏列峯巒	흰 구름 쌓인 속에 솟한 봉우리 늘어섰구나.

表訓寺

표훈사(表訓寺)³¹⁾

春風昨入蓬萊洞	어제는 봄바람이 봉래동(蓬萊洞) ³²⁾ 에 들더니만
客夢殘時鳥亂啼	나그네 꿈 깨기도 전에 왁자한 새소리.
八十樓臺皆寺刹	팔십 누대는 모두가 다 사찰인데
萬千峯嶺各高低	천만의 봉우리와 고개는 높낮이도 제각각.
白雲影裏飛青鶴	흰 구름 그림자 속엔 푸른 학이 날고
明月光中瀉玉溪	밝은 달빛 속에 옥같은 시냇물이 쏟아져 내리네.

-
- 29) 유종원(柳宗元)과 한유(韓愈) : 모두 중국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자 문장가.
- 30) 촉나라 가는 길 : 원래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 제목이다.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지역으로, 당나라 서쪽이었던 장안(長安)에서 사천성으로 가는 길의 험난함을 묘사하면서 인생살이의 어려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 31) 표훈사(表訓寺) : 금강산에 있는 절. 휴정이 수행을 하던 곳이며, 휴정의 진영(眞影)이 이 절에 안치되어 있다.
- 32) 봉래동(蓬萊洞) : 금강산 골짜기를 말한다. 금강산을 달리 봉래산이라 한다.

天外有天君信否
落花流水使人迷

하늘 바깥에 또다른 하늘 있음을 그대는 믿는지?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이 사람을 정신 없게 만드네.

賽義玄禪子求語

擬紙墨時初夢境
要思量處兩頭機
夢中說夢重重妄
頭上安頭疊疊非
絲竹傳心心乃錯
風雲示法法之違
師乎欲識吾宗旨
白日青天霹靂威

의현(義玄)스님의 부탁으로 짓다

종이와 묵으로 무얼 하려는 것은 갓 꿈이 깬 정도요
생각으로 해 보려는 것은 머리가 돌이 되는 격.
꿈 속에서 꿈을 설하면 거듭 거듭 엉터리가 되고
머리 위에 또 머리를 두면 겹겹이 틀려 버리네.
현악기 관악기로 마음 전하나 이 마음이 아니요
바람과 구름으로 이치를 보여도 이 이치가 아니라.
스님이어, 나의 종지를 알고 싶은가?
흰 해와 푸른 하늘에 무시무시한 벼락이로다.

贈楓岳山能長老

竹風松月是相知
坐臥經行任意之
覺滿如來差病客
行圓菩薩止啼兒
烹茶苦菜連根煮
齋飯香蔬帶葉炊

풍악산 능(能) 장로(長老)³³⁾께

대 바람과 소나무 달 서로 알아
앉거나 눕거나 경행하거나 마음대로였지.
깨달음 가득한 부처는 병든 나그네 낮게 하고
행이 원만한 보살은 우는 아이 그치게 하네.
쌈바귀를 뿌리채 태워서 차를 끓이고
향기로운 채소잎을 태워서 밥을 짓네.

33) 장로(長老) : 학덕이 높고 역량을 갖춘 선지식을 부르는 말. 수행 경력이 오래됨을 중시한 것.

人間一生何事業
只這開眼展雙眉

인간 일생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다만 이렇게 두 눈 뜨고 양 눈썹 펴 뿐이네.

次朴學官韻

박(朴) 학관(學官)³⁴⁾이 지은 시의 운에 맞춰

一光無始亦無終
三教名言枉費功
火裏開花非好手
虎頭生角豈神通
風雷起處銀山裂
棒喝馳時鐵壁窮
天上人間徒縹緲
少林曾坐獨扶宗

하나의 빛은 시작도 끝도 없으니
삼교³⁵⁾의 말씀들이 잘못 들인 공이로다.
불 속에 꽃을 피우는 것도 대단한 솜씨가 아닌데
호랑이 머리에 뿔이 나게 한들 어찌 신통이 되리오.
바람과 우레가 일어나는 곳에 은산이 찢어지고
방할³⁶⁾이 내달리는 곳에 철벽이 끝이 나네.
천상의 인간은 다만 멀고 아득하기만 한데
소림³⁷⁾에선 일찍이 홀로 앉아 종풍을 부지하네.

贈玄昱禪和

현욱(玄昱) 스님에게

平生欲奏沒絃琴
惆悵東西未遇音

평생 동안 줄 없는 거문고를 타려 했으나
슬프게도 지음³⁸⁾을 만나지 못하였네.

34) 학관(學官) :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양반관리들의 자식을 교육하는 벼슬아치를 가리키는 말.

35) 삼교 : 유·불·도를 통칭하여 삼교라 한다.

36) 방할 : 선가에서 스승이 제자들의 안목을 열어주기 위해 쓰는 특별한 지도방법. 방[棒]은 몽둥이로 때리기, 할[喝]은 ‘嘿’하고 소리지르기. 불가에서는 관용적으로 棒은 ‘방’, 喝은 ‘할’이라 읽는다.

37) 소림(少林) : 선가(禪家)의 맥은 중국 소림사의 달마조사로부터 비롯되었다. 곧 소림사는 선가의 원조에 해당한다.

闕里秋陽曾炙背
少林寒月更醒心
坐松坐石忘天地
花落花開送古今
珠在澤中光在澤
豈隨狂醉拾華鍼

궐리³⁹⁾의 가을 별이 아직도 등을 따스하게 하는데
소림의 싸늘한 달은 다시 정신을 일깨우네.
소나무에 앉고 돌에 앉아 세상을 잊노라니
꽃 피고 지는 사이에 세월을 보내누나.
구슬이 못 가운데 있어 그 빛도 못에 있으니
어찌 미치광이를 따라 꽃바늘⁴⁰⁾을 주우리오?

寄贈大雄

큰 영웅에게 드림

夏日松風裏
頽然臥短亭
林深能鳥語
雲破露山形
苦菜連根煮
寒泉汲古瓶
逃名塵自遠
棲寂地應靈
莫妄吾家法
君須洗耳聽

여름날 소나무 바람 속에서
작은 정자에 아무렇게나 누웠으니
숲이 깊어 새들이 지저귀고
구름 흩어지자 산의 자태 드러나네.
씀바귀를 뿌리채 삶고
차가운 시냇물을 오래된 병에 담노라.
명성을 피하였으니 속세가 절로 멀어지고
고요함에 깃드니 사는 곳이 절로 신령스럽네.
우리 불가의 법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그대는 먼저 귀를 씻고 듣게나.

38) 지음(知音) :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속마음까지 알아주는 친구를 가리키는 말.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달인이었던 백아와 그의 음악을 잘 알아 주었던 종자기의 일화에서 나왔다. 백아가 거문고를 연주하면 그의 의도를 기막히게 잘 알아맞추었다고 하는데, 종자기가 일찍 죽자 백아는 자신의 음악세계를 더 이상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하여 거문고 줄을 끊어버렸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39) 궐리(闕里) : 공자의 고향. 공자가 이곳에서 제자를 가르쳤다.

40) 꽃바늘 : 자수용 바늘. 옷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도구를 의미한다.

示明鑑尙珠彦和諸門輩

명감(明鑑)·상주(尙珠)·언화(彦和) 등 여러 문도들에게 보임

出家修道輩
財色最先禁
群居須慎口
獨處要防心
明師常陪席
惡友勿同食
語當離戲笑
睡亦莫昏沈
法如龜上木
身若海中鍼
回光眞樂事
忍負好光陰

志願如山海
期超大覺城
擇師兼擇友
精妙更精明
坐必向西坐
行須視地行

출가하여 수도하는 사람들은
재물과 여색을 가장 먼저 금해야 하니,
여럿이 함께 있을 때에는 입을 신중히 하고
홀로 있을 때에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하네.
밝은 스승이 항상 함께 해야 하고
나쁜 벗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네.
말을 할 때는 웃고 떠들고 해서는 아니 되고
잠잘 때에는 정신이 흐려져서는 아니 되네.
법은 거북이 위의 나무와 같고⁴¹⁾
몸은 바다 속의 바늘과 같네.
회광반조⁴²⁾야말로 참으로 즐거운 일이니
좋은 시간을 차마 저버릴손가!

뜻하고 바라는 것이 산과 바다와 같아
큰 깨달음의 성을 뛰어넘기를 기약하게나.
스승을 택하고 벗을 택하는 것은
세심하고 밝게 해야 하나니
앉을 때에는 반드시 서쪽을 향하여 앉고
다닐 때에는 모름지기 땅을 보면서 다녀야 하네.

41) 바닷속의 눈 먼 거북이가 물위로 한번 올라올 바로 그때 떠다니는 나무토막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 불도에 입문·수도하여 진리를 깨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비유한 것.

42) 회광반조(回光返照) : 밖으로 향하는 의식의 빛을 돌이켜 자기 내면의 세계를 되살핀다는 의미.

療身常一食
許睡限三更
金書不離手
外典莫留情
人世雖云樂
死魔忽可驚
吾儕論實事
安得尚虛名

몸을 돌보기를 하루에 한 끼만을 먹으며
잠은 여섯 시간만 자야 하네.
경전을 손에서 떼어놓지 말고
다른 책들⁴³⁾에는 마음을 두어서는 아니 되네.
인간 세상이 비록 즐겁다고는 하나
죽음의 마귀가 문득 놀라게 하네.
우리들은 진실한 일을 말하는 것이니
어찌 헛된 명성을 숭상할 수 있으리?

天鑑禪子 求我於一言 懃懃懇懇 我先嘖自己 以及於師 師亦自責可也

천감(天鑑) 스님이 나에게 한 말씀 해 주기를 바라기에 내가 먼저 간절하게 스스로를 점검한 다음에 스승에게 요청해야 하며, 스승도 또한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一生無伎倆
虛作白頭翁
鑽紙求真覺

蒸沙立妄功
空花栽石上
餓水吸喉中
難出四邊網
長隨八倒風

일생 동안 아무런 기량도 없이
헛되이 머리 허연 늙은이가 되어버렸네
종이가 뚫어지도록 공부하여 참된 깨달음을 구하였으니

모래를 썬서 망령된 공을 세우려 한 셈이라.
허공의 꽃을 돌 위에 심고
불꽃 물을 목구멍 속으로 들이키네.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기 어려워
오래토록 여덟 가지 뒤집어진⁴⁴⁾ 바람을 따르네.

43) 다른 책들 : 불교 경전 이외 다른 서적을 말함.

持珠悲乞丐
守藏恨貧窮
欲識吾家寶
秋天亂點鴻

구슬을 갖고도 찾으려 다니는 것이 슬프구나,
갖고 있으면서도 가난하다고 한탄하네.
우리 집안의 보배를 알고 싶은가?
가을 하늘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기러기.

賽印悟禪子求偈

十年飛櫛標
雲水與江湖
獨坐庵猶靜
虛窓月亦孤
故鄉千里遠
萱室兩親俱
碧海遙連楚
青天半入吳

인오(印悟)⁴⁵⁾ 스님이 계송을 원하기에 짓다

십 년 동안 지팡이 날려
구름처럼 물처럼 온 세상을 다녔네.
홀로 앉았으니 암자도 고요하고
빈 창엔 달 역시 외로워라.
고향은 천 리 먼 곳
원추리 핀 집⁴⁶⁾에는 두 어머니 다 계시는데,
푸른 바다는 멀리 초나라로 이어지고
푸른 하늘은 반쯤 오나라로 들어가네.⁴⁷⁾

44) 여덟 가지 뒤집어진 : 팔도(八倒) 혹은 팔전도(八顛倒)라고 한다. 세간에는 상·락·아·정·이 없고 열반에는 이것이 있는데, 이를 뒤집어 세간에는 이것이 있고, 열반에는 이것이 없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45) 인오(印悟) : 1548~1623. 호는 청매(青梅). 휴정의 제자로 임진왜란에 출전하여 공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수행에도 뛰어나 휴정 이후에 일가를 이루어 청매파를 형성하여 선풍의 진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청매집(青梅集)』이란 문집을 남겼다.

46) 원추리 핀 집 : 어머니가 주로 계시는 뒷채의 마당에 원추리를 많이 심었으므로 ‘어머니’를 상징하는 의미가 되었다. 여기서는 양친이 함께 계시는 공간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47) 초나라와 오나라는 중국 남방에 있던 나라 이름이다. 드넓은 바다가 오나라 지역으로 연결되고 가없는 하늘이 오나라를 반쯤 뒤덮고 있다는 말은 천지의 광활함을 의미한다.

雖稱割愛釋
忍負賣柴盧
身世凝朝露
光陰過隙駒
做工先發憤
爲法便忘軀
活句疑團破
方名大丈夫

비록 애욕을 버린 것이 승려라 하지만,
차마 땔나무를 팔던 노행자⁴⁸⁾를 저버릴손가.
아침 이슬과도 같은 이 신체
시간은 문틈을 지나는 망아지⁴⁹⁾와 같구나.
공부란 먼저 분발을 해야 하니
진리를 위하여 몸을 잊어야 하지.
활구⁵⁰⁾의 의심 덩어리를 깨트려야만
비로소 대장부라 이름할 수 있으리.

四仙亭

사선정(四仙亭)⁵¹⁾

海枯松亦老
鶴去雲悠悠
月中人不見
三十六峯秋

바다도 오래되고 소나무도 늙었는데
학이 떠나니 구름도 유유히구나.
달빛 속에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서른 여섯 봉우리는 가을이구나.

48) 땔나무를 팔던 노행자: 육조 혜능을 가리킨다. 혜능의 속성이 노쇠이며, 출가하기 전 땔나무를 팔아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다.

49) 문틈을 지나는 망아지: 달리는 망아지를 문틈 사이로 보면 극히 짧은 순간에 지나가 버린다. 시간의 짧음, 세월의 무상을 의미한다.

50) 활구(活句): 의미가 통하는 말을 사구(死句)라 하고, 의미가 통하지 않는 말을 활구라 한다. 선불교에서는 논리적으로 의미가 통하는 말은 진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죽은 말이라고 보고,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 속에 진리가 있다고 보아, 그 활구를 참구하여 진리를 터득한다고 한다. 이러한 활구는 논리가 맞지 않는 아무 말이나 다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고, 조사가 남긴 말 중에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격외의 언어를 지칭한다.

51) 사선정(四仙亭): 신라시대 경치 좋은 곳을 두루 유람하였던 영랑(永郎)·술랑(述郎)·남랑(南郎)·안상(安詳)의 네 신선을 추모하기 위해 강원도 고성 삼일포(三日浦) 앞의 작은 섬에 세운 조선시대의 정자.

草屋

草屋無三壁
 老僧眠竹床
 青山一半濕
 疎雨過殘陽

초가집

삼면에 벽이 없는 초가집
 노승은 대나무 침상에서 졸고 있네.
 청산은 반쯤 젖어 있고
 해질녘 가랑비 스쳐가네.

感興

鶯花各天性
 風月亦人心
 李杜翻詩海
 波瀾動古今

감흥

앵무새와 꽃은 제각각의 천성이지만
 바람과 달은 또한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지.
 시의 바다를 뒤집었던 이백과 두보⁵²⁾
 그 세찬 물결이 고금을 뒤흔드네.

崇義禪子訪清虛

欲識清虛主
 相逢定不逢
 須知白雲外
 別有一奇峯

숭의(崇義) 스님이 청허를 찾아왔기에

청허당⁵³⁾의 주인을 알고 싶은가?
 만났다 하더라도 만난 것이 아닐세.
 알지어다, 흰 구름 그 너머에
 또다시 기이한 봉우리가 있음을.

52) 이백과 두보 : 두 사람 모두 중국 당나라 때 사람으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시인으로 꼽힌다.

53) 이 시의 저자인 휴정의 당호. 자신이 거쳐하던 집의 이름을 따서 호로 삼은 것.

竹院

黃花泣露日
楓葉政秋天
鳥宿群山靜
月明人未眠

대나무가 있는 집

누런 꽃에 이슬이 우는 날
앞에 단풍 드니 바로 가을이구나.
새도 잠든 못 산은 고요하기만 한데
달이 밝아 잠 못 이루는 사람.

贈江湖道人

世事空中鳥
浮生水上漚
天下無多地
山僧一杖頭

강호도인(江湖道人)에게

세상 일은 허공 속의 새,
뜬 인생은 물 위의 거품.
세상에 별 곳 없으니
산승에겐 지팡이 하나 뿐.

宿楓岳

遠岸秋沙白
西庵起暮鍾
眼隨歸鳥盡
雲斂露三峯

풍암(楓岳)에서 하루 묵으며

먼 언덕엔 가을 모래 하얗고
서쪽 암자에선 저녁 종소리 들려오네.
돌아가는 기러기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노라니
구름 걷히자 산 봉우리 셋 드러나네.

俊禪子

悲歡一枕夢
聚散十年情

준(俊) 스님에게

슬픔과 기쁨이란 한바탕 꿈이요
모이고 흩어짐이란 십 년의 정이라.

無言却回首
山頂白雲生

말 없이 문득 고개 돌려 보니
산 꼭대기에 흰 구름이 생겨나네.

過蓼川

遠樹起村烟
碧波人捲釣
一雁入秋空
千鴉下落照

요천(蓼川)을 지나며

먼 나무엔 마을 연기 피어오르고
푸른 물결엔 사람들이 낚시줄 걷어올리네.
한 마리 기러기 가을 허공 속으로 사라지자
천 마리 까마귀가 낙조 속에 내려앉구나.

上玉溪

逆旅駒陰裏
何人歸去休
閑窓一睡覺
可敵萬封侯

옥계(玉溪)⁵⁴⁾에게 올림

여관같은 이 세상 순식간의 세월인데
돌아가 쉬는 이 그 누구일까.
한가로운 창가에서 졸음을 깨고 보니
만 명의 제후라도 대적하겠네.

會友

雲樹幾千里
山川政渺然
相逢各白首
屈指計流年

벗을 만나

구름 낀 나무 숲이 몇천 리나 될지
산천은 정말 아득히 넓기만 하네.
머리가 하얘지고 나서 서로 만나니
손가락 굽혀서 흐른 세월을 헤아려보네.

54) 옥계(玉溪) :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 가운데 노진(盧禎, 1518~1578)이 ‘옥계’라는 호를 썼으나,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詠懷

一聲發大笑
神鬼哭哀哀
逆旅彭殤夢
幾人曾覺來

생각을 읊다

크게 한번 웃음을 터뜨리노니
귀신들이 슬피 슬피 우는구나.
여관같은 이 세상 오래 산들 일찍 죽은들 꿈이러니
몇 사람이나 이런 이치를 깨달았을꼬.

一巖

寒流飛絕壁
深樹鎖烟霞
鐵石肝腸客
開門踏落花

일암(一巖)

차가운 물줄기가 절벽에서 날아 떨어지고
깊은 숲은 안개로 둘러싸였구나.
철석같은 간장의 나그네도
문을 열고 나가 떨어진 꽃잎을 밟아보네.

送願禪子之關東

飄飄如隻雁
寒影落秋空
促筇暮山雨
欹笠遠江風

원스님을 관동으로 보내며

한 마리 외기러기처럼 표표하도다
싸늘한 그림자 가을 허공에서 떨어지네.
저물녘의 산비는 갈 길을 재촉하고
먼 강바람에 샛갓 기울어지네.

途中有感

有名難避世
無處可安心

길 가던 중에

이름이 있다 보니 세상을 피하기 어렵네.
마음 편히 할 곳 어디에도 없구나.

飛錫又飛錫
入山恐不深

지팡이를 날리고 또 지팡이를 날리어도
산이 좁더 깊지 못할까 두려워지네.

宿蔡邕亭

明月近村留
清晨遠寺鍾
竹風移醉客
花雨定遊蜂

채옹정(蔡邕亭)에 묵으며

밝은 달은 마을 근처 머물고
맑은 새벽엔 먼 절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대나무 바람은 취한 나그네 거닐게 하고
꽃비는 다니는 벌을 붙잡아 놓네.

送人關西

遠山橫落日
西望水空流
客子情何許
天邊一雁秋

관서로 가는 사람을 보내며

먼 산엔 비스듬히 떨어지는 해
서쪽으로 바라보니 물이 그냥 흘러가는구나.
나그네의 기분은 어떠하신지?
하늘 가에 외기러기 날아가는 가을.

青海白沙行

海色傷心碧
天涯一病身
秋來江上葉
雁趁日邊人

푸른 바다 하얀 모래의 노래

바다 빛은 속이 상하여 저렇게 푸른데
하늘 끝에 사는 병든 이 한 몸.
가을철 강 위의 낙엽,
기러기는 해 곁의 사람⁵⁵⁾을 좇네.

55) 해 곁의 사람: 해가 기운 곳 가까이 있는 사람. 즉,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

示行珠禪子

十年工做人
積慮如水釋
看盡大藏經
焚香又讀易

忘我兼忘世
頽然只一身
夜深風不動
松月影侵人

白雲爲故舊
明月是生涯
萬壑千峯裏
逢人卽勸茶

행주(行珠) 스님에게

십 년 동안 공부한 사람
쌓인 시름 얼음 녹듯이 풀렸네.
대장경을 두루 다 보았고
향 피우며 주역을 읽었네.

나를 잊고 세상도 잊으니
그저 몸뚱이 하나만 남았구나.
밤 깊고 바람도 잔데
소나무 달 그림자가 사람에게 달겨드네.

흰 구름은 옛 친구요
밝은 달은 나의 삶이라.
만 골짜기와 천 봉우리 속
사람만 만나면 차를 권하네.

歎逝

人生行樂處
過眼年光催
春隨流水去
夏逐綠陰來

세월이 가는 것을 한탄함

인생 살이 즐거운 이 세상
눈길을 스치는 계절 풍광이 분주히 펼쳐지네.
봄은 물을 따라 흘러 가고
여름은 우거진 녹음을 따라 오는구나.

어저 있다는 의미이다.

題古宅

客來傷往事
花發去年紅
古人何處在
山寄碧虛中

오래된 집

나그네는 지나간 일로 마음 아파 하건만
꽃은 지난해처럼 붉게 피어났구나.
옛 사람은 어느 곳에 계시는지?
산이 푸른 허공 속에 맡겨져 있네.

賞春

洛陽春色好
歌舞滿街時
花發酒增價
夜深人未歸

봄의 완상

서울의 봄빛이 아름다워
노래와 춤이 거리에 가득하도다.
꽃이 피니 술값이 올라가고
밤이 깊어도 사람들 돌아갈 줄 모르네.

登佛頂嶺

木落露山骨
天晴見海心
大哉男子量
千日照虛襟

불정암(佛頂嶺)에 올라

나뭇잎 떨어지니 산의 뼈가 훤히 드러나고
날씨가 맑으니 바다 속이 다 보이네.
크구나, 남자의 도량이여!
천 개의 해가 텅 빈 가슴을 비추는구나.

山南行

草屋柴門裏
老人頭白絲

산 남쪽 나들이

사립문 속 초가집
노인은 머리가 하얀 실이라.

扶藜訪花落
能賦送春詩

지팡이 짚고 떨어지는 꽃을 찾아나서서
봄을 보내는 시를 짓누나.

途中卽事

길을 가던 중에

遠遠水東去
長長山北來
茫茫天下客
誰識道人懷

물은 동쪽으로 멀리 멀리 흐르고
산은 북쪽에서 길게 길게 내려오네.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 아래 나그네
누가 알리오 도인의 회포를.

失母烏

어미 잃은 까마귀

失母慈烏子
啞啞哀怨深
何論人與鳥
今日起予心

어미 잃은 새끼 까마귀
까악 까악 설움이 깊구나.
사람과 까마귀가 어찌 다르리
오늘 나의 마음을 일으키네.

哭康陵

강릉(康陵)⁵⁶⁾을 애도함

愛國憂宗社
山僧亦一臣
長安何處是
回望淚沾巾

나라를 사랑하고 종사를 근심하노니
산승도 또한 한 사람의 신하라.
서울이 어디인가?
고개 돌려 바라보며 눈물 적시네.

56) 강릉(康陵) : 조선왕조 제13대 왕인 명종(1545~1567)의 무덤 이름. 임금이 죽고 나면 무덤 이름으로 그 임금을 지칭하였다.

望高臺

獨立高峰頂
長天鳥去來
望中秋色遠
滄海小於杯

높은 대에서 바라보니

높은 산 꼭대기에 홀로 서니
먼 하늘로 새들이 오가누나.
바라보니 가을 풍경 아득하여
푸른 바다가 찻잔보다도 작구나.

詠月

悲悲又喜喜
古古亦今今
天生大明鏡
照破幾人心

달을 노래함

슬픔과 슬픔 또 기쁨과 기쁨
옛날 옛날 또 지금 지금
하늘이 커다랗고 밝은 거울을 만들어서
몇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내었을까.

遊伽耶

落花香滿洞
啼鳥隔林聞
僧院在何處
春山半是雲

가야(伽耶)⁵⁷⁾ 지방을 다니다가

떨어지는 꽃 향기가 골짜기에 가득하고
새 소리는 숲 너머에서 들려오네.
스님과 절은 어디에 있는고?
봄 산이 반은 구름이로고.

57) 가야(伽耶) : 서기 전후 무렵부터 562년까지 우리 나라의 경상남·북도 서부 지역
에 존재했던 국가들의 총칭.

處士亭

渚禽飛入竹
枝動落殘紅
亭高吞遠海
江近數飛鴻

처사정(處士亭)

물가의 새 대숲으로 날아가 버리니
가지가 흔들리며 남은 꽃잎 떨어지네.
정자는 높아서 먼 바다를 삼키고
강은 가까워 날아가는 기러기 셀 수가 있네.

遊西山

暮山客迷路
筇驚宿鳥心
鍾鳴西嶽寺
松竹碧雲深

서쪽 산으로 가는 길에

해 저무는 산에서 나그네가 길을 잃으니
지팡이가 자는 새를 놀라게 하네.
서쪽 산사에서 종소리 울리니
소나무 대나무에 푸른 구름 깊구나.

過扶餘

往事皆陳迹
山川尚不迷
衣冠晨月上
花草野禽啼

부여(扶餘)⁵⁸⁾를 지나며

지나간 일이란 모두 케케묵은 자취일 뿐
산천은 이를 잘 알고 있지.
의관(衣冠) 위로는 새벽달 떠오르고⁵⁹⁾
화초엔 들새가 울부짖네.

58) 부여(扶餘) : 백제 시대에 수도였던 도시이다.

59) 의관은 왕조 지배자들의 화려한 의상을 말한다. 왕조가 망하고 나자 그 화려하
던 의관들이 들판에 내버려지고 그 위로 달이 떠오른다는 의미이다.

老病吟

老去人之賤
病來親也疎
平時恩與義
到此盡歸虛

늙고 병들어 보니

늙어지니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병이 오니 가까운 이도 멀어지네.
평소때의 은혜와 의리가
이쯤 되니 모두가 공허할 따름일세.

寄蓬萊子

山蒼蒼海茫茫
雲浩浩雨浪浪
何處美人在
望之天一方

筆健顏三岳
詩清直萬金
山僧無外物
惟有百年心

봉래자(蓬萊子)⁶⁰⁾에게 드리는 시

산 푸르고 바다 아득하며
구름 드넓고 비 줄기차네.
아름다운 이 어디에 있나?
하늘 한쪽을 바라보노라.

필세가 활달하여 산악을 기울게 하고
시는 맑아 만금의 가치가 있네.
산승에게야 다른 무엇이 없고
다만 백년의 마음이 있을 뿐.

贈一禪子

三教大圓鏡

일(一) 선자(禪子)⁶¹⁾에게

삼교⁶²⁾는 대원경⁶³⁾이나

60) 봉래자 : 양사언의 호.

61) 일(一) 선자(禪子) : 휴정의 제자인 일선(一禪, 1533~1608)을 가리키는 듯. 일선은 호가 정관(靜觀)이며, 휴정의 4대 제자 중의 한 사람이다. 문집으로 『정관집(靜觀集)』이 있다.

文章只一能
費工徒汗馬
沙飯亦鏤水

思量是鬼窟
文字亦糟粕
若問解何宗
捧行如雨滴

문장은 다만 하나의 능력에 불과하지.
노력을 해 본들 말을 땀나게 할 뿐이니⁶⁴⁾
모래로 밥을 짓고 얼음에 글자를 새기는 일이라.

생각이란 귀신의 소굴이요
문자 또한 찌꺼기일 뿐.
나는 무엇을 근본으로 하느냐고 묻는다면
받들어 행하기를 빗방울처럼 한다고 하지.

法王峯

山立碧虛半
白雲能有無
仰天一大笑
萬古如須臾

법왕봉

푸른 허공 가운데로 솟은 산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흰 구름.
하늘을 우리러 크게 한번 웃노라
찰나같은 만고의 세월.

集孤雲字

山中何事奇

고운(孤雲)의 글자를 모아⁶⁵⁾

산중에서 무엇이 기특한 일인가?

-
- 62) 삼교(三敎) : 불교의 교설을 세 종류로 나눈 것으로, 그 세 가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돈교·점교·원교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여기서는 넓고 깊은 불교학의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 63) 대원경(大圓鏡) : 크고 둥근 거울. 이 세상의 실상을 비춰보는 지혜를 거울에 비유하여 표현한 말.
- 64) 전투에 참여한 말이 땀이 나도록 힘껏 달린다는 뜻. 심한 고생을 의미한다.
- 65) 신라시대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의 시에 쓰인 글자를 그대로 활용하여 지은 시이다.

石上多松栢
夷險不移心
四時青一色

돌 위에 소나무 잣나무가 무성하도다.
평탄하고 험난함에 마음 흔들림 없이
사시사철 한 색으로 푸르도다.

探密峯

밀봉(密峯)을 찾아

千山木落後
四海月明時
蒼蒼天一色
安得辨華夷

천 산에 나뭇잎 떨어진 후
온 세상에 달 밝은 때
하늘은 푸르고 푸르러 한 색인데
어찌 중화니 오랑캐니 구분할 수 있으리.

答南海翁(因事有感)

남해의 늙은이에게 답하다 (어떤 일로 인해 느낀 생각이 있어서 짓다)

南海波雖動
頭流色自蒼
可憐渠發業
割水與吹光

남해에 파도가 넘실대어도
두류산의 빛은 절로 푸르네.
가련토다 업을 일으키는 그대
물을 베고 빛을 불다니.

次李方伯(拭)

관찰사⁶⁶⁾ 이식(李拭)⁶⁷⁾의 시를 보고

江海豈無意

강과 바다가 어찌 뜻이 없으리오?

66) 관찰사: 조선시대 각 도에 파견된 행정 책임자.

67) 이식(李拭): 1522~1587. 여러 관직을 거쳐 이조참판까지 지냈으며, 1566년에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다. 휴정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는 알 수 없다.

山林亦有心
不如金玉帶
與世善浮沈

산과 수풀 또한 마음이 있도다.
차라리金玉의 띠를 차고서⁶⁸⁾
세상 흐름에 따라 오르내림이 더 나으리.

贈李秀才

이(李) 수재(秀才)⁶⁹⁾에게

寒夜撲飛螢
喃喃讀六經
十年勞且苦
所得一虛名

찬 밤에 날아다니는 반디불이를 잡아다가⁷⁰⁾
육경을 중얼중얼 외건만은
십 년토록 노력하고 고생하여
얻는 것은 헛된 이름 하나뿐.

惠峇禪子

혜은(惠峇) 선자에게

菊花將解笑
頭髮不禁秋
行陰那可記
揮筆寫新愁

국화는 이제 막 웃으려 하는데
머리카락은 가을의 도래를 막지 못하네.
흐르는 세월 어찌 다 적으리오마는
붓을 휘둘러 새로 생긴 시름을 써 보네.

次尹方伯

윤(尹) 관찰사의 시를 보고

夜雨鳴松榻

소나무 평상을 울리는 밤비 속에서

68) 높은 벼슬을 상징한다.

69) 수재(秀才) : 과거 공부하는 사람, 혹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70) 가난한 선비가 날아다니는 반디불이를 잡아 모아서 등불 대신 불을 밝혀 책을 읽었다는 고사가 있다.

青燈獨自明
長天爲一紙
難寫此中情

푸른 등은 제 홀로 빛을 발하네.
먼 하늘을 한 장의 종이로 삼더라도
내 가슴 속의 정을 다 적기 어려우리.

山居

山河雖有主
風月本無爭
又得春消息
梅花滿樹生

산에 살면서

산하는 주인이 없다 하지만
바람과 달은 본래 다툼이 없어라.
봄소식을 얻고 보니
매화가 나무 가득히 피어났구나.

贈李竹馬

閑忙雖異路
歲月忽同流
相逢說往事
白髮黃花秋

이죽마(李竹馬)⁷¹⁾에게 드림

한가로움과 분주함의 길은 서로 다르지만
세월은 똑같이 흘러버렸소.
서로 만나서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노라니
흰 머리의 나이에 누런 국화 피는 가을이구료.

71) 이죽마(李竹馬) : 죽마는 이종인(李宗仁, ?~1593)의 호. 조선 중기의 무신. 이제 신의 반란을 평정했고 북방 수비에 수차 공을 세웠다. 1593년 진주성이 왜적에게 포위되자 성을 방어, 끝까지 용전했으나 성이 함락되자 순국했다. 휴정이 이 죽마에게 증정한 시가 문집에 7편이나 실린 것으로 보아 꽤 깊은 교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送明禪子

飄飄竹一竿
葉落沒行蹤
白雲迷去處
棲息定何峯

명(明) 선자를 보내며

대나무 지팡이 하나로 표표히 떠나가니
낙엽 지자 자취조차 사라졌네.
흰 구름도 갈 곳 몰라 하누나
어느 봉우리에 머물러야 할지.

訪謫客

春去山花落
子規勸人歸
天涯幾多客
空望白雲飛

유배 간 사람을 찾아 가서

봄도 가고 산 속의 꽃도 졌는데
두견새는 그만 돌아가라 권유하네.⁷²⁾
하늘 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질없이 흰 구름 나는 것을 보았으리.

登高賞秋

送眼南天遠
遙山點點青
長生應有苦
誰拜老人星

높이 올라 가을을 완상하다

멀리 남쪽 하늘로 눈길을 보내나니
먼 산이 점점이 푸르구나.
긴 인생에 응당 고통도 많으련만
누가 노인성⁷³⁾을 숭배한단 말인가!

72) 두견새는 중국 촉(蜀)나라 망제(望帝)가 죽어서 변한 것이라 한다. 망제는 나라가 망하여 쫓겨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염원했으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 두견새가 되어 그 한을 슬픈 울음으로 표현한다고 한다. 그래서 두견새는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 복귀를 꿈꾸는 상징으로 흔히 사용되어 왔다.

73) 노인성 : 목숨을 관장한다고 하는 별.

嘆世

靑山人白髮
歲月如流星
浮生何處好
天地亦冥冥

세상을 탄식함

산은 푸르건만 사람은 흰 머리가 되었으니
세월이 유성처럼 빠르도다.
뜬 구름같은 인생 어딘들 좋은 곳이 있으랴
온 세상이 아득하고 아득할 뿐이로다.

偶吟

松榻鳴山雨
傍人詠落梅
一場春夢罷
侍者點茶來

우연히

소나무 평상에 산 비 내리는 소리
옆 사람은 떨어진 매화를 두고 시를 읊는다.
한바탕 봄 꿈이 끝나자
시자는 차를 따라 오는구나.

過邱舍聞琴

白雪亂纖手
曲終情未終
秋江開鏡色
畫出數青峯

어떤 저택을 지나다가 거문고 소리를 듣고서

흰 눈발처럼 흩날리는 섬섬옥수
곡이 끝나도 흥취는 끝나지 않았네.
가을 강에는 거울같은 빛이 열리어
몇 개의 푸른 봉우리 그려내는구나.

次許學士遊石門韻

허(許) 학사(學士)가 석문에 갔다가 지은 시의 운에 맞춰

松吟石上月

소나무는 돌 위로 뜬 달을 노래하고

人弄花間琴
青山古人眼
留與後人心

사람은 꽃 사이에서 거문고를 희롱하네.
청산은 옛사람의 눈
뒷사람에게 마음을 전해 주네.

過湖寺

天門一長嘯
江上白雲飛
暮鍾穿竹露
山月隨僧歸

호수가의 절을 지나며

하늘 문이 한번 길게 휘파람 부니
강 위의 흰 구름이 드날린다.
저물녘 종소리는 대잎에 맺힌 이슬을 꿰뚫고
산 위에 뜬 달은 나를 따라 돌아가는구나.

題清涼影帖

八萬大藏經
師能彈一舌
清風灑金沙
桂子落秋月

청량국사⁷⁴⁾의 영정을 보고

팔만대장경을
스님은 혀 하나를 통기어 설파하셨네.
맑은 바람이 금모래 씻어내리고
가을 달빛 아래 계수나무 열매 떨어지네.

上郭戎帥

曾學萬人敵

곽재우⁷⁵⁾ 장군에게 올림

일찍이 만인을 대적하는 능력을 배웠으나

74) 청량국사(淸涼國師) : 화엄학으로 유명한 중국 당나라 때 스님 정관(澄觀, 738~839)의 존칭. 선과 교를 회통하고자 하였으며, 실천을 중시하였다.

75) 곽재우 : 1552~1617.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나서서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당쟁으로 정세가 더욱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벼슬에 뜻을 버리고 은거하였다.

河清志未酬
長歌時激烈
壯氣凜如秋

황하를 맑게 하려는 뜻을 다 풀지 못하였네.⁷⁶⁾
긴 노래가 때때로 격렬하니
썩썩한 기운은 가을처럼 늠름하도다.

過古戰場

山雪河水裏
當年飲馬人
黃沙餘白骨
腥草自青春

옛 전장을 지나며
산에는 눈 내리고 강물은 얼어붙었는데
그 당시 말에게 물 먹이던 사람이여.
누런 모래에 백골만 남았는데
비린내 나는 풀은 그저 푸르기만 하구나.

與趙學士遊青鶴洞

조(趙) 학사(學士)와 함께 청학동(靑鶴洞)⁷⁷⁾을 여행하며

山僧雲水偈
學士性情詩
同吟題落葉
風散沒人知

산승은 구름과 물을 노래하고
학사는 마음의 성정을 읊는다.
함께 시를 지어 낙엽에 적어보지만
바람에 흩어져 아는 이 아무도 없네.

76) 황하(黃河)는 중국 북부의 동서를 흐르는 강으로, 황토의 유입으로 인하여 늘 누런 색을 띠었다. 이 황하를 맑아지는 일이 거의 없는데, 황하가 맑아진다는 것은 세상이 태평하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77) 청학동(靑鶴洞) : 지리산에 있는 지명으로, 푸른 학이 서식하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예로부터 은둔하기 좋은 곳으로 이름이 있었다.

過尹上舍舊宅

歌舞今寥落
松風獨有臺
鳥啼人不見
怪石眠蒼苔

윤(尹) 상사(上舍)⁷⁸⁾의 옛집을 지나며

노래와 춤은 이제 조용해지고
솔바람에 누대만 홀로 남아 있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새들만 지저귀고
기암괴석엔 푸른 이끼가 즐고 있네.

隱夫

耕鑿無餘事
林泉一老翁
因鶯驚午夢
殘雨細隨風

은거하는 사람

밭 갈고 우물 파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는
숲과 샘물과 더불어 사는 한 늙은이.
피꼬리 소리에 오수를 깨고 보니
жат아드는 여린 빗줄기 바람 따라 훑날리네.

草堂

月沈西海黑
雲盡北山高
何處青袍客
焚香讀楚騷

초당

달 떨어지니 서쪽 바다 검검하고
구름 사라지니 북쪽 산이 높구나.
어디선가 푸른 도포 입은 사람
향 피우고 이소경(離騷經)⁷⁹⁾을 읽는구나.

78) 상사(上舍) : 생원 혹은 진사를 가리키는 말.

79) 이소경(離騷經) : 중국 초나라의 굴원(B.C. 343?~B.C. 278?)이 지은 작품. 도덕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등용하지 않아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을 비판하여 방랑 길에 올라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자신의 인생관을 절절하게 표현하였다. 흔히 나라와 사회를 걱정하는 양심적 지식인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작품 내지는 인물로 인용되어 왔다.

松巖道人

一枕客殘夢
空中飛鳥過
落花僧院靜
泥燕污袈裟

林下閑文字
多多必亂心
情詩唯一首
可以備吾吟

송암 도인

베갯머리에 잠 아직 덜 깨었는데
공중에는 나르는 새 지나가네
꽃 떨어지는 절집 고요하기만 한데
제비가 물고 가던 진흙이 가사를 더럽히네.

숲 속에선 글자를 등한히 하니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을 어지럽힐 뿐이지.
정다운 시 한 수만이
내 할 말을 갖추어줄 뿐이야.

送鑑禪子之雲遊

洗鉢焚香外
人間事不知
想師棲息處
松檜聒涼颼

菜根兼葛衲
夢不到人間
高臥長松下
雲閑月亦閑

焚香又洗鉢
林下水邊身
清苦吾家事

구름처럼 떠나는 감(鑑) 선자를 보내며

발우 씻고 향 피우는 것 이외엔
세상 일 알지 못하네.
스승을 생각하며 머무는 곳
소나무 노송나무에 신선한 바람 불어오네.

나물 뿌리 먹으며 갈옷 입고 지내니
꿈 속에서조차 인간세상에 가 닿지 않네.
긴 소나무 아래 편안히 누우니
구름도 한가롭고 달 또한 한가롭도다.

향을 피우고 발우를 씻으며
숲 속의 물가에 사는 몸이라네.
맑으면서 고단한 것이 우리 집안의 일이니

勿親濁富人

탁하면서 부귀한 자는 친하지 말지어다.

假托瓶中雀

병 속의 참새에 가탁하였다가

還成夢裏人

도리어 꿈속의 사람이 되고 마나니,

營營求世利

끼끌대며 세속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業火更加薪

업의 불길에 장작을 덧붙태는 격이 된다네.

南行卽事

남쪽 지방을 다니다가

可笑人間事

우습구나 인간사여

高才不作家

훌륭한 재주로도 일가를 이루지 못하였네.

寒窓老博士

썰렁한 창문가의 늙은 박사여

捫蝨話生涯

이를 잡으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네.

江月軒

강월헌(江月軒)⁸⁰⁾

左手捉飛電

왼손으로는 날아가는 번개를 거머잡고

右手能穿鍼

오른손으로는 바늘구멍을 꿰뚫을 수 있네.

山雲生定眼

산과 구름은 흔들림 없는 안목을 낳고

江月入禪心

강과 달은 선정의 마음으로 들어오네.

80) 강월헌(江月軒) : 6각형의 정자로 남한강변의 가파른 바위 위에 세워져 있다. 주변 경치가 뛰어나 남한강의 물줄기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인다. 현재 위치는 신록사에서 입적한 고려 말의 고승 혜근(惠勤, 1320~1376)의 다비 장소였는데, 그의 문도들이 정자를 세우고 혜근 생전의 당호인 강월헌이라고 이름 붙였다.

草屋

石上亂溪聲
池邊生綠草
空山風雨多
花落無人掃

초가집

돌 위로는 시냇물 소리 어지럽고
못 가에는 푸른 풀이 돋아나네.
고요한 산에 비바람 심하더니
꽃이 떨어져도 쓸어내는 사람이 없구나.

訪謫客

青天一雁沒
碧海三峯出
笛奏落梅花
客心增鬱鬱

유배객을 찾아

파란 하늘에 한 마리 기러기 사라지고
푸른 바다엔 세 봉우리 솟았네.
피리는 떨어진 매화 노래⁸¹⁾를 연주하는데
나그네 마음은 더욱 답답하구료.

贈無相居士

宇宙一閑客
離家歲月深
桃源花竹夢
楓岳水雲心

무상(無相) 거사에게

우주의 한가로운 한 사람
집 떠난 세월이 깊었도다.
도원의 꽃과 대나무를 꿈꾸니
단풍 든 산의 물과 구름 같은 마음이라.

81) 떨어진 매화 노래 : 피리 연주곡 이름이다.

嘆世

石火光陰走
紅顏盡白頭
山中十年夢
人世是蜉蝣

세상을 탄식함

세월이 전광석화와도 같이 내달리어
홍안이 모두 백발이 되었도다.
산중의 십 년도 꿈일 따름이요
인간세상이란 하루살이에 불과한 것.

登嶺憶頭流

北地新爲客
南天舊主人
十年山獨在
千里月相親
南天舊主人
北地新爲客
千里月相親
十年山獨碧

고개에 올라 두류산을 생각하며

북쪽 땅으로 새로 온 사람
남쪽 지방의 옛 주인이로다.
십 년 동안 산은 홀로 있었건만
천 리 길을 달과 서로 가까이하였네.
남쪽 지방의 옛주인이
북쪽 땅으로 새로이 왔네.
천 리 길을 달과 서로 친하였건만
십 년토록 산은 홀로 푸르렀네.

浮休子

十年磨一劍
斬盡狐狸肝

부휴자(浮休子)⁸²⁾에게

십 년 동안 칼 하나 갈아서
여우와 살쥔이의 간을 다 베었네.

82) 부휴자(浮休子) : 부휴는 선수(善修, 1543~1615)의 호이다. 선수는 휴정과 함께 영관(靈觀, 1485~1571)에게서 동문 수학한 관계이다. 수행이 대단히 뛰어나서 당시의 선풍을 크게 일으키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箭輕穿鐵鼓
鎚重碎金山

화살은 경쾌하여 쇠북을 깨뚫고
쇠망치는 육중하여 쇠산을 부수네.

臨行情脈脈
桂子落紛紛
拂袖忽歸去
萬山空白雲

이별을 하려니 정은 하염없고
계수나무 열매는 어지러이 떨어지누나.
소매를 떨치고 문득 돌아갈 때에
만 산엔 그저 흰구름만 끼었네.

哭兒

아이를 곡함

二十年前夢
昏昏一枕中
人間生死苦
西去聽柯風

이십 년 전의 꿈이
베개 하나 속에서 어두웠네.
인간 생사의 고통이여
서쪽으로 가서 나뭇가지에 부는 바람 소리⁸³⁾ 들
으소서.

詠懷示永貞禪子

생각을 읊어 영정(永貞) 선자에게 보여주다

晝夜天開闔
春秋地死生
奇哉這一物
常放大光明

하늘은 주야로 계속 열고 닫으며
땅은 봄가을로 죽고 살기를 거듭하네.
기이하구나, 이 한 물건이여!⁸⁴⁾
항상 큰 광명을 발하는도다.

83) 불교에서는 극락이 서쪽에 있다고 하고, 또한 그 곳에서는 나뭇가지에 바람이
불어 갖가지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고 한다.

84) 선불교에서 만법의 근원이라고 보는 마음을 가리킨다.

讚栽松道者

兩身一夢覺
松月冷相照
白髮却紅顏
千年鶴自老

소나무를 심던 도인⁸⁵⁾을 기림

두 몸이 한 꿈을 깨었으니
소나무에 달이 서늘하게 비추도다.
백발이 문득 홍안이 되었으나
천 년의 학은 스스로 늙어가네.

題檜岳方丈

閑神野鬼窟
明眼衲僧居
烹祖又烹佛
神光爍太虛

회암방장⁸⁶⁾에서

잡귀신의 소굴에서도 마음은 한가하니
눈 밝은 수행자가 있어야 할 곳이라.
조사를 삶고 또한 부처를 삶아버려야
신령스런 빛이 태허를 녹이리라.

嘆世

三世世間法
猶如夢電雲
變壞并不淨
蟲輩亂紛紛

세상을 탄식함

과거 현재 미래의 세상 모습은
꿈이나 번개나 구름과도 같네.
변하여 사라지고 깨끗하지도 않아서
벌레들만 어지러이 들끓는도다.

85) 소나무를 심던 도인 : 달마 이후 5조 홍인의 별칭이다. 홍인은 우두산(牛頭山)에 소나무를 심어 길렀던 적이 있으며, 4조인 도신을 따라 배우고자 하였으나 몸이 너무 늙은 탓에 죽어 환생하여 7살의 나이로 도신의 문하에 들어가 제자가 되었다.

86) 회암방장(檜岳方丈) : 방장은 고승이 거주하던 처소를 가리킨다. 회암방장은 고려말 나옹화상과 무학대사가 거처하던 곳이 아닌가 한다.

贈泰安禪子

不許青山青
不許白雲白
石窓有一人
四顧虛空窄

태안(泰安) 선자에게

청산이 푸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백운이 흰 것을 인정하지도 않네.
돌 창문에 한 사람이 있어
사방으로 돌아보니 허공이 비좁구나.

人境俱奪

梨花千萬片
飛入清虛院
牧笛過前山
人牛俱不見

사람과 대상을 모두 빼앗음

천 만 조각 배꽃이
맑고 텅 빈 절로 날아드네.
목동의 피리소리가 앞산을 지나가는데
사람도 소도 모두 보이지 않네.

人境不奪

樓閣秦樓閣
山河漢山河
桃源有客子
天外一聲歌

사람과 대상을 모두 빼앗지 않음

누각은 진나라 누각이요
산하는 한나라 산하라.
도원에 어떤 나그네 있으니
하늘 바깥에 한 자락 노래소리.

四也亭

水也僧眼碧
山也佛頭青

사야정(四也亭)

물은 스님 눈처럼 푸르고
산은 부처님 머리처럼 파랗네.

月也一心印
雲也萬卷經

달은 일심의 도장이고
구름은 만 권의 경전이라.

念佛僧

염불하는 스님

合掌向西坐
凝心念彌陀
平生夢想事
常在白蓮花

합장하고 서쪽으로 향하여 앉아
마음을 모아 아미타불 외우네.
평생 꿈 속에서도 생각하는 일은
항상 흰 연꽃에 있다네.⁸⁷⁾

覺禪子

각(覺) 선자

好是清涼地
白雲飛滿庭
視身如草葉
敷坐眼惺惺

맑고 시원한 땅 참 좋구나
흰 구름이 뜰에 가득 날리도다.
몸을 보기를 풀잎같이 하고서
자리 펴고 앉으니 눈빛이 성성하도다.

過鳳城聞午鷄

봉성(鳳城)⁸⁸⁾을 지나다가 한낮의 닭 울음 소리를 듣고

髮白非心白

머리는 희어도 마음은 희지 않나니

87) 서방 정도에는 아미타불이 주재하고 있으며, 흰 연꽃이 늘 피어있다고 한다.

88) 봉성(鳳城) :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혹은 전라남도 구례군의 옛 별호.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다.

古人曾漏洩
今聽一聲鷄
丈夫能事畢

옛사람이 이미 누설한 것이라.
이제 한 마디 닭 울음 소리를 듣고서
장부가 해야 할 일 끝냈도다.

忽得自家底
頭頭只此爾
萬千金寶藏
元是一空紙

문득 나의 집을 얻으니
사물 하나하나가 다만 이것일 뿐이라.
만 가지 천 가지 금과 보배라 한들
원래는 한 장의 빈 종이일 뿐인 것.

贈蓮華道人

根身四大聚
大地一樊籠
山僧觀落日
世界忽成空

연화(蓮華) 도인에게

몸뚱아리는 네 가지⁸⁹⁾가 모인 것이요
땅덩어리는 하나의 새장과 같은 것.
산승이 떨어지는 해를 보고 있노라니
세계가 문득 공이 되었네.

贈德義禪子

吾家有寶燭
可笑西來燈

덕의(德義) 선자에게

내 집에 보배로운 촛불 있거니
가소롭게도 서쪽에서 온 등불이라.⁹⁰⁾

89) 네 가지 : 지수화풍(地水火風)의 네 가지를 일컬어 사대(四大)라 한다. 인도에서는 모든 물질은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고, 그 사상이 불교에도 그대로 도입되었다. 사람의 신체 또한 지·수·화·풍의 조합물로 본 것이다. ‘지’는 고체성 물질, ‘수’는 액체성 물질, ‘화’는 열기, ‘풍’은 운동성을 의미한다.

90) 서쪽에서 온 등불은 달마가 전해 준 선불교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半夜黃梅信
虛傳粥飯僧

한밤중 황매산의 소식⁹¹⁾이
헛되이 밥이나 죽내는 중에게 전해졌도다.

講圓覺

원각경을 강론하면서

廓然虛豁豁
心口絕商量
可憐常寂土
終作是非場

텅 비고 확 트였으니
마음과 입에 어떤 생각도 끊었네.
가련하도다, 항상 고요한 이 땅을
끝내 시비 벌이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다니.

白日雷聲動
碧潭驚老龍
清風吹驚嶺
明月上圭峯

밝은 해 비치는데 우레소리 진동하여
푸른 못에 늙은 용을 놀라게 하네.
맑은 바람은 영취산⁹²⁾ 고개로 불어오는데
밝은 달이 규봉⁹³⁾에 솟아올랐네.

酬天敏禪子

천민(天敏) 선자에게 답하는 시

虛寂本無物
何勞轉大藏
秋江寒月色
元不屬張王

텅 비고 고요하여 본래 아무 것도 없는데
어찌 수고로이 대장경만 파고드는가?
가을 강에 차가운 달빛은
원래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것을.

91) 한밤중 황매산의 소식 : 선종 5조 홍인이 황매산(黃梅山)에서 한밤중에 6조 혜능에게로 법을 전하였다.

92) 영취산 : 부처님이 인도에서 설법을 하던 산 이름.

93) 규봉 : 실제 중국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이며, 동시에 당나라의 고승 종밀(宗密)의 호이기도 하다.

草堂詠栢

月圓不逾望
日中爲之傾
庭前栢樹子
獨也四時青

초당에서 잣나무를 읊다

달은 둥글어졌다가도 보름을 넘기지는 않고
해는 하늘 가운데로 왔다가는 기울어지네.
뜰 앞에 잣나무⁹⁴⁾만
홀로 사시로 푸르도다.

內隱寂

飄泊十年客
歸來白髮添
樵人刈竹盡
何處覓香嚴

내은적암

십 년토록 유랑하던 나그네
돌아와 보니 흰 머리만 더해졌구나.
나뭇꾼이 대나무를 다 베어버렸으니
어디에서 향엄⁹⁵⁾을 찾을꼬?

古意

風定花猶落
鳥鳴山更幽

옛 생각⁹⁶⁾

바람 그치자 꽃은 오히려 떨어지고
새 우니 산은 더욱 그윽하구나.

94) 잣나무 : 공안에 나오는 나무이다. 어떤 스님이 조주(趙州) 선사에게 묻기를, “달
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니 조주선사가 답하기를, “뜰 앞
의 잣나무니라”라고 하였다 한다. 이것은 화두선에서 대표적인 공안이 되어 수
많은 수행자가 이를 참구하였다.

95) 향엄(香嚴) : 중국의 선승으로, 마당을 쓸다가 돌맹이가 튀어서 대나무에 부딪
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96) 옛 생각이란 과거 사람의 뜻을 이어받았다는 의미이다. 시의 첫 두 구절은 중국
송나라 왕안석(王安石)이 지은 시의 일부이다.

天共白雲曉
水和明月流

하늘은 흰구름과 함께 밝아오고
물은 밝은 달과 함께 흘러가누나.

寒林

서늘한 숲

三輪世界碎
四大形骸分
鳥鳶何厚薄
可臥青松雲

삼륜⁹⁷⁾의 세계가 다 부서지고
사대의 형해가 나뉘지네.
까마귀와 솔개 중에 누가 더 나은가?⁹⁸⁾
구름 흘러가는 솔숲에 누워나 봤으면.

靈芝禪子

영지(靈芝) 선자에게

道窮心絕處
平地起干戈
千人口呿走
一人笑呵呵

길이 다하고 마음조차 끊어진 곳
평지에 전쟁이 일어나는도다.
천 사람은 입 벌린 채 달아나고
한 사람은 깔깔깔 하고 웃는구나.

心禪子行脚

심(心) 선자가 행각을 떠나다

枯木別春色
羴羊挂石邊

고목은 봄빛과 이별하고
영양은 돌에다 뿔을 걸었네.⁹⁹⁾

97) 삼륜(三輪) : 쇠와 바람과 물로 된 세 바퀴. 불교의 우주관에서 우주의 중심에는 수미산이 있고, 이 세 바퀴가 수미산을 지탱한다고 한다.

98) 까마귀와 솔개는 둘 다 음식에 탐욕이 많은 새이다.

山川遊歷罷
還我草鞋錢

산천을 이리저리 다니고 나면
나에게 짚신값을 되돌려주시오.

上布天網子
下設陷虎機
單刀直入處
高拂大將旗

위로는 하늘그물¹⁰⁰을 펼치고
아래로는 호랑이 잡는 함정을 놓네.
단도직입¹⁰¹ 하는 곳에
대장군의 깃발을 높이 펼치리라.

道雲禪子

도운(道雲) 선자

衲子一生業
烹茶獻趙州
心灰髮已雪
安得念南洲

수행 남자의 일생 사업이란
차를 달여 조주에게 드리는 일.¹⁰²
마음은 재가 되고 머리칼은 흰 눈이 되어버렸는데
어찌 이 남염부주¹⁰³를 생각하리.

99) 영양은 잠잘 때 나뭇가지에 뿔을 걸고 잔다고 한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자취를 숨기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표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말의 개념과 논리의 맥락을 넘어서 있음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100) 하늘그물 : 하늘이 펼친 법도의 그물.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의 대강을 의미한다.

101) 단도직입(單刀直入) : 칼 하나를 들고 곧바로 들어간다는 말. 복잡한 우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질을 향해 곧바로 치고 들어감을 의미한다.

102) 중국 당나라의 조주는 누구에게나 차를 권하였다. 한 일화가 있어 이것이 유명한 화두가 되었다. 조주가 한 승려에게 여기에 온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승려가 있다고 대답하자, 조주는 ‘차나 마셔라[喫茶去].’ 하였다. 또 다른 승려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는데, 승려가 없다고 하자, 이번에도 조주는 ‘차나 마셔라.’ 하였다. 옆에 있던 원주(院主)가 온 적이 있는 사람에게도 차를 권하고, 온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차를 권하나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조주는 원주에게도 ‘차나 마셔라.’ 하였다.

103) 남염부주(南閻浮州) : 수미산 남쪽에 있다고 하는 땅. 북쪽은 넓고 남쪽은 좁은 세모꼴인데, 염부나무가 무성하며, 오직 이 땅에서만 부처가 출현한다고 한다.

應和禪子

仰天噓一聲
箭盡弓還折
若也更商量
依前入鬼窟

응화(應和) 선자

하늘을 우리러 한숨을 내쉬나니
화살도 다하고 활조차 부러졌네.
만약에 다시 무슨 생각을 하려고 든다면
여전히 귀신소굴로 빠져들리라.

有約君不來

眼隨歸雁盡
碧海連天蒼
十里猶春草
萬山空夕陽

약속을 했는데도 그대는 오지 않고

돌아가는 기러기 사라지도록 바라보노라니
푸른 바다는 하늘로 이어져 푸르구나.
십 리 사방이 다 봄풀이요
만 산은 그저 낙조에 물들었구나.

洛中卽事

春色歸何處
長安百萬家
山僧掩門坐
空落一庭花

서울에 있다가 문득

봄빛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서울에는 백만의 집이 있구나.
산승이 문을 닫고 앉았으니
뜨락에 꽃잎 하나 떨어지네.

뒤에는 인간 세계 또는 현세를 통털어 이르는 말이 되었다.

贈志彥大選之歸寧

지언(志彥) 대선¹⁰⁴⁾이 속가 부모를 찾아뵙는 데 드림

教育恩均重	가르치고 기르는 은혜가 다같이 소중한니
師親禮豈輕	스승과 어버이에 대한 예의가 어찌 가벼우리.
長安纔到日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聽取子規聲	두견새 우는 소리 들으리라.

禪子歸寧日	스님께서 속가 부모 찾아뵙는 날
江南二月春	강남은 이월의 봄이라네. ¹⁰⁵⁾
休將山水衲	산수간을 다니는 승복에다
取染馬蹄塵	말발굽의 티끌을 묻히지는 마소서.

送芝大師

지(芝) 대사를 보내며

離程葉飛晚	떠나가는 길, 낙엽 날리는 저녁
一水去悠悠	한 줄기 물은 유유히 흘러가네.
斷雁聲悲壯	작 잃은 외기러기 울음소리도 비장한데
千峯月亦秋	천 봉우리 달 또한 가을이로다.

過古都

옛 도읍을 지나며

暮雲連廢堞	저녁 구름은 무너진 성가퀴로 이어지고
-------	----------------------

104) 대선(大選) : 승과 시험에 합격한 승려가 처음으로 받는 작위.

105) 강남은 한강 남쪽을 말하며, 봉은사가 있던 곳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월은 음력 이월로 계절로는 봄에 해당한다.

寒雨洗荒臺
山色青依舊
英雄幾去來

차가운 비는 황량한 돈대를 씻는다.
산빛은 늘 그렇듯이 푸르기만 한데
영웅은 몇 번이나 왔다 갔는지.

幻庵(曾辭爵 故云云) 환암 (일찍이 벼슬을 사양한 적이 있어서 지었다)

富貴不留心
功名豈染指
世情已作灰
鼓翼青雲裏
身與白雲雙
心將明月一
行行宇宙間
自在無倫匹

부귀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니
공명에 어찌 뜻을 더럽히리.
세상에 대한 마음은 이미 재가 되었으니
푸른 구름 속에서 날개짓하네.
몸은 흰구름과 짝이 되고
마음은 밝은 달과 하나가 되네.
우주 사이를 다니고 또 다니니
나만큼 자유자재한 사람 없으리.

答行禪子

행(行) 선자에게 답하다

萬里經年別
孤燈此夜心
何時開一笑
風月對床吟

수 년 동안 만 리나 떨어져 있어
외로운 등불같은 이 밤의 마음.
어느 때나 한바탕 웃음 터뜨려볼까
바람과 달빛 속에 마주 앉아 시를 읊으며.

太熙沙彌歸寧

태희(太熙) 사미가 속가 부모를 찾아뵈는다고 하여

可笑世間愛

우습구나, 세간의 사랑이여

氷銷瓦解時

얼음이 녹고 기와가 흠어지는 때로다.

恩多翻作恨

은혜가 많은 것이 도리어 한이 되고

歡極却成悲

기쁨이 지극한 것이 도리어 슬픔을 이루도다.

圓徹大師

원철(圓徹) 대사

一徹祖師關

조사의 관문 한번 꿰뚫으니

不疑三世佛

삼세의 부처¹⁰⁶⁾를 의심하지 않네.

黃梅半夜信

한밤중 황매산의 소식이여

可笑是何物

가소롭구나, 이 무슨 물건인고!

圓徹萬重雲

만 겹의 구름을 두루 꿰뚫어

永爲曹溪嫡

길이 조계산¹⁰⁷⁾의 적자가 되었도다.

大笑臥空山

크게 웃으며 고요한 산에 누웠으니

月中松子落

달빛 속에 솔방울 떨어지네.

元惠長老

원혜(元惠) 장로

閑靜丈夫兒

한가롭고 고요한 대장부여

106) 삼세의 부처 : 과거 · 현재 · 미래의 모든 부처를 말한다.

107) 조계산 : 선불교를 크게 일으킨 6조 혜능이 주석하던 곳이 조계산이다. 이후 조계산은 선종의 상징이 되었다.

離塵出世師
一生功與業
惟有白雲知

티끌세계 벗어난 스님이 되시었네.
일생의 공과 업이란
흰구름만이 알리라.

贈華亭道人

瀟湘竹一枝
斫去洞庭吹
不是華亭客
誰能此味知

화정(華亭) 도인에게
소상강¹⁰⁸⁾ 대나무 한 가지를
베어다가 동정호에서 피리 부네.
연꽃 핀 정자¹⁰⁹⁾의 나그네가 아니라면
누가 이 맛을 알리오.

示圓密二禪子

黑風起瞋火
生生做鑊湯
古人用心處
人我定雙亡

원(圓)과 밀(密) 두 선자에게
검은 바람이 성냄의 불길을 일으키어
살면 살수록 화탕지옥¹¹⁰⁾이 되는도다.
옛사람이 마음을 쓰던 곳은
나와 남이 결정코 둘 다 사라지는 경지라.

活水清如鏡
天光碧一痕
多生漂遠派

활기찬 물은 맑기가 거울 같고
하늘 빛은 푸른 가운데 티 하나
여러 생을 먼 파도에 휩쓸려다니니

108) 소상강 : 중국 호남성(湖南省)에 있는 강. 동정호(洞庭湖)로 흘러 들어가며, 이 부근에는 대가 많이 난다.

109) 연꽃 핀 정자 : 연꽃 핀 정자는 버스를 떠나 자연에 묻혀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는 공간을 의미한다.

110) 화탕지옥 : 가마솥의 펄펄 끓는 물에 삶아 고통을 주는 지옥.

何日返初源

어느 날에나 처음의 근원으로 돌아갈까.

答座主問

百二十邪師
俱迷眞實義
一念忘又忘
身心忽無寄

緣心多巧僞
妄識亂浮沈
霜劍一揮處
寒光爍古今

좌주¹¹¹⁾의 물음에 답하다

백이십 명의 잘못된 스승이
모두 진실한 뜻을 잘못 알았네.
한 생각을 잊고 또 잊으면
몸과 마음 문득 맡길 곳 없으리라.

반연하는 마음에 거짓됨이 많아서
망령된 생각이 오르락 내리락 어지럽구나.
서리같은 검을 한번 휘두른다면
써늘한 빛이 고금을 녹이리라.

送鑑禪子之五臺

短髮千莖雪
長衫萬片霞
涅槃如昨夢
生死亦空花

감(鑑) 선자를 오대산으로 보내며

짧은 머리는 천 가닥의 눈이요
긴 장삼은 만 조각의 안개로다.
열반이란 어젯밤 꿈과 같고
생사 또한 허공의 꽃¹¹²⁾이라네.

111) 좌주 : 선가에서 경론을 강의하는 스님을 가리키는 말.

112) 허공의 꽃 : 실제로 있는 꽃이 아니라 눈병이 생겨 헛것으로 보이는 꽃을 말한다.

贈道能禪子

歷歷離賓主
寥寥絕色空
目前勤記取
山立白雲中

도능(道能) 선자에게

손님과 주인을 떠나 또렷하고
색과 공을 끊어 고요하기만 하네.
눈 앞에 보이는 그대로를 부지런히 잘 챙기라
산이 흰 구름 속에 서 있도다.

次申上舍韻

活活孔夫子
空空釋世尊
吞含一口客
誰識臥雲軒

禪榻秋光冷
螢窓月色新
箇中惟一味
慎莫辨甘辛

신(申) 상사(上舍) 시의 운에 맞추어

말이 분주하게 많았던 공자
말 없이 잠잠했던 석가세존
입에서 내뱉고 머금었던 두 분 중에
구름 깬 절에 누운 재미를 어느 분이 아시리오?

참선하는 평상에 가을빛 차갑고
반딧불이 창가에 달빛이 새롭네.
그 가운데 오직 한 맛 있으니
달다 맵다 가리지 마소서.

贈眞覺禪和

莫逐塵緣轉
須歸一念醒
失頭狂走輩
役役枉勞形

진각(眞覺) 스님에게

세속의 인연을 좇아 헤메지 마시고
반드시 한 생각 또렷하게 깨어 있어야 하리.
머리를 잃고 미친 듯이 달리는 무리들이여
몸만 고생시키느라 끔끔대는구나.

贊達摩眞

落落巍巍子
誰開碧眼睛
夕陽山色裏
春鳥自呼名

달마의 진영을 기림

높고 우뚝하신 분이여
누가 푸른 눈동자를 열었나.
석양 산빛 속에
봄 새는 자기 이름을 부르네.

贊先師眞

剪雲爲白衲
割水作清眸
滿腹懷珠玉
神光射斗牛

옛날 스님의 진영을 기림

구름을 베어 흰 승복을 짓고
물을 잘라 맑은 눈동자를 만들었네.
맷속 가득 옥구슬을 품었고
신비로운 빛은 북두성을 비추네.

登白雲山吟

白雲山幾疊
身在妙高峰
千古扶天勢
劫風無改容

백운산(白雲山)¹¹³⁾에 올라

백운산 몇 겹인가
이 몸은 묘고봉에 올랐도다.
천고의 세월동안 하늘을 떠받쳐서
영겁의 바람에도 변함이 없네.

桂熟香飄月
松寒影拂雲
山中奇特事

계수나무 익으니 달빛 속에 향기 드날리고
소나무 차가우니 그림자 구름에 떨치네.
산중의 이같은 특별한 일을

113) 백운산(白雲山) : 전라북도 장수군과 경상남도 함양군에 걸쳐 있는 산. 높이 1,279m.

不許俗人聞

세속 사람은 알지 못하게 하네.

答禪和問

어떤 스님의 물음에 답하여

簷外鳴山雨

처마 너머에는 산비가 울고

窓前點客燈

창문 앞에는 등불이 켜지네.

一參相見了

서로 한번 보면 다 되는거지,

何必問三乘

삼승¹¹⁴⁾에 대해 물을 것 무엇 있으리.

哭亡僧

돌아가신 스님을 곡하다

來與白雲來

오실 적에는 흰구름과 함께 오시고

去隨明月去

가실 적에는 밝은 달과 함께 가시었네.

去來一主人

가고 오는 이 한 주인

畢竟在何處

필경에는 어느 곳에 계신가.

題一禪庵壁

일선암(一禪庵) 벽에 붙임

山自無心碧

산은 무심으로 푸르고

雲自無心白

구름은 무심으로 희도다.

其中一上人

그 속의 한 스님

114) 삼승(三乘) : 불교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부류를 셋으로 나눈 것으로,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이 있다.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배운 이, 연각은 스승 없이 스스로 인과의 법칙을 깨달은 이, 보살은 나와 남의 해탈을 함께 추구하는 이를 말한다.

亦是無心客

또한 무심한 나그네로다.

詠懷

생각을 노래함

病在肉團心
何勞多集字
五言絕句詩
可寫平生志

병은 육단심¹¹⁵⁾에 있으니
어찌 수고로이 많은 글자를 모으리오.
오언절구 시 한 편이면
평생의 뜻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을.

關東行

관동(關東)의 노래

歲月如流水
興亡若去鴻
高吟天地外
山海動胸中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흥망은 날아가는 기러기와 같구나.
천지 바깥에서 높이 읊조리니
산과 바다가 가슴 속에 일렁이네.

移居

옮겨 살다

十年居海上
茅屋大風侵
移入白雲裏
萬山惟一心

십 년 동안 바닷가에서 살다가
띠집이 태풍에 쓰러져버렸네.
흰 구름 속으로 옮겨 왔더니
만 산이 한 마음이로다.

115) 육단심 : 고기 덩어리로서의 마음.

宿瀛洲

鵬去天門廓
三山落桂花
長風過碧海
白月留寒沙

영주(瀛洲)에서 자다

붕새¹¹⁶⁾ 떠난 하늘은 드넓기만 하고
세 산엔 계수나무 꽃 떨어지네.
긴 바람이 푸른 바다를 지나가고
흰 달은 차가운 모래밭에 머무누나.

訪松間隱士

自悅松間屋
松間亦有臺
客來不掃石
惟恐損蒼苔

솔숲 사이에 은거하는 선비를 찾아

솔숲 사이에 지은 집을 좋아하다 보니
솔숲 사이에 또한 넓직한 대(臺)가 있구나.
손님이 와도 돌을 쓸지 않는 것은
오직 푸른 이끼 상할까 하는 걱정에서라.

送人之南海

月入江江水
花連處處春
橫天三竹嶺
萬里獨歸人

남해로 가는 사람을 전송하며

달은 이 강 저 강의 물로 비취들고
꽃은 곳곳의 봄으로 이어졌네.
하늘을 가로지른 삼죽령
만 리 길 홀로 돌아가는 사람.

116) 붕새 : 『장자』에 나오는 새 이름. 한번 날면 9만리를 난다고 한다.

雙溪方丈

쌍계(雙溪) 방장¹¹⁷⁾

白雲前後巔
明月東西溪
僧坐落花雨
客眠山鳥啼

고개 앞뒤로 구름 끼고
계곡 동서로 밝은 달 지나가는데
스님은 떨어지는 꽃비에 앉고
나그네는 산새 울음 속에 졸고 있다.

詠秋

가을을 노래함

窓竹夜鳴雨
秋梧葉滿床
雲收碧海出
雁沒靑天長

창가 댕뉘에 밤비 소리 울리고
가을 오동잎 평상에 가득하네
구름 걷히자 푸른 바다 드러나고
기러기는 멀리 푸른 하늘로 사라지네.

花山隱者

꽃 핀 산의 은자

洗心不洗耳
人世已忘形
抱犢上山去

마음을 씻되 귀는 씻지 않나니¹¹⁸⁾
인간 세상에서 이미 형체를 잊었도다.
송아지를 안고 산 위로 올라가니¹¹⁹⁾

117) 방장(方丈) : 선종 사찰에서 최고의 지도자, 혹은 그 처소를 가리키는 말. 총림에 서는 방장, 선원에서는 조실이라 한다.

118) 허유(許由)라는 사람은 요임금이 자신에게 벼슬을 맡기자 못 들을 말을 들었다고 하며 시냇가로 가서 귀를 물로 씻었다. 이것은 무욕의 삶을 지향하는 도교적 설화이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귀를 씻기보다는 마음을 씻는 것이 더 근본적인 일이라는 점을 내세운 표현이다.

119) 송아지를 안고 산에 오르는 것은 은자의 일상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春田一帶青

봄 밭이 온통 푸르도다.

尋雲溪洞

구름 낀 골짜기를 찾아

帆過彈琴石

거문고를 타는 돌 곁으로 배가 지나니

雲生舞鶴臺

학이 춤추는 대에서 구름이 생겨나네.

桃源知不遠

무릉도원이 멀지 않음을 알겠나니

流水落花來

흐르는 물에 복숭아 꽃잎 떠내려오네.¹²⁰⁾

別山友

산에 사는 벗과 이별하며

山客送山客

산에 사는 사람이 산에 사는 사람을 보내니

白雲何處尋

흰 구름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松聲月下苦

달빛 아래 소나무 소리는 고통스럽고

山色雨中深

비 속의 산빛은 짙어만 가네.

贈禪長老

선(禪) 장로¹²¹⁾에게 드림

海暮雲空結

바다에 날 저무니 구름이 부질없이 생겨나고

山寒葉自吟

산이 차가워지니 나뭇잎 절로 소리를 내네.

虛潭描坐影

텅 빈 못은 좌선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秋月照禪心

가을 달은 참선하는 마음을 비추는구나.

120) 전설에 의하면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오는 시냇물을 계속 거슬러 올라갔더니 무릉도원이 있었다 한다.

121) 장로(長老) : 학덕이 높고 역량을 갖춘 선지식을 부르는 말.

夜坐

有客一長嘯
 風生萬壑間
 夜深燕子院
 月照清涼山

밤에 앉아서

한 나그네가 길게 읊나니
 바람은 수많은 골짜기에서 생겨나네.
 밤 깊은 연자원(燕子院)¹²²⁾
 달은 청량산을 비추네.

贈元敏禪子

出家年二十
 從我學清閑
 一生棲息處
 東國四名山

원민(元敏) 선자에게

출가한 지 이십 년 동안
 나를 따라 맑고 한가로운 세계를 배웠네.
 한 평생 거처하는 곳은
 우리나라 네 명산이로다.

祖室有感

十年消息斷
 一別死生分
 秋風萬里客
 含淚獨看雲

조실 스님이 생각나

십 년 동안 소식이 끊기었더니
 한번 이별한 뒤 삶과 죽음이 나뉘었도다.
 가을 바람은 만 리의 나그네이니
 눈물 머금고 홀로 구름을 쳐다보네.

122) 연자원(燕子院) : 절 이름. 『퇴계집(退溪集)』에 보면 안동 서쪽 20리 지점에 있던 절로, 수십 장(丈)의 높이가 되는 미륵불상을 세워 놓아 보는 이를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屏嶠草堂

人臥草堂上
江流入古城
栽花看蝶舞
移柳聽鶯聲

병암(屏嶠) 초당

초당 위에는 사람이 누워있고
옛 성에는 강물이 흘러들어가네.
꽃나무를 심었더니 춤추는 나비가 보이고
버들을 옮겼더니 앵무새 소리 들리네.

天熙禪子

塞外將軍令
政如衲僧家
劍衝龍虎陣
人血滿黃沙

言前無的旨
句下絕追尋
惆悵知音少
長眠碧洞深

천희(天熙) 선사

변방에서 장군의 명령은
절집 일과 흡사하네.¹²³⁾
용호진¹²⁴⁾에 검이 부딪치자
누런 모래밭에 사람 피가 흥건하네.

말 앞에 명료한 뜻이 없으면
언구를 찾아들어갈 길이 없지.
슬프구나, 알아줄 사람도 적어
깊고 푸른 골짜기에서 긴 잠을 자노라.

戲次李忠義韻

莫笑山家淡

이충의(李忠義)가 지은 시의 운에 맞추어

산 속 집이 너무 맑다고 비웃지 마시오

123) 전쟁터에서 장군의 명령이 절대적이듯, 부처나 조사의 가르침을 령(令)이라 한다.

124) 용호진(龍虎陣) : 전투에서 작전상 군인의 대열을 갖추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

白雲閑往來
古今城市客
滿面是塵埃

흰구름이 한가로이 가고 온다오.
예나 지금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은
얼굴 가득 티끌이외다.

還鄉曲

生來死去處
畢竟如何是
太虛本寂寥
脚下清風起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래

태어날 때 왔다가 죽을 때 가는 곳
결국은 그 어느 곳인지?
태허는 본래 고요할 따름이니
발 아래서 맑은 바람이 이네.

送一晶禪子

半夜開清話
千珠落玉盤
錫飛山影晚
風送水聲寒

일정(一晶) 선자에게

밤이 깊도록 맑은 대화 나누니
천 개의 구슬이 옥쟁반에 쏟아지네.
저녁 산 그림자 속에 지팡이 옮기노라니
바람은 차가운 물소리 전해주네.

青海白沙行

鷗海風常擊
乾坤不暫閑
人心亦如此
翻覆萬重山

푸른 바다 흰 모래의 노래

큰 물고기 사는 바다에 바람이 계속 부딪쳐
하늘과 땅 잠시도 쉬지를 못하네.
사람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
뒤집기를 만 겹 산처럼 하네.

風生大海中
展錦三千里
何人是上賓
楓岳清虛子

큰 바다 가운데서 바람이 생겨나
삼천리에 비단을 펼쳤구나.
누가 으뜸 손님인가?
풍악산 청허자¹²⁵⁾로다.

宿雙溪方丈見故人詩

쌍계 방장에 묵다가 벗의 시를 보고

月白霜清夜
棖黃橘綠時
孤燈燃客榻
千里故人心

달 밝고 서리 맑은 밤
등자나무 누렁고 귤은 푸른 시절이라.
나그네 평상에 외로운 등불 타오르는데
천 리 벗 그리는 마음이라.

金剛山百塔洞

금강산 백탑동(百塔洞)¹²⁶⁾

雨暗疑無地
雲開忽有山
逢僧一相笑
大得百年閑

비 내리니 어두워져 땅이 없는 듯하더니
구름 걷히자 홀연히 산이 나타나 있네.
스님을 만나 서로 한번 웃으니
백 년의 한가로움을 크게 얻었네.

125) 이 시의 작자인 휴정을 가리킨다. 휴정의 당호가 청허당이다.

126) 백탑동(百塔洞) : 금강산에 있는 계곡 이름으로, 탑이 많다고 하여 백탑동이라 한다.

夢覺

高臥邯鄲枕
周流百十城
遽然開一夢
殘月半樓明

꿈에서 깨어나

한단의 베개¹²⁷⁾에 편안히 누워
수십 수백의 성을 두루 다녔네.
문득 한바탕 꿈을 깨고 보니
새벽달이 누각에 걸려 밝구나.

示玉溪主人

屈志爲官日
放懷年老時
非惟忘利祿
沉復外形儀

옥계(玉溪) 주인에게

벼슬살이 하던 시절엔 뜻을 굽혔지만
이젠 늙었으니 마음을 편히 해야지.
이익과 복록을 잊으려 하는 것만이 아니니
하물며 바깥 차림새를 신경쓰리오.

夏日

炎蒸天下日
獨坐白雲臺
清風會人意
竹林深處來

여름날

온 세상이 폭폭 찌는 날
홀로 흰 구름 나는 대에 앉았네.
맑은 바람이 사람 마음을 알고서
대숲 깊은 곳에서 불어오네.

127) 한단의 베개 : 한단지몽(邯鄲之夢)이라는 고사를 의미한다. 중국 조(趙)나라 서 울인 한단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로, 밥 짓는 사이에 잠시 꿈을 꾸어 80평생을 경험했다는 내용이다.

謝送瓜

五月新瓜子
田夫慰病僧
破來一入齒
蒼玉骨寒氷

오이를 보내줄을 감사하며

오월에 새로 나온 오이로
농부가 병든 중을 위로해주네.
쪼개어서 입 속으로 넣었더니
푸른 옥 조각이 뼈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네.

次李秀才韻

無心雲出岫
有意鳥知還
儒釋雖云一
一忙而一閑

이(李) 수재 시에 답하여

구름은 무심으로 생겨나지만
새는 뜻이 있어 집으로 돌아오네.
선비와 승려가 비록 같다고 하지만
한 쪽은 바쁘고 한 쪽은 한가롭다네.

贈朴學錄

君戀千金富
我甘一衲貧
莫論窮與達
同是夢中人

박(朴) 학록(學錄)¹²⁸⁾에게

그대는 천금의 부를 그리워하지만
나는 승복 한 벌의 가난함이 좋다네.
곤궁하고 영달함을 따지지 말거나
똑같이 꿈 속의 사람이로다.

128) 학록(學錄) : 조선조 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학생의 훈육과 학습독려를 맡았던 관리.

賞春

門前碧柳垂
漏洩春消息
喚友踏青歸
千山爭暮色

봄의 완상

문 앞에 푸른 버들 드리워져
봄 소식을 누설하고 있구나.
벗을 불러 봄나들이 하고 돌아오니
천 산마다 다투어 해 저무는 광경이로다.

亡友嘆

人物非吾輩
山川似去年
悠悠悲隻影
停錫問蒼天

죽은 벗을 탄식하며

사람은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갔건만
산천은 지난 해와 그대로로다.
유유히 걸어가는 슬픈 외그림자
지팡이를 멈추고 푸른 하늘에 물어보노라.

題淳師卷

松鳴驚宿鳥
雲破露青山
一衲清閑客
長年獨掩關

순(淳) 스님의 저술에 붙여

소나무 바람 소리 자는 새를 깨우고
눈이 부서져내려 푸른 산이 드러나네.
승복 한 벌로 사는 맑고 한가한 이는
언제나 문을 닫고 지내지.

贈眞禪和

人間長役役
不曾半日閑

진(眞) 스님에게

사람이 늘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반나절의 한가로움도 얻기 어렵네.

珍重吾師獨
經年不下山

蓬蒿一隻箭
曾自賣西東
歸去還來此
臥聽松竹風

진중한 우리 스님은
한 해가 지나도록 산을 내려오지도 않네.

쑥으로 만든 화살 하나¹²⁹⁾
동서남북으로 팔려 다니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
누워서 솔바람 대마람 소리 듣누나.

秋夜

雨霽驚新月
夜深魂更清
擁衾眠不得
木葉送秋聲

가을밤

비 개자 보름달이 불쑥 나타나고
밤 깊으니 정신이 더욱 맑아지네.
이불을 둘러써도 잠들지 못하는데
나뭇잎은 가을 소리를 보내주네.

宿圓岳驛

清秋未歸客
終夜聽子規
一窓山月落
千里夢相思

원암역(圓岳驛)에 자면서

청량한 가을 돌아가지 못한 나그네
밤이 다하도록 두견새 소리 듣누나.
창에는 산 위의 달 떨어지는데
천 리 먼 곳 꿈속에서 그리워하네.

129) 쑥으로 만든 화살은 아무 쓸모가 없는 물건을 의미한다.

淸澗亭

淸澗有聲玉
 聲聲洗客心
 秋天不覺暮
 山月照楓林

청간정(淸澗亭)

맑은 산골물이 옥소리를 내니
 소리마다 나그네 마음을 씻어주네.
 가을하늘이 저무는 줄도 모르는 사이
 산 위의 달이 단풍 숲을 비추고 있네.

誦經贊

一紙畫千佛
 盡力高聲喚
 喚之欲應之
 可謂癡頑漢

경전 독송을 찬탄함

종이 한 장에 천 분의 부처님을 그려놓고
 힘을 다해 높은 소리로 부르는도다.
 그렇게 부르면 응해 주실런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紅流洞

東風一吹過
 花落滿溪紅
 山出白雲外
 僧歸夕照中

홍류동(紅流洞)¹³⁰⁾ 계곡

동풍이 한번 불고 지나가니
 꽃 떨어져 계곡 가득 붉구나.
 흰 구름 너머로 산이 우뚝 솟았는데
 스님은 저녁 노을빛 속으로 돌아가네.

顧影有感

一別萱堂後

내 그림자를 보고서

어버이 한번 이별한 후

130) 홍류동(紅流洞): 가야산 해인사 입구에 있는 계곡 이름.

滔滔歲月深
老兒如父面
潭底忽驚心

세월은 도도히 깊었구나.
늙어 버린 아이가 아버지 얼굴과 같아졌으니
연못 속을 들여다 보고는 문득 놀라는 마음.

看棋

成敗倏如電
昇沈疾若輪
一生如一局
亦如夢中人

바둑 두는 것을 보면서
이기고 지는 것이 번개처럼 빠르고
올라가고 내려앉는 것이 수레바퀴처럼 날래구나.
사람의 일생도 바둑 한 판과 같으니
이 또한 꿈 속의 사람이로다.

三夢詞

主人夢說客
客夢說主人
今說二夢客
亦是夢中人

세 꿈 이야기
주인이 손님에게 꿈 꾀 이야기를 하니
손님도 주인에게 꿈 꾀 이야기를 하네.
지금 꿈 꾀 이야기 하는 두 나그네
이 또한 꿈 속의 사람이로다.

賽藏大師求偈

共坐青山影
回看落日天
長江流不盡
今古亦如然

장(藏) 대사가 계송을 청하기에
청산의 그림자와 함께 앉아
해 저무는 하늘을 바라본다.
긴 강은 끝없이 흘러만 가니
고금의 세월도 또한 이와 같도다.

寄新庵主人敬先禪子

신암(新庵)의 주인 경선(敬先) 스님에게 드림

聖凡收掌上
塵刹納胸中
却問是誰者
童頭碧眼翁

성인과 범인을 손바닥 위에 거두어 들이고
티끌처럼 수많은 세상 가슴 속으로 받아들이네.
문득 묻노니 이 누구인가?
민머리에 눈 푸른 늙은이라네.

楓岳山

無盡數無盡
登山更見山
虛空亦可窄
何物大而寬

풍악산

끝이 없고 또 끝이 없어
산을 오르면 다시 산이 보이네.
허공도 좁아 보이니
무엇이 크고 넓다 하겠는가.

賞春

柳上鶯聲滑
梅枝雪欲飛
山僧觀物眼
不許世人知

봄의 완상

버드나무 위에는 찢꼬리 소리 매끄럽고
매화가지 위에는 눈발이 흩날리려는 듯.
산승의 세상 보는 안목을
세상사람들은 알지 못하리.

送芝師

今朝相別後

지(芝) 스님을 보내며

오늘 아침 서로 이별하고 나면

消息幾時聞
明日秋雲隔
思君不見君

소식 들을 때 언제일지.
내일이 되어 가을 구름에 막히면
그대 그리워하면서도 그대 만나지 못하리.

雜詠

天地一虛堂
古今一瞬息
其中一主人
曠劫一顏色

千聖猶難測
六凡安得知
八窓虛豁豁
風月自相吹

十年奔走人
戲逐花邊蝶
拂枕歸山眠
清風生竹葉

우연히 읊음

천지간에 하나의 텅 빈 집
고금간에 하나의 순간이라.
그 속의 한 주인
영원토록 한결같은 안색이라네.

천 명의 성인도 헤아리기 어려우니
여섯 범부¹³¹⁾가 어찌 알리오.
팔방의 창문이 텅텅 비어 있어서
달빛 아래 바람이 절로 불어오네.

십 년토록 분주하던 사람
꽃을 좇는 나비격이었네.
베개를 떨치고 산으로 돌아와 누우니
덧녘 사이에서 맑은 바람이 생겨나네.

131) 여섯 범부 : 성인이 되지 못하고 평범한 부류에 속하는 지옥·아귀·축생·수라·인간·천상의 여섯 가지.

贈別白蓮社處敏禪子

백련사에서 처민(處敏) 선자와의 이별에 드림

別後十三年	이별한 지 십삼 년
今逢情不已	오늘에사 만나니 정이 다함 없구나.
連床夜話長	침상에 나란히 누워 밤 깊도록 이야기하다 보니
澗月低窓紙	창호지에 비친 산골 달이 낮아졌구나.

告別天南去	이별을 고하고 하늘 남쪽으로 떠나간 것은
山紅澗碧時	산은 붉고 계곡물은 푸르던 때였지.
人間眞火宅	인간세상은 참으로 불난 집과 같으니
毋失白蓮期	백련사의 기약을 잊지 마소서.

禪教流名利	선과 교는 명리로 흐르고
榮華誤世間	부귀영화는 세상을 그르쳤도다.
夢中無限好	꿈 속에 그리던 무한히 좋은 곳
只是在青山	그곳은 바로 청산이여라.

送英庵主出山

암자의 주인 영(英)¹³²⁾이 산을 나서는 것을 보내며

一身眞逆旅	이 한 몸은 여관이요
萬事皆浮雲	만사는 다 뜬 구름이라.
如見鷗爭鼠	부엉이가 들쥐를 다투는 것을 보거든
高飛慎不群	높이 날아서 함부로 어울리지 마소서.

132) 영(英) : 휴정의 제자였던 처영(處英), 혹은 인영(印英)으로 추정된다.

內隱寂覺禪和出山因書警之

산을 나서는 내은적암의 각(覺) 스님에게 글을 써서 경계함

宜棲內隱寂
地勝更泉甘
却憶新羅主
曾來駐此庵

은적암은 거처하기가 좋으니
땅도 좋고 샘물도 달다네.
문득 신라의 임금을 생각하노니
일찍이 이 암자에 와 머물렀었지.

松花兼葛衲
爲法更忘身
往古多賢聖
皆曾耐苦人

송화 속에 갈옷으로 지내나니
진리를 위해서는 몸을 잊는다오.
예전에 그 많았던 성현들도
모두가 고통을 이기던 분이셨지.

謝金信士來訪

김(金) 신사(信士)¹³³⁾가 방문함을 감사하며

金公物外客
抱瑟訪山居
一曲開心目
江淸月亦虛

김공은 물욕을 벗어난 사람이라
비파를 안고서 산 속 거처로 찾아오셨네.
한 곡조 울리자 마음과 눈이 열리어
강 맑고 달 또한 텅 비었네.

無限心中事
平生說向誰
陽春彈一曲
松月滿窓時

무한한 심중의 일들
평생 누구를 향하여 말을 할꼬?
양춘곡(陽春曲)¹³⁴⁾ 한 곡조 타니
소나무와 달이 창에 가득한 때로다.

133) 신사(信士): 남자 신도를 가리킨다.

134) 양춘곡(陽春曲): 거문고 곡명.

謝行雲禪子之訪

千峯與萬壑
青鶴共徘徊
本是山中物
清風引出來

행운(行雲) 선자의 방문에 감사하며

천 봉우리 만 골짜기 속에서
푸른 학과 함께 배회하노니
본래부터 산중의 것이건만
맑은 바람이 이끌어 내었네.

贈李秀才

喃喃書萬卷
論古亦論今
積學非他術
只要攝我心

이(李) 수재에게 드림

중얼중얼 만 권의 책을 읽어
옛날을 논하기도 하고 지금을 논하기도 하네.
학문을 쌓는다는 것은 별다른 방법이 아니니
다만 내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일이라네.

隱夫

風月非塵世
山川是畫圖
君能向此老
不曰丈夫乎

은자

바람과 달은 티끌 세상과 다르고
산과 시내는 그림과도 같아라.
그대 능히 이렇게 늙어간다면
대장부라 이를 만하지 않겠는가!

庭梧

半夜鳴山雨
淒然客夢驚

뜰 앞의 오동나무

깊은 밤 산속에 비소리 울리어
처연하게 나그네의 잠을 깨우네.

開窓見庭樹
萬葉一秋聲

창을 열고 뜰 앞의 나무를 내어다보니
수많은 잎들 한결같이 가을 소리.

雜興

月出千山靜
春回萬木榮
人能知此意
勝讀大藏經

光陰繩不繫
衰病藥難醫
我有眞方術
心經勉受持

苦下元無苦
忙中亦不忙
誰知火宅裏
別有好清涼

어떤 감흥

달 솟은 천 산은 고요하고
봄 돌아오자 만 그루 나무 피어나네.
사람이 능히 이 뜻을 알아낸다면
팔만대장경을 읽는 것보다 나으리.

시간은 밧줄로 잡아두지 못하니
늙고 병든 것은 약으로도 고치기 어려우리.
나에게 정말 좋은 처방이 있으니
마음의 경전을 힘써 익히소서.

고통 속에는 원래 고통이 없고
분주함 속에도 분주함이 없도다.
누가 알리오, 불길 휩싸인 집 속에도
시원한 곳이 따로 있음을.

山中贈友

誰道深林下
鳥鳴山更幽
與君成二老
談笑一風流

산중에서 벗에게 드림

누가 말했던가, 깊은 숲 속에서는
새 울면 산 더욱 고요해진다고.
그대와 더불어 이제는 두 늙은이가 되었건만
웃고 대화하는 것이 하나의 재미로다.

過古寺

病樹蟬聲咽
寒塘鳥影回
歸然餘古殿
千佛一莓苔

옛 절을 지나면서

병든 나무에 매미 우는 소리
차가운 연못엔 새 그림자 맴도네.
남은 옛 법당 흰칠하건만
천불엔 한결같이 이끼 끼었네.

因事有感

巧笑枕邊斧
甘言席上蛇
老夫有眼疾
長對決明花

어떤 일로 인해 느낌이 있어

아리따운 웃음은 베갯머리의 도끼요
달콤한 말은 침상 위의 뱀이로다.
이 늙은이는 눈병이 있어
오래토록 결명자¹³⁵⁾ 꽃을 마주하노라.

一禪子

山碧烟無色
花殘竹有春
惡衣甘守節
畝谷好藏身

일(一) 선자에게

산 푸르니 안개가 빛을 잃고
꽃 시드니 대나무에 봄이 있네.
거친 옷을 입고도 달게 지키소서
몸을 간수하기에는 바위 골짜기가 좋으리.

松軒

林深多葉密

소나무가 있는 집

숲이 깊으니 무수한 잎들이 뽁뽁하고

135) 결명자 : 시력에 좋다고 알려진 식물의 한 종류.

衆鳥集吾廬
獨臥東軒下
松窓月入虛

온갖 새들도 내 집으로 모여드네.
집 동쪽에 홀로 누웠더니
소나무 보이는 창문으로 달빛이 허공에 비쳐드네.

詠懷

風行雲吐月
樹密葉生秋
堆枕起增歎
長江不盡流

생각을 읊다

바람이 부니 구름은 달을 토하고
무성한 나뭇잎은 가을을 낳는구나.
베개 밀치고 일어나니 탄성이 더해지고,
긴 강은 다함 없이 흘러가네.

西來曲

西來這一曲
千古沒人知
韻出青霄外
風雲作子期

서쪽에서 온 곡조

서쪽에서 온 이 한 곡조
천고에 아는 사람 없구나.
푸른 하늘 너머로 소리 울리니
바람과 구름만이 알아주는구나.

性默

身心俱不動
性默以爲宗
祖印高提處
風搖月影松

성품의 고요함

몸과 마음 모두 움직이지 않으니
성품의 고요함을 근본으로 하네.
조사의 경지 높이 걸린 곳
달빛 아래 소나무 바람에 흔들리네.

贈念佛僧

參禪卽念佛
念佛卽參禪
本心離方便
昭昭寂寂然

염불하는 스님에게

참선이 곧 염불이요
염불이 곧 참선이라.
근본 마음이란 방편을 떠난 것이니
밝고 밝으며 고요하고 고요하니라.

贈圓禪子

人人皮有血
可忍消白日
斷臂豈徒然
及時生死決

원(圓) 선자에게 드림

사람마다 가죽 속에 피가 있으니
그냥 하루를 지낼 수가 있으랴.
팔을 자른 것¹³⁶⁾이 어찌 그냥 그리했으리?
늦기 전에 생사를 결판지어야 하리.

贈一靈禪子

一靈心地月
六識海中沈
舉目望天外
清光徹古今

일령(一靈) 선자에게

하나의 신령스런 마음 속 달
육식¹³⁷⁾은 바다 속으로 빠져드네.
눈을 들어 하늘 멀리 바라보니
맑은 빛이 고금을 꿰뚫는도다.

136) 선종을 창시한 달마에게 혜가가 찾아와 배움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팔을 잘랐다고 한다.

137) 육식(六識) : 의식을 형성하는 여섯 가지.

謝金樂士來訪

客來春日暮
爲我一彈琴
鳥啼花落處
山影倒江心

김(金) 악사(樂士)의 방문을 감사하며

저무는 봄날에 손님이 오시어
나를 위해 거문고 한 곡조 타시는구료.
새 울고 꽃 떨어지는 곳
산 그림자 강물 속에 거꾸로 섰네.

自嘲

天地一閑客
曰惟忘世人
雲山不辜我
風月亦從貧

스스로를 조롱함

하늘과 땅 사이에 한가로운 한 사람
오직 세상을 잊은 사람이라 하네.
구름과 산이 나를 저버리지 않고
바람과 달 또한 나와 함께 가난하다.

永郎嶺

步虛聲斷後
無復想形容
雨洗孤輪月
風驅萬壑松

영랑령(永郎嶺) 고개

허공을 디디어 소리 끊어진 이후로는
다시는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네.
비가 저 외로운 달을 씻어주니
바람은 만 골짜기 소나무를 스쳐 달리네.

花開洞

花開洞裏花猶落
青鶴巢邊鶴不還

화개동(花開洞)¹³⁸⁾

화개동(花開洞)에는 꽃이 오히려 떨어지고
청학소(靑鶴巢)에는 청학이 오질 않네.

珍重紅流橋下水
汝歸滄海我歸山

보배로운 홍류교 아래의 물이여
너는 푸른 바다로 가지만 나는 산으로 돌아간다네.

望鄉

고향을 바라보며

白雲千里萬里
明月前庭後庭
惆悵鄉關不去
洛陽柳色青青

흰 구름은 천 리 만 리
밝은 달은 앞뜰 뒤뜰
슬프구나 고향을 가지 못하니
서울의 버들 빛이 푸르고 푸르도다.

挽詞

죽음을 애도하며

山寂寂海茫茫
風淡淡烟蒼蒼
孤魂何處在
目斷天之方

산은 고요하고 바다는 아득하기만 한데
바람은 맑고 안개는 푸르스름하구나.
외로운 혼은 어느 곳에 있는지
하늘 한 모퉁이에 시선이 멈추네.

遊漢江

한강에서 놀다

楊柳青青朝雨過
東風微動水如烟
一聲玉笛舟中出

아침비 지나가자 버들이 푸르고
동풍이 살짝 불자 물은 안개와도 같구나.
배 위에 울려퍼지는 옥피리 소리

138) 화개동(花開洞) : 지리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 한겨울에도 꽃이 피는 안온한 곳이라고 하여 '화개동'이라 하였다.

漁子指云江上仙 어부는 강 위의 신선이라 일컫네.

送靑蓮禪子之楓岳 풍악산으로 가는 청련(靑蓮) 선자를 보내며

靑蓮禪子向楓岳 청련선자가 풍악산으로 향하니
足下江山重復重 발 아래 강과 산이 겹겹이로고.
隻影飄飄何處去 외로운 그림자 표표히 어디로 가는고?
白雲萬里蒼茫中 아득히 푸른 빛 속에 만 리 흰구름이로다.

栽松菊 소나무와 국화를 심으며

去年初種庭前菊 지난 해 처음 심은 뜰 앞의 국화
今年又栽檻外松 올해는 또 난간 너머 소나무를 심었네.
山僧不是愛花草 산승은 화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要使人知色是空 사람들에게 색즉시공의 이치를 알게 함이라.

雪岳山花嶺寺 설악산 화암사(花嶺寺)¹³⁹⁾

鳥飛碧海長天外 새는 푸른 바다 먼 하늘 너머로 날고
人臥青山落照中 사람은 푸른 산 낙조 속에 누워 있네.
前澗雪波鳴石齒 앞 계곡물 눈처럼 흰 물결은 뽕족한 바위를 울리고
後園紅雨逐春風 뒤뜰의 붉은 꽃비는 봄바람 쫓는구나.

139) 화암사(花嶺寺) : 이 절은 769년에 진표율사가 창건한 화엄사(華嚴寺)를 가리키는 듯하다.

夢過李白墓

꿈에 이백(李白)의 묘를 지나다

過客悠悠千古恨
 山青雲白首空回
 當年把酒人何去
 杳杳長天月自來

오래토록 천고의 한을 품은 지나는 길손
 푸른 산 흰 구름을 부질없이 뒤돌아 보네.
 그 당시에 술잔 잡았던 이 어디로 갔는지?
 아득히 먼 하늘에 달이 떠오르네.

還鄉

고향 나들이

余卅年孤哀 十歲離家 三十五歲還鄉, 則昔之南鄰北閭 蕩然爲耕 桑麥
 青青 動搖春風耳. 不勝哀楚 書懷于廢宅之壁 一宿而還山焉.

내가 어린 아이 적에 부모를 잃고 10세에 집을 떠났다가 35세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예전의 남쪽 이웃과 북쪽 마을이 모조리 경작지로 변하여 뽕나무와 보리만이 청청하게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에 애절함을 이기지 못하여 쓰러진 집의 벽에 느낀 바를 시로 적어 붙이고 하룻밤 자고 산으로 돌아왔다.

三十年來返故鄉
 人亡宅廢又村荒
 青山不語春天暮
 杜宇一聲來杳茫

삼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니
 사람들은 죽고 집은 쓰러지고 마을도 황폐했구나.
 청산은 말이 없는데 봄날은 저물어가고
 어디선가 두견새 소리 아득히 들려오네.

一行兒女窺窓紙
 鶴髮鄰翁問姓名
 乳號方通相泣下
 碧天如海月三更

아녀자들은 창문 틈으로 살펴보고
 흰머리 이웃노인은 이름을 물어보네.
 어릴 적 이름을 듣고서야 서로 눈물 흘리는데
 바다와 같은 푸른 하늘에 밤 깊은 달이로다.

斷髮日書懷

머리 깎는 날의 회포

之乎取味管城公
二十年前錯用工
一覺此身同幻夢
世間無物不爲空

문자에 맛들인 글쟁이가
이십 년 동안 엉뚱한 노력을 하였도다.
이 몸이 환몽과 같음을 깨달으니
세상에 공이 아닌 것이 없도다.

愛名愛利身輕薄
二十年前苦海漂
一夜細聽禪語了
朝將青髮就銀刀

명리를 좋아하면 몸이 경박해지나니
이십 년 동안 고통의 바다를 떠다녔네.
하룻밤 선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듣고는
그날 아침 바로 푸른 머리카락 은도에 맡기었네.

蓬萊草堂

봉래산¹⁴⁰⁾ 초당(草堂)

處處開花遠近迷
幾多紅雨落前溪
黃庭讀罷一回首
八萬峯頭月欲低

여기 저기 흐드러지게 꽃이 피니
수많은 붉은 꽃비가 앞 시냇물에 떨어지네.
황정경¹⁴¹⁾ 읽고 나서 고개를 돌리니
팔만 봉우리에 달이 나지막하구나.

送天雨之蓬萊

천우(天雨) 스님을 봉래산으로 보내며

青海白沙新活計
千岳萬壑舊因緣

푸른 바다 흰 모래는 새로이 살아갈 곳이며
천 바위 만 골짜기는 지나간 인연이로다.

140) 봉래산(蓬萊山) : 도교 신선사상에서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장소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여름 금강산을 특별히 봉래산이라고 불러 왔다.

141) 황정경(黃庭經) : 심신의 수련을 통해 신선의 경지를 추구하는 도교 경전의 하나.

送爾南天雲斷處
老夫回首一潸然

그대를 구름조차 끊긴 남쪽 지방으로 보내노라니
늙은이 고개 돌리고 한동안 눈물 흘리네.

呼犢鳥

호독조¹⁴²⁾

前是牧童今是鳥
年年猶愛舊春風
山深樹密無尋處
呼犢一聲烟雨中

전생에는 목동이었다가 지금은 새가 되어
해마다 그 시절 봄바람을 그리워하네.
깊은 산 빼곡한 나무 찾을 곳 없건만
송아지 부르는 한 소리 안개비 속에 들려오네.

病懷

병 중의 생각

春深院落客多病
雨過池塘愁閉門
童子走云蓮出水
老僧來報竹生孫

봄 깊은 뜰에 병 많은 사람
비 내린 연못에 근심으로 문을 닫았네.
동자는 달려와서 연꽃이 물 위로 솟았다 하고
노승은 대나무 순이 돋았다고 알려주네.

清虛堂

청허당(淸虛堂)¹⁴³⁾

草戶柴門長不閉

사립문 언제나 닫지도 않은 채

142) 호독조(呼犢鳥) : 전설에 이 새는 전생에는 소치는 머슴이었다가 현생에는 새가 되어 태어났다고 한다. 우는 소리가 흡사 소를 모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송아지를 부르는 새'라는 뜻으로 '호독조'라 한다.

143) 청허당(淸虛堂) : 청허당은 휴정이 거처하던 건물의 호칭이며, 동시에 자신의 호이기도 하다.

月明高臥北窓前
莫言隱者耽寥寂
內外清風是管絃

달 밝을 땐 북쪽 창문 앞에 높이 누워보네.
은자가 고요함을 탐닉한다 말하지 마소서
안팎의 맑은 바람이 바로 관현악이로다.

老入頭流專一壑
碧雲寒竹可安身

늙어서 두류산 한 골짜기에만 있으면서
푸른 구름 서늘한 대만 있어도 몸을 편안히 할 수
있네.

從今永斷西歸計

이제부터 서쪽으로 돌아갈 계책¹⁴⁴⁾ 일랑 영원히
끊어버리면

免向人間更問津

사람들에게 나루터¹⁴⁵⁾ 묻는 일을 면할 수 있으리.

通長老

통(通) 장로

一衲一瓢一間屋
一生長臥白雲山
柴門草戶無迎送
明月清風自往還

누더기 한 벌 물병 하나에 집 한 칸
일생을 흰 구름 낀 산에서 지내시네.
사립문에 맞이하고 보내는 사람조차 없으니
밝은 달 맑은 바람만이 절로 오가네.

送慧聰禪子

혜충(慧聰) 선자를 보내며

南北東西無定着
生涯只在一枝筇
舌頭細嚼烟霞味

동서남북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고서
한 평생 다만 지팡이 하나 뿐.
혀 끝엔 안개의 맛을 느끼면서

144) 서쪽으로 돌아갈 계책 : 죽어서 서방에 있다는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계책.

145) 나루터 : 고통의 강을 건너 저 언덕[피안, 해탈]으로 건너갈 수 있는 나루터. 해탈의 길목을 의미한다.

直入千峯更萬峯

천 만의 산봉우리로 들어갈 뿐이네.

行脚僧

행각승

春從東海南飛錫
秋向西山又北方
三百六旬長擾擾
不知何日到家鄉

봄에는 동해에서 남쪽으로 지팡이를 옮기더니
가을에는 서쪽 산에서 다시 북쪽으로 향하네.
삼백 육십 일을 늘 분주히 다니기만 하니
어느 날에나 집에 도착할지 알 수가 없네.

贈別李竹馬(仁彦)

죽마 이인언과 이별하면서

十年故友初相見
說盡山雲海月情
握手臨溪還惜別
一林啼鳥送春聲

십 년 된 친구 처음 만났을 때
산과 구름과 바다와 달의 정을 다 토로하였네.
손을 잡고 계곡에 이르러 아쉬운 이별을 하자니
온 숲에 새 울음소리 봄의 소리 들려주네.

送應沙彌之楓岳

풍악산으로 가는 응(應) 사미를 전송하며

碧草長堤只一筇
白雲無路可追蹤
從今夜夜關東月
應望天涯八萬峯

푸른 풀 긴 언덕에 다만 지팡이 하나
길도 없는 흰 구름을 쫓아갈 수 있을런지?
지금부터 밤마다 관동¹⁴⁶⁾의 달
하늘 끝 팔만 봉우리를 바라보리라.

146) 관동 : 대관령 동쪽 지역을 이른다.

送人赴京

서울로 가는 사람을 전송하며

四十年來老判事
性甘雲水臥青嵐
有人若問棲身處
知異山中一草庵

나이 마흔의 늙은 판사¹⁴⁷⁾
천성이 자연을 좋아하여 산에 깃들여 사노라.
누가 사는 곳을 묻거들랑
지리산 속의 한 초가 암자라 하시오.

寄天吼山年兄

천후산(天吼山)¹⁴⁸⁾의 연형¹⁴⁹⁾에게

東西渺渺思何許
不見尊兄已五年
夜夜夢魂相會處
連天青海白鷗邊

동서가 멀고 아득한데 얼마나 그리운지,
형을 만나지 못한 지 벌써 오 년이구료.
밤마다 꿈속에서 혼이 서로 만나는 곳
하늘과 맞닿은 푸른 바다의 흰 갈매기 나는 그 곳
이로다.

別應禪子

응(應) 선자와 이별하며

送別故人青鶴洞
白雲流水幾重重

친구와 송별하는 청학동
겹겹의 흰구름과 흐르는 물.

147) 판사(判事) : 지은이는 30세(1549)년에 선과에 급제하여 선종과 교종을 총괄하는 선교양종판사가 되었으나 스스로 수행자의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37세에 사직하였다.

148) 천후산(天吼山) : 설악산 울산바위의 별칭. 바람이 불면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149) 연형(年兄) : 과거 시험에 동시에 합격했던 동료를 일컫는 말. 여기서는 승과시험 합격 동기를 말한다.

欲知此後相思處
月照千山半夜鍾

이 다음에 서로 어디서 그리워할지?
달빛 비치는 천 산에 깊은 밤 종소리 울리는 곳이
겠지.

謝李竹馬來訪

이죽마의 내방에 감사하며

竹杖春風千里客
松窓夜雨十年燈
含情欲說前身事
笑殺鄰單一老僧

봄바람 속에 대지팡이 짚고 온 천 리의 나그네
소나무 보이는 밤비 내리는 창문에 십 년 만의 등불
정을 품고 전생의 일을 말하려니
우습구나, 이웃의 한 노승이었구료.¹⁵⁰⁾

太白山

태백산(太白山)¹⁵¹⁾

混沌骨頭磨碧落
山僧開鑿立茅庵
傍人指點無窮域
一片中原接海南

들쭉날쭉한 바위 봉우리 하늘을 쓰다듬는 곳에
산승은 터를 닦아 암자를 세웠네.
곁에 있던 사람이 끝없이 펼쳐진 쪽을 가리키니
한 조각 들판이 바다 남쪽으로 이어졌구나.

150)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속인이 전생에 함께 수행하던 도반 스님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자신을 찾아온 이죽마가 전생의 도반이었음을 말한다.

151) 태백산(太白山) : 강원도 영월군과 경상북도 봉화군에 걸쳐 있는 산. 휴정이 승과에 급제하여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의 직위까지 맡게 되었으나, 수행에 전념하고자 하는 의지로 1577년(38세)에 금강산·지리산·태백산·오대산·묘향산 등으로 운수행을 떠났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이 시가 지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自嘲

스스로를 비웃음

大抵人生年齒貴
如今方悔昔時行
何當手注通天海
一洗山僧判事名

대저 인생이란 나이가 소중한 것인데
이제사 지난 시절의 행동이 후회스럽구나.
어떻게 하면 하늘 바다¹⁵²⁾의 물을 끌어다 대어
산승의 판사 이름을 단번에 씻어버릴까.

賽成方伯求韻

성(成) 방백(方伯)¹⁵³⁾의 청으로 시를 지음

衾裏戈矛杯鴆毒
莫因親昵漏吾微
世間亦有平田地
端坐虛懷泯是非

이불 속에 창칼이 있고 술잔 속에 독이 들었으니
나하고 친하다고 나의 은미한 생각을 누설하지는
마시오.
세간에도 평평한 땅이 있을 것이니
단정히 앉아 마음을 비우고 시비를 소멸시키소서.

謝鑑禪子來訪

감선자의 내방에 감사하며

十年衰病掩柴扉
水遠山長客到稀
林下鳥啼如有思
白雲深處一僧歸

십년 동안의 병고로 사립문을 닫고 지냈더니
물도 멀고 산도 멀어 오는 손님 드물었네.
숲 아래 우는 새도 그리움이 있는 듯
흰 구름 깊은 곳에 한 스님이 찾아오셨네.

152) 하늘 바다: 원래는 통천(通天)이라는 별 이름. 하늘의 별은 각각 맡은 소임이 있
다고 하는데, 통천성은 관개의 일을 맡아서 관장한다고 한다.

153) 방백(方伯): 각 도의 행정책임자였던 관찰사(觀察使)의 별칭이다.

遊龍門晚泊驪江

용문산(龍門山)¹⁵⁴⁾ 가는 길에 날 저물어 여강(驪江)에 배를 대고

數聲長笛散雲窓	몇 가락 긴 피리소리가 구름 보이는 창가로 흩어지고
松上奇禽忽作雙	소나무 위로는 기이한 새가 홀연히 쌍을 이루네.
晚泊孤舟神勒寺	날 저물어 신록사에 외로운 배를 대니
更看明月落秋江	밝은 달이 가을 강으로 떨어지네.

贈白雲處士

백운(白雲) 처사

不是人間不是仙	인간도 아니요 신선도 아니면서
耕山釣月度流年	산을 경작하고 달을 낚으면서 세월을 보내누나.
皇王帝伯非吾事	임금이나 재상과 같은 것은 나와는 무관한 일
蛙鼓蚊雷土榻邊	흙침상 곁 개구리 울음 북소리 같고 모기 소리 우레와 같구나.

賞秋

가을을 완상하다

遠近秋光一樣奇	원근의 가을 빛이 한결같이 기이하기만 한데
閑行長嘯夕陽時	석양 무렵 한가로이 거닐며 길게 시를 읊노라.
滿山紅綠皆精彩	산 가득히 울긋불긋 몹시도 아름답구나,
流水啼禽亦說詩	흐르는 물소리 우는 새소리도 시를 읊는 듯.

154) 용문산(龍門山) :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산으로, 여기에 용문사(龍門寺)라는 유명한 사찰이 있다.

朴上舍草堂

浮雲富貴非留意
蝸角功名豈染情
春日快晴春睡足
臥聽山鳥百般聲

박상사의 초당에서

뜬 구름같은 부귀엘랑 뜻을 두지 아니하거늘
공명을 다투는 데 어찌 마음을 더럽히리.
봄날 맑은 날씨 낮잠을 싹껏 자고 나서
드러누운 채 온갖 산새 소리 들어 보네.

走次朴雲卿韻

我是鸞翔逐彩雲
君爲蘭葉吐奇芬
山林朝市皆天性
一世行藏燕尾分

박운경(朴雲卿)의 시에 운을 맞추어

나는 난새가 되어 오색 구름을 좇고
그대는 난잎이 되어 기이한 향기 내뿜네.
산중이든 저자거리든 모두가 천성에 따른 것이니
일세의 행실이 제비꼬리처럼 분명하리라.

過柯亭有感

新沙已換古沙岸
二水洲中白鷺閑
舟子不知陵谷變
逢人猶道舊江山

과가정(過柯亭)에서 느낀 바 있어

예전 모래 언덕이 새 모래로 바뀐 후
강 가운데 삼각주에 백로가 한가롭구나.
배사공은 지형이 바뀐 줄도 모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전 강산을 묻는구나.

登天王嶺

萬壑泉聲處處聞
奇嶽古木勢難分

천왕령(天王嶺)¹⁵⁵⁾에 올라

골짜기마다 샘물 소리 들려오는데
기이한 바위와 오래된 나무들이 뒤엉켜 있구나.

東行明日咸陽道
回首頭流是白雲

내일은 동쪽 함양¹⁵⁶⁾으로 가려는데
두류산 돌아보니 흰 구름에 뒤덮였네.

還鄉曲

고향으로 돌아옴

曝然放杖天魔走
古路分明脚不差
生死去來爲一貫
囉囉哩哩囉囉

광 하고 주장자 내려놓으니 마귀들이 다 달아나고
옛 길¹⁵⁷⁾이 분명하니 발걸음 틀림 없네.
죽고 살고, 가고 옴이 하나일 뿐이니
라라리리 리라라.

元惠長老

원혜(元惠) 장로에게

八字打開人不識
落花三月睡初醒
一隻碧眼清如水
坐奪乾坤日月明

운명이란 열려 있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꽃 지는 삼월에야 봄잠이 어렴풋이 깨어나네.
물과 같이 맑은 한 쌍의 맑은 눈
앓은 채로 건곤과 일월의 밝음을 빼앗네.

覺行大師

각행(覺行) 대사

雲房高臥遠塵紛
只愛松風不閉門

구름 낀 방에 높이 누워 세속의 먼지를 멀리하나니
다만 솔바람을 좋아하여 문도 닫지 않네.

155) 천왕령(天王嶺) :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시의 내용으로 보아 지리산의 서쪽 지역에 있는 고개 이름인 듯하다.

156) 함양 : 경상남도에 있는 지명. 지리산(일명 두류산)의 서남부에 있다.

157) 옛 길 : 선각자들이 걸어갔던 길.

一柄寒霜三尺劍
爲人提起斬精魂

서릿발같은 세 척 검을 한 손에 쥐고서
세상 사람 위하여 번뇌망상을 베어버리네.

僧兼山水三知己
鶴與雲松一世間
虛寂本心如不識
此生安得此身閑

중과 산과 물의 셋은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요
학과 구름과 솔은 함께 살아가는 벗이라.
텅 비고 고요한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이 몸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으리.

示離幻禪子

이환(離幻) 선자에게

圓頓二門曾立命
曹溪一句亦安身
青山猶唱還鄉曲
定是禪家休歇人

일찍이 원교와 돈교¹⁵⁸⁾ 두 공부에 뜻을 두었고
조계의 한 구절¹⁵⁹⁾에 또한 몸을 편안히 하였네.
청산에서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온 노래를 부르니
정녕코 선가의 휴식하는 사람이라.

眞如鏡上鼓心機
寂滅海中翻識浪
一喝倒鋒生死軍
太虛自在飛青杖

진여의 거울 위에서 마음이 고동치고
적멸의 바다 속에서 식¹⁶⁰⁾의 물결 출렁이네.
한마디 고함으로 생사의 군사를 물리치니
태허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나다니네.

一生無事臥雲間
却笑東坡半日閑
得失是非都放下

일생을 일 없이 구름 사이에 편안히 사니
소동파의 반나절 한가로움을 비웃노라.
시비와 득실을 다 버리고

158) 원교와 돈교 : 원교는 치우침 없이 진리를 원만하게 갖춘 가르침, 돈교는 점차적
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진리를 터득하게 하는 가르침이란 뜻이다.

159) 조계의 한 구절 : 육조 혜능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160) 식(識) : 팔식,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개념으로 번뇌의 근원이 된다.

戲牽跛鼈載三山

세 산을 짊어진 느림보 자라¹⁶¹⁾를 장난삼아 이끌어 보네.

登高望海

높이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虛空無內亦無外

허공은 안도 밖도 없으니

南北東西逐妄知

동서남북이란 망령된 생각일 뿐.

春秋風月伸還屈

봄과 가을, 바람과 달은 순환을 거듭하는데

五岳滄溟一髮吹

큰 산과 넓은 바다는 터럭 하나 날리는 듯 같구나.

次允大師韻

윤(允) 대사 시의 운에 맞추어

對面何論格外禪

무엇 하러 얼굴 마주하고서 격외선¹⁶²⁾을 논하리오?

一眉新月挂青天

눈썹 같은 새 달이 푸른 하늘에 걸렸거늘.

海爲硯水山爲筆

바다를 먹물로 삼고 산을 붓으로 삼더라도

難寫胸中無盡篇

가슴 속 무진장한 생각들을 다 적을 수 없으리.

目擊昭然一味禪

일미선¹⁶³⁾을 분명히 보았지

入窓松月正當天

창문으로 보이는 소나무의 달 하늘에 떠 있네.

始知此性離文字

이제사 이놈의 성품이 문자를 떠나 있음을 알겠거니

枉向華嚴讀萬篇

쓸데없이 화엄경을 만 번이나 읽었구나.

161) 동해에 신선이 산다는 세 산이 있는데, 상제가 자라를 시켜 세 산을 떠받치게 하였다 한다.

162) 격외선(格外禪): 언어와 논리의 형식을 벗어난 선 수행법.

163) 일미선(一味禪): 언어문자에 의하지 않고 한 순간에 깨달음을 얻는 선 수행법.

書退溪卷

퇴계(退溪)¹⁶⁴ 선생의 책에 쓰다

伏羲數理三才主

주역의 이치는 천지의 주인이고

孔子綱常萬世師

공자의 윤리는 만세의 스승이라.

忠恕敬誠公已達

충(忠)과 서(恕)와 경(敬)과 성(誠)¹⁶⁵을 당신 이미
통달하였으니

海東天地一男兒

해동 천지에 진정한 남아로다.

上教師

가르치는 선생에게 올림

未明自己外邊走

자기도 밝히지 못하면서 바깥으로 내달리며

妄作人師慙宇宙

망령되어 남의 스승이 되어 세상을 부끄럽게 하
도다.

血脈不知宗眼無

맥락도 알지 못하고 안목도 없으니

一生安得斷言句

한 평생 한 마디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贈別壽禪師之頭流

두류산으로 떠나는 수(壽) 선사(禪師)를 보내며

禪子晞陽人也. 其生於世也 後乎吾生之七年也, 年纔八九 與我同事于
頭流山德庵先師 操拔簪立師之門庭者 尚至於三十年 可謂所得非一也.
先師亦以善應機鋒 愛而重之.

丁卯春 余辭退 遊歷諸方 至於妙香山 病臥三年, 不幸 先師忽焉厭世
甌蓮鏡蛇 禍孽多端 千里訃音 一朝歟至 徒自哀哀哭 望天涯而已. 禪子

164) 퇴계(退溪): 조선 시대 최고의 유학자로 인정 받는 이황(1501~1570)의 호.

165) 충(忠)과 서(恕)와 경(敬)과 성(誠): 유학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於是收靈骨 豎浮屠。

喪已終事已畢 端坐虛室 寂若忘生，一日忽覺尋思之囑 禮辭靈龕 足繭千里訪我於香山北麓之茅庵。初相見 各無一語，良久拭淚畢 忽驚兩頭俱白 重重太息。因結四夏 同甘粥飯 往往開吐竹馬事 亦老病中 一啓齒也。然禪子之生涯在南 不得久住 今日告歸 索我一語 云懃懃懇懇 遂不已。吁！臨別感懷 古人形於紙墨者多矣，余豈獨無慨然哉。況禪子之於我也 於義則有兄弟之親 於法則有師資之分，情鍾莫逆恩愛綢繆者 古今希有也。

雖予伏枕鳴鳴蜂管蠹毛也 久則久矣，然當此送別 情不自抑 不經意而強揮之三絕句，乃情也 非詩也。所謂百年肺肝千里面目者以此。

스님은 회양(睇陽)¹⁶⁶ 사람이다. 그는 나보다 7년 뒤에 태어났는데, 나이 겨우 8,9세일 때 나와 함께 두류산 덕암(德庵)¹⁶⁷ 스님을 모시면서 스승의 곁에 머문지 30년이나 되었으니 얻은 바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스승 또한 수행을 잘 지도하며 애지중지하였다.

1567년 봄에 나는 승직을 물러나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묘향산에 이르러 몸이 좋지 않아 3년을 머물렀는데, 불행히도 스승이 홀연히 세상을 떠나 시자 천 리 밖에서 부음을 듣고 하루 아침에 달려가니 모두가 슬피 울며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스님은 이에 사리를 수습하고 부도를 세웠다.

상 치르는 일이 끝나자 빈 방에 단정히 앉아 마치 삶을 잊은 듯이 고요하더니, 하루는 자세히 잘 살피 공부하라는 부탁을 생각해 내고 스승의 사리탑에 예를 올리고는 말바닥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천 리 길을 달려 묘향산 북쪽 기슭에 있는 나의 암자로 찾아왔다. 처음에 서로 만나 아무 말도 없다가, 한참 만에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의 백발에 놀라와하며 거듭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4년 동안 죽을 달게 먹고 지내며 왕왕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늙고 병든 중의 한 가지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스님의 생활기반이 남쪽에 있었으므로 더 이상 오래 머물지 못하고

166) 회양(睇陽) : 전라남도 광양시의 옛 이름.

167) 덕암(德庵) : 휴정이 1534년(15세)에 과거에 낙방한 뒤 곧바로 지리산으로 들어가 출가를 하여 승인(崇仁)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였다. 덕암스님은 승인스님의 호일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 돌아가신다고 하기에 내가 한 마디 말을 찾아 깊은 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 이별하는 감회를 글로 적은 이가 예부터 많았으니, 난들 어찌 울컥한 마음이 없겠는가. 하물며, 스님은 나에게 의리로는 형제와 같은 친함이 있고 도에 있어서는 함께 배운 사이이니, 이처럼 정과 은혜가 깊은 경우는 고금에 드물 것이다.

비록 내가 벌이나 좀벌레처럼 깡깡대며 병들어 누워지낸 것이 오래 되었으나, 이 송별의 때를 당하여 정을 억누를 길이 없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세수의 시를 휘갈겨 쓰니, 이것은 정이지 시가 아니다. 이른바 백년 동안 속 깊이 생각해 온 사람을 천 리 밖으로 떠나보낸다는 것이다.

臨別匆匆說不盡
索然相顧更遲遲
平林漠漠烟如織
鶴影飄飄獨往時

이별에 임하여 하고 싶은 말 다하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뒤돌아보며 머뭇거리네.
숲에는 끝없는 안개 자욱히 끼고
학 그림자는 홀로 훨훨 날아가는데.

香山已禮先師了
月入清江上下天
晝燭一雙今更寄
須依世諦奠靈前

묘향산에서 스승에게 인사 드리니
달이 맑은 강에 비치어 상하가 다 하늘이었지.
촛불 한 쌍 오늘 다시 맡기노니
세속에서 하듯이 제사 올리소서.

寂寞緇門事可悲
人生浮幻轉於戲
南方若欲傳禪旨
須及山僧未死時

적막한 불가의 일 서글퍼라
물거품같은 인생이 장난보다 더하구나.
남방에 선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한다면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하리라.

自嘲

스스로를 조롱함

祖師深旨落言詮

조사의 깊은 뜻이 언구에 떨어졌으니

悔讀緇門勉學篇
草履拋來東海外
蓬萊猶在短筇邊

『치문(緇門)』¹⁶⁸⁾의 「면학」편 읽은 것이 후회스럽네.
동해 바깥으로 짚신을 내던져 버렸으나
봉래산은 여전히 지팡이 끝에 있구나.

偶吟

우연히 읊음

山川日月是唐虞
濟世無才稱丈夫
一筆寫成還抹却
低頭抱膝暗長吁

산천과 일월은 예부터 있던 것인데
세상을 구할 재주도 없는 이를 장부라 칭할손가?
붓 들어 한번 썼다가는 도로 지우고
무릎 안고 고개 숙여 남몰래 긴 한숨을 쉰다.

送蟾禪子之鑑湖

섬(蟾) 선자를 감호(鑑湖)¹⁶⁹⁾로 보내며

年來無事自閑居
看盡西來貝葉書
若問山中何所有
鑑湖明月照清虛

근자에는 일 없이 한가로이 지내면서
서쪽에서 온 불전을 두루 읽었네.
산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감호의 밝은 달이 청허(淸虛)¹⁷⁰⁾를 비춘다고 하리라.

水澄儵白月
雲捲露青山

물이 맑아 흰 달을 훑치고
구름 걷히자 푸른 산이 드러나네.

168) 『치문(緇門)』: 『치문경훈(緇門警訓)』을 간단히 일컫는 명칭. 승려들이 공부하는 데 교훈으로 삼을 만한 고승들의 글을 모아 엮은 책으로, 조선조 불교의 기본 교재로 쓰였다.

169) 감호(鑑湖): 금강산에 있는 호수 이름. 동해 바다와 바로 접한 곳에 있다.

170) 청허(淸虛): 작자 자신의 호.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맑고 텅빔'이라는 의미도 함축한다.

清虛賓子鑑湖主
惆悵賓閑主不閑

청허는 손님이요 감호는 주인인데
슬프도다, 손님은 한가롭고 주인은 한가롭지 않
으니.

書懷

회포를 적다

志欲青年分孔釋
着工心地死前休
光陰箭疾身多病
一事無成空白頭

의지에 충만했던 청년은 공자와 석가를 구분하였
으니
공부하려는 마음은 죽어서야 쉬리라.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고 몸은 병만 많은데
이룬 일 하나 없이 머리만 세었도다.

招白雲子

흰구름을 부른다

白雲子白雲子
何年何日入青山
雖言本是山中物
恨逐清風久不還

흰구름이여 흰구름이여
어느 해 어느 날에 청산에 들어왔는지?
비록 본래는 산중의 것이라 하겠지만
맑은 바람 따라갔다가 오래토록 돌아오지 않는
것을!

寄新庵主人新庵禪子

신암(新庵) 주인 경선(新庵) 선자에게 드림

老僧寄語新庵主
外客來時莫等閑

노승이 신암의 주인에게 한 말씀 드리노니
바깥 손님 오실 때에 소홀히 하지 마소서.

山與一身雖不動
白雲流水到人間

산과 내 몸 움직이지 않아도
흰구름과 흐르는 물이 사람에게 오지요.

因事有感

어떤 일로 인하여 느낌이 있어

儒釋虛名紛指馬

유교니 불교니 하는 헛된 이름으로 잡다하게 시비를 벌이니

山林朝市各酸然

산 속이나 조정이나 저자, 어디에 있건 피곤할 뿐이라.

由來至道離文字

지극한 도는 문자를 떠나 있거늘

今日無言政合天

오늘의 말 없음이 정녕 자연에 합치되리라.

人世是非何日已

인간 세상의 시비는 어느 때에나 그치려나

一身生計可愴然

이 한 몸의 살아갈 계책이 참 고달플 따름이라.

青山若也年年長

청산은 년년세세 오래토록 존속할지라도

太白老夫應上天

태백노인¹⁷¹⁾은 하늘로 올라가리라.

法藏大師

법장대사(法藏大師)¹⁷²⁾

斫來無影樹

그림자 없는 나무를 베어

燋盡水中漚

물 속의 거품을 다 태우네.

可笑騎牛者

우습도다 소를 탄 사람이여

騎牛更覓牛

소를 타고서 또 소를 찾다니!

171) 태백노인 : 자를 ‘태백(太白)’이라 하였던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백은 신선술을 닦았으며, 시에 하늘로 신선이 되어 올라가기를 염원하는 내용이 많다.

上滄海

창해 양사언에게 드림

秋風兮吹衣

가을 바람이 옷에 불어오고

夕鳥兮爭還

저녁새는 다투어 돌아오네.

美人兮不來

아름다운 사람은 오지 않고

明月兮空山

고요한 산에 밝은 달만 솟았네.

松寒兮竹冷

차가운 소나무와 서늘한 대나무여

月出兮天邊

하늘 끝에 달이 솟네.

幽人兮夜坐

은자는 밤중에 앉아

顧影兮自憐

자기 그림자 돌아보며 가없이 여기네.

題檜岩方丈(示住持) 회암(檜岩) 방장에 쓰다(주지에게 보임)

白的的青寥寥

명명백백하고 끝없이 넓고 푸르며

空索索赤條條

아무 것도 없이 텅 비고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咄是何境界

어잇! 이게 무슨 경계이고?

原頭多草色

들판에 풀빛이 무성하니

野火不能燒

들불도 태우지 못하리라.

-
- 172) 법장대사(法藏大師) : 법장대사는 중국 화엄학의 대가였던 법장 현수(賢首, 643~712)와 조선 초기의 승려 법장(1351~1428)이 있다. 시의 내용이 선적인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의 법장인 것으로 보인다(법장은 고려 말 유명한 선승이었던 나옹화상의 제자였다). 이 시는 휴정이 제자인 소요(逍遙) 태능(太能)을 가르칠 때 일종의 화두처럼 탐구할 문제로 내어주었다고 전한다.

德峻禪子

月波翻石壁
 松籟送清音
 於斯若不會
 辜負老婆心
 良久云
 卽今休去便休去
 若覓了時無了時

덕준(德峻) 선자

달빛 어린 물결이 석벽에 부딪치고
 소나무에서는 맑은 소리 보내오네.
 여기에서 알아채지 못한다면
 늙은이의 염려를 저버리게 되리라.
 잠시 후 말하기를,
 지금 마음을 쉰다면 곧바로 쉬어질 것이며
 만약에 찾으려고 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라.

示義天禪子

火裏生蓮雖好手
 爭如千劍日中行
 山僧指示無端的
 斬却心頭辦死生
 定眼三年能射蝨
 凝神五月可粘禪
 山僧日用無多子
 念念常看火裏蓮

의천(義天) 선자에게

불 속에 연꽃을 피우는 것은 훌륭한 솜씨이지만
 어찌 천 개의 검 속을 하루 종일 다니는 것에 비
 하라.
 산승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단서도 없으니
 죽고 삶에 대한 생각을 끊어버리시오.
 눈빛을 고정한지 삼 년이면 이를 활로 쏘아 맞힐
 수 있고
 정신을 모은지 다섯 달이면 매미를 마음대로 붙
 잡을 수 있지.
 산승이 날마다 쓰는 것은 별 게 없어
 생각마다 불 속에 피어나는 연꽃을 볼 뿐.

登香爐峯

향로봉(香爐峯)에 올라¹⁷³⁾

萬國都城如蟻室
 千家豪傑若疏鷄
 一窓明月清虛枕
 無限松風韻不齊

만국의 도성은 개미독과도 같고
 천 나라의 호걸은 초파리와도 같도다.
 창 하나에 비치는 밝은 달빛을 청허가 베고 누웠
 더니
 무한한 솔바람 소리가 가지런하지 않구나.

贈熙長老

희(熙) 장로에게 드림

十年端坐擁心城
 慣得深林鳥不驚
 昨夜松潭風雨惡
 魚生一角鶴三聲

십년토록 단정히 앉아 마음의 성을 지키시니
 깊은 숲의 새도 익숙해져 놀라지 않네.
 어제 밤 소나무 드리운 연못에 비바람 거세더니
 물고기에 뿔이 돋고 학이 세 번 울었네.

贈印英大師

인영(印英)¹⁷⁴⁾ 대사에게 드림

西來這一曲
 千古沒人知
 韻出青霄外
 風雲作子期

서쪽에서 온 이 한 곡조
 천고에 아는 사람 없구나.
 푸른 하늘 저 멀리 울려 퍼지니
 바람과 구름만이 알아주네.

173) 휴정이 1577년(38세)에 금강산·지리산·태백산·오대산 등으로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묘향산이었다. 이 시는 묘향산의 향로봉에서 지어진 것인데, 이 시의 내용에 왕권에 대한 반란의 뜻이 있다는 무고가 들어가 한때 구금당하기도 하였으나,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왕이 도리어 사과의 뜻으로 대나무 그림을 하사하였다.

174) 인영(印英) : 휴정의 제자.

臨終偈

千計萬思量
烘爐一點雪
泥牛水上行
大地虛空裂

임종계

천 번 생각하고 만 번 헤아림이
불타는 화로에 한 점 눈이 되었네.
진흙소가 물 위를 걸어다니고
대지와 허공이 찢어지네.



一禪 일선

【靜觀集 정관집】



話頭鳥

各各話頭鳥
時時勸話頭
禪窓終夜臥
聞此可無羞

화두새

각각의 화두새가
수시로 화두를 권하네.
참선하는 창문 가에 밤새도록 누워
이를 듣고 있으면 부끄럽지 아니하라!

贈盲聾禪老

不聞聞自性
無見見眞心
心性都忘處
虛明水月臨

맹롱(盲聾) 노선사에게 드림

듣지 않으면 자성(自性)을 듣고
보지 않으면 진심(眞心)을 보네.
자성과 진심일랑 모두를 잊은 곳에
텅 비고 밝은 물과 달을 만나리라.

臨終偈

三尺吹毛劍
多年北斗藏
太虛雲散盡
始得露鋒鋩

임종계

세 척의 취모검
여러 해 동안 북두성에 감춰져 있다가
태허(太虛)에 구름 다 흩어지고 나니
비로소 그 칼날 드러나누나.

不忘記

世間何有所
身外更無餘

불망기-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글

이 세상에 가진 게 무엇이 있나?
몸 밖에는 더 남은 게 없구나.

四大終離散
快如登太虛

이 몸마져 다 흩어져 버리고 나면
태허(太虛)에 오른 듯이 상쾌하리라.

山堂雨後

雨收南岳捲青嵐
山色依然對古菴
獨坐靜觀心思淨
半生肩掛七斤衫

산 속 집에 비 온 후

비 그친 남쪽 산줄기에 푸른 기운 몰려가니
산색은 의연하게 옛 암자를 마주하네.
홀로 앉아 고요히 살펴보니 마음과 생각 맑아지
나니
어깨에 일곱 근 장삼 걸치고 반 평생을 살았구나.

夜坐

風清月白夜塘寒
坐對孤燈意自閒
一顆靈珠光粲爛
更於何處問心安

밤 깊도록 앉아서

바람 맑고 달 밝은데 밤 연못 차가웁고
외로운 등불 마주하니 생각 절로 한가롭네.
한 알의 신령한 구슬 찬란하게 빛나는데
다시 어디에서 마음의 편안함을 물으리오?

贈俊道人

揚眉瞬目非臻妙
對面熙怡亦未堪
爭似一生無事漢
春秋長臥碧雲菴

준(俊) 도인에게 드림

눈썹을 치켜올리고 눈을 껌쩍거린다고 깨치는 것
이 아니고
얼굴을 마주하여 희희낙락한다고 될 일도 아니라.
어찌 일생 동안 일 없는 사나이가 되어서
일 년 내내 푸른 구름 속의 암자에 누워 지냄만 하리?

古寺

오래된 절

客尋蕭寺正春天
 煮茗岩前起夕煙
 古塔隔林人不管
 暮鴉飛入白雲邊

봄날에 나그네 스산한 절을 찾아서
 바위 앞에서 차를 끓이니 저녁연기 피어오르네.
 사람들이 내버려 둔 숲 저쪽의 오래된 탑
 저물녘 까마귀가 흰 구름 곁으로 날아 들어가네.

贈詩僧

시승(詩僧)에게 드림

翫水看山虛送日
 吟風詠月謾勞神
 豁然悟得西來意
 方是名爲出世人

물을 즐기고 산을 보며 세월을 허송하고
 바람을 읊고 달을 노래하며 정신을 수고롭게 하
 도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활연히 깨닫고 나면
 비로소 세상을 벗어난 이라 이름할 수 있으리.

贈盲禪者

맹목적으로 참선하는 이에게 드림

不見色時還見性
 不聞聲處反聞心
 不用肉眼通沙界
 那律佳名播古今

색을 보지 않을 때에 도리어 성품을 보고
 소리를 듣지 않는 곳에서 도리어 마음을 듣도다.
 육안을 쓰지 않아야 모래알같은 세계와 통하나니
 아나율¹⁾의 아름다운 이름이 고금에 퍼져 있네.

1) 아나율 :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한 사람. 부처님 앞에서 자다가 꾸지람을 들은
 후 여러 날을 자지 않고 수행하다 눈이 멀었으나 나중에 천안통(天眼通)을 얻게
 되었다.

偶吟

竹院春風特地寒
 沈吟長坐小欄干
 沒絃琴上知音少
 獨抱梧桐月下彈

우연히

대숲 속의 절간에 봄바람조차 싸늘한데
 작은 난간에 오래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네.
 줄 없는 거문고²⁾ 알아주는 사람 적은데
 홀로 오동나무³⁾ 안고서 달 아래 텅겨 보네.

贈芝禪客

優游超物外
 自在度朝昏
 足踏千山月
 身隨萬里雲
 本無人我見
 那有是非門
 鳥不舍花至
 春風空自芬

지(芝) 선객(禪客)에게 드림

세속을 벗어나 유유자적하노니
 자유롭게 아침 저녁 지내네.
 발은 천 산의 달을 보며 다니고
 몸은 만 리의 구름을 따랐네.
 본래는 나와 남도 없는데
 시비의 문이 어찌 있으리오?
 새는 꽃을 물고 오지도 않는데
 봄바람만 부질없이 따스하구나.

贈觀禪子

靜坐南臺上
 觀空不是空
 勿拘聲色外

관(觀) 선자(禪子)에게

남쪽 대 위에 고요히 앉아
 공(空)이 공 아님을 관하고 있네.
 소리와 빛깔 그 너머에도 구애되지 말지니

2) 줄 없는 거문고 : 상식이나 사랑분별을 넘어선 불립문자의 세계를 상징한다.

3) 오동나무 : 보통 거문고는 오동나무로 만든다.

寧墮見聞中
湛湛秋潭月
亭亭雪嶺松
玄關搥擊碎
方得震禪風

어찌 보고 듣는 가운데 떨어지리오?
고요하고 맑은 가을 연못의 달이어
눈 덮인 고개의 우뚝한 소나무로다.
깊은 관문을 때려 부수고 나면
비로소 선의 기풍을 떨치리라.

題七佛菴

寺在頭流般若東
月明金殿影玲瓏
香消瑞靄飛庭榻
夢覺疎鍾落晚風

青鶴不來青鶴洞
白雲長鎖白雲峯
石門遠見雙溪下
秋色依微一望中

칠불암(七佛菴)⁴⁾

두류산 반야봉 동쪽에 절이 있으니
달 밝은 법당 달빛도 영롱하네.
향기 녹은 상서로운 안개는 뜰 앞에 날고
꿈을 깨고 보니 드문 종소리 저녁 바람 속으로 떨
어지네.

푸른 학이 오지 않는 청학동(靑鶴洞)이요
흰구름에 늘 둘러싸인 백운봉(白雲峯)이로다.
석문(石門)에서 멀리 쌍계⁵⁾아래로 보니
희미한 가을빛이 어려 있네.

行路難

早脫紅塵出故關
芒鞋踏破遍名山

세상 살이의 어려움

일찍이 붉은 먼지 벗어나서 고향을 떠나
짚신 신고 이름난 산들을 두루 다녔네.

4) 칠불암(七佛菴) : 경상남도 하동군 지리산 쌍계사(雙溪寺)에 부속된 암자.

5) 칠불암 아래 쪽으로 두 줄기 계곡물이 흘러 '쌍계'라고 하며, 그 아래 쪽에 쌍계사가 있다.

昔年秋月隨雲去
 今日春風渡水還
 肉味那知蔬味苦
 錦衣誰識衲衣寒
 欲歸故園煙霞裏
 萬里悠悠行路難

예전엔 가을 달 아래 구름 따라 떠났다가
 오늘은 봄바람에 물을 건너 돌아왔네.
 고기맛을 아는 자가 어찌 나물의 쓴맛을 알며
 비단 옷을 입는 자가 누더기옷 추운 줄을 누가
 알까?
 고향의 안개와 노을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만리 길 멀고 멀어 가는 길이 힘겹도다.

贈禪者

出家須是出凡流
 一鉢身隨萬事休
 物外煙霞心已契
 人間榮辱意何求
 悠悠歲月逍遙遣
 處處山川自在遊
 欲向語言知自性
 還如撥火覓浮漚

참선 수행자에게

출가를 하였다면 평범한 무리에서 벗어나야 하니
 몸에는 발우 하나만 가지고 만사를 쉬어야지.
 세상 바깥의 안개와 노을이 마음에 맞으니
 인간세계 영욕에서 무슨 뜻을 구하랴?
 유유한 세월에 소요자적하며 보내나니
 곳곳의 산천에 자유롭게 노닐다네.
 말에서 자성(自性)을 알고자 한다면
 마치 불을 피우면서 뜬 거품을 찾음과 같으리.

本源自性天真佛

妙性頭頭本現成
 青黃紅白萬般形
 山元默默天元碧
 水自澄澄月自明

본원자성(本源自性)이 참된 부처

묘한 자성이 사물마다 드러나
 청황홍백 만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네.
 산은 원래 묵묵하고 하늘은 원래 푸르며
 물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다네.

春到燕來秋便去
夜深人寢曉還惺
鶴長龜短天真體
陌上農歌是太平

봄이 오면 제비 오고 가을이면 다시 가며
밤 깊으면 사람이 자고 새벽이면 다시 깨어나네.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는 짧은 것이 참된 몸이니
논두렁에 농부들의 노래가 태평함이로다.

行脚歸故山

髫年早出家
投佛剃鬚髮
奉律備三衣
行藏唯一鉢

身隨萬里雲
足踏千山月
撥草訪明師
尋眞求聖轍
參禪通祖關
學道繼賢哲

口裏誦千經
囊中無一物
遍遊名勝區
歸臥故岩窟
竹院綠陰清

행각을 다니다가 원래 산으로 돌아와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를 하여
불가에 투신하여 머리를 깎았네.
계율을 받들어 세 가지 옷⁶⁾ 갖추었고
어디를 가든 가지고 다니는 것은 발우 하나뿐이라.

몸은 만리의 구름을 따르고
발은 천 산의 달을 밟았지.
무명(無明)의 풀을 뽑으려 눈 밝은 스승을 방문하고
진리를 찾아 성인(聖人)이 갔던 길을 따라갔지.
참선은 조사의 관문으로 통하고
도를 배움은 지혜로운 이를 계승하네.

입으로는 천 가지 경을 외우지만
보따리에는 아무 것도 없다네.
좋은 곳을 두루 다녀보다가
예전에 있던 바위굴로 돌아와 누웠더니
대숲 속 절간에는 푸른 그늘이 맑고

6) 세 가지 옷 :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입는 옷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대의(大衣)와 상의(上衣), 중의(中衣).

梅窓疎影沒

매화 핀 창문은 성근 그림자에 묻히네.

清風吹故園

맑은 바람이 옛 뜰에 불어오고

白日照虛室

밝은 해는 텅빈 방을 비추네.

春谷鳥含花

봄의 골짜기에 새는 꽃을 물었고

秋林猿摘實

가을의 숲에는 원숭이가 열매를 따네.

床寒夜漏長

침상이 차가우니 밤 시간이 길기만 하고

更盡爐香歇

밤이 다하니 화로에 향도 꺼졌구나.

洞府曉雲深

골짜기에 새벽 구름이 깊고

岩扉人跡絕

바위 사이 사립문엔 인적이 끊기었네.

寥寥合性空

텅 빔은 자성의 공함과 합치하고

寂寂契眞滅

고요함은 참된 소멸⁷⁾과 들어맞네.

渴後汲寒泉

목 마르면 차가운 샘물을 길러오고

飢來收凍栗

배고프면 언 밤을 주워오네.

深林歸暮禽

깊은 숲으로 돌아오는 저녁 새

微暎照斜日

떨어지는 석양빛이 작은 오솔길을 비추네.

無物作生涯

살아갈 아무런 물건도 없고

孤燈爲計活

외로운 등불만이 살아갈 계책이라.

白雲誰共遊

흰 구름 속에서 누구와 함께 노닐 것인가?

松月自怡悅

소나무에 걸린 달을 보고 스스로 즐거워하도다.

7) 소멸 : 열반과 같은 의미이다.



善修 선수

◀浮休堂大師集 부휴당대사집▶



贈華禪伯

解脫非眞寶
涅槃豈妙心
電光追不及
兒輩謾勞尋

佛法無多字
忘言須會宗
頂門開活眼
魔外自歸降

화(華) 선백(禪伯)에게 드림

해탈도 참된 보배가 아닐진대
열반이 어찌 묘한 마음이 되리?
번갯불이란 따라가도 미치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쓸데없이 고생하며 찾는구나.

불법이란 많은 글자가 필요하지 않으니
말을 잊고 핵심을 알아야만 하리.
정수리에 살아있는 눈이 열리면
마귀와 외도가 스스로 항복하리.

望鄉

千里望家鄉
歸心日夜忙
故山何處在
雲水更茫茫

고향을 바라보며

천 리 고향을 바라보니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밤낮으로 바쁘구나.
고향의 산은 어디에 있는지?
구름과 물이 아득하고 아득하네.

贈和法師

當機開活眼
應物振玄風
更踏毘盧頂
蓮花出火中

화(和) 법사(法師)에게 드림

기틀을 당하여 살아있는 눈을 열고
사물에 응하여 깊은 기풍을 떨치네.
다시 비로자나의 정수리를 밟으면
연꽃이 불길 속에서 피어나리라.

萬里乾坤路
生涯在一囊
都忘身世了
隨處弄青黃

하늘과 땅 사이 만 리의 길
생애는 자루 하나 속에 있구나.
몸과 세상을 다 잊고 나면
가는 곳마다 청색 황색 희롱하리.

雉嶽山上院

雁塔庭中古
松風洞裏寒
鍾聲驚醉夢
燈火報晨昏
掃地清人骨
焚香淨客魂
不眠過夜半
窓外雪紛紛

치악산(雉嶽山) 상원사(上院寺)¹⁾에서

뜰 가운데 탑은 오래되었고
골짜기에 솔바람은 차갑구나.
종소리는 취한 잠을 깨우고
등불은 새벽과 저녁을 알리네.
마당을 쓸면 사람의 뼈가 맑아지고
향을 피우면 나그네의 혼이 맑아지네.
잠 못 이루는 깊은 밤
창 밖에 눈이 펄펄 내리는구나.

次覺林懸板韻

山深野色斷
溪近水聲連
月隱峰頭樹
烟生林下泉
庭松含古態

각림사(覺林寺)²⁾ 현판에 있는 시의 운을 따라

산이 깊으니 들도 보이지 않고
계곡물이 가까우니 물 소리 이어지네.
달은 봉우리 나무 사이로 숨고
안개는 숲 아래 샘물에서 생겨나네.
뜰 앞의 소나무는 오래된 자태를 머금었고

1) 상원사(上院寺) :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남대봉 아래에 있는 절.

2) 각림사(覺林寺) :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동쪽에 있었던 절.

春鳥報新年
獨倚南軒臥
清風起暮天

봄 새는 새 해를 알린다.
홀로 남쪽 난간에 기대어 누웠더니
저녁 하늘에 맑은 바람이 일어나네.

次月精寺韻

江湖萬里客
落日獨憑欄
山影沈江倒
春禽帶暮還
鄉愁天外散
歸意此中寬
縹緲烟霞裏
巉巖幾百盤

五臺山下路
日暮步遲遲
入院渾忘世
登樓却憶師
鍾聲雲裏寺
松影月中危
到處心凝定
禪關久不移

월정사(月精寺)³⁾에서

강호의 만 리 나그네
해 떨어져 홀로 난간에 기대었네.
산 그림자는 강에 거꾸로 잠기었고
봄 새는 저녁이 되자 돌아오네.
향수는 하늘 멀리 흩어지고
이곳에선 돌아가고픈 마음 느긋해지네.
아득한 안개 속에
수백 개의 우뚝한 바위 봉우리.

오대산 산 아래의 길
어두워질 무렵 걸음은 더 늦어지네.
절에 들어서면 세상을 모조리 다 잊고
누각에 오르면 문득 스승이 생각나네.
구름 속 절에선 종소리 들리고
소나무 그림자는 달빛 속에 우뚝하구나.
가는 곳마다 마음이 선정에 드니
수행의 자세 흔들림 없네.

3) 월정사(月精寺) :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五臺山)에 있는 절.

次右慶樓韻

含月山有寺
 雲深水重重
 月映庭中塔
 風鳴樓上鍾
 夜靜夢魂斷
 興多詩思濃
 岸巾吟一絕
 白髮轉鬢鬆

우경루(右慶樓)⁴⁾에서

함월산(含月山)에 절이 있어
 구름 깊고 물도 겹겹
 달은 뜰 가운데 탑을 비추고
 바람은 누각 위의 종을 울리네.
 밤이 고요하니 잠도 오질 않는데
 감흥이 넘치어 시상(詩想)이 짙어지네.
 두건을 벗고 시 한 수 읊자니
 흰 머리칼 더욱 형클어지네.

次李相韻贈文道人 문(文) 도인(道人)에게

客裏還逢客
 談懷日欲傾
 心閑能外世
 年老已忘形
 磨業塵緣靜
 凝神道眼明
 想知常宴坐
 返照自心經

나그네가 나그네를 만나
 회포를 이야기하노라니 해가 기울려 하네.
 마음이 한가로와 능히 세상을 벗어나고
 나이가 늙어 이미 몸을 잊으며
 업을 소멸시키니 세속의 인연이 고요해지고
 정신을 모으니 도안(道眼)이 밝아지네.
 생각건대 틀림없이 항상 편안히 앉아
 자기 마음의 경전을 돌이켜 비취보는가 보네.

4) 우경루(右慶樓) : 경주에 있던 사천왕사(四天王寺)의 누각을 일컫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천왕사는 금당을 중심으로 동탑·서탑이 있고, 북방으로는 좌경루(左經樓)·우경루(右經樓)가 있어서 마치 본존불(本尊佛)이 안치된 금당을 중심으로 사천왕이 배치된 것과 같은 특이한 가람형태를 이루었다. 사천왕사는 정확하게는 낭산(狼山)에 있으나, 시 내용에 나오는 함월산은 낭산과 인근해 있는 산이다.

次熙師韻

희(熙)⁵⁾ 스님에게

松花長作食	송화가루로 늘 식사를 해 왔고
荷葉過殘年	연잎으로 남은 인생 보낼까 하오.
立志如山嶽	산과 같이 뜻을 세우고
安心似海天	바다처럼 마음 편안히 했네.
常懷求道念	항상 도를 찾는 마음을 품었고
不滯止啼錢	울음 그치게 하는 돈 ⁶⁾ 에 머물지 않았네.
若到心空處	만약 마음이 비는 곳에 이른다면
同塵隨世緣	세속으로 들어가 세상 인연을 따르리라.

挽松雲章

송운(松雲)⁷⁾의 입적을 애도하며

高臥蓬萊杳靄間	봉래산 아지랑이 속에 자유롭게 살다가
聞兇入境出深山	흉도가 들어왔다 하니 깊은 산을 나와서
忘身爲國輸忠節	몸을 잊고 나라 위해 충절을 지키었고
渡海和戎濟世難	바다 건너 화친 맺어 세상을 구제했네.
長在轅門心自適	군문(軍門)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평온했고

5) 희(熙) : 부휴당 선수의 제자인 희언(熙彦, 1561~1647)을 가리키는 듯하다. 희언은 부휴당의 법을 잇는 7대 문파의 하나를 형성하였다.

6) 울음 그치게 하는 돈 : 어린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수단으로 누른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속이는 방법. 선수행에서 하나의 수단방법을 가지고는 움직일 수 없는 학인에 대하여 다른 공부로 옮겨가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거짓으로 통과했다고 하여 허가하는 일. 임시 방편.

7) 송운(松雲, 1544~1610) : 휴정의 제자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을 이끌고 출전하였고,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포로를 송환해 오는 등 많은 공을 세웠다. 법명은 유정(惟政)이며, 호는 사명당(四溟堂) 혹은 송운이라 하였다. 송운과 부휴당은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승려로서 각별한 교유를 나누었다.

常遊宦路意猶閑
死生有數存亡隔
相見唯期換舊顏

벼슬길에 노닐어도 생각은 한가로왔네
죽고 사는 일 운명이라 생사가 갈렸으나
다시 서로 만날 때면 옛 모습 바뀌었으면.

半百年間逢世亂
戎衣幾夜宿江村
親臨矢石心無劫
功被生民德益尊
已矣海幢從此倒
嗟哉密旨向誰聞
秋天相見君知否
又送門人慰遠魂

반 백년 세월 동안 세상의 난리 만나
군복 입고 강촌에서 지낸 것이 몇 밤이나 될까.
화살과 돌을 보고도 겁을 내지 아니하니
공로가 백성에 미쳐 덕망 더욱 높아라.
바다의 깃발 넘어지고 말았으니
아아, 오묘한 뜻 누구에게 물어보리.
가을 날 서로 본 걸 그대는 아는가
다시 문인(門人) 보내어 먼 영혼을 위로하노라.

次山影樓題

산영루(山影樓)⁸⁾에서

千年檜影溪邊古
半夜疎鍾月下新
十里朝烟連海氣
數聲春鳥喚山人
樓前水碧風生面
檻外雲濃露滴巾
終日憑欄多勝事
胸中如鏡自無塵

시냇가엔 천 년 된 노송나무 그림자 예스럽고
깊은 밤 드문 종소리 달 아래 새롭구나.
십 리 아침 안개는 바다로 이어지고
몇 마디 봄 새 소리는 산에 사는 사람 부르네.
누각 앞에 물은 푸르고 얼굴에 바람 부는데
난간 너머로 구름이 짙어 이슬이 수건을 적시네.
하루 종일 난간에 기대니 이렇게 좋은 걸,
가슴 속이 거울같아 티끌 하나 없구나.

8) 산영루(山影樓) : 금강산(金剛山) 유점사(楡岾寺) 앞의 시내를 건너질러 지은 누각.

次寄金生員

塵世紛紛如火宅
隱淪林下擬亡名
閑居無事弄山月
靜坐焚香尋自經
半夜鍾聲添意氣
暮天秋色動詩情
何處幽人吟送句
臨軒一詠眼還明

김(金) 생원(生員)⁹⁾이 보낸 시에 답함

티끌 세상 어지러워 불난 집과 같은데
숲 속에 숨어사는 이는 이름도 없는 듯하네.
한가로이 살면서 산 위의 달이나 희롱하고
고요히 앉아 향을 피워 자기 속의 경전을 궁구하네.
깊은 밤 종소리는 의지와 기운을 더해주는데
저녁 하늘 가을 빛은 시정(詩情)을 움직이네.
은자는 어디에서 시구를 보내주나
난간에서 시 한 수 읊으니 눈이 더욱 밝아지네.

次鍾峰

佛法流行不關時
卽心便是豈盛衰
聲前魔外俱腦裂
句後人天共任持
法會儼然當處在
禪風凜爾箇中歸
鳥啼花落眞消息
只自熙怡說向誰

종봉(鍾峰)¹⁰⁾ 스님에게 답함

불법이 퍼져 행해지는 건 시대와 관계 없나니
마음이 곧 이것인데 어찌 성쇠가 있으리?
진리의 소리 앞에 마귀와 외도의 뇌가 찢어지고
진리의 구절 뒤에 모든 사람 함께 지니네.
범회가 엄연히 그 곳에 있고
선풍이 넘실하게 그 가운데 돌아올지라.
새 울고 꽃 지는 그것이 참소식이니
다만 스스로 기뻐할 뿐 누구에게 설명할까?

今當後五百年時

지금은 후오백년(後五百年)¹¹⁾ 시절이라

-
- 9) 생원(生員) : 조선시대 과거의 일종인 생원과(生員科)에 합격한 사람을 일컫는 말.
10) 종봉(鍾峰) :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의 별호.
11) 후오백년(後五百年) : 불법의 전승 시기를 오백 년 주기로 다섯 시기로 나누는 데, 그 마지막 단계를 후오백년이라 한다. 이 시기에는 자기 교설만 옳다 하여

吾道陵夷日益衰
可笑巴歌人共和
堪嗟義孰能持
心猿騰逸難調制
意馬飄馳不復歸
叔世若非終南老
法門消息付與誰

우리의 도가 낮아져서 날로 쇠퇴하네.
가소롭구나, 사람들은 유행가만 서로 부르니
궁극적 진리는 누가 능히 지니겠는가!
마음의 원숭이가 날뛰어 말리기 어렵고
의지의 말이 마구 내달리어 돌아올 줄 모르네.
말세에 만약 뛰어난 도인이 아니라면
법문의 소식 누구에게 맡길까?

次閔秀才

干戈四海漲烟塵
憂國憂民思渺然
宗社傾危今幾日
乘輿播越已多年
斜陽獨立思良將

月夜沈吟問上天
舉義寥寥無一士
茫茫垂淚白雲邊

민(閔) 수재(秀才)에게

온 세상이 전쟁통으로 연기와 먼지 자욱하여
나라와 백성을 근심하는 생각 끝이 없는데
종묘사직이 위태롭게 된 것이 그 얼마인가
수레 타고 피난한 지 이미 수년이라.
떨어지는 태양빛 속에 홀로 서서 홀륭한 장수를
그리워하고

달밤에 고민하며 하늘에게 묻는다.
의병을 일으킬 사람 하나 없이 조용하니
흰 구름 바라보며 아득한 마음으로 눈물 흘린다.

贈環師

道本忘言難指注
更無形色可思量

환(環) 스님께

도는 본래 말을 잊은 것이니 설명하기 어렵고
모양도 빛깔도 없으니 생각조차 하기 어렵네.

서로 다툼다고 한다.

巖前翠竹和雲立
臺上黃花帶露香

바위 앞에 푸른 대는 구름과 함께 서 있고
대 위의 누런 꽃은 이슬 머금은 채 향기롭네.

贈某禪子

어떤 선승에게

尋師學道別無他
只在騎牛自到家
百尺竿頭能闊步
恒沙諸佛眼前花
撥草瞻風無別事
要明父母未生前
忽然踏着毘盧頂
觸目無非格外禪

스승을 찾고 도를 배우는 것이 별 게 아니라
다만 소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는 일이라.
백 척 장대 위에서 활보할 수 있으니
모래알같이 많은 부처도 눈 앞의 꽃¹²⁾이라.
풀을 뽑고 풍모를 우러르는 것¹³⁾도 별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의 나를 밝히는 일이라.
홀연히 비로자나의 정수리를 밟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격외선(格外禪) 아님이 없으리.

贈峻上人

준(峻) 상인(上人)에게

參問須宜除我慢
修行只合去貪嗔
雖聞毀譽如風過
萬事無心道自新

찾아가 물을 때에는 자만심을 버려야 하고
행을 닦을 때에는 탐욕과 성냄을 버려야 하지.
칭찬과 비난 듣기를 바람 지나가듯 하면
만사에 무심해져서 도가 절로 새로워지리.

12) 눈에 헛것으로 보이는 꽃의 존재. 환상이라는 의미.

13) 무명의 거친 풀을 뽑고 조사들의 수행 기풍을 우러른다는 말.

次梁生員

晦迹韜光人不識
何緣目擊認心通
儒冠釋服名雖異
語及禪風意亦同

양(梁) 생원(生員)에게 답함

자취와 모습을 숨기어 남이 알지 못하게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직접 보고 마음이 통해야만 하는가?
유학자의 갓과 승려의 옷이 이름은 다르지만
말이 선풍(禪風)에 이르면 그 뜻은 한가지니라.

山中閑詠

掃地焚香晝掩關
此身孤寂此心閑
秋風葉落山窓下
無事常將古教看

산중에서 한가로이 읊다

마당을 쓸고 향을 피워 낮에도 문을 닫고 있으니
이 몸은 외롭고 적막하나 이 마음은 한가롭다네.
가을 바람에 낙엽 지는 산 속 창문 아래서
일 없이 항상 옛 가르침 읽어보네.

感懷

尋眞誤入是非端
不覺多年作笑端
夢罷始知身世幻
誓心終老白雲端

감회

진리 찾으려다가 시비의 실마리에 잘못 끌려 들어가
여러 해 동안 웃음꺼리가 된 것도 알지 못하였네.
꿈 깨자 비로소 이 몸과 세상이 다 헛것임을 알고
늙도록 흰 구름 곁에 있기를 마음에 맹서하였네.

次邊處士山居韻

溪水潺湲石怪奇
卜居應定百年期

산에 사는 변(邊) 처사(處士)에게 답함

잔잔히 흐르는 계곡물과 기괴한 바위들
응당 백 년을 기약하고 여기에 사시겠지.

雲深地僻人誰到
唯有山僧來打扉

구름 깊고 땅이 궁벽하니 누가 오리오?
와서 문 두드리는 사람은 오직 산승뿐이겠지.

贈淳上人

순(淳) 상인(上人)에게 드림

茅屋三間一夢身
兀然無事坐經春
有人若問幽居興
楓嶽奇觀雨後新

초가 삼간에 꿈 속의 이 한 몸
꽃꽂한 자세로 일 없이 앉아 봄을 지내네.
은거하는 재미가 어떠냐고 누가 묻는다면
단풍 든 산의 기이한 풍경이 비 온 뒤에 더욱 새롭다 하리.

感懷

감회

玉殿苔生沒路頭
進前無力意悠悠
可憐不把金剛劍
空向雲山暗度秋

아름다운 집에 이끼가 끼어 길이 다 덮여버리니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어 생각이 아득하구나.
불쌍하게도 금강검을 잡지 못하고
구름 낀 산에 부질없이 세월만 다 지나버렸네.

浮生冉冉水東流
不覺秋霜已落頭
事與心違身又老
斜陽獨立不堪愁

뜬 인생이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
어느 사이에 머리에 가을 서리가 내렸네.
일과 마음이 서로 어긋나고 몸도 늙어
기우는 해에 홀로 서서 슬픔 견디기 어려워라.

贈照禪和

百歲光陰夢裏身
 豈能長久莫因循
 要知格外眞消息
 須向峰頭問石人

조(照) 스님에게

백 년의 시간 동안 꿈 속의 몸
 어찌 늘 하던 그대로만 하리오?
 격외(格外)의 참된 소식 알려고 한다면
 봉우리의 돌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하리.

秋日感懷

半百年間已白頭
 病床孤臥意悠悠
 不成壯志空成老
 況值千山落木秋

가을의 감회

반 백년(半百年)간 이미 머리는 희어지고
 병상에 홀로 누워있자니 생각이 막막하네.
 썩썩하던 뜻은 이루지 못한 채 늙어버렸는데
 더욱이 천 산에 낙엽 지는 가을이 되었구나.

贈敬倫禪子

平生放浪倚雲邊
 萬事無心任自便
 何處青山非我土
 短筇今日又隨緣

경륜(敬倫) 스님에게

구름 끝에 의지하여 평생을 방랑하며
 만사를 무심하게 편한 대로 하였네.
 청산 어디인들 내 땅 아닌 곳이 있으랴
 오늘도 짧은 지팡이로 인연따라 다니네.

次諸賢避亂書懷

憂國憂民日益深
 只緣兵火萬家侵

피난가는 여러 선비들을 보고 회포를 적다

나라와 백성에 대한 걱정 날로 깊어가는데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집들이 침략 당하네.

滿腔雖有忠情在
隻手無因露赤心

移棲避寇入山深
四境千戈日益侵
又陷京都人枕死
誰能禦敵慰天心

兇倭渡海陷諸城
兵火屠燒又兩京
中外無人效死戰
事君何處見忠誠

湖東湖北暗烟塵
播越東西幾朔旬
賊勢四方如火熾
蒼生無處可安身

生斯季運命途薄
身帶窮愁世亦危
舉國人民交枕死
斜陽獨立淚雙垂

맺속 가득히 충정(忠情)이 있으나
한쪽 손만으로는 붉은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네.

도적을 피하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살지만
사방에선 전쟁이 더욱 심해만 가네.
서울도 함락되고 사람도 서로 베고 죽으니
누가 능히 적을 막아 하늘의 마음을 위로할까.

흉포한 왜적이 바다를 건너 여러 성을 함락시키고
전쟁은 두 서울¹⁴⁾을 죽이고 불질렀네.
안팎으로 죽을 각오로 싸우는 이가 없었으니
어디에서 임금 섬겨 충성심을 보이리?

동쪽과 북쪽 지방이 어두운 연기와 먼지에 뒤덮
이니
동서로 피난한 지 몇 달이나 되는가?
도적의 세력이 사방에 불길처럼 번지니
백성들은 안전하게 있을 곳이 없었네.

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몸도 고달프고 세상도 위태롭네.
온 나라 백성들이 서로 베고 죽으니
지는 해에 홀로 서서 두 줄기 눈물 흘리네.

14) 서울과 개성을 말한다.

題雙溪寺

靑山依舊映雙溪
鶴去人亡石逕迷
獨立傷心思故跡
夕陽歸鳥入雲栖

쌍계사(雙溪寺)에서

청산은 예전처럼 두 계곡물에 비치는데
학은 떠나고 사람도 없어 돌오솔길이 희미하구나.
상심한 채 홀로 서서 옛 자취를 생각하니
석양에 돌아오는 새가 구름 속 보금자리로 날아
들어가네.

寄松雲

朝採林茶暮拾薪
又收山果不全貧
焚香獨坐無餘事
思與情人一話新

송운(松雲)¹⁵⁾에게 드림

아침에는 숲 속에서 차를 따고 저녁에는 땀나무
를 하며
산 과일을 따오기도 하니 완전히 가난한 건 아니
라오.
향을 피우고 아무 일 없이 홀로 앉았으니
정다운 사람과 대화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드는구료.

吹笛峰

雨後山花照眼明
崔仙陳迹已千齡

취적봉(吹笛峰)¹⁶⁾

비 온 뒤 산에 꽃 화사하게 피었는데
신선 최치원¹⁷⁾의 옛 자취 이미 천 년이구나.

15) 송운(松雲) : 유정(惟政)의 호.

16) 취적봉(吹笛峰) :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의 여러 봉우리 중 하나이다.

17) 최치원(857~?) : 신라 말의 지식인이었던 최치원은 타락한 정치에 실망하고 가
야산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최치원은 신발만 남기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
갔다는 전설이 있다.

長生不老何須問
雲裏依然吹笛聲

장생불로를 물을 필요 있을까?
구름 속에 피리소리 고즈넉하게 들려오네.

紅流洞

홍류동(紅流洞)

雨歇春山草色濃
花開兩岸映溪紅
徘徊吟賞忘歸路
疑是身空物亦空

비 그친 봄 산에 풀빛이 짙고
꽃이 핀 양쪽 언덕 계곡물에 비치어 붉구나.
시 읊으며 배회하다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리니
내 몸도 공하고 만물도 다 공한 듯하네.

嘲士大夫

사대부를 조롱함

人間浮命電光中
徒費精神走北東
退隱林泉貧亦樂
不知身困是非風

인간의 뜬 목숨이 번갯불과 같은데
헛되이 정신을 써서 북으로 동으로 내달리네.
숲 속에 은거하면 가난해도 즐겁나니
시비(是非)의 바람에 몸이 고단한 일 없다네.

警世

세상사람을 경계시킴

百歲光陰如過隙
何能久住在人間
宜隨强健須勤做
生死臨時不自閑

백 년이란 시간도 문틈을 지나는 것¹⁸⁾과 같으니
어찌 능히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있으리오?
젊고 건강할 때 부지런하게 해야 하니
생사에 임할 때에 스스로 한가하지 못하리라.

18) 말이 달려 지나가는 것을 문틈 사이로 보는 짧은 순간을 비유한 표현.

虛負光陰眞可惜
世間人老是非中
不如端坐蒲團上
勤做功夫繼祖風

헛되이 세월을 저버리는 것이 참으로 애석하니
세상사람들은 시비 속에 늙어 가도다.
차라리 단정히 방석 위에 앉아
부지런히 공부하여 조사의 기풍 잇는 것이 나으리.

病吟

一身多病臥床頭
自夏沈吟又過秋
誰道須臾人命在
延年不死亦多愁
冷熱交侵胸腹痛
千謀無計可安身
不如星火闌維盡
還合眞如本自身

병 중에 읊다

이 한 몸에 병이 많아 침상에 누워
여름부터 끔끔 앓다가 또 가을까지 지나네.
누가 사람의 목숨 잠시라고 했던가?
죽지 않고 시간을 끄니 이 또한 큰 근심이네.
냉기와 열기가 교대로 침노하고 가슴과 배가 아프니
천 가지로 생각해도 몸을 편안히 할 방법이 없네.
유성(流星)처럼 속히 다비를 하여 다 태우고
진여(眞如)의 본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으리.

臨終偈

七十餘年遊幻海
今朝脫殼返初源
廓然眞性元無礙
那有菩提生死根

임종계

칠십 여 년 동안 환상의 바다에 노닐다가
오늘 아침 껍질을 벗고 근원으로 돌아가네.
텅 빈 참 성품은 원래부터 아무런 장애 없으니
어찌 보리(菩提)나 생사의 뿌리가 있으리오?



惟政 유정

◀ 四溟堂大師集 사명당대사집 ▶



謾書

아무렇게나 쓰다

藏舟計拙事多違
坐到更深不掩扉
細數三千八百策
方知四十九年非
祇今穿耳人誰在
從古枯禪世所稀
鐘盡月沈天欲曙
始驚寒露濕蘿衣

서툰 계책을 쓰다 보니 어그러지는 일이 많고
앉은 채로 사립문도 닫지 않은 채 밤이 깊었네.
삼천 팔백의 계책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십 구 년의 세월이 잘못 되었음을 알겠네.
지금 시대에 귀가 뚫린 이¹⁾가 누가 있으며
옛날부터 올곧게 참선하는 이 세상에 드물도다.
종이 울리고 나니 달 지고 하늘 밝아오는데
비로소 차가운 이슬에 옷이 젖는 것을 알고 놀라네.

己亥秋 奉別邊注書

1599년 가을 변(邊) 주서(注書)²⁾와 이별하며

恭承朝命下轅門
夷夏山河到此分
四海風塵猶轉戰
十年征戍更從軍
城隅落照看廻鳥
天外歸心望去雲
掃盡妖氛定何日
撥灰金鴨細香焚

공손히 조정의 명령 받고 군문(軍門)으로 내려오니
오랑캐와 중화의 땅이 여기에서 갈라졌네.
온 세상에는 전란이 여전한데
십 년 동안 변방 지키다 또다시 종군하네.
성 모퉁이 낙조에 돌아오는 새 쳐다보고
하늘 바깥의 돌아가고픈 마음 구름만 바라보네.
요사한 기운 쓸어버릴 날 언제일까
화로에 재 헤쳐서 향을 피우노라.³⁾

1) 귀가 뚫린 이: 영리한 사람, 불법을 이해하는 사람.

2) 조선시대 왕의 명령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담당하던 관리.

3) 저자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도 성곽을 축조하는 등의 일로 인하여 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종군하였다. 이러한 심정을 읊은 시이다.

過震川

진천(震川)⁴⁾을 지나면서

古驛重陽抱劍悲

옛 역에서 중앙절(重陽節) 맞아 칼을 안고 슬퍼하
노라니

病身唯有月相隨

병든 몸에 오직 달만이 서로 따르누나.

衡峯燒芋眞吾願

형봉(衡峯)에서 토란 굽기⁵⁾가 참으로 내 소원인데

官路乘肥豈我宜

벼슬 길과 살진 말타기가 어찌 내게 맞으리.

瘴海十年空遠戍

독물 바다에 십년토록 헛되이 먼 변방 지키니

香城何日定歸期

산으로 돌아갈 날 언제일까.

天清一雁江東遠

맑은 하늘 한 마리 기러기 멀리 강 동쪽으로 날아
가는데

明滅燈前攬弊衣

가물거리는 등불 앞에서 헤진 옷 집어 드네

謹奉洛中諸大宰乞渡海詩

일본으로 사신을 떠나면서⁶⁾ 서울에서 여러 대신들을 모시고

年來做錯笑餘生

몇 년 동안 엉뚱한 짓하여 여생이 우습게 되었구나

數月荷衣滯洛城

수개월이나 수행복 차림으로 서울에 머물렀네.

愁病平分送春恨

근심하는 내 분수는 봄을 보내는 한이요

4) 진천은 충청북도에 있는 지명. 임진왜란에 승병 대장으로 출전하여 활약하던 중의 한 시점으로 보인다.

5) 형봉(衡峯)에서 토란 굽기 : 중국 당(唐)나라 때 이필(李泌)이란 사람이 도를 묻기 위해 형악사(衡嶽寺)에 남이 먹고 남은 밥을 먹고 사는 나잔(懶殘)이란 수행자를 찾아 갔다. 나잔은 마침 토란을 굽고 있다가 이필을 보고 재상 노릇이나 한 십 년 하라고 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6) 유정이 임진왜란이 끝난 후인 1604년(61)에 일본으로 사신을 가서 전쟁포로 3천 5백 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歌吟半惱憶山情
浮杯謾道堪乘海
飛錫初羞誤說兵
爲國重輕諸老在
願承珠唾賁東行

노래하는 괴로움은 산을 생각하는 정이라.
잔 하나 띄우고서 감히 바다를 건넌다고 말하고
지팡이 날려 병사(兵事)를 잘못 말함이 먼저 부끄
럽네.
나라를 위하는 온갖 일은 여러 노장들이 있으니
원컨대 아름다운 시로써 동쪽 걸음 빛내 주소서.

贈行脚僧

행각하는 스님에게

爾從江海來
還從江海去
江海路迢迢
重逢又何處

그대는 강과 바다를 따라 왔다가
다시 강과 바다를 따라 가는구료.
강과 바다의 길이 멀고 아득한데
다시 만날 곳 또 어디일지.

萬瀑洞

만폭동(萬瀑洞)⁷⁾

此是人間白玉京
琉璃洞府衆香城
飛流萬瀑千峯雪
長嘯一聲天地驚

이것은 인간 세계에 있는 백옥경(白玉京)⁸⁾이니
유리로 만들어진 마을이요 향기의 성(城)이라.
수많은 폭포가 날아 떨어지고 천 봉우리엔 눈인데
길게 내뿜는 한 소리에 천지가 놀라네.

7) 만폭동(萬瀑洞) : 금강산 내금강에 있는 계곡 이름. 수많은 폭포와 소가 있다.

8) 백옥경(白玉京) : 천제(天帝)가 사는 궁전.

秋軒夜坐

獨坐無眠羈思長
數螢流影度西廊
崇山月出秋天遠
一夜歸心鬢已霜

가을 난간에 밤 깊도록 앉아

잠들지 못하고 홀로 앉아 이런 저런 생각 하던 차에
몇 마리 반디불이 서쪽 회랑으로 흐르듯 지나가네.
높은 산에 달 솟아 머나먼 가을 하늘
온 밤 돌아가고픈 마음에 귀밑머리 이미 세었네.

寫懷

邇來多病歎龍鐘
親友凋零半已空
獨有雲松與麋鹿
暮年相伴老重峯

생각을 쓰다

요즈음은 병이 많아 탄식으로 눈물 흘리고
친우들도 세상 떠나 반이 이미 없어졌네.
오직 구름과 소나무와 사슴만이 있어서
늘그막에 서로 벗해 겹겹의 봉우리 속에서 늙어
가네.

贈靈雲長老

千魔萬難看如幻
直似灘頭掇轉船
吞透金剛竝栗莉
方知父母未生前

영운(靈雲) 장로(長老)에게

천의 마귀와 만의 어려움도 헛 그림자일 뿐이니
여울 가에 뒤흔들리는 배와 같다네.
금강석을 꿰뚫고 밤송이를 삼킬 때에
비로소 부모가 나를 낳기 전의 소식을 알리라.

靑鶴洞秋坐

西風吹動雨初歇

가을 날 청학동(靑鶴洞)에 앉아

서풍이 건듯 불고 비는 갓 그쳤는데

萬里長空無片雲
虛室尸居觀衆妙
天香桂子落紛紛

만 리 먼 허공에 한 점 구름조차 없구나.
텅 빈 방에 죽은 듯이 있으면서 자연의 묘함을 살
피자니
하늘 향기 머금은 계수나무 꽃 어지러이 떨어지네.

贈閑長老

한(閑) 장로에게 드림

衣下麼尼依舊在
不須虛認鏡中頭
翻身直到故園裏
一見爺孃方始休

옷 아래 마니주를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니
거울 속의 모습을 진짜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네.
몸 돌려 곧바로 고향의 뜰에 이르면
비로소 부모님이 쉬고 계신 걸 한번 보리라.

贈蘭法師

난(蘭) 법사에게 드림

萬疑都就一疑團
疑去疑來疑自看
須是拏龍打鳳手
一拳拳倒鐵城關

만 가지 의문은 모두가 하나의 의심 덩어리로 되
나니
의심하고 의심하여 의심을 스스로 살피면
반드시 용을 낚아채고 봉황을 때려잡는 솜씨가
되리니
한 주먹에 철성(鐵城)의 관문을 무너뜨리리라.

贈默山人

묵(默) 산인(山人)에게 드림

參禪不用多言語
只在尋常默自看

참선하는 데 많은 말이 필요 없으니
다만 평소에 말없이 스스로를 살피면 된다네.

趙州無字如忘却
雖口無言我不干

조주(趙州)의 무(無) 자를 잊어버린다면
비록 입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간섭하지 않으리.

我師天竺金仙氏
直使踉蹌返故園
自是不歸歸便得
月臨青桂有啼猿

나의 스승은 인도의 부처님이니
절름발이도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도다.
이로부터는 돌아가지 않아도 곧 돌아감을 얻으리니
달이 푸른 계수나무에 떠오르고 원숭이 울음 있
도다.

在竹島 有一儒老 譏山僧 不得停息 以拙謝之

죽도(竹島)에 있을때 어떤 늙은 유학자가 산승이 쉬지도 못한다고
나무라기에 서툰 솜씨로 사례드리다

西州受命任家裔
庭戶堆零苟不容
無賴生成逃聖世
有懷愚拙臥雲松
山河去住七斤衲
宇宙安危三尺筇
是我空門本分事
有何魔障走西東

서주(西州)에 명을 받은 임씨(任氏) 가문의 후예로
집안이 영락하여 잠시 몸 둘 곳도 없었네.
의지해 살 데가 없어서 세상을 피하여
어리석음과 못남을 품고서 구름과 소나무에 누웠네.
산과 강을 오가는 데는 일곱 근(斤) 장삼이요
우주의安危(安危)에는 세 척의 지팡이라.
이것이 우리 불가의 본분인데
무슨 마귀의 장애가 있어서 동서로 달리는가.

在馬島館庭菊大發感懷

대마도(對馬島)⁹⁾ 여관에서 뜰에 국화가 가득 핀 것을 보고

蕭蕭落葉下汀洲	쓸쓸히 낙엽은 모래톱에 지고
天末歸雲海北秋	하늘 끝 돌아가는 구름에 바다 북쪽은 가을.
節過重陽不歸去	절기는 중양절(重陽節)을 지났건만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黃花空遣遠人愁	누런 꽃은 공연히 멀리 온 사람을 시름겹게 하네.
旅遊心緒亂如麻	나그네 마음은 난마(亂麻)와 같이 어지러워
落日空瞻北去鴉	떨어지는 해에 북으로 가는 까마귀만 부질없이 바라보네.
誰道山僧無顧念	누가 산승은 돌아보는 마음이 없다고 하였는가
夢魂頻度漢江波	꿈속에서 혼령이 자주 한강의 물결 넘는 것을.
錦屏回夢夜蒼蒼	꿈 깨고 보니 비단 병풍에 밤이 어둑어둑한데
雲盡天晴碧海長	구름 다한 하늘은 맑고 푸른 바다는 아득하네.
門掩候蟲殘月曙	문 닫히고 가을 벌레 우는데 새벽달 밝아오고
寄衣無處有清霜	옷 보내 올 곳도 없건만 맑은 서리 내리는구나.

9) 대마도(對馬島) : 한국의 부산과 일본의 후쿠오카 사이에 있는 섬. 조선 시대에 두 나라를 오갈 때 반드시 이 섬을 거쳐서 다녔다.

在本法寺 除夜

四海松雲老
行裝與志違
一年今夜盡
萬里幾時歸
衣濕蠻河雨
愁關古寺扉
焚香坐不寐
曉雪又霏霏

본법사(本法寺)¹⁰⁾의 설날 그믐날 밤

이 넓은 세상에 이 늙은이는
차림새와 생각이 서로 어긋나네.
한 해도 오늘 밤으로 다하는데
만 리 먼 땅 돌아갈 날 언제이리.
옷은 오랑캐 나라의 비에 젖는데
오래된 절의 사립문이 닫힌 걸 근심하네.
향을 피우고 앉아서 잠들지 못하니
새벽 눈이 부슬부슬 내리네.

10) 본법사(本法寺) :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들른 절이다.



印悟 인오

【青梅集 청매집】



香巖擊竹

향엄격죽(香巖擊竹)¹⁾

龍吟枯木猶生喜

고목에 용이 우니 오히려 기쁨이 생겨나고

鬚髯生光識轉幽

해골에 빛이 나니 생각이 오히려 깊어지네.

磊落一聲空粉碎

쨍쨍 울리는 한 소리에 허공이 가루가 되어 부서
지고

月波千里放孤舟

달빛 비치는 천 리 물결에 배 하나 떠 가네.

喝

할

磊落寒聲白日昏

쨍쨍한 차가운 소리에 밝은 해가 어두워지고

針鋒頭上弄乾坤

바늘 끝에서 하늘과 땅을 희롱하네.

拈花微笑家初喪

염화미소(拈花微笑)조차도 초상난 집안인데

更把虛空作兩分

다시 허공을 잡고 두 조각을 내어 버리는구나.

光不透脫

빛이 꿰뚫어 지나지를 못함

日上雪峯光却薄

눈 쌓인 봉우리에 해가 솟아도 빛은 옅고

月依風樹影難全

달이 바람부는 나무에 걸리니 그림자가 온전하기
어려워라.

以心解道分明在

마음으로 도를 알면 분명하게 있으니

遠寺鍾聲到客船

먼 절의 종소리가 나그네 배에 들려오네.

1) 향엄격죽(香巖擊竹): 중국 당나라 때 향엄이 마당을 쓸다가 돌맹이가 튀기어 대
나무에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置卷

學本爲修道
道本爲全生
全生安樂國
何必轉千經

책을 버림

학문의 근본은 도를 닦기 위함이요
수도의 근본은 삶을 온전히 하기 위함이라.
안락의 나라에서 삶을 온전히 한다면
무엇하러 천 권의 경전을 두루 읽으리오?

示求人

一海衆魚游
各有一大海
海無分別心
諸佛法如是

법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임

하나의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노니는데
물고기마다 하나의 큰 바다가 있도다.
바다는 아무分別심이 없으니
여러 불법도 이와 같도다.

求他作

可惜世間人
不知自身貴
羨他豪富人
求佛法如是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을 보고 지음

애석하구나 세간 사람들이여
자기 자신이 귀한 줄을 모르고서
남이 큰 부자인 것을 부러워만 하다니.
불법을 구하는 것도 이와 같도다.

贈義天禪子

看經非實悟
守默也徒勞

의천(義天) 선자에게

경전을 보는 것은 진실한 깨달음이 아니요
침묵을 지키는 것도 쓸 데 없는 노력이라.

秋天淡如海
須是月輪孤

가을 하늘이 바다처럼 맑으니
달 하나만 덜렁 걸렸네.

途中

길을 가던 중에

明月途中夜
黃花客裏秋
西風亦多事
吹葉落溪頭

밤에 길을 가니 달이 밝구나
가을의 나그네 길에 핀 누런 꽃.
서풍도 또한 할 일이 많구나
낙엽을 불어 시냇가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看到知知篇

제대로 안다는 것은

若以知知知
如以手掬空
知但自知已
無知更知知

만약에 앎으로써 앎을 안다고 한다면
손으로 허공을 움켜잡는 것과 마찬가지.
앎이란 다만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
알지 않는 것이 앎을 아는 것이라.

贈大圭禪僧

대규(大圭) 선승(禪僧)에게 드림

同一性故法懶取
絕異相故法無舍
盡力高聲喚不應
傍邊自有松風和

동일한 성품인 까닭에 모든 법을 어루만져 취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끊는 까닭에 버릴 법이 없도다.
힘을 다해 높은 소리로 불러도 응하지 않건만
바로 곁 소나무에 바람이 절로 불어오도다.

春日

友也江村乞食去
 知厨童子煮松茶
 出門驚見春歸盡
 風打桃源欲落花

봄날

벗은 강마을에 걸식을 하러 가고
 부엌을 맡은 동자는 솔가지를 태워서 차를 끓이네.
 문을 나가보니 놀랍게도 봄이 벌써 끝나 가고 있
 으니
 바람이 도원(桃源)²⁾을 때려 꽃잎이 떨어지려 하네.

漁翁

深知風海起波瀾
 收却絲綸掛石端
 盡日曲肱閑睡熟
 不知飛鷺拂衰顏

고기 잡는 늙은이

바다에 바람 부니 큰 파도가 일 것을 알고
 낚시줄 거두어서 바위 끝에 걸어 두네.
 하루 종일 무릎 구부린 채 깊은 잠에 빠지니
 날아가는 해오라기 늙은 얼굴 스치는 줄도 모르네.

出山

來時葉未開
 滿眼皆紅樹
 不知春復秋
 物有成今古
 樹下不再宿
 吾佛曾垂戒

산을 벗어남

올 때에는 잎이 나지도 않았었는데
 눈 가득 모두가 붉은 나무로다.
 봄이 다시 가을로 된 것도 몰랐는데
 만물은 벌써 지금과 옛날로 나뉘었구나.
 나무 아래에 다시 자지 말라고
 우리 불가에서는 경계를 하였지.³⁾

2) 도원(桃源) : 아주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이상향을 말한다.

3) 한 나무 아래에 다시 자면 정이 들고 집착이 생긴다고 하는 말이다.

守菴孤鶴在
迢然出洞府

지키고 사는 암자에 외로운 학이 있어
골짜기를 빠져나가 멀리 날아가네.

悼世

세상을 애도함

野人自外來
道我世煩劇
癘氣捲閭閻
餓莩滿阡陌
干戈日益尋
骨肉不相惜
賦役歲益迫
妻兒走南北

거친 사람이 바깥에서 들어와
우리 세상을 엉망으로 이끄네.
살상의 기운이 마을을 뒤덮어서
굶어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네.
전쟁이 날로 심해지니
골육끼리도 서로 애처로이 여기지 못하네.
부역이 해마다 더욱 닥쳐드니
처자들은 남북으로 달아나네.



太能 태능

【逍遙堂集 소요당집】



悟道

오도송

蘊廬天地假形來
慚愧多生托累胎
玉塵一聲改活眼
夜深明月照靈臺

천지라는 여관에 형체를 빌어 와서
여러 생 동안 여러 몸으로 살았던 것 부끄럽네.
꽃잎 지는 한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으니
깊은 밤 밝은 달이 내 마음을 비추누나.

題燕谷寺香閣

연곡사(燕谷寺)¹⁾ 향각(香閣)

一竿脩竹建精藍
瑞氣祥雲擁石龕
香火金壇修敬盡
身心寂滅豈萌貪

한 줄기 길다란 대나무로 정갈한 가람을 세우니
상서로운 기운과 구름이 돌 감실을 둘러싸네.
불단에 향불 피워 공경함을 다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하니 어찌 탐욕의 싹이 트리오?

百千經卷如標指
因指當觀月在天
月落忘指無一事
飢來喫飯困來眠

백천의 경전은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
손가락으로 인하여 하늘에 달이 있음을 보네.
달 지고 손가락도 잊으면 아무 일 없나니
배고프면 밥먹고 피곤하면 잠잘 뿐이네.

病裡書懷

병을 앓으면서 회포를 적다

抱疾經年長打坐

병을 안고 수년을 지나면서 늘 앉아만 있었더니

1) 연곡사(燕谷寺) : 통일신라시대에 연기조사(緣起祖師)가 창건하였으며,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까지는 수선도량(修禪道場)으로 이름이 높았던 사찰이었다. 그 뒤 임진왜란 때에 왜병에 의하여 전소된 뒤 이 시의 지은이인 태능(太能, 1562~1649)이 중창하였다.

悵寒惟恐出門遊
兒童忽報春光盡
驚起看山綠葉稠

추위가 겁이 나서 나다니지도 못하였네.
아이들이 문득 봄이 왔다고 하길래
놀라 일어나 산을 보니 푸른 잎이 뻗뻗하구나.

新凉入郊墟

江城何處起秋風
螢火如流點暮空
政好乘涼吟夜月
浩然詩思滿樓中

날씨가 서늘해져서 교외로 나가 보니

강과 성 어느 곳에서 가을 바람 이는가
저문 허공엔 반딧불 물 흐르듯 하네.
서늘한 기운에 밤 달 읊기 참 좋아라
호연히 시사(詩思)가 누각에 가득하네.

山中咏懷

洛陽城裡輕肥客
役役何曾半日閒

惆悵山中多少景
百年分付老僧看

紫陌紅塵尺許深
幾多游宦客浮沈
誰知一片白雲壑
天付貧僧直萬金

산중에 살면서

가벼운 가죽옷 입고 살진 말을 타는 서울 사람들
아등바등 살아가니 어찌 반나절의 여유인들 있으
리오?

놀랍게도 산중에는 수많은 경치들이 있어
백 년 동안 노승이 보라고 분부 받았네.

도시의 거리 붉은 먼지가 한 자나 쌓였는데
얼마나 많은 벼슬아치들 부침하는가.
누가 알까, 한 조각 흰구름과 골짜기
하늘이 가난한 중에게 준 것이 만금 같아라.

山中漫興

一寰逐物多煩惱
 幾介男兒脫世間
 誰知野老出塵網
 高卧松風徹骨寒

我獨昏昏我獨閑
 半生身世白雲間
 夜來驚破游仙夢
 明月松聲一枕寒

산 속의 흥겨운 생활

세상사람들 재물을 좇아 번뇌가 많은데
 세간 벗어나는 남아대장부 몇이나 되나.
 누가 알까, 누추한 늙은이 티끌그물 벗어나
 솔바람 아래 누웠으니 뼈까지 시원하구나.

나 홀로 멍청하고 나 홀로 한가로우니
 반 평생을 이 내 몸이 흰구름 사이에 있었네.
 밤 중에 신선이 되어 노니는 꿈을 꾸다 깨어 보니
 밝은 달 아래 솔바람 소리 베개머리 시원하구나.

示閻長老

九旬禁足何成事
 弄得泥牛建法場
 三更昨夜翻身去
 哮吼雷聲遍十方

은(閻) 장로에게 보임

구십이 되도록 한 곳에 머물러 무엇을 이루었나
 진흙소 희롱하여 도랑을 세웠네.
 어젯밤 깊은 때에 몸 바뀌 가더니
 우레같은 소리 부르짖어 시방에 두루하네.

賽尙俊法師

馬祖全提一喝來
 大雄擔荷大機來
 耳聾三日無多子
 掌握乾坤日月來

상준(尙俊) 법사에게

마조가 냅다 고함을 질러 법을 보이고
 큰 영웅은 연꽃을 들어 뜻을 나타내었네.
 귀가 삼일이나 먹은 것은 별게 아니니
 하늘과 땅, 해와 달을 거머쥐고 오네.

臨濟德山屎床兒
令人未免一場愁
四海生靈盡安枕
何須強作亂風流

임제와 덕산은 오줌싸개
한바탕 근심을 먼치 못하게 하네.
온 세상 사람들 다 평안하건만
뒹하러 억지로 어지러운 풍류 짓는지!

示學珠禪子

背角泥牛不舉鞭
翻身踏破碧潭烟
一聲哮吼驚天地
掣電之機鼻孔穿

학주(學珠) 선자(禪子)에게
채찍을 들지 않아도 등에 뿔이 난 진흙소가
몸 뒤집어 안개 낀 푸른 연못을 걸어 다니네.
울부짖는 한 소리 천지를 놀라게 하더니
번개를 잡아 끌어 콧구멍을 꿰뚫네.

示繼雨法師

火裡紅蓮落故衣
木童收拾滿筐歸
古曲無音誰敢和
溪邊石女笑微微

계우(繼雨) 법사에게
불 속의 붉은 연꽃 묵은 옷을 떨어뜨리니
나무 아이[木童]가 광주리에 가득 주워 돌아가네.
소리 없는 옛 곡조에 누가 화답하리오?
시냇가에 돌 여자[石女]가 엷은 웃음 짓고 있네.

家家門外長安路
處處窟中獅子兒
打破鏡來無一事
數聲啼鳥上花枝

집집마다 문 앞 길이 서울로 통하고
곳곳의 굴 속에는 사자 새끼 들어앉았네.
거울을 깨고 나니 아무 일도 없어지고
몇 마디 지저귀는 새가 꽃핀 가지에 올라앉을 뿐.

咏一卷經

한 권의 경전

四序炎涼去復來
誰人知得自心經
老僧獨把無文印
坐看松陰過一生

덥고 추운 네 계절이 갔다가는 다시 오지만
자기 마음의 경전을 아는 이 그 누구이리?
늙은 스님 홀로 무늬 없는 도장²⁾을 잡고
앉아서 소나무 그늘 바라보며 일생을 지내누나.

贈悅闍梨

열(悅) 사리(闍梨)³⁾에게 드림

飛星爆竹機鋒峻
裂石崩崖氣像高
對人殺活如王劍
凜凜威風滿五湖

유성이나 폭죽 같이 날카로운 칼날 우뚝하고
돌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기상 높구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왕의 검과 같은데
늠름하고 위엄 있는 기풍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네.

金鎚影裡裂虛空
驚得泥牛過海東
珊瑚明月冷相照
今古乾坤一笑中

쇠몽둥이 그림자 속에 허공이 찢어지니
놀란 진흙소가 바다 동쪽을 지나가네.
산호(珊瑚)와 명월(明月)은 차갑게 서로 비추는데
고금(古今)과 건곤(乾坤)이 한 웃음 속에 있도다.

贈天海法師

천해(天海)⁴⁾ 법사(法師)에게 드림

眞俗雙明在眼前

진(眞)과 속(俗)이 눈 앞에 또렷이 밝은데

2) 무늬 없는 도장 : 무문인(無文印)이라고도 한다. 진리는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낼 수 없다고 하여 ‘무늬가 없다’고 하였으며, 진리와 계합한다고 하여 ‘도장’이라 하였다.

3) 사리(闍梨) : 아사리(阿闍梨)라고도 한다. 제자를 가르치는 큰 스승을 의미한다.

無人知道火中蓮
老僧慣得嘗游刃
夜月梨花聽杜鵑

불 속의 연꽃을 아는 이는 없구나.
노승은 항상 칼날 위에 노는 것에 익숙하노니
밤 깊은 달 아래 배꽃 피고 두견새 소리 들리네.

前溪柳色黃金嫩
後苑梨花白雪香
欲知格外傳禪妙
百草頭頭不覆藏

앞 시내 버들에는 황금빛 싹이 돋고
뒷 뜰의 배꽃에는 백설의 향이 나네.
격외(格外)의 선을 알고 싶은가
백 가지 풀잎 하나 하나에 드러나 있다네.

神游劫外夢初醒
枯木龍吟起予情
有情不是余朋友
池上綠荷風雨聲

꿈에서 깨어나 겁(劫)의 바깥으로 노닐고
고목에는 용이 울어 나의 정을 일으키네.
정이 있다면 나의 벗이 아니니
연못 위 푸른 연잎에 비바람 소리 들려오네.

馬祖喝

마조(馬祖)의 할

無文印字脫規模
霹靂一聲天地驚
電光石火何擬議
黃蘗翻身吐舌驚

무늬 없는 도장의 글은 규격을 벗어나고
벽력같은 한 소리는 천지를 놀라게 하네.
전광석화와 같은 것을 어찌 헤아리거나 하랴?
황벽(黃蘗)이 놀라서 혀를 빼고 나자빠진다.

聞鍾有感

종소리를 듣고서

耳裡明明聽者誰
無聲無臭卒難知

귀 속에 분명하니 누가 이를 듣는 것인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 끝내 알기 어렵도다.

4) 천해(天海) : 태능의 제자이다.

收來放去任舒卷 거두어 들이고 내 놓는 것을 그대로 맡겨 두니
在凡在聖長相隨 범인에게나 성인에게나 늘 따라 다니네.

昭然不藉緣生底 환히 밝지만 인연 따라 생기는 건 아니고
寥廓虛靈應萬機 텅 비어 신령스러우면서 만 가지 때에 응하네.
應萬機兮具通變 만 가지 때에 응하여 두루 변하건만
人多昏惑自迷歸 사람들이 어두워서 스스로 미혹되어 버리네.

詠無生

무생(無生)⁵⁾을 노래함

了俗明眞早脫中 속됨과 참됨을 다 밝히고 일찌감치 초탈하여
雙收天地納胸中 하늘과 땅을 모조리 가슴 속에다 쓸어 넣었네.
翻身撒手三千外 몸 뒤집어 삼천대천세계로 손을 뻗치고는
臥聽溪聲夜月中 달빛 속에 누워 시냇물 소리 듣네.

詠懷

생각을 읊다

共坐同行世莫知 함께 앉고 같이 다녀도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니
幾人當面便逢伊 얼굴을 마주하고도 그를 알아볼 이 몇 사람이랴?
俯仰視聽曾不昧 이리 저리 보고 들어도 일찍이 어두운 적 없었는데
何須向外問渠歸 어찌 반드시 바깥을 향하여 그가 간 곳을 물으리오?

次而善闍梨韻

이선(而善) 사리(闍梨)에게 답하는 시

飢則松花渴則泉 배고프면 송화요 목마르면 샘물이라

健兮閑步困兮眠
踏殺天魔生死窟
騰騰山后與山前

힘 있을 땐 조용히 걷고 지치면 잠들지.
생사의 굴에서 마귀를 짓밟고는
산의 앞과 뒤에서 편안히 노닌다네.

半夜瑤琴萬壑泉
玲瓏清韻攪禪眠
竹風松月爲心友

깊은 밤 골짜기 샘물은 옥 거문고 소리
영롱하게 맑은 울림 선정을 깨우도다.
대숲에 부는 바람 소나무에 걸린 달은 마음의 벗
인테

澗步竿頭孰敢前

장대 위에서 확보하여 앞으로 나아갈 자 누구이
리오?

無位人

무위(無位)⁶⁾의 사람

虛徹靈通舊主人
古今天地一真人
多經海岳風雲變
落落巍巍不老人

텅 비고 신령스럽게 통철한 옛 주인이여
예나 지금이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참된 한 사람.
강산이 온갖 풍운의 변화 다 거쳐도
우뚝하고 우뚝하여 늙지 않는 사람이라네.

無題

무제

月晶山前後
風清海外中
問誰眞面目
更有點天鴻

산의 앞뒤로 달이 환하고
바다 저 멀리 바람 맑도다.
누구에게 진면목을 물을 것인가?
하늘에 점점이 날아가는 기러기 있네.

5) 무생(無生) : 생명의 세계에서 해탈하여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

6) 무위(無位) : 수행의 수준이나 경지에 따른 지위를 초탈하여 자유자재한 사람.

花笑階前雨
松鳴檻外風
何須窮妙旨
這箇是圓通

雪髮春風面
逍遙山市中
無窮聲與色
觸處自空空

月波翻石壁
松籟送清音
於斯若不會
孤負老婆心

山轟轟水冷冷
風習習花冥冥
活計只如此
何用區區順世情

閃電光中坐
對人能殺活
無頭無尾棒
打破虛空骨

入林不動草
涉水豈揚波

계단 앞에 비 내리니 꽃이 웃고
난간 너머로 바람 부니 소나무 우네.
무엇하러 묘한 이치 찾을 것인가?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눈같은 머리카락 봄바람같은 얼굴
산으로 저자로 소요하며 다니네.
끝 없이 나타나는 소리와 빛
닿는 곳마다 절로 비고 또 비네.

달빛 비치는 파도가 바위 절벽에 부딪치고
솔바람 소리는 맑은 음을 들려주네.
여기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노파의 마음⁷⁾을 저버리는 것이라네.

겹겹의 산, 맑고 맑은 물
술술 부는 바람에 그윽한 꽃.
살아가는 방도란 다만 이 같을 뿐이니
뫼하러 구구하게 세상 물정 따르리.

번쩍 하는 전광 속에 앉아
사람을 대하여 죽이고 살릴 수 있네.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방망이로
허공의 뼈다귀를 쳐부숴 버리네.

숲에 들어가도 풀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데
물을 건너면서 어찌 파도를 일으키랴.

7) 노파의 마음 : 가르치는 스승이 노파처럼 걱정이 많아 자상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

雖然非好手
木馬渡黃河

山月投窓白
溪聲入戶鳴
欲知九年默
須向此中明

道豈不合人
人無心合道
欲識箇中意
一老一不老

世事空中鳥
浮生水上漚
天下無多地
山僧一杖頭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별로 좋은 솜씨는 아니니,
나무말이 황하를 건너가네.

산 위에 뜬 달이 창문에 비치어 희고
시냇물 소리 뜰 안으로 들어와 울리네.
구년의 침묵⁸⁾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여기에서 알아차려야 하리.

도가 어찌 사람과 합하지 않겠나?
사람이 도와 합할 마음이 없을 뿐.
그 가운데의 뜻을 알고 싶은가?
하나는 늙고 하나는 늙지 않는다네.

세상 일은 허공 속의 새요
뜬 인생은 물 위의 거품이라.
천하에 별 곳이 없으니
산승은 지팡이 하나로 산다오.

臨終偈

解脫非解脫
涅槃豈故鄉
吹毛光燦燦
口舌犯鋒鋦

임종계

해탈이 해탈이 아니거늘
열반이 어찌 고향이리오?
취모검(吹毛劍)⁹⁾의 빛이 번쩍거리니
입으로 말하다간 칼날을 맞으리라.

8) 구년의 침묵 :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와 소림사에서 9년간 침묵하면서 면벽 수행하였다.

9) 취모검(吹毛劍) : 털을 살짝 불기만 해도 잘라버리는 날카로운 칼.



太能 언기

【逍遙堂集 편양당집】



山中偶吟

산중에서 우연히 읊다

平生愛梵鍾
垂老臥雲松
論經多法侶
人語月中峯

평생토록 범종을 사랑하여
늙도록 구름과 소나무 아래 누웠네.
경전을 강론하는데 도반들이 많으니
달 뜬 봉우리에 사람 소리 들려 오네.

偶吟一絕贈戒明山人

우연히 읊어 계명산인(戒明山人)에게 드림

古寺空山中
高樓人獨宿
夜來秋雨寒
落葉滿庭濕

고요한 산 속의 오래된 절
높은 누각에 홀로 자는 사람.
밤이 되니 가을비 스산한데
뜰 가득 낙엽 젖어 있네.

贈別天隱師

천은(天隱) 스님과 이별하면서 드림

幻身無着處
放浪若秋雲
暫宿蓬萊頂
隨風向石門

허깨비같은 몸 붙일 곳 없으니
가을 구름과 같이 방랑하네.
봉래산 꼭대기에 잠시 자고
바람따라 석문(石門)으로 향하네.

示允師

윤(允) 스님에게

百城遊方畢

백 개의 성을 다니고 나니

香岳伴雲閑
獨坐向深夜
前峰月色寒

향기로운 산에 걸친 한가로운 구름.
홀로 앉아 밤이 깊어가는데
앞 봉우리에 차가운 달빛

次東林韻

雲走天無動
舟行岸不移
本是無一物
何處起歡悲

동림(東林)¹⁾에게 답하는 시

구름이 달려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배가 나아가도 언덕은 그 자리에 있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기쁨이나 슬픔을 일으키리오.

偶吟一絕

雲邊千疊嶂
檻外一聲川
若不連旬雨
那知霽後天

우연히 한 수 읊다

구름 가 천 겹 산
난간 너머로 소리나는 한 줄기 냇물.
만약 수십 일 연이은 비가 아니었다면
비 갠 후의 하늘을 어찌 알리오?

香爐咏懷

地勝青丘野
天高太白秋

향로봉에서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이 곳
태백산의 가을에 하늘 높아라.

1) 동림(東林) : 벽암각성(碧巖覺性)의 제자인 동림혜원(東林慧遠). 부휴선수(浮休善修)의 2세손에 해당한다.

曹溪全德業
小室盛風流
木落千林瘦
雲生一片浮
錫飛能解虎
回首謾悠悠

수행의 덕업을 잘 갖추니
작은 방에 풍류가 가득하구나.
낙엽 진 수천 그루 숲은 비쩍 말랐고
한 조각 구름 생겨나 하늘에 떠 다니네.
호랑이 싸움 말리는 지팡이²⁾ 짚고 다니며
머리 돌려 보니 마음 그저 여유롭네.

遊逍遙山

晚陟逍遙洞
奇觀自異同
地偏天若少
川遠曲迷重
亂竹岩前徑
輕霞霽後峰
高吟徒遣興
揮筆句難工

소요산(逍遙山)에서 노닐다

저녁 무렵 소요산 골짜기를 찾아 올라갔더니
기이한 경관이 형형색색 다양하구나.
땅이 궁벽하니 하늘이 작은 것같고
시냇물 멀리서 흘러오니 겹겹이 구비졌구나.
바위 앞 오솔길엔 어지러운 대나무요
비 갠 후 봉우리엔 가벼운 노을.
흥에 겨워 시를 높이 읊으며
붓을 휘둘러 적어 보지만 멋진 구절 어렵구나.

山居

自栖通性後
幽事日相干

산에 살며

통성암(通性庵)³⁾에 살면서부터
좋은 일만 매일 계속된다네.

2) 중국 제(齊)나라 승려 승조(僧稠)는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는 것을 보고 지팡이를 휘둘러 화해시켰다 한다.

3) 통성암(通性庵) : 묘향산 보현사에 있는 암자 이름.

造圃移芳茗
開亭望遠山
晴窓看貝葉
夜榻究禪關
世上繁華子
安知物外閑

채마밭을 일구어 차나무를 옮겨 심고
정자의 문을 열고 먼 산을 바라보네.
밝은 창 아래서 불경을 읽고
밤 깊도록 자리에 앉아 참선을 하네.
세상에 번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알리오, 세상 바깥의 한가로움을.

次處能韻

何人記賤子
令我憶曹溪
歲暮燈將滅
更殘月欲低
鳳雛巢覺樹
驥子食禪階
自恨供多病
徒勞回首西

처능(處能) 스님에게 드리는 답시

나같이 천한 사람을 기억해 주니
조계(曹溪)를 생각나게 하는구나.
한 해가 저물어가니 등불도 꺼져 가고
밤이 다해 가니 달도 지려 하네.
깨달음의 나무엔 봉황의 새끼가 보금자리 틀고
선(禪)의 계단엔 천리마의 새끼가 먹이를 먹고 있네.
스스로 한스러워라, 병이 많다 보니
부질없이 서쪽으로 고개 돌려보네.

贈別法蓮師

力疾吟疎句
蓮師故寺歸
歲兼人有別
愁與病無辭
雪逕連天遠

법련(法蓮) 스님과 이별하며 드리는 시

병든 몸 힘들게 이끌고 영성한 시구 읊조리나니
법련스님은 계시던 절로 돌아가시누나.
세월과 사람은 이별이 있건만
근심과 병은 떠나질 않네.
눈 덮인 오솔길은 멀리 하늘까지 이어지고

孤峯度棧危
此行非萬里
應見落花時

외로운 봉우리엔 잔도(棧道)가 위태롭구나.
이 길이 만 리 길은 아니지만
응당 꽃이 떨어지는 때를 보리라.

秋意

가을의 생각

霜落千峯草木愁
世間何處不悠悠
君知身老非心老
萬古乾坤月一秋

서리 내린 천 봉우리 초목엔 근심 어렸으니
세간 어디인들 스산하지 않으리오?
그대는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았음을 알겠
으니
만고의 하늘과 땅 사이에 달 걸린 가을이로다.

舍衆遁世

대중을 떠나 은둔하면서

青山何處有毘耶
近日禪流問道多
不辭雷震三千界
恐被維摩點檢過

청산 어느 곳인들 비야리성⁴⁾ 아닌 곳이 있으랴
요즘 선 수행자들은 도 묻는 이 많구나.
우레가 삼천대천세계에 진동하더라도 괜찮지만
유마거사에게 점검 당할까 두렵네.

庭花

뜰에 핀 꽃

雨後庭花連夜發
清香散入曉窓新

비온 뒤 뜰에 꽃이 밤새도록 피어나
맑은 향기 흩어져 들어오니 새벽 창이 상큼하네.

4) 비야리성 : 중인도 지역에 있던 나라 이름. 유마거사가 살던 곳이다.

花應有意向人笑
滿院禪僧空度春

꽃은 응당 뜻이 있어 사람 향해 웃을텐데
집 안 가득 선승들은 그냥 봄을 보내는도다.

贈尙均

機用詞章老欲衰
近年無力接方來
清香散入曉風冷
窓外山花數朶開

尙均(尙均) 스님에게

늙으니 글 쓰는 솜씨도 쇠퇴해 가고
근년에는 찾아오는 이 맞이하기도 힘겹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맑은 향기 흩어져 들어오니
창 밖에 야생화 몇 송이 피어 있구나.

衲僧活計示說清

追風忌鞭影
誰是真龍骨
手把碧玉槌
打破精靈窟
錦鱗須透網
丹鳳鐵鎖裂
深深海底行
高高峰頂立
風前嘯兩嘯
天外喝一喝
烏石嶺頭雲
望洲亭前月
朝歸白鷺洲

내 살아갈 계책을 설청(說淸) 스님께 보임

기풍을 좇으면서 채찍 그림자를 꺼린다면
누가 진정한 용의 뼈가 되리오?
푸른 옥으로 만든 망치를 손으로 잡고
정령(精靈)의 굴을 때려 부수리라.
비단 비늘 물고기는 그물을 뚫어 버리고
붉은 봉황새는 쇠사슬을 찢어 버리어
깊고 깊은 바다 속으로 마음껏 다니고
높고 높은 봉우리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다.
바람 앞에 두어 번 울부짖다가
하늘 저 멀리 한번 외칠 것이다.
오석령(烏石嶺)의 구름
망주정(望洲亭) 앞의 달
아침에는 백로주(白鷺洲)로 돌아오고

暮宿黃牛峽
 已靈猶不重
 佛祖是何物
 暮天雲未合
 遠山無限碧
 踈雨過前山
 野塘秋水綠
 鋤樹喝使摧
 鑊湯吹教滅
 火宅清涼雨
 昏衢光明燭
 爲報清禪人
 還知此消息
 仲春風色寒
 尙對千岩雪

저녁에는 황우협(黃牛峽)에서 잠자네.⁵⁾
 이미 신령하나 오히려 귀중하지 않으니
 부처와 조사란 이 무슨 물건인가!
 저녁 하늘에 구름이 끼지 않으니
 먼 산이 무한히도 파랗구나.
 가랑비가 앞 산으로 지나가고
 들판의 연못엔 가을 물이 푸르네.
 칼나무⁶⁾를 고향쳐서 꺾어버리고
 끓는 술⁷⁾을 불어서 불을 꺼버리니
 불타는 집에 청량한 비가 내리고
 어두운 거리에 광명의 촛불이 밝혀지네.
 참선 하는 맑은 이에게 알리노니
 이러한 소식을 알기나 하는지?
 봄이 한창인데도 바람 기운이 차가우니
 오히려 천 바위에 쌓인 눈을 마주하네.

5) 오석령(烏石嶺)·망주정(望洲亭)·백로주(白鷺洲)·황우협(黃牛峽) 등은 모두 중국에 있는 고개·정자·삼각주·협곡 이름.

6) 칼나무: 칼이 나무처럼 솟아 숲을 이루고 있는 지옥의 한 종류.

7) 끓는 술: 끓는 술에 삼기는 고통을 받는 지옥의 한 종류.



守初 수초

【翠微大師詩集 취미대사시집】



山中偶吟

山靄夕將收
溪風颿欲起
怡然自點頭
紗在難形裡

산에서 우연히

저녁이 되니 산 안개는 걷혀 가고
계곡의 바람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하네.
흐뭇한 마음으로 고개 끄덕이나니
형용하기 어려운 속에 묘함이 있도다.

山居

山非招我住
我亦不知山
山我相忘處
方爲別有閑

산에 살며

산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나 여기 와 살지만
나 또한 산을 알지는 못한다네.
산과 내가 서로 잊은 곳에
비로소 별도의 한가로움이 있도다.

警相諍

彼此將幻身
俱生於幻世
如何幻幻中
復與爭幻事

서로 다툼을 경계함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환상의 몸을 갖고
함께 이 환상의 세상에 태어났네.
어찌하여 환상과 환상 속에서
다시 환상의 일을 가지고 다투는가?

金剛山白雲庵有感 金강산(金剛山) 백운암(白雲庵)에서

九井峰前玉作巖

구정봉 앞에 옥으로 된 바위 있는데

道人曾構數間庵
功成一夕歸何處
掛樹袈裟自濕嵐

도인이 암자 몇 칸 지어 놓았네.
공이 이루어지면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나무에 걸어 둔 가사가 푸른 산기운에 절로 젖네.

面壁

叅玄不用問西東
面壁觀心是祖風
自笑一聲人不曾
何須更覓主人公

면벽

깊은 진리 찾는데 동서로 다니면서 물을 필요 없으니
면벽하여 마음을 보면 이것이 조사의 기풍이라.
소리 내어 한번 웃어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다면
다시 주인공을 찾아서 무엇 하리오?

送竺空師

常掩巖扉究祖關
禪心忽變別離間
明朝林下無相伴
秋雨蕭蕭葉滿山

축공(竺空) 스님을 보내며

사립문 늘 잠귀 놓고 조사의 관문 궁구하다가
이별의 순간에 문득 선정의 마음이 흐트러지네.
내일 아침 숲 아래 함께할 이 없으리니
가을비 쓸쓸히 내리고 낙엽은 온 산에 가득하구나.

澗花

長短人情自不同
澗花依舊綴芳叢

산골짜기에 핀 꽃

길고 짧은 사람의 정은 같지 않는데
산골짜기에 핀 꽃은 언제나처럼 예쁘게 모여 있네.

乾坤已着無私力
春意寧教取次紅

천지 자연이란 사사로운 힘을 쓰지 않으니
봄의 뜻이 어찌 붉게 함에 차별하리오?

贈擇行上人

택행(擇行) 상인에게 드림

祖意明明百草頭

조사의 뜻이 온갖 초목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거늘

何須更向口皮求
最憐征鴈江天夕

무엇하러 반드시 입에서 찾을 것인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기러기 날아가는 강과 저녁
하늘

一片蟾光表裡秋

한 조각 달빛 아래 온 세상이 가을로 물든 모습이라.

睡起

자고 일어나

日斜簷影轉溪濱
簾捲微風自掃塵
窓外落花人寂寂
夢回林鳥一聲春

해 기울어 처마 그림자 시냇가로 옮겨가고
발 걷으니 산들 바람 먼지를 쓸어가네.
창 밖에 떨어지는 꽃 인적은 적적한데
꿈 깨고 보니 숲 속 새의 한 마디 지저귀이 봄이
로구나.

秋夜

가을 밤

寂無鐘梵夜三更
落葉隨風作雨聲
驚起拓牕清不寐

종도 울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밤
바람따라 날리는 낙엽 소리 마치 비가 오는 듯.
놀라 일어나 창문 열치니 맑아서 잠잘 수가 없는데

滿空秋月正分明

하늘 가득 가을 달은 참으로 또렷하도다.

回鄉

고향으로 돌아감

老來鄉國忽關神
日暖浮杯漢水春
到處物華渾是夢
見人談笑半非眞

늙어가니 문득 고향에 대한 생각 많아
따뜻한 봄날 한강에 술잔 띄우네.
가는 곳마다 자연의 경물은 모두가 꿈인 듯하고
사람을 만나 담소를 나누어도 반은 진실이 아니
라네.

門前槐柳飄花盡
園後梨海結子新
回首可憐如舊識
背城三角卓雲濱

문 앞에 화나무 버드나무는 꽃이 다 떨어지고
텃밭 뒤 배나무엔 새로 열매 맺혔네.
고개 돌려 보니 늘 보던 것처럼 사랑스러운데
성 뒤로 삼각산이 구름 가에 우뚝하구나.



明照 명조

【虛白堂詩集 허백당시집】



山居

山河天地月
彼此兩無心
又得春消息
楊花到處陰

산에 살며

산과 강과 하늘과 땅, 그리고 달
이것과 저것 서로가 무심하구나.
또한 봄소식을 얻으니
버들꽃이 도처에 흐드러졌구나.

次鄭同知韻

坐斷凡聖情
迷雲且掃滅
心光透徹明
沙界摠無物

정(鄭) 동지(同知)¹⁾에게 답하는 시

범부(凡夫)니 성인(聖人)이니 하는 생각 다 끊고
미혹의 구름 또한 쓸어 없앴네.
마음의 빛이 밝아 투명하게 꿰뚫으니
온 우주에 아무 것도 없구나.

登佛頂臺

雲水飄然袖
扶筇上高臺
眼前無一物
滄海小於杯

불정대(佛頂臺)²⁾에 올라

구름처럼 물처럼 자유로운 납자가
지팡이 짚고 높은 대에 올랐네.
눈 앞에 한 물건조차 없으니
푸른 바다가 찻잔보다 작구나.

1) 동지(同知) : 조선시대 지사(知事)의 보좌역을 맡은 종2품 관직.

2) 불정대(佛頂臺) : 금강산에 있다.

共坐山影樓示巡使

산영루(山影樓)에 함께 앉아 순사(巡使)³⁾에게 보임

樓外霏溪水
聲聲洗客心
談玄開一笑
山月照楓林

소낙비 내려 누각 너머 시냇물
소리 소리 나그네 마음 씻어주네.
깊은 이치 논하며 한바탕 웃노라니
산 위의 달이 단풍 숲을 비추네.

佛影臺

불영대(佛影臺)⁴⁾

萬里秋光晚
千山葉正飛
虛閑無一物
看盡暮雲歸

만 리에 가을 빛 저물고
천 산에 낙엽 날리는 때
텅 비고 한가로와 한 물건조차 없구나.
저무는 하늘 떠가는 구름 한없이 바라본다.

示凜師

름(凜) 스님에게

相見無言處
山禽已了啼
若能重漏洩
他日恨噬臍

서로 만나 말이 없는 곳
산새가 이미 울어버렸다.
만약 다시 누설한다면
훗날에 몹시 후회할거야.⁵⁾

3) 순사(巡使) : 조선 시대에, 병란(兵亂)이 있을 때 왕명으로 지방의 군무(軍務)를 순찰하던 임시 벼슬.

4) 불영대(佛影臺) : 묘향산 보현사에 딸린 암자로, 경치가 아름다워 묘향산 8경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 월출의 광경이 아름답다 한다.

5) 원문에는 '서제(噬臍)'라고 하였다. 배짱을 물어뜯으려 하여도 입이 닿지 않는다

臨終偈

임종계

劫盡燒三界
靈心萬古明
泥牛耕月色
木馬掣風光

시간이 다하고 온 우주도 다 타버릴 때
신령한 마음이 만고에 밝으리니
진흙소는 달빛을 갈고
나무말은 풍광을 끌고 가리라.

千佛千塔懷古

천불천탑(千佛千塔)⁶⁾에서 회고함

此是人間眞佛國
千重鴈塔卓雲林
啼鳥開花誰與和
松風蕭瑟定知音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부처님 나라이니
천 겹의 줄지은 탑들이 구름긴 숲에 우뚝하구나.
우는 새 피는 꽃에 누가 화답할 것인가?
소나무에 스쳐 우는 바람이야말로 그 마음 알아
주는 벗이로다.

拾栗

밤을 주우며

不忍飢腸似電鳴
經行拾栗入雲扃
夕陽山色如紅錦

우레 울리는 듯한 주린 창자 견딜 수 없어
밤을 주우며 걷다가 구름 속까지 들어갔네.
석양녘 산색은 붉은 비단과도 같은데

는 뜻으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의미이다.

- 6) 천불천탑(千佛千塔) :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운주사(雲住寺, 혹은 運舟寺)를 가리키는 듯하다. 운주사는 신라시대 도선이 세웠다는 등의 여러 전설이 있으나,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가 없다. 여기에 천 좌의 불상과 천 기의 탑이 있었다고 해서 ‘천불천탑’의 사찰이라고 하나, 후대에 파괴와 도난이 심하여 지금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불상과 탑이 전통적인 양식과는 현격하게 다른 특이한 사찰이다.

秋雨霏霏落葉聲

추적추적 가을비에 젖는 낙엽 소리.

行俊求語

행준(行俊) 스님이 한 마디 청하기에

萬疑都就一疑看
疑去疑來疑自看
動地驚天俱打了
大千沙界眼前看

만 가지 의심을 한 가지 의심으로 모아서
의심하고 의심하여 의심하는 스스로를 보소서.
하늘과 땅이 놀라도록 모조리 타파하면은
삼천대천세계가 눈 앞에 보이리라.

待友

벗을 기다리며

登樓悵望故人形
軒外無聞杖策聲
何日禪窓親覲面
終霄剪燭洩深情

누각에 올라 친한 벗의 모습을 애타게 기다리건만
난간 너머 지팡이 소리 들려오질 않는구나.
어느 날에 참선하는 창문 가에 얼굴 보며 앉아서
밤새도록 촛불 심지 자르며 깊은 정을 펼쳐나 볼
까.

紅菊

붉은 국화

千林黃葉霜風落
唯有菊紅獨耐寒
家國興亡都不管
破顏開笑向人閑

천 그루 숲이 누렇게 물들어 서릿 바람에 떨어지나
오직 붉은 국화만이 추위를 견디어 내는구나.
나라의 흥망에는 아랑곳 하질 않고
인간 향해 활짝 웃으며 한가롭구나.

咏懷

久住香爐樂自多
 金剛移入樂尤多
 樂來樂去非塵樂
 共樂無生樂亦多

생각을 읊음

오랫동안 향로봉에 있으면서 아주 즐거웠었지.
 금강산으로 옮겨와서는 더욱 즐거웠었고.
 즐거움이 오고 가는 건 세속의 즐거움이 아니요
 그 즐거움 무생(無生)과 함께 하니 더더욱 즐거웁
 고야.

幻智

幻去幻來俱是幻
 誰知幻法本無根
 縱然識得皆爲幻
 滅智方登涅槃門

헛 그림자의 지식

환상이 오고 가는 것 그 모두가 환상이라네
 환상의 법이란 본래 뿌리가 없는 것을 누가 알리오?
 그 모두가 환상이란 것 안다고 해도
 안다는 것조차 사라져야 비로소 열반의 문에 오
 르리.

警世

世上功名如草芥
 人間浮命似溪流
 今生若不須慙做
 未識將何得自由

세상을 일깨움

세상의 공명이란 지푸라기와 같은 것
 인간의 뜬 목숨이 흘러가는 시냇물 같네.
 금생에 만약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장차 어느 때에 자유를 얻을지 모르겠네.

山居吟

石逕嵯峨行且危
人寰迥絕往來稀
月中香桂庭前落
雲外歸鴻天際飛

瑟瑟秋風侵疎屋
蕭蕭楓葉撲班衣
而今永別紅塵世
願作明心救庶期

산에 사는 노래

아스라한 돌오솔길 위태로운데
사람 사는 세상과는 멀어서 왕래도 드물어.
달빛 속에 향기로운 계수나무 잎 뜰 앞에 떨어지고
구름 바깥에 돌아오는 기러기는 하늘 끝으로 날
아가네.

스산한 가을 바람은 영성한 집으로 불어닥치고
쓸쓸한 단풍잎은 누더기옷에 날아와 부딪치네.
이젠 홍진(紅塵)의 세상 영원히 이별하여
밝은 마음 이루어 수많은 사람 구제했으면.



處能 처능

【白谷集 백곡집】



感興

浮雲終日行
 行行向北歸
 萬古英俊人
 得失多是非
 是非竟何有
 盡逐浮雲飛
 浮雲本無跡
 我與雲相依
 手中桃竹枝
 身上薜蘿衣
 夙心多自負
 空嗟與時違

감흥

뜬구름이 종일토록 다니니
 다니고 다니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네.
 만고에 뛰어났던 사람
 얻고 잃음에 시비가 많구나.
 시비를 한들 결국 무엇이 남을지?
 모든 것이 뜬구름을 쫓아 날아다니는 것.
 뜬구름이란 본래 자취가 없으니
 나는 구름과 더불어 서로 의지하네.
 손 안에 대나무 지팡이가 있고
 몸 위에는 넝쿨로 지은 옷이 있을 뿐.
 평소에 가진 뜻에 자부하지만
 시대와 맞지 않는 것이 한탄스럽도다.

宿田家

落日下午山鳥飛急
 望鄉客子歸不及
 前林漸黑草蟲喧
 問路無人時獨立
 隨岸忽到兩家村
 豆花深處初掩門
 主翁堅臥呼不應
 怒聲呦呦還見憎

농가에서 하룻밤 지내며

새들이 급히 나는 해 질 무렵 산을 내려갔다가
 미처 돌아오지 못한 나그네가 되었네.
 저 앞의 숲은 점차 어두워지고 벌레 소리 드높아
 지는데
 길 물어볼 사람조차 없어 멍청히 서 있기도 하였네.
 언덕을 따라 가다 문득 두 집 있는 마을에 다다르니
 콩 꽃이 무성한 곳에 대문은 굳게 잠기었네.
 주인 늙은이는 누운 채 불러도 대답 없고
 성난 목소리로 도리어 신경질을 내네.

老嫗出叱犬噬衣
 雖欲奮去終何歸
 低顏僅得弊簷下
 風勁霜嚴徹寒夜
 夜深嬰兒啼不絕
 猛虎聞之規藩穴
 平生見困莫甚此
 直待天明
 扶錫促行不告別

늙은 할미는 나와 꾸짖고 개는 옷을 무는데
 떨치고 가고 싶지만 갈 곳이 어디 있으랴.
 고개 숙이고 겨우 낡은 처마 아래에 허락을 받으니
 바람은 드세고 서리는 매서워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네.
 밤이 깊자 갓난 아이는 울기를 그치지 않고
 사나운 호랑이는 그 소리에 울타리 구멍을 엿보네.
 평생에 겪은 곤란이 이보다 심한 적이 없었으니
 날 밝기만을 기다려
 떠난다는 말도 없이 재빨리 걸음을 재촉하였네.

短歌行

短歌一曲誰能知
 不管人間歡與悲
 鼓盆送死莊子休
 擊筑忘生高漸離
 縛束形骸天地中
 終須凜凜生長風
 由來哀樂竟非眞
 大抵浮雲流水同
 短歌之興何無窮

짧막한 노래

짧은 노래 한 곡 누가 알리오?
 인간의 기쁨과 슬픔 상관 앎는다네.
 장자는 항아리를 두드리며 장사를 지냈고¹⁾
 고점리는 거문고를 두드리며 생사를 잊었었지²⁾.
 천지 사이에 이 몸뚱아리 하나 묶어두었지만
 끝내는 큰 바람 시원하게 한번 불어보리라.
 슬픔과 즐거움이란 참된 것이 아니니
 뜬구름이나 흐르는 물이나 한가지이지.
 짧은 노래의 흥이 정말 끝이 없도다.

1) 장자(莊子)는 중국 전국시대의 도가 사상가로, 아내가 죽었을 때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2) 고점리(高漸離)는 중국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악사로, 거문고를 잘 탔다.

梨花

滿樹初成雪
 辭枝便逐風
 亂鋪溪上下
 殘點屋西東
 自惜蜂房廢
 誰憐蝶路窮
 一春花事盡
 山月謾朦朧

배꽃

나무 가득 눈이 내린 듯하더니
 가지를 떠나면서는 바람을 쫓네.
 계곡 위 아래를 어지럽게 뒤덮더니
 남은 몇 점은 동서로 흩날리네.
 할 일이 없어진 벌도 애석하지만
 다닐 곳이 없어진 나비는 누가 가련히 여겨주리오?
 한 철 봄 꽃의 일이 끝나고 나니
 산 위의 달이 흐릿하구나.

出山

步步出山門
 鳥啼花落後
 烟沙去路迷
 獨立千峯雨

岸柳條條綠
 溪桃樹樹紅
 鳴笳獨歸路
 山鳥語春風

산을 나가는 길에

걸음 걸음 산문에서 나가니
 새 울고 꽃은 이미 떨어졌네.
 모래사장에 안개 끼니 가는 길이 헛갈려서
 우두커니 서 있으니 천 봉우리에 비가 내린다.

언덕에 버드나무 가지마다 푸르고
 시냇가의 복숭아는 나무마다 붉도다.
 지팡이 소리 울리며 홀로 돌아가는 길
 산 새가 봄바람에게 말을 건다.

臨水臺

臨水臺前臨水坐
棲雲山上望雲歸
水自澄清雲自白
與吾無是亦無非

임수대(臨水臺)

임수대에서 물을 가까이 마주하고 앉아
서운산 위에 돌아가는 구름을 바라보네.
물은 절로 맑고 구름은 절로 희니
나에겐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다네.



懸辯 현변

【枕肱集 침굉집】



呈岑道人

西來一寶燭
何必苦推尋
夜深山雨後
涼月上東岑

잠(岑) 도인에게 드림

서쪽¹⁾에서 온 보배로운 촛불 하나
무엇하러 힘들게 찾으려 하나?
깊은 밤 산에 비 내린 후
서늘한 달이 동쪽 봉우리 위에 떠올랐네.

送友人

萬水千山路
淒然獨去身
無論去與住
俱是夢中人

벗을 보내며

만 산 천 강의 길을
그대 홀로 떠나가는구려.
떠나는 자든 머무는 자든
모두가 꿈 속의 사람인 것을.

幽居偶吟

莫笑生涯薄
腰懸一小刀
騰騰天地內
處處盡吾家

은거하면서 우연히 읊다

나의 삶이 박박하다고 비웃지 마오
허리에 작은 칼 하나 차고 있다오.
천지 사이에 기세등등하여
곳곳이 모두 나의 집이라오.

1) 서쪽은 인도를 지칭한다.

與故人遊仙巖寺

秋晴孤寺夜
相對月明時
此中無限興
坐咏古人詩

벗과 함께 선암사(仙巖寺)에 갔다가

외로운 절 맑게 갠 가을 밤
달빛 밝은 때 서로 마주하네.
이 가운데의 무한한 흥
앉아서 옛사람의 시를 읊어 보네.

清夜聞磬

一聲清磬夢初醒
驚起松窓月掛明
安得思如陶謝手
令渠寫我此中情

맑은 밤에 풍경 소리 듣고서

맑은 풍경 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
놀라 일어나 보니 창 밖 소나무에 달이 밝게 걸렸네.
어찌하면 도연명이나 사영운²⁾과 같은 솜씨를 얻어
나의 이 기분을 표현해 볼까!

贈行脚僧

爾也年逾四十籌
飽叅知識遍南州
西來妙旨何煩問
雲盡秋空月似鉤

행각하는 스님에게

그대는 나이가 마흔이 넘도록
남쪽으로 수많은 선지식을 찾아뵈었지.
서쪽에서 온 묘한 뜻을 무엇하러 번거롭게 묻고
다니나?
구름 걷힌 가을 하늘에 달이 낮처럼 걸렸거늘.

2) 도연명(陶淵明)과 사영운(謝靈運): 모두 중국 역사상 이름난 시인이다.

題鰲山庵

오산암(鰲山庵)³⁾에서

山高岩迥接雲端
世外仙都日月閑
石室蕭然僧入定
不關秋色亂層巒

산 높고 바위 우뚝하여 구름 끝에 닿았는데
세상 벗어난 신선의 땅 세월이 한가롭구나.
고요한 석실에서 스님은 선정에 드시어
봄우리마다 가을빛이 난만한 것을 상관하지 않으
시네.

歸家時途中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家在天涯遠
迢迢七日程
隨風桐葉落
和露菊花明
蕭索三秋晚
飄然一錫輕
應知故山鶴
待我月中鳴

집은 멀리 하늘 끝에 있어
이레나 가야 할 아득한 길.
바람 따라 오동잎 떨어지고
이슬 맺힌 국화는 화사한데
쓸쓸한 늦가을에
지팡이질 경쾌하네.
내가 살던 옛 산의 학이
나를 기다리며 달빛 속에 울고 있으리.

3) 오산암(鰲山庵) : 전라남도 하동군 구례읍에서 약 2km 남쪽인 죽마리 오산(鰲山) 꼭대기에 있는 암자. 544년(성왕 22) 연기조사가 처음 건립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사성암(四聖庵)이라 한다. 오산은 해발 530m로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사방이 한눈에 들어오는 뛰어난 경승지이다.

香爐庵吟

향로암(香爐庵)⁴⁾의 노래

萬事平生已墮甌

만사는 이미 다 지나버린 일이니

兀然高臥碧山層

푸른 산 속에서 곳곳이 앉았노라.

澄心祖域心猿亂

마음을 맑히려 할 조사의 땅에서 마음은 원숭이처럼 나부대고

息意宗乘意馬騰

뜻을 쉬어야 할 우리 종단에서 생각은 말처럼 날뛰네.

三尺竹筴挑日月

세 척 지팡이로 해와 달을 건드리고

七斤麻衲抱鵬鵬

일곱 근 삼베 누더기로 곤과 봉⁵⁾을 껴안네.

功名富貴浮雲耳

부귀공명이란 뜬구름일 뿐이니

擬作禪林本分僧

선림에서 본분에 충실한 승려가 되고자 하네.

4) 향로암(香爐庵) : 향로암은 금강산에도 있었고, 전라남도의 조계산에도 있었다. 침평현변이 전라도에서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보아 조계산의 향로암일 가능성이 높다.

5) 곤(鵬)과 봉(鵬) : 『장자(莊子)』에 나오는 전설상의 물고기와 새. 그 크기가 대단히 커서 사람의 큰 포부와 기개를 상징한다.



策憲 책헌

【月峯集 월봉집】



示悟師

月下清溪咽
 風前落葉紅
 分明聲色裡
 何更說眞空

오(悟) 스님께 보임

달 아래 맑은 시내에 안개 끼고
 바람 앞에 낙엽은 붉구나.
 소리와 빛 속에 분명하거늘
 다시 무엇하러 진공(眞空)을 설하리?

訪主人公

三際尋無住
 十方覓沒鄉
 青山與紫陌
 何處是渠場

주인공을 찾아서

삼제¹⁾를 찾아봐도 머무는 곳이 없고
 시방²⁾을 둘러봐도 있는 곳이 없구나.
 푸른 산과 붉은 도시
 그 어디에 있는 것인지!

幽居

久住烟霞裡
 噉蔬世味輕
 床寒知霧濕
 庭滑認苔生
 峰月臨軒白
 山泉入戶鳴

은거

자연 속에 오래 머물며
 푸성귀 먹고 사는 세상 살이 소박하구나.
 책상이 차가우니 안개에 젖었음을 알겠고
 뜰이 미끄러우니 이끼가 생겼음을 알겠구나.
 봉우리에 솟은 달은 집 앞에 밝고
 산골의 샘물은 소리 내며 흐르네.

1) 삼제(三際) :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시간.

2) 시방[十方] : 동·서·남·북과 그 사이, 그리고 위와 아래까지의 열 가지 방향. 모든 방향을 의미한다.

幽居雖不貴
只欲便韜名

은거하여 사는 것이 귀한 것은 아니나
다만 이름을 숨기고자 함일 따름이라.

獨坐茅庵萬慮空

떠집에 홀로 앉았으니 만 가지 생각이 다 비는구나

欲參眞妙道
先自萬緣空
深入青山裡
端居石室中
經行雲霧共
去住鹿麋同
世慮都忘却
玄微仔細窮
身閑憑竹榻
氣宇掛清穹
睡至遊臺畔
思來步澗東
巖間花灼灼
林外草蒙蒙
日久根塵歇
年多道味融
隔簾看岫月
倚檻聽松風
若到亡羊處
頭頭活眼通

참되고 묘한 도를 참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 만 가지 인연을 비워야 하리.
푸른 산 속으로 깊이 들어가
석실에 단정히 앉기도 하고
구름 안개와 함께 거닐기도 하며
떠나고 머물기를 사슴과 함께 하네.
세상의 근심을 모두 잊어버리고
깊고 미묘한 이치를 자세히 궁구하니
몸은 대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가롭고
기개는 맑은 하늘에 걸리었네.
눈길은 저 높고 평평한 대(臺) 곁으로 노닐며
사색에 잠겨 산골물 동쪽으로 거닐기도 하니
바위 틈엔 꽃이 화사하게 피었고
숲 바깥엔 풀로 뒤덮혔구나.
날이 오래 되니 보고 듣는 것 쉬게 되고
해가 많이 지나니 도의 맛이 우러나네.
주렴 너머 산 꼭대기에 달이 뜨고
난간에 기대어선 솔바람 소릴 듣노라.
만약 양을 잃어버린 곳³⁾에 이르더라도
모든 것이 환안⁴⁾으로 통하리라.

歎世浮譽

세상의 헛된 명예를 탄식함

也吾胷中有一句
爲君題詠最難形
吾師若問甚麼語
向道風搖殿角鈴

내 가슴 속에 한 마디 할 말이 있건만
시를 지어 보아도 정말 나타내기 어려워.
우리 스님께서 만약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
바람이 법당 모퉁이 풍경을 흔든다고 하리라.

揮筆吟詩非我事
倚窓閑睡是吾禪

붓을 휘둘러 시를 짓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요
창가에 기대어 한가로이 조는 것이 우리가 하는
선이라.

西來面目君知未
風送溪聲月檻邊

서쪽에서 온 참뜻을 그대는 아시는지?
바람결에 시냇물 소리 달빛 비치는 난간으로 들
려오네.

終朝竟夜窮何道
恰似騎牛更覓牛
可笑如今叅學輩
將心待悟幾時休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도를 찾고 있는지?
흡사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과 같구나.
가소롭구나, 요즈음 참구하는 무리들
마음을 써서 깨닫기를 기다리니 어느 때에나 쉬
리오?

奇談恠語稱知識
博覽多聞擬聖流
雖善經書詩賦筆
未明心地盡虛頭

괴이한 말들을 하면서 선지식이라 일컫고
많이 보고 들었다고 성인인 척하니
비록 경전을 잘 알고 시를 잘 쓴다 한들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모두가 헛것이로다.

3) 양을 잃어버린 곳 :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가 갈림길이 너무 많아 결국은 양을 찾지 못했다는 고사[多岐亡羊]. 여러 가지 복잡한 학설이 너무 많아 오히려 진리를 찾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4) 활안(活眼) : 사물의 이치를 간파하는 살아 있는 눈.

自心觀

片時歷歷千經義
一念昭昭億佛心
從此頓忘塵世慮
白雲高臥但觀心

내 마음을 관하다

잠간 동안에 천 가지 경전의 뜻을 또렷이 알고
한 생각 사이에 억만의 부처님 마음을 환하게 보네.
세속의 온갖 걱정들 모조리 다 잊고
흰 구름 속에 높이 누워 다만 마음만을 관하노라.



性聰 성충

【栢庵集 백암집】



別學天上人

莫謂有離合
此身無去來
誰知大道上
天地一浮埃

학천(學天) 상인과 이별하며

만남과 이별이 있다고 말하지 말지니
이 몸은 가고 옴이 없대요.
누가 알리오, 대도(大道)의 위에서는
천지도 하나의 뜬 티끌에 불과함을.

秋夜獨坐

秋夜坐石牀
露冷虫喧急
四壁悄無人
虛簷明月入

가을 밤 홀로 앉아

가을 밤 돌 침상에 홀로 앉았으니
이슬은 차가웁고 벌레 소리 요란하구나.
사방이 고요하여 아무도 없는데
텅 빈 처마에 밝은 달만 비취 드네.

入山

行行過石溪
細徑通疎竹
不覺濕禪衣
鶴搖松露滴

산으로 들어가며

걷고 또 걸어 돌 위의 시냇물을 건너니
좁은 오솔길이 성긴 대숲으로 통하누나.
수행복이 젖는 것도 알지 못하였는데
학이 솔잎에 맺힌 이슬 방울을 흔들고 있네.

題暉上人房

寺在清溪上
烟生碧樹間
幽人寂無事
終日對青山

휘(暉) 상인의 방

맑은 계곡 위에 절이 있어
푸른 나무 사이로 안개가 생겨나네.
은거하는 이는 일 없이 고요하여
하루 종일 청산만 마주하네.

春晴

遠岵收微雨
高窓引細風
小眠仍隱几
殘夢鳥聲中

비 개인 봄날

먼 산 위 바위 쪽으로 가랑비 물러가고 나니
높은 창문으로 산들 바람 불러 오는구나.
잠시 졸다가 다시 안석에 기대어서는
새 소리 들으며 남은 졸음 즐기노라.

次庵師韻

碧樹蟬鳴急
青山暮雨疎
道人幽寂意
竹榻臥看書

衰老仍多病
親知日漸疎
閑懷誰與說
斫樹白而書

암(庵) 스님의 시에 답함

푸른 나무에 매미 울음 요란한데
청산 저물녘에 가랑비 떨어지네.
도인의 깊고 고요한 마음
대 평상에 누워서 책을 보누나.

늙어지니 병도 많아져
친하던 이도 점차 소원해지네.
한가로운 생각을 누구에게 말해볼까?
나무를 잘라 흰 면에다 적어보네.

碧岑雲淡淡
蒼竹雨疎疎
無限清幽思
高聲一讀書

푸른 고개에 얹은 구름 덮이었고
파란 대숲엔 뚝뚝 비 떨어지네.
무한히 맑고 깊어지는 생각
높은 소리로 한바탕 책을 읽노라.

途中春暮

길 가던 중에 봄날 저물어

落花千片萬片
垂柳長條短條
悵悵天涯獨客
不堪對此魂消

천 조각 만 조각 떨어지는 꽃잎
긴 가닥 짧은 가닥 늘어진 버들 가지.
슬프구나, 하늘 끝 외로운 나그네
이를 보고 있자니 혼이 다 녹아내리는구나.

偶吟

우연히 읊다

安居圓覺大伽藍
絕聖離凡孰共參
獨臥獨行仍獨坐
夜來惟對月成三

편안히 있으면서 원만한 진리를 깨닫는 큰 가람
성인도 범인도 다 떠나 있으니 누가 함께 수행할까?
홀로 눕고 홀로 다니며 홀로 앉았으니
밤이 되자 오로지 달을 마주하여 셋이 되었네.¹⁾

1) 달과 자신과 자신의 그림자가 셋을 이루었다는 말. 원래 중국 당나라의 시인 이백(李白)의 시 「월하독작(月下獨酌)」에 나오는 표현이다.

夜聞梵音贈彩英魚山

밤중에 범패소리를 듣고 채영(彩英) 어산(魚山)²⁾에게 드림

空山靜夜道心清
萬籟俱沉一月明
無限世間昏睡輩
孰聆天外步虛聲

텅 빈 산 고요한 밤에 도심(道心)은 맑기만 한데
온갖 소리 모두 사라지고 달 하나만 밝구나.
수많은 세간의 어리석은 무리들
누가 하늘 바깥 허공 밟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漁父

어부

穿魚換酒渡頭沙
歸臥扁舟醉放歌
楓葉荻花秋色老
一江寒雨滿漁蓑

나루터 모랫사장에서 잡은 물고기를 술로 바꾸어
조각배로 돌아와 취하여 마음껏 노래 부르네.
단풍잎 물억새꽃 가을빛 짙어가는데
온 강에 찬 비 내리어 어부의 도롱이 가득 젖네.

送春

봄을 보내며

桃李風流夢一場
谷鶯迂木弄清商
道人不惜春歸去
只愛禪窓白日長

복숭아와 오얏의 풍류는 한 바탕 꿈이 되었고
계곡의 앵무새가 숲으로 옮겨와 맑은 소리 희롱하네.
도인은 돌아가는 봄을 애석해 하지 않나니
다만 참선하는 창문에 밝은 낮이 길어짐을 사랑할 뿐.

2) 어산(魚山) : 범패(梵唄)와 같은 의미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이다. 여
기서는 범패를 전문으로 하는 스님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病中吟

經旬病臥竹方牀
 辱暑熏蒸苦日長
 安得本空眞妙藥
 將身與病一時忘

병을 앓으며

열흘을 병으로 대나무 침상에 누워 있으니
 후끈후끈 찌는 더위에 긴 낮 보내기가 힘들구나.
 어떻게 하면 본래부터 공(空)하다는 참되고 묘한
 약을 얻어서
 몸과 병을 한꺼번에 다 잊어버릴까!

放觸蛛網蝶

忙忙飛去又飛回
 誤觸蛛絲粉翅摧
 戒爾從今其輕薄
 由來好色喪身媒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놓아주며

바쁘게 날아서 왔다 갔다 하더니만
 거미줄에 잘못 걸려 날개가 꺾이었구나.
 이제부터 너에게 그 경박함을 경계하노니
 색을 좋아하다가는 몸을 망치게 될 걸.

春興

細雨初晴三月時
 桃花勝錦柳如絲
 一春無限好消息
 不有幽禽說句誰

봄의 흥취

보슬비 갓 개인 삼월의 어느 날
 복사꽃은 비단보다 낮고 버들은 실과 같구나.
 이렇게도 좋은 봄의 소식을
 산 새가 아니었다면 누구에게 말을 하리오?

挽人

죽은 이를 애도하며

白日西傾逝水東

밝은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물은 동쪽으로 흘러
가는데

浮生定似夕煙空

뜬 인생은 정녕 허공의 저녁 연기 같구나.

誰知大造茫茫內

누가 알리오, 아득한 천지 안에서

去住元來一夢中

가고 머무는 것이 애당초 한바탕 꿈 속의 일인 것을.



道安 도안

【月渚堂大師集 월저당대사집】



村齋夜吟

半窗明月夜
孤卧草堂閒
忽破歸山夢
雞鳴曉氣寒

시골 집 깊은 밤에 읊다

창 가운데 밝은 달 걸린 깊은 밤
한가로운 초가집에 홀로 누웠네.
문득 산으로 돌아가는 꿈을 깨고 보니
새벽 닭 우는 소리에 새벽 공기가 차구나.

偶吟

古今幾晝夜
天地一虛廳
日月燈明下
流觀普眼經

우연히

고금의 세월 밤낮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천지란 하나의 텅 빈 집에 불과한 것.
해와 달이 등불처럼 밝을 때
『보안경(普眼經)』¹⁾을 훑어 보노라.

寓意

宇內百年客
枕邊千里僧
天山與地水
隨意任騰騰

마음 속의 뜻을 맡겨

우주 속에 백 년의 나그네
베개 머리의 천 리 수행자.
하늘에 솟은 산과 땅 위로 흐르는 물
어디든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닌다네.

1) 『보안경(普眼經)』: 열가지 종류의 『화엄경』 가운데 하나이다. 해운(海雲)비구가 지닌 것이라 하는데, 수미산을 모은 붓과 네 개의 큰 바닷물을 먹으로 하여도 한 품(品)의 경을 쓸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곧, 우주 자연 자체가 하나의 경전임을 말한 듯하다.

空門建陽

공문(空門)²⁾에 봄이 되어

日月光天德

해와 달은 하늘의 덕을 빛내고

山河壯帝居

산과 강은 제왕의 거처를 장엄한다.

金輪萬萬歲

금륜(金輪)³⁾은 만만세 이어지고

四海一車書

사해(四海)⁴⁾는 한 수레의 책이다.

春雪

춘설

三月年年花滿山

삼월이면 해마다 꽃이 산에 가득하니

紅紅白白間斑斑

붉은 색과 흰 색이 사이 사이 섞이었네.

如何此日非前日

오늘은 어이하여 전과 달리

雪滿千峯萬壑間

천 봉우리 만 골짜기에 눈이 가득 쌓였나.

有濫號竊形 汨於利欲 至於獷俗成習. 瞋目發毒 揚揚難禁
竟至亂倫故 思歸言志.

함부로 호칭을 쓰고 형상을 훔치며 이익과 욕망에 골몰하여 사나
운 풍속이 관습을 이루기에 이르렀다. 성난 눈으로 독기를 내뿜
으며 날뛰는 것을 금하기 어려워 마침내 질서가 엉망이 되기에
이른 까닭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뜻을 적는다

2) 공문(空門) : 공(空)의 이치를 탐구하는 문. 곧 불교, 혹은 사찰을 의미한다.

3) 금륜(金輪) : 고대 인도의 우주관에서 허공 위에 풍륜(風輪)이 있고, 풍륜 위에
수륜(水輪)이 있고, 수륜 위에 금륜이 있으며, 금륜에 산이나 강과 같이 인간이
사는 땅이 있다고 한다.

4) 사해(四海) : 사방 바다의 안에 있는 육지 전체. 인간이 사는 땅 전체를 의미한
다.

同途異轍固紛如
引導何人設鹿車
舉世乖張猿裂服
一身飄落鳥栖蘆
築庭決不陳堯語
魔穴猶難闡佛書
鸞鳳本非雞伴侶
五雲深處欲凌虛

名藍自是鳳龍居
法地今成鳥鼠墟
萬里飄飄天外鶴
一年栖止樂中魚

梅檀樹下誰揮擢
豺虎羣中尚趑趄

何處深山離世地
秋風遠去錫飛徐

같은 곳으로 가면서도 길을 달리하여 어지러우니
누가 사슴 수레⁵⁾ 마련하여 인도할 것인가?
온 세상이 원숭이가 옷을 찢듯이 갈라지고
새가 갈대숲에서 살듯이 한 몸이 영락하였네.
걸왕⁶⁾의 뜰에 요임금⁷⁾의 말을 쓸 리 없고
마귀의 굴에 불교의 경전이 펼쳐질 리 없으리.
난새와 봉황은 본래 닭의 반려가 될 수 없으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서 허공을 타고 오르리.

이름난 사찰이란 봉황과 용이 사는 곳인데
진리의 땅이 이제는 새와 쥐새끼의 터가 되었구나.
하늘 멀리 학은 만 리 먼 길을 날아가고
즐거움 속의 물고기는 일년 내내 편안히 지내는
구나.

전단수 아래에서 누가 손짓하고 있건만
승냥이와 호랑이가 우글거리는 속에 아직도 머뭇
거리네.

깊은 산 어디가 세상을 벗어날 곳인가?
가을 바람 속에 지팡이 짚고 멀리 떠나가노라.

5) 사슴 수레 :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집에 불이 났는데도 아이들이 그것을 모르고 피하지 않자 사슴수레가 있으니 타고 놀라고 하며 유인하여 불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6) 걸왕(桀王) : 중국 고대 하(夏)나라의 왕. 포악하기로 유명하였다.

7) 요(堯)임금 : 중국 신화에 나오는 임금으로, 인품이 어질기로 유명하였다.

臨終偈

浮雲自體本來空
本來空是太虛空
太虛空中雲起滅
起滅無從本來空

임종계

뜬 구름은 그 자체가 본래 공한 것이요
본래 공한 것은 바로 저 허공이로다.
허공에 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지니
생겼다 사라짐이란 온 데 없는 본래의 공이라.



秋鵬 추봉

【雪巖亂藁 설암난고】



深谷

清泉鳴石齒
 秋日照山眉
 谷邃行難遍
 愁倚一藤枝

깊은 계곡

맑은 샘물은 돌의 이빨을 울리고
 가을 해는 산의 눈썹을 비추네.
 골짜기가 깊다 보니 두루 다니기 어려워
 갑갑한 마음으로 지팡이에 기대어보네.

贈客僧

袖裏長風滿
 筇邊片月斜
 斷雲無住著
 何處是君家

객승에게

소매 속엔 긴 바람 가득하고
 지팡이 곁으로는 조각달이 기울어졌네.
 머무는 곳 없는 조각 구름
 어느 곳이 그대의 집이런고?

田中秋事

荒田穀已熟
 霜後風前落
 粟粒似金沙
 忍看群鳥啄

가을의 들판

거친 들판에도 곡식이 이미 익어서
 서리가 내리자 바람 앞에 떨어지네.
 곡식 알이 금모래와도 같은데
 수많은 새들이 쪼아먹는 것 차마 보리오?

古寺

嶽寺甚岑寂
溪雲閑去來
庭中復何有
片雪點蒼苔

오래된 절

산 속의 절 몹시도 고요하기만 하고
골짜기의 구름은 한가로이 오고 가네.
뜰 가운데엔 또 무슨 일이 있나?
한 송이 눈이 푸른 이끼에 점을 찍네.

雨中行

斜風時撲面
細雨又沾衣
杖拂垂林露
山中獨自歸

비 속에 길을 가며

비스듬한 바람 얼굴로 불어오고
보슬비는 옷속까지 적시네.
지팡이로 수풀에 맺힌 물방울 떨구면서
산 속으로 홀로 돌아가네.

觀空僧

岑峯幽邃寄高情
弟是松雲鶴是兄
隱豹豈曾嫌霧重
盤龍元自喜潭清
心閑一境長觀壁
目對千山獨倚檣
機息不知寒暑變
也知霜降驗鍾鳴

공(空)을 관(觀)하는 스님

높은 이상 품고서 심심산골에 들어오니
아우는 소나무와 구름이요 학은 형이로다.
숨은 표범이 두터운 안개를 어찌 싫어하리오?
서린 용은 원래부터 맑은 연못을 좋아한다네.
마음은 경계에 한가로와 늘 벽을 관(觀)하고
눈은 천 산을 마주하여 홀로 난간에 의지하네.
생각이 그치니 추위와 더위 바뀌는 것도 알지 못
하고
서리 내리고 종 울리는 것만 알 뿐이네.

春日感興

巖前澗水碧於藍
雨後梨花白如雪
物物自開大施門
也知不費娘生舌

봄날의 감흥

바위 앞의 산골물은 쪽빛보다 푸르고
비 온 뒤의 배꽃은 눈처럼 희구나.
물물마다 큰 보시의 문을 여니
굳이 혀를 놀릴 필요가 없겠구나.

聞溪

溪聲自是廣長舌
八萬眞經俱漏洩
可笑西天老釋迦
徒勞四十九年說

시냇물 소리 들으며

시냇물 소리는 절로 장광설이어서
팔만대장경을 모조리 누설시키네.
가소롭게도 서쪽 나라 석가모니는
쓸데없이 사십구 년이나 설법을 하였도다.

山居

秋月春花老此身
家無四壁不知貧
閑居寥落生高興
白眼看他世上人

산에 살며

가을 달 봄 꽃 속에 이 몸은 늙어가고
집에는 사방에 벽이 없어도 가난한 줄을 모르도다.
고요한 곳에 한가로이 사니 높은 흥이 생겨나고
저 세속의 사람들을 백안시한다네.

感懷

歲歲無如老去何
故人零落已無多
門前不見歸軒至
惟見棠梨一樹花

감회

한 해 한 해 늙어감을 어찌할 수 없는데다
아는 이도 세상을 떠나고 얼마 없다네.
문 앞에는 찾아오는 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한 그루 팔배나무 꽃만 보이네.

寫經次偶吟

世界茫茫隔大千
玉燈清夜得參禪
寫經豈爲求鵝去
但以修行薦佛前

石竇鳴泉入夢清
眼前塵累一毫輕
山樓靜夜昏無月
簷角疎星耀彩楹

사경을 하던 중에 우연히

삼천대천세계만큼이나 넓고 넓은 이 세계
옥 등불 맑은 밤에 참선을 하노라.
사경을 하는 것이 어찌 거위를 얻으려 함이라?¹⁾
다만 부처님 앞에 바칠 수행일 따름일진저.

돌구멍으로 울리는 샘물 소리 잠결 속에 맑으니
눈 앞의 번뇌가 터럭 하나만큼이나 가볍구나.
산 속 누각 고요한 밤은 달도 없이 어두운데
처마 끝에 성근 별들이 단청한 기둥을 비추누나.

詠懷

鑽極忘形二十年
一朝功透入寥天

회포를 노래함

진리를 찾느라 몸을 잊은 지 이십 년
하루 아침에 그 공이 태허(太虛)로 뚫고 들었네.

1) 중국 진(晉)나라의 명필 왕희지(王羲之)가 산음(山陰) 지방에 사는 한 도사(道士)에게 『도덕경(道德經)』을 글씨로 써 주고 대신에 거위를 얻어 왔다는 고사가 있다.

虛空發焰燒三界
劫海生烟潤九泉

無影樹頭花爛熳
不萌枝上果團圓
自知休覓還丹草

卽此勞生大覺仙

허공에선 불꽃이 일어 삼계(三界)를 다 태우고
겁(劫)의 바다에선 연기가 일어 구천(九泉)²⁾을 마
르게 하네.

그림자 없는 나무 끝에 꽃이 난만하고
싹 없는 가지 위에 과실이 등실하구나.
이제 알겠도다, 환단초(還丹草)³⁾ 찾기를 그만둘
지니

바로 이 고된 인생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신선이
로다.

雨後

晚晴宜眺望
清興屬詩魂
麗日通林罅
香泉出石根
林藏初霽雨
月送欲歸雲
搜句遲來得
遠山縱目看

비 온 뒤

저녁 무렵 비가 개니 바라보기가 좋고
맑은 흥은 시상을 일으켜 주네.
고운 해는 숲 사이로 비쳐 들고
향기로운 샘물은 돌 뿌리에서 솟아나는데
숲은 갓 개인 비를 머금었고
달은 돌아가려는 구름을 전송하는구나.
멋진 시구가 잘 떠오르질 않기에
먼 산을 이리저리 마음껏 살펴보고노라.

2) 구천(九泉): 죽어서 가는 땅 속의 세계. 황천(黃泉)과 같은 말.

3) 환단초(還丹草): 먹으면 즉시 신선이 된다는 풀.

幽居雜興

道林林壑遠於閭
 白日晴窓但黑牯
 左右導從唯虎豹
 百年家活即蠶鹽
 危峯逼戶雲生榻
 飛瀑臨軒雪入簾
 多少世間機永息
 近來心月政開匳

은둔의 삶을 살며

도의 수풀과 골짜기는 속세에서 멀고
 한 낮의 개인 창에선 그저 낮잠이나 잘 뿐.
 좌우에 얼른거리는 건 오직 호랑이와 표범이며
 백 년 동안 살 계책이란 김치와 소금이라.
 집이 우뚝한 봉우리에 가까우니 곁상에 구름이
 생겨나고
 처마 앞에 폭포가 있어 눈이 주렴으로 들어오네.
 수많은 인간세상의 일들이 영원히 사라지니
 달같은 마음에 향그릇이 열린 듯하네.

漫興

物外多空地
 壺中有寶坊
 得僧詩脫俗
 鍊骨氣無傷
 壑月閑窺室
 天花亂撲床
 微吟終永夕
 尤覺興還長

흥에 겨워

사물 그 너머는 텅 빈 곳 많고
 병 속에는 보배로운 마을이 있네.⁴⁾
 중이 탈속한 시를 얻는다면
 뼈를 단련하면서도 기에는 손상이 없지.
 골짜기의 달은 한가로이 방안을 엿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꽃은 어지러이 침상에 부딪치네.
 시를 읊으며 긴 저녁을 지내노라니
 흥이 더욱 깊어짐을 알겠도다.

4) 중국의 전설에 한 노인이 병 속을 드나들었는데, 그 병 속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호천(壺天) 혹은 호중천(壺中天)이라 한다.

樵夫

一生蹤跡寄巖阿
斤斧生涯日月磨
傲世心關辛苦事
過雲聲唱太平歌
石林深處無心去
山路險邊信腳過
天子無緣難見面
爲何王質爛其柯

나무꾼

한 평생 자취를 바위 언덕에 맡기니
날마다 도끼를 가는 것이 일상이라.
세상에 오만한 마음 고통스런 일이지만
태평가 부르는 소리는 가는 구름 멈추게 하네.
돌 숲이 깊은 곳을 무심으로 지나가고
험한 산길을 밭 가는 대로 다니네.
천자라도 인연 없이는 얼굴 보기 어려운데
왕질(王質)은 어찌하여 도끼 자루 썩게 하였나⁵⁾?

5) 중국의 전설에 왕질(王質)이란 사람이 신선들이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다가 정
신을 차려보니 그 사이에 도끼 자루가 다 썩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意恂 의순

【艸衣詩藁 초의시고】



奉呈籀翁先生

富送人以財
仁送人以言
今將辭夫子
可無攸贈旃
先敬舒陋腹
請陳隱几前

眞風遠告逝
大僞斯興焉
閭巷滿章甫
千里無一賢
州里旣愁愁
蠻貊理固然

我生當此時
質亦非堪妍
所以行己道
將向問無緣
歷訪芝蘭室
竟是鮑魚廬
南遊窮百城
九達青山春

탁옹(籀翁)¹⁾ 선생께 올림

부자는 재물을 보내 주고
어진이는 좋은 말을 해준다는데
이제 선생님을 떠나려고 하면서
드릴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경의를 표하고 누추한 속마음을
선생님의 책상 앞에 내놓을까 합니다.

참된 기풍이 멀리 사라져버리자
거짓 기풍이 크게 일으니
세상에 선비라는 이는 가득하여도
어디에도 어진 이라곤 없습니다.
이미 걱정스런 지경이 되었으나
오랑캐 땅에서는 당연한 이치이겠지요.

저는 이러한 시대에 태어났고
자질 또한 곱지 못한 터라
자신의 도를 행하고자 하여도
어디 물어볼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훌륭하다는 이들을 두루 찾아보았지만
결국은 어물전에 지나지 않았었지요.
남쪽으로 수많은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해 세월만 보내었습니다.

1) 탁옹(籀翁) :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별호. 초의 선사가 24세일 때 이 시를 보내었으며, 당시 다산의 나이는 48세였다. 초의 선사는 다산으로부터 유학과 시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豈謂窮海曲
天降孟母隣

德業冠邦國
文質兩彬彬
燕居恒抱義
經行必戴仁
旣滿如不盈
常以虛受人
君子貴遇時
不遇亦不嘖
道大本不容
流落且閭閻

我爲求此道
遠來致恂恂
且將違座側
捫衣請諄諄
儻贈謝車言
鏤肝復書紳

溪行

採菽休溪畔
溪流清且漣
新藤經雨淨

어찌 궁벽진 바다 모퉁이라 하겠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찾던 좋은 이웃을 하늘이 내려
주시니
덕업은 나라에서 으뜸이요
문채와 자질이 함께 찬란하며
편안히 계실 때에는 항상 의로움을 품고
행동할 때에는 반드시 어짐을 지니었습니다.
이미 가득차도 모자란 듯이 하시며
늘 텅 빈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군자는 때를 만남을 귀중히 여기지만
만나지 못하여도 찡그리지 않으셨습니다.
도가 크면 본래 수용되기 어려운 법
영락하여서도 온화한 마음을 그대로 지녔습니다.

제가 이 도를 구하고자 하여
멀리서 와 정성을 들이다가
이제 선생님 곁을 떠나려고 하니
저에게 자상한 가르침 내리시길 공손히 청합니다.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의 말씀을
간장에 새기고 다시 허리띠에도 적어 두겠습니다.

시냇가를 거닐며

나물을 캐다 계곡가에 쉬노라니
시냇물은 맑고도 잔잔하구나.
새싹 돋은 등나무는 비를 맞아 깨끗하고

古石依雲娟
嫩葉憐方展
蕤花欣未薦
青巖當繡屏
碧蘚代紋筵
人生亦何求
支頤澹忘還
滄涼山日暮
林末起暝煙

묵은 돌은 구름과 벗하여 아름답구나.
어린 새잎은 갓 펼치어 어여쁘고
드리워진 꽃은 싱그러운 모습이 좋구나.
푸른 바위는 수놓은 병풍이 되고
푸르스름한 이끼는 무늬 방석을 대신하네.
사람이 살면서 또한 무엇을 구하랴?
턱을凭 채 편안하여 돌아가기를 잊네.
서늘한 산 속에 날은 저물어가는데
숲 끝에는 어두운 연기 피어오르네.

登寒碧堂

- 乙亥 初入京都之行

田衣當水榭
云是故王州
谷靜禽聲遠
溪澄樹影幽
迅商催晚日
積雨洗新秋
信美皆吾土
登臨寧賦樓

한벽당²⁾에 올라

- 을해년(1815) 처음으로 서울로 들어가는 길에

시골 옷차림으로 물가의 정자에 올랐더니
이곳이 옛날 왕의 고을이란대.
계곡이 고요하여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오고
시냇물이 맑아 비치는 나무 그림자 그윽하구나.
서풍이 바빠 불어 저무는 날을 재촉하고
계속 내린 비는 초가을 풍경을 씻어주네.
참으로 아름답구나 우리 땅이여!
올라와 보며 누각에서 시를 지어보노라.

2) 한벽당(寒碧堂) : 조선 초기에 지어진 누각으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다.

潤筆菴

윤필암(潤筆菴)³⁾

削立蒼崖路欲窮
精藍蕭灑翠微中
水因照影方知淨
山到無雲始見空
礙日何妨剗茂綠
惜春不遣掃殘紅
前程但得無岐派
不向人尋西復東

깎아지른 푸른 언덕 길도 끊긴 듯
푸르스름한 기운 속에 절의 모습 깨끗하구나.
물 위에 비치는 그림자 보니 깨끗함을 알겠고
산은 구름이 사라져야만 하늘을 볼 수가 있네.
해를 가린들 어떠랴 무성한 녹음 그대로 두고
봄을 아끼는 마음에 시든 꽃도 쓸지 않네.
앞으로 가는 길에 갈림길이 없으니
누구를 찾아 동쪽 서쪽 다닐 필요 없adne.

晩蘇以五古一首見贈 次韻奉呈, 并衍爲七言一首 以寄二首.
만소(晩蘇)⁴⁾ 노인이 오언고시 한 수를 보내어 왔기에 그 운에 따라
시를 지어 올리고, 아울러 칠언시 한 수를 덧붙여 모두 2수를 드림

幽谷雲初開
寒巖上明月
靜對明月坐
細想猶起滅
起滅滅盡處
始與眞常依
若復起眞想
是亦非艸衣

깊은 계곡에 구름이 개이고 나니
차가운 바위 위로 밝은 달이 솟아오르네.
밝은 달을 마주하고 고요히 앉았으니
이런 저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일어나고 사라짐도 다 사라져 없어지는 곳에
비로소 참됨이 항상 함께하네.
만약 여기서 참되다는 생각을 또 일으킨다면
이 또한 초의가 아니라네.

3) 윤필암(潤筆菴) :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용문사에 딸린 암자, 고려 중엽 묘덕이 창건하였다. 6.25때 소실되고 터만 남아있다.

4) 만소(晩蘇) : 본명은 이희(李曦).

爲問晚蘇老
此事爲然麼
鳶魚能飛躍
豈不以其我
如此和會得
二聖垂印可

만소 노인에게 묻노니,
이 일이 과연 그러한가?
소리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 것이⁵⁾
어찌 나로 인해서가 아닌가?
이와 같이 이해가 된다면
두 성인⁶⁾도 인가를 내리리라.

一間茅屋半間雲
二友相尋一是月
雲隣相將月友居
清風時來扣寂滅
歷歷孤明勿形段
生來與伊爲所依
清灑灑空心中眼
赤條條落體上衣
內外中間覓總無
無中大有是甚麼
分手上下曾指出
物物上具獨尊我
若人理會遮般我
許君無可無不可

한 칸 초가집에 구름이 반칸이요
두 벗이 서로 찾으니 그 중 하나는 달님이라.
구름 이웃이 함께하고 달님이 벗해 사니
맑은 바람이 한번씩 와서 적멸을 두드리네.
형체는 없지만 또렷하고 홀로 밝아
살면서 그에게 늘 의지하네.
마음의 눈을 맑고 깨끗하게 하며
몸 위의 옷은 아무 것도 없이 빛나게 하네.
안과 바깥, 중간 어디를 찾아도 없으니
없는 가운데 크게 있는 이것이 무엇인고?
아래 위로 가리켜서 알려주었으니
물물마다 홀로 높은 나⁷⁾가 있도다.
만약 이러한 나를 알아챈다면
그대가 가하지도 불가하지도 않음⁸⁾을 인정하리라.

5) 소리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 것 : 약동하는 만물의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주역』에 나오는 말.

6) 두 성인 : 부처님과 공자를 말하는 듯하다.

7) 홀로 높은 나 : 석가모니가 처음 태어나서 “하늘의 위와 하늘의 아래에서 오직 나만이 홀로 높다.”라고 한 이야기에서 온 말. 여기서는 선불교적인 개념으로 원용되었다.

8) 가하지도 불가하지도 않음 : 원래는 『논어』 「미자편」에 나오는 말인데, 미리 가

歸故鄉

遠別鄉關四十秋
歸來不覺雪盈頭
新基艸沒家安在
古墓苔荒履跡愁
心死恨從何處起
血乾淚亦不能流
孤筇更欲隨雲去
已矣人生愧首邱

고향으로 돌아가 보니⁹⁾

멀리 고향을 떠나온 지 사십 년
돌아와 보니 어느 새 머리에 눈이 가득하네.
잡초에 묻힌 땅 어디에 집이 있었던지?
오래된 무덤도 이끼에 덮이어 걷기도 쉽지 않네.
마음이 죽었는데 한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피가 말라 눈물 또한 흐르지 못하네.
지팡이 하나로 다시 구름 따라 떠나려 하니
사람이 살면서 고향 찾은 것 부끄러워라.

부를 정하지 않고 사세의 정당성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는 성인의 마음씀씀이를 이른다.

- 9) 초의선사는 15세에 고향인 전라남도 무안을 떠나 출가하였다. 40년 만에 돌아와 보았다면 55세쯤이었을 것이다.



惺牛 성우

【鏡虛集 경허집】



自梵魚寺向海印寺道中口號

범어사(梵魚寺)에서 해인사(海印寺)로 가는 도중에¹⁾

識淺名高世危亂	어지러운 세상에 식견은 얇으면서 이름만 높으니
不知何處可藏身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구나.
漁村酒肆豈無處	어촌이든 술집이든 어찌 장소가 없겠는가마는
但恐匿名名益新	이름을 숨길수록 이름이 더 알려질까 두려울 뿐.

題智異山靈源寺

지리산(智異山) 영원사(靈源寺)²⁾

不是物兮早駢拇	아무 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육손이 ³⁾ 라
許多名相復何爲	허다한 이름과 모습을 다시 어찌하리오!
慣看疊嶂煙蘿裏	늘 보아오던 겹겹의 봉우리와 안개낀 겨우살이 넝쿨 속에
無首猢猻倒上枝	머리 없는 원숭이가 거꾸로 가지를 타고 오르네.

1) 경허성우는 1894년에 동래(東萊, 지금의 부산광역시)에 있는 범어사의 조실이 되었고, 1899년 경상남도 함천의 해인사에서 임금의 뜻에 따른 인경불사(印經佛事)와 신설하는 수선사(修禪社) 등의 불사를 주도하였다.

2) 영원사(靈源寺)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에 있는 사찰이다. 해발 920미터의 고지대인 지리산 중턱 울창한 숲 속에 위치해 있다. 통일신라 시대에 영원대사가 창건하여 영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를 비롯해 청매, 포광, 설파 등 선불교 고승들이 거쳐간 수도 도량이다. 앞쪽으로는 벽소령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경치가 수려하다. 한때는 선방이 100칸이 넘을 정도로 큰 사찰이었으나 6·25 때 소실되고, 지금 건물은 그 이후 다시 지어진 것이다.

3) 육손이 : 쓸 데 없는 손가락이 하나 더 있음을 의미한다. 『장자(莊子)』 「변무(駢拇)」편에 나오는 이야기.

入甲山路踰江界牙得浦嶺

갑산(甲山) 들어가는 길에 강계(江界) 아득포(牙得浦) 고개를 넘으며⁴⁾

人間何貴積南金	인간이 어찌 황금 쌓기를 귀히 여기리오?
好是清閑物外襟	좋은 것은 맑고 한가로운 물외의 생각이로다.
細看松栢深千谷	깊은 골짜기에 자라는 소나무 잣나무를 자세히 살피니
漸上煙霞亘萬尋	피어오르는 안개는 만 길이나 뻗치네.
奇花不變青春色	기이한 꽃은 싱그러운 빛이 늘 그대로이고
怪鳥相傳太古音	이상한 새는 태고의 소리를 전해 주네.
垂白長爲塵白客	머리가 하얘지도록 속세의 나그네가 된 이들
那能棲此靜身心	어찌 여기에 깃들어 몸과 마음 고요하게 할 수 있으리!

書懷

회포를 적다

邊城留滯誤經營	변방에 머무는 것은 잘못 사는 것이니
鄉思千般詎盡名	천 가지 고향 생각 어찌 다 적으리.
病衰難却苔岑契	병으로 쇠약한 몸은 수행의 뜻 어렵게 하거니와
文術誰求草芥輕	글재주인들 누가 초개처럼 가볍게 얻을 수 있으리.
半天雲盡層峯色	하늘에 구름 흩어지니 층층의 봉우리 자태 보이고
邃壑風生落木聲	깊은 골짜기에 바람이 이니 낙엽 소리 들려오네.
自是不歸歸便得	돌아가지 못하던 몸 문득 돌아가게 되니

4) 경허성우는 1904년 돌연 함경도 갑산·강경 등지로 들어가 머리를 기르고 서당 훈장 노릇을 하며 지내다가 생을 마쳤다. 아마 이 시기에 지은 작품인 것으로 보인다.

好看松菊滿園清

뜰 가득한 소나무와 국화가 맑아 보기가 좋네.

酒婆商老與之班

술집 할멈이나 장사하는 노인과 함께 어울리니

韜晦元來好圓園

숨어 살기에는 아주 적격이로다.

未暮火行山豹下

저물기도 전에 표범은 불길같이 산을 내려오고

深秋風搏塞雁還

깊어가는 가을에 날개짓하며 기러기 날아오네.

不貪金玉人間寶

금과 옥을 탐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보배이니

亦忘煙霞物外閑

또한 안개 속에 살아가는 물외의 한가로움조차
잊노라.

超脫無疑心自得

초탈하여 걸리지 않는 마음을 자득한 것은

只緣曩日窺玄關

지난 날 깊은 관문 속을 엿보았던 덕분이로다.

坐熙川頭疊寺

희천(熙川)⁵⁾ 두첩사(頭疊寺)에 앉아서

唱出无生一曲歌

무생(無生)의 한 곡조 불러보니

大千沙界湧金波

삼천대천세계 모두 녹아 금물결이네.

雖云大道不人遠

큰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다지만

其奈浮生如夢何

뜬 인생이 꿈과 같은 것을 어찌하리오?

永日山光清入座

날이 길어 산빛은 맑게 자리로 비취 들고

遙村林影亂連坡

멀리 마을과 숲 그림자 언덕에 이어졌네.

拈來物物皆眞面

물물마다 참된 모습 드러나는데

何必雌黃辨佛魔

부처니 마귀니 따져서 무엇하리오?

5) 희천(熙川) : 평안북도에 있는 지역 명칭.



索引 찾아보기



- 가사 17
- 가산고(伽山藁) 40, 61
- 가야(伽耶) 278
- 가지산(迦智山) 177
- 각림사(覺林寺) 374
- 각안(覺岸) 41, 63
- 각행(覺行) 348
- 간폐석교소(諫廢釋敎疏) 53
- 감로사(甘露寺) 43
- 감호(鑑湖) 354
- 갑산(甲山) 494
- 강계(江界) 494
- 강릉(康陵) 277
- 강백(講伯) 65
- 강월헌(江月軒) 291
- 강호도인(江湖道人) 271
- 경륜(敬倫) 384
- 경선(敬先) 326
- 경선(新庵) 355
- 경기체가 17
- 경암(鏡岩) 59
- 경암집(鏡岩集) 40, 59
- 경열(敬悅) 50
- 경일(敬一) 54
- 경한(景閑) 22, 38, 43
- 경허(鏡虛) 18, 64
- 경허집(鏡虛集) 41, 64
- 경헌(敬軒) 38, 47, 50
- 계명산인(戒明山人) 421
- 계성사(啓聖寺) 41
- 계영(桂影) 58
- 계오(戒悟) 40, 61
- 계우(繼愚) 50
- 계우(繼雨) 412
- 계월헌(溪月軒) 206
- 계응(戒應) 34
- 계족봉(鷄足峯) 129, 142
- 계진(契眞) 52
- 계천(誠天) 40, 61
- 계허(桂虛) 64
- 고산암(孤山菴) 153
- 고선책보(古鮮冊譜) 57
- 고운(孤雲) 281
- 고한(孤閑) 48
- 공여(空如) 40, 60
- 과가정(過柯亭) 347
- 과생대(過生臺) 100
- 곽문(郭文) 125
- 곽재우 287
- 관동(關東) 312
- 관식(慣拭) 59
- 관휴(貫休) 21
- 괄허(括虛) 58
- 괄허집(括虛集) 40, 58
- 광지(廣智) 44
- 광해(廣海) 50

교연(皎然) 21
 굉활(宏濶) 57
 구정봉(九井峯) 259, 431
 국원공(國原公) 69
 권돈인(權敦仁) 62
 귀산곡(歸山曲) 53
 균여(均如) 24
 극근(克勤) 20
 극린(克隣) 50
 극암(克庵) 64, 65
 극암집(克庵集) 41, 64
 금강산(金剛山) 158, 262, 319, 431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21, 24
 금강암(金剛庵) 84
 금담(金潭) 61
 금산(金山) 84
 금성(錦城) 75
 금하(錦霞) 57
 금화(雙蓮) 59
 궁선(巨璇) 40, 60
 기암(奇岩) 50
 기암법견(寄巖法堅) 47
 기암집(奇岩集) 38, 50
 기허영규(騎虛靈圭) 47
 기화(己和) 38, 44
 김정희(金正喜) 62
 김조순(金祖淳) 60

나식(懶湜) 56, 60
 나암(懶庵) 45
 나암잡저(懶庵雜著) 38, 46
 나옹(懶翁) 17, 44, 158
 나옹화상가송(懶翁和尚歌頌) 38, 44
 나옹화상어록(懶翁和尚語錄) 38, 44
 낙암(洛岩) 57
 난원(爛圓) 41
 남명시집(南溟詩集) 40, 60
 남악집(南岳集) 39, 56
 내은적암 253, 300
 냉취대(冷翠臺) 87
 노수신(盧守愼) 48, 49
 농묵(聾默) 64
 농묵집(聾默集) 41, 64
 농암(聾岩) 60
 뇌묵(雷默) 47
 뇌묵당(雷默堂) 51
 뇌정(雷靜) 48

다산(茶山) 62
 다신전(茶神傳) 62
 단헌(宣憲) 54
 달마(達摩) 310
 담령(湛靈) 96

담숙(曇淑) 58
 대가(待價) 48
 대각국사(大覺國師) 21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37, 41
 대각등계백곡집(大覺登階白谷集) 52
 대각등계집(大覺登階集) 52
 대규(大圭) 403
 대둔사(大菴寺) 62
 대마도(對馬島) 397
 대승사(大乘寺) 51
 대암(大庵) 56
 대원대사문집(大圓大師文集) 40, 58
 대원(大圓) 58
 덕산(德山) 412
 덕의(德義) 298
 덕준(德峻) 63, 358
 도능(道能) 309
 도안(道安) 54, 55
 도연명 172
 도원(道元) 209
 도원(道圓) 63
 동계(東溪) 54
 동계집(東溪集) 39, 54
 동다송(東茶頌) 62
 동림(東林) 422
 동사열전(東師列傳) 56, 64
 동산(洞山) 20
 동학사 65
 두류산(頭流山) 250, 256, 293, 351, 367
 두륜당집(頭輪堂集) 39, 56

두보(杜甫) 23
 두첩사(頭疊寺) 495
 득통(得通) 35, 45

마조(馬祖) 414
 마하연암(摩訶衍庵) 45
 만공(滿空) 65
 만덕산백련사제2대정명국사후집(萬德山白蓮社第二代靜明國師後集) 37, 42
 만덕산백련사제4대진정국사호산록(萬德山白蓮社第四代眞靜國師湖山錄) 37, 43
 만소(晩蘇) 488
 만폭동(萬瀑洞) 393
 만화(萬化) 65
 망해정(望海亭) 251
 맹룡(盲龍) 363
 명감(明鑑) 266
 명안(明眼) 54
 명조(明照) 38, 52
 명찰(明察) 54
 모은(暮隱) 57
 몽암(蒙庵) 59
 몽암대사문집(蒙庵大師文集) 40, 59
 묘고대(妙高臺) 86
 묘적암(妙寂庵) 44
 묘향산 256

무경(無竟) 55
 무경실중어록(無竟室中語錄) 39, 55
 무경집(無竟集) 39, 55
 무기(無寄) 34
 무상(無相) 292
 무영(無影) 54
 무용(無用) 55
 무용집(無用集) 39, 55
 무위(無位) 416
 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 37, 42
 무하(無暇) 57
 무하선사시고(無暇禪師詩稿) 39, 57
 무학(無學) 45
 묵암(默庵) 58, 60
 묵암집(默庵集) 40, 58
 문정왕후(文定王后) 45
 미타증성가(彌陀證性歌) 21, 24
 민기(敏機) 52
 민성(敏性) 61
 밀봉(密峯) 282

백련사 328
 백련암(白蓮庵) 136
 백암(栢庵) 53, 55
 백암(白岩) 63
 백암집(栢庵集) 39, 53, 54
 백우(百愚) 54
 백우수필(百愚隨筆) 39, 54
 백운(白雲) 44, 157, 346
 백운봉(白雲峯) 367
 백운산(白雲山) 310
 백운암(白雲庵) 100, 173, 431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尚語錄) 38, 43
 백담동(百塔洞) 319
 백파(白坡) 60
 백파집(白坡集) 40, 60
 범어사(梵魚寺) 493
 범해(梵海) 63
 범해선사문집(梵海禪師文集) 41, 56
 범해선사시집(梵海禪師詩集) 41
 범해선사유고(梵海禪師遺稿) 63
 법견(法堅) 38, 50
 법련(法蓮) 424
 법린(法璘) 41, 64
 법성계(法性偈) 21, 24
 법왕봉(法王峰) 281
 법장대사(法藏大師) 356
 법종(法宗) 56
 벽봉(碧峰) 59
 벽봉화상(碧峰和尚) 61
 벽송당야로송(碧松堂堯老頌) 38, 45

ㄱ

박성량(朴成亮) 212
 박운경(朴雲卿) 347
 반야봉 367
 배윤량(裴允亮) 88
 백곡(白谷) 52
 백곡집(白谷集) 38, 52

벽암(碧巖) 48, 53, 54
 벽암록(碧巖錄) 20
 병암(屏嶺) 317
 보경삼매가(寶鏡三昧歌) 20
 보우(普愚) 17, 22, 38, 44
 보우(普雨) 35, 38, 45, 46
 보응당(普應堂) 48
 보인(普印) 57
 보조국사 34
 보현사(普賢寺) 49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 24
 보화(普化) 172
 복성(福城) 80
 복초(復初) 40, 61
 본법사(本法寺) 398
 봉래동(蓬萊洞) 262
 봉래산(蓬萊山) 339, 377
 봉래선자(蓬萊禪子) 259
 봉래자(蓬萊子) 280
 봉성(鳳城) 297
 봉은사(奉恩寺) 49
 부여(扶餘) 279
 부용(芙蓉) 48, 57
 부휴(浮休) 48, 50
 부휴당대사집(浮休堂大師集) 38, 48
 부휴자(浮休子) 293
 불가한시(佛家漢詩) 17
 불영대(佛影臺) 438
 불일암(佛日庵) 245
 불정대(佛頂臺) 437

불정암(佛頂) 276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
 44
 비은(費隱) 40, 58

사대(思大) 158
 사명당(四溟堂) 49
 사명당대사집(四溟堂大師集) 38, 48
 사명대사(四溟大師) 31
 사명(四溟) 47
 사복(蛇福) 21
 사선정(四仙亭) 269
 사성(師誠) 41, 64, 65
 사야정(四也亭) 296
 사영운(謝靈運) 23
 산영루(山影樓) 262, 378, 438
 산지록(山志錄) 41, 64
 삼봉(三峰) 60
 삼봉집(三峰集) 40, 60
 상균(尙均) 426
 상동암(上東庵) 49
 상언(尙彦) 59
 상원사(上院寺) 374
 상월대사시집(霜月大師詩集) 39
 상월(霜月) 57
 상주(尙珠) 266
 상준(尙俊) 411

새봉(璽封) 57
 서백(栖白) 74
 서산대사(西山大師) 18, 46
 서악(西岳) 59
 서암(瑞巖) 102
 서원(西原) 144
 석가여래행적송(釋迦如來行蹟頌) 34
 석민(釋敏) 52
 석실(石室) 54
 석옥(石屋) 43, 44
 석옹(石翁) 186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 62
 선문엄송(禪門拈頌) 42
 선수(善修) 38, 48, 50
 선시 19
 선암사(仙巖寺) 73, 452
 선영(善影) 40, 63
 설담(雪潭) 57, 59
 설담집(雪潭集) 39, 57
 설두(雪竇) 20, 63
 설두강백전(雪竇講伯傳) 64
 설두시집(雪竇詩集) 41, 64
 설매헌(雪梅軒) 180
 설봉선사(雪峰禪師) 60
 설악산 337
 설암(雪岩) 55, 56
 설암(雪岳) 54
 설암난고(雪岩亂藁) 39, 55
 설암잡저(雪岩雜著) 39, 55
 설재(雪霽) 55
 설청(說淸) 426
 설파(雪坡) 59, 60
 성우(惺牛) 18, 41, 64
 성총(性聰) 52, 53, 55
 세환(世煥) 41, 65
 소식(蘇軾) 20
 소연자(昭然子) 53
 소요(逍遙) 47, 50
 소요당집(逍遙堂集) 38, 50
 소요산(逍遙山) 423
 송계대선사문집(松桂大禪師文集) 39, 56, 60
 송계(松桂) 56
 송계(松溪) 48
 송운(松雲) 49, 377, 386
 송죽헌(松竹軒) 248
 수선사(修禪社) 43
 수연(秀演) 55
 수월(水月) 65
 수윤(壽允) 178
 수초(守初) 38, 52, 53
 숭의(崇義) 270
 숭인장로(崇仁長老) 46
 시경(詩經) 23
 시법계(示法偈) 23
 시성(時聖) 39, 58
 시식(詩式) 21
 시의(詩議) 21
 시평(詩評) 21
 식암(息菴) 238

신림(辛廉) 211
 신록사(神勒寺) 226
 신명(信明) 48
 신묵(信默) 49
 신수(神秀) 20
 신암(新庵) 326, 355
 신위(申緯) 62
 신현(信玄) 54
 심여(心如) 41, 64
 쌍계(雙溪) 314, 367
 쌍계사(雙溪寺) 386
 쌍운(雙運) 59

아득포(牙得浦) 494
 아암(兒庵) 60
 아암집(兒庵集) 40, 60
 애련집(愛蓮集) 39, 54
 야운(野雲) 58
 야운대선사문집(野雲大禪師文集) 39, 58
 약탄(若坦) 56
 양사언 357
 언기(彦機) 38, 47, 51, 54
 언화(彦和) 266
 여강(驪江) 346
 여오(如悟) 63
 역산(櫟山) 63
 역산집(櫟山集) 40, 63

연곡사(燕谷寺) 409
 연담(蓮潭) 59
 연담대사임하록(蓮潭大師林下錄) 39, 59
 연심(淵深) 108
 연월(蓮月) 63
 연화(蓮華) 298
 영가대사(永嘉大師) 20
 영관(靈觀) 57
 영관대사(靈觀大師) 47
 영랑령(永郎嶺) 335
 영운(靈雲) 394
 영원사(靈源寺) 495
 영월(詠月) 51, 58
 영월대사문집(詠月大師文集) 38, 51
 영정(永貞) 294
 영주(瀛洲) 313
 영지(靈芝) 301
 영해(影海) 55, 56
 영해대사시집초(影海大師詩集抄) 39, 55
 영허(映虛) 48, 63
 영허집(映虛集) 38, 47
 오대산 375
 오산암(鰲山庵) 453
 오암(鰲岩) 58
 오암집(鰲岩集) 40, 58
 오조(五祖) 20
 옥계(玉溪) 272, 320
 완당(阮堂) 47
 완호(倫佑) 61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33

왕유(王維) 20, 23
 요목(了嘿) 104
 요연(了然) 44
 요자사(聊自寺) 106
 요천(蓼川) 272
 용담(龍潭) 57
 용담집(龍潭集) 39, 57
 용문산(龍門山) 346
 용악(龍岳) 64
 용악당사고집(龍岳堂私藁集) 41, 64
 용암(龍岩) 58, 64
 용암당유고(龍岩堂遺稿) 40, 58
 우경루(右慶樓) 376
 우담(優曇) 63
 우담임하록(優曇林下錄) 41, 63
 우희조(憂喜鳥) 77
 운곡(雲谷) 50
 운곡집(雲谷集) 38, 50
 운담(雲潭) 59
 운담임간록(雲潭林間錄) 40, 59
 운흥사(雲興寺) 61
 유문(有文) 55
 윤우(倫佑) 61
 원감국사(圓鑑國師) 43
 원묘국사(圓妙國師) 43
 원민(元敏) 316
 원암역(圓岳驛) 323
 원오(圓悟) 20
 원오국사(圓悟國師) 43
 원준(圓俊) 47
 원철(圓徹) 306
 원혜(元惠) 306, 348
 원효(元曉) 21, 24
 월담(月潭) 55
 월봉(月峰) 53
 월봉집(月峰集) 38, 53
 월성집(月城集) 40, 58
 월저(月渚) 54
 월저당대사집(月渚堂大師集) 39, 54
 월저(月渚) 55
 월정사(月精寺) 375
 월파(月波) 57
 월파집(月波集) 39, 57
 월파평생행적(月波平生行蹟) 57
 월하(月荷) 61
 월하집(月荷集) 61
 위승사(魏承思) 22
 유경(柳敬) 114
 유경(有炯) 41, 63
 유기(有璣) 57
 유성법사(有誠法師) 41
 유일(有一) 40, 59
 유정(惟政) 38, 47, 48
 유종원 262
 육조(六祖) 20
 윤치영(尹致英) 62
 윤필암(潤筆菴) 490
 응운공여유망록(應雲空如遺忘錄) 40, 60
 응윤(應允) 40, 59
 응화(應和) 303

의룡집(義龍集) 41, 65
 의민(毅旻) 40, 58
 의상(義湘) 21, 24
 의순(意恂) 40, 61
 의심(義謹) 52, 54
 의천(義天) 21, 41, 37, 52, 358, 402
 의침(義沾) 40, 59
 의현(義玄) 263
 이규보(李奎報) 22
 이백(李白) 23
 이색(李穡) 22
 이선(而善) 415
 이식(李拭) 282
 이암(李巖) 212
 이인언(李仁彦) 342
 이자현(李資玄) 22
 이죽마(李竹馬) 284, 344
 이충의(李忠義) 317
 이환(離幻) 349
 인동(仁同) 225
 인봉(仁峰) 63
 인악(仁岳) 59
 인악집(仁岳集) 40, 59
 인영(印英) 47, 359
 인오(印悟) 38, 47, 50, 54, 268
 인월대(隣月臺) 90
 일령(一靈) 334
 일선(一禪) 38, 47
 일선암(一禪庵) 311
 일암(一巖) 273

일암(日菴) 58
 일암(逸庵) 80
 일정(一品) 318
 일지암(一枝庵) 62
 일지암문집(一枝庵文集) 40, 61
 일지암시고(一枝庵詩稿) 40, 61
 임계일(林桂一) 112
 임제 412

 자미사(慈悲寺) 80
 지수(子秀) 55
 자우(自優) 39, 57, 59
 자한(自閑) 105
 전령(展翎) 40, 60
 전물암(轉物庵) 95
 정관(靜觀) 47
 정관집(靜觀集) 38, 47
 정설(鄭契) 159
 정암(晶岳) 60
 정약용(丁若鏞) 62
 정일(鼎駟) 40, 59
 정혜사(定惠寺) 118
 정훈(正訓) 40, 60
 제기(齊己) 21
 제월(霽月) 47, 50
 제월당대사집(霽月堂大師集) 38, 50
 조계산 140, 174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37, 42

조관(槌冠) 57

조월암(祖月庵) 101

중봉(鍾峯) 49, 379

중서당(宗西堂) 177

죽도(竹島) 396

중관(中觀) 47, 51

중관대사유고(中觀大師遺稿) 38, 51

중양절(重陽節) 144, 392

중현(重顯) 20

증도가(證道歌) 20

즉원(卽圓) 60

지공(指空) 44

지눌(知訥) 22, 25, 34, 42

지리산(智異山) 495

지안(志安) 55, 57

지언(志彦) 304

지엄(智儼) 38, 45

지장(地藏) 107

지책(旨冊) 40, 59

지탁(知濯) 40, 60

지훈(智薰) 57

직지사(直指寺) 49

진각(眞覺) 42, 309

진기(眞機) 258

진일(眞一) 82

진정국사(眞靜國師) 43

진천(震川) 392

진허(振虛) 59

진허집(振虛集) 40, 59

징월(澄月) 60

징월대사시집(澄月大師詩集) 40, 60

六

창해 248, 357

채영(彩英) 466

채옹정(蔡邕亭) 274

책헌(策憲) 53

처능(處能) 38, 52, 424

처민(處敏) 328

처사정(處士亭) 279

처영(處英) 47, 51

처우(處愚) 50

천인 22

천감(天鑑) 267

천경(天鏡) 57

천경집(天鏡集) 39, 56

천덕사(天德寺) 51

천민(天敏) 299

천불천탑(千佛千塔) 439

천수암(天授庵) 51

천신(天信) 52

천영(天英) 43

천왕령(天王嶺) 347

천왕봉(天王峰) 245

천우(天雨) 339

천은(天隱) 421
 천인(天因) 34, 37, 42
 천조(天照) 78
 천책(天頤) 22, 34, 37, 43
 천해(天海) 50, 413
 천후산(天吼山) 343
 천희(天熙) 317
 철선(鐵船) 63
 철선소초(鐵船小艸) 40, 63
 청간정(淸澗亭) 324
 청계사(淸溪寺) 64
 청량국사 287
 청련(靑蓮) 337
 청매(靑梅) 47, 50, 54
 청매집(靑梅集) 38, 50
 청성(淸性) 56
 청암사(淸庵寺) 90
 청평사(淸平寺) 233
 청평산(淸平山) 213
 청학(淸學) 38, 51
 청학동(靑鶴洞) 288, 367, 394
 청허(淸虛) 46
 청허당(淸虛堂) 30, 270, 340
 청허당집(淸虛堂集) 38, 46
 체정(體淨) 59
 체조(體照) 40, 58
 초당집(草堂集) 41, 65
 초사(楚辭) 23
 초엄(草廣) 61
 초엄유고(草廣遺稿) 40, 61
 초은대(招隱臺) 84
 초의시고(艸衣詩稿) 61
 충명원(攄明院) 69
 최눌(最訥) 40, 58, 60
 최부(崔搏) 101
 최치원 24
 추계(秋溪) 55
 추봉(秋鵬) 55, 56
 추파(秋波) 59
 추파집(秋波集) 40, 58
 추파홍유(秋波泓有) 59
 축공(竺空) 432
 충지(冲止) 22, 29, 34, 38, 43
 충허대사유집(冲虛大師遺集) 40, 59
 충허(冲虛) 59
 충휘(冲徽) 38, 50
 취미대사시집(翠微大師詩集) 38, 52
 취미(翠微) 52, 53
 취여(取如) 40, 58
 취적봉(吹笛峰) 386
 치능(致能) 41, 63
 치악산(雉嶽山) 374
 칠불암(七佛菴) 367
 침굉(枕肱) 53
 침굉집(枕肱集) 38, 53

탁옹(翁) 487
 坦然(坦然) 22, 34
 태고(太古) 17, 44
 태고암(太古庵) 167
 태고화상어록(太古和尚語錄) 38, 44
 태능(太能) 38, 47, 50
 태백산(太白山) 344, 422
 태안(泰安) 296
 태우(泰宇) 56
 태율(兌律) 57
 태평곡(太平曲) 53
 택행(擇行) 433
 통성암(通性庵) 423
 퇴계(退溪) 351

팔관(捌關) 40, 59
 편양(鞭羊) 47, 51, 54
 편양당집(鞭羊堂集) 38, 51
 포대 172
 포허(抱虛) 48
 표훈사(表訓寺) 262
 풍계(楓溪) 54
 풍계집(楓溪集) 39, 54
 풍담(楓潭) 54
 풍악(楓岳) 57

풍악당집(楓岳堂集) 39, 57
 풍악산(楓岳山) 253, 259, 263, 337, 342
 풍암(楓岳) 271
 풍암세찰(楓岩世察) 58
 피서대(避暑臺) 90

하은(霞隱) 64
 학눌(學訥) 50
 학주(學珠) 412
 학천(學天) 463
 한계집(寒溪集) 39, 53
 한벽당(寒碧堂) 489
 한산(寒山) 178
 한산자(寒山子) 23
 한암(漢岩) 60
 한암성안(寒岩性眼) 58
 한유 262
 함월(涵月) 57
 함월산(含月山) 376
 함허당(涵虛堂) 45
 함허당득통화상어록(涵虛堂得通和尚語錄) 38, 44
 함허(涵虛) 35
 함홍당(涵弘堂) 63
 함홍당집(涵弘堂集) 41, 63
 해동조계제6세원감국사가가송(海東曹溪第六世圓鑑國師歌頌) 38, 43

해봉(海峰) 57
 해봉(海鵬) 60
 해봉집(海鵬集) 40, 60
 해안(海眼) 38, 47, 51
 해원(海源) 56
 해인사(海印寺) 49, 495
 해일(海日) 38, 47
 해활(海闊) 52
 행운(行雲) 330
 행주(行珠) 275
 행준(行俊) 440
 향각(香閣) 409
 향로봉(香爐峯) 246, 359, 422
 향로암(香爐庵) 454
 향엄(香嚴) 300
 허백(虛白) 52
 허백당시집(虛白堂詩集) 38, 52
 허응당(虛應堂) 45
 허응당집(虛應堂集) 38, 45
 허정(虛靜) 56
 허정집(虛靜集) 39, 56
 허한거사(虛閑居士) 50
 현담(玄湛) 104
 현변(懸辯) 50, 53
 현빈(玄賓) 47, 51
 현언시(玄言詩) 23
 현옥(玄昱) 264
 현일(玄一) 53
 형봉(衡峯) 392
 혜건(慧堅) 41, 64

혜근(惠勤) 17, 38, 44
 혜능(惠能) 23, 174
 혜능(慧能) 20
 혜상(惠常) 52
 혜소(惠素) 22, 34
 혜심(惠諶) 19, 22, 25, 37, 42
 혜월(慧月) 65
 혜은(惠崐) 283
 혜장(惠藏) 40, 60
 혜즙(惠楫) 40, 63
 혜초(慧超) 33
 혜충(慧聰) 341
 호독조 340
 호암(虎岩) 57, 59
 호은(好隱) 57
 호은집(好隱集) 39, 57
 호의(綯衣) 63
 혼원(混元) 65
 혼원집(混元集) 41, 65
 홍기(洪基) 41, 63
 홍련사(紅蓮社) 70
 홍류동(紅流洞) 324, 387
 홍법원(洪法院) 70
 홍변(弘辯) 52
 홍유(泓有) 40, 58, 59
 홍인(弘忍) 20
 홍현주(洪顯周) 62
 화개동(花開洞) 335
 화곡(花谷) 61
 화곡집(花谷集) 40, 61

화담(華曇) 64
 화두새 363
 화악(華嶽) 60
 화암사(花嶽寺) 337
 화정(華亭) 307
 환몽(幻夢) 57
 환성(喚醒) 55~57
 환성시집(喚醒詩集) 39, 55
 환암(喚菴) 59, 305
 환암(幻菴) 206
 환응(喚應) 58
 환적(幻寂) 48
 회동(會同) 55
 회동집(會同集) 39, 55
 회심가 17
 회암(檜岩) 56, 357
 회암방장 295
 회암사(檜巖寺) 44, 45
 휴정(休靜) 38, 46, 47, 49~51
 희조(希祖) 103
 희천(熙川) 495



譯注者 역주자

● **李晉燾 이진오**…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같은 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불교문학의 연구』, 『한자 속에 담긴 우리 문화 이야기』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임제 100할』, 『한국고전비평론』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조선후기 불가문학의 유불교섭양상」(박사학위논문), 「원효의 학문방법론과 글쓰기, 그리고 미학」, 「무한성의 추구와 무애 미학」, 「조선조 불가한문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 「형상언어를 통한 불교 경계의 표현과 예술」, 「휴정(休靜)과 유정(惟政)의 지성사적 위상」 등이 있다.

● **金俊浩 김 준호**…부산대 철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HK전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초기불교 선정설(禪定說)의 체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초기불교의 욕망론과 선」, 「사띠 논쟁의 공과」 등이 있다.

● **元良姬 원양희**…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였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미학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시 창작과 시집 및 시 기간지 출판일에 종사하고 있다.





韓國傳統思想書刊行委員會 한국전통사상서간행위원회

●간행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伽山智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圓學 · 기획실장 藏寂 · 勝源(前) · 재무부장 正念

문화부장 修鏡 · 사회부장 世英 ·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玄宗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宗薰 · 불교신문사장 慧慈 · 기획국장 彌燈

●간행위원회 간행위원●

제1팀… 海住 동국대학교 교수

제2팀… 金榮郁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제3팀… 鄭炳三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제4팀… 李晉吾 부산대학교 교수

제5팀… 圓徹 해인총림 강원 前 강사

제6팀… 古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실장

제7팀… 彌山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正德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선임연구원… 金宰晟 · 金鐘仁 · 李洪九

연구원… 權奇燦 · 金惠珍

편집 · 제작… 尙賢淑 · 朴鍾壹





韓國傳統思想叢書 한국전통사상총서

韓國人の歴史와 그 文化의 最古層에 穩연히 자리하고 있는 韓國의 傳統佛敎思想은 우리 精神史의 原型이며 韓民族 數千年 知性史의 基軸이다. 일천칠백여 년간 한국인 그리고 한국 내에서 유구히 전승·축적된 한국의 불교문화와 사상을 代表하는 작품들을 精選하고 한글과 영문으로 주석·번역하여 “한국전통사상총서[불교편]”으로 엮었다. 한국의 불교문화와 사상을 國內·外에 널리 刊行·流通시킴을 目標로 대한불교조계종이 文化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海住	精選 元曉 … 晉譯華嚴經疏序 · 無量壽經宗要 등 17篇
海住	精選 知訥 … 勸修定慧結社文 · 修心訣 · 圓頓成佛論 등 7篇
金榮郁	精選 休靜 … 淸虛堂行狀 · 禪家龜鑑 · 禪教訣 등 5篇
海住	精選 華嚴 I … 華嚴一乘法界圖 · 法性偈 주석 모음 등 7篇
鄭炳三	精選 華嚴 II … 海印三昧論 · 大覺國師文集 등 4篇
鄭炳三	精選 諸敎學 … 三彌勒經疏 · 成唯識論學記 (選) 등 6篇
金榮郁	精選 公案集 … 禪門拈頌說話
金榮郁	精選 禪語錄 … 眞覺語錄 · 白雲語錄 등 4篇
李晋吾	精選 詩選集 … 無衣子詩集 · 湖山錄 등 26篇
鄭炳三	精選 文化 … 往五天竺國傳 · 三國遺事 (選)
圓徹	精選 戒律 I … 梵網經古述記 I
圓徹	精選 戒律 II … 梵網經古述記 II · 菩薩戒本宗要并序
智冠	精選 韓國高僧碑文 … 韓國高僧碑銘 15基

